

와우 스토리 1부 : 아제로스의 새벽 (태초 ~ 1만 2천 년)

처음, 공허가 피어났다.

그것은 어둠의 공백에서 성장했고, 빛과 어우러져 물리 우주를 탄생시켰다.

우주는 '끝없는 어둠(Great Dark Beyond)'이었다.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행성이 탄생했다.

빛과 공허가 뒤섞인 불안정한 에너지는 '뒤틀린 황천(Twisting Nether)'이라는 비현실의 차원도 생성시켰다. 그것은 물리 우주의 경계 바깥에 평행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우주와는 희미하게나마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공허와도 닿아있었다. 뒤틀린 황천은 물리 우주와 차원을 달리했으나 그 불안정한 에너지는 가끔씩 우주의 장막을 찢고 현실로 흘러들어 창조를 왜곡했다.

빛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 생명을 흩뿌렸다. 그중 첫 번째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의 형태는 원소 정령이었다. 불, 물, 바람, 대지, 정기, 부패. 여섯 가지 원소의 영향을 받는 이 생명체들은 거의 모든 물리 세계에 자생했으며 창조의 초기 시대를 열었다.

나루는 신성한 빛으로 이루어진 자애로운 존재였다. 그들은 신성 마법의 능력을 사용해 희망을 퍼뜨렸고, 어느 곳이건 생명을 발견한다면 보살피 주기로 맹세했다.

티탄은 세계혼이라고도 알려진 행성의 내핵 중심에서 형성되었다. 백금 또는 청동 금속 피부를 가진 그들은 창조의 힘을 지닌 채, 우주의 행성들을 관찰하고 여행했다. 나루는 생명을 찾

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티탄의 여정은 아직 세계혼으로써 잠들어 있는 동족을 찾아 깨우기 위함이었다.

공허의 군주들은 그 이름대로 공허에 존재했다. 이들은 충족되지 않는 굶주림에 이끌려 물질 우주의 모든 사물과 에너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리 우주에 개입할 수 없었다. 가장 강력한 공허의 군주만이 물질 우주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 동안만 가능했다.

-147,000년

세계혼(World-soul)으로부터 처음 깨어난 티탄은 아만툴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깨어났는지 알지 못 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동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아만툴은 초기 세계혼을 찾아 행성을 탐험했고, 마침내 동족을 발견해 깨우는데 성공했다. 깨어난 티탄들은 아만툴의 숭고한 탐색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티탄의 무리는 판테온이라 불렸다.

판테온은 동족을 깨우기 위해선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티탄은 본질적

으로 질서와 안정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선 날뛰는 원소 정령을 진정시켰다. 그런 다음 산과 바다를 만들어 세계를 다시 빚어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질서를 세운 세계에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 판테온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혼을 불러내고 세계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판테온은 또한 그들이 빚은 행성의 표면에 거대한 기계를 파묻었다. 혹시라도 진화의 경로가 무질서로 향했을 때에, 이 장치를 통해서 진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생명을 씻어내고 세계를 정화하기 위함이었다. 아만툰은 이 정화 장치를 다룰 존재로 별무리(constellar)라는 신비의 종족을 불러냈다. 이들 별무리는 만약 불안정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비상 복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티탄이 질서를 세운 행성들을 관찰했다.

한편, 끝없는 어둠 우주 머나먼 영역에서는 티탄이 알지 못하는 사악한 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허의 군주들은 행성을 넘나드는 판테온을 지켜보며 그들의 능력을 시기했고, 급기야 세계를 빚어내는 티탄 중 하나를 타락시켜 자신들의 의지를 따르는 도구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강직한 티탄은 그 은밀한 타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장 취약한 상태의 티탄. 즉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계혼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로 마음먹었다.

공허의 군주는 세계혼이 어느 행성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힘을 모은 다음 세계혼이 있는 행성에 달기를 바라며 물리 우주 곳곳에 어둠의 생명체를 흩뿌렸다. 이 공허의 피조물들은 끝없는 어둠 우주를 가로질러 맹목적으로 세계혼을 찾아헤맸다. 이 사악한 존재들은 훗날 고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타락시켰다.

판테온은 공허의 군주나 고대신의 존재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그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 즉 악마에게 쏠렸다.

뒤틀린 황천에서 태어난 그 포악한 생명체들은 끝없는 어둠 우주에서 태어난 생명들과 달리 빛과 공허의 에너지가 서로 뒤섞인 결과로 빚어진 존재들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강한 악의와 증오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급 악마 종족인 나스레짐은 공포의 군주들이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교활하고 조종에 능한 자들로써, 필멸의 문명에 침투해 부족끼리 싸우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즐겼다. 아나ihil란 종족의 또 다른 이름은 지옥의 군주였다. 그들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필멸의 생명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선사했다.

판테온은 이들 악마가 세계혼을 깨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일을 방해할 것을 염려해 가장 강력한 티탄 전사, 살게라스를 급파했다. 부관 역할로 아그라마르도 함께 붙여주었다. 고결한 살게라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업을 주저하지 않고 시행했다. 그의 용기와 힘은 판테온의 구성원 중에서도 독보적이었기에, 악마를 뒤쫓는 험난한 임무에 잘 들어맞았다.

사악한 악마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지만 체계가 없었고 효율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살게라스는 손쉽게 악마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틀린 황천에서 태어난 악마들은 물리 우주에서 퇴치한다고 해도 영혼만은 황천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살게라스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아그라마르가 악마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살게라스는 시간을 갖고 뒤틀린 황천의 성질을

연구했다. 마침내 마르둠이라는 추방의 차원을 만들어낸 살게라스는 퇴치한 악마들을 그곳에 가두었다. 이 소차원의 감옥에 가두어진 악마들은 영원히 고립되어 더 이상 우주에 위협을 가하지 못 했다. 마르둠은 곧 끔찍한 지옥의 에너지로 넘쳐났지만, 덕분에 티탄의 행성들은 번영할 수 있었다.

어느 시기에 살게라스는 우주의 머나먼 구석으로 이끌려 갔다. 검고 메마른 행성에서 차가운 공허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존재가 행성의 표면을 타락시키는 광경을 마주했다. 고대신이었다.

고대신은 행성에 스스로를 파묻은 채 공허의 장막을 드리우고 있었다. 살게라스는 그 어둡고 사악한 존재가 행성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잠든 티탄의 영혼, 세계혼을 어둠 속으로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윽고 한 무리의 나스레짐이 고대신의 어두운 힘을 받기 위해 이끌려오자, 살게라스는 그들을 붙잡아 심문했다. 악마들은 곧 공허의 군주와 고대신에 대해 아는 것들을 털어놓았다. 만약 공허의 힘이 발생 초기의 티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한다면 티탄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로 깨어날 것이며, 그 뒤틀린 티탄은 공허의 군주의 의지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힘은 판테온조차 맞서지 못할 것이라 했다.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전사 살게라스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분노와 괴로움에 사로잡힌 살게라스는 비통한 심정으로 즉시 검을 들어 타락한 행성을 두 동강 냈다. 곧 폭발이 이어지며 세계혼도 함께 소멸했다. 어둠에 물든 티탄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살게라스는 즉각 이 일을 판테온과 동족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공허의 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하지 못했고, 오히려 왜 성급히 세계혼을 파괴했느냐며 살게라스를 나무랐다.

살게라스와 다른 티탄 사이에 논쟁은 곧 격화되었다. 살게라스는 공허의 군주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모든 창조물을 불태우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 우주에서 오염을 거두고 나면 생명은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판테온 구성원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을 뿐이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모두가 반대했다.

살게라스는 판테온이 영원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공허의 군주가 일으키는 타락을 정화하는 작업은 혼자서 해야 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살게라스는 동족들을 등지고 뛰쳐나갔다. 그것이 판테온의 티탄들이 살게라스를 자신의 동료로서 마주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65,000년

긴 시간이 흘러 우주에는 더 이상 세계혼을 품은 행성이 없는 듯했다. 그러던 차에 끝없는 어둠의 외진 구석에서 어린 행성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행성의 깊은 곳에서는 강력하고 고귀한 티탄의 영혼이 생명을 품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훗날 아제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행성이었다. 아제로스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세계혼보다도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제로스 역시 초기 티탄이 내핵에서 성장하는 동안 행성 표면은 원소 정령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네 정령 군주는 수많은 하급 정령들을 부리며 군림했다. 불의 정령 군주 라그라노스, 바람의 군주 알아키르, 바위 어머니 테라제인, 파도사냥꾼 넵톨론.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욕망은 그저 아제로스에 펼쳐진 끝없는 혼돈의 순환을 지속하는 것뿐이었다.

정령 군주들이 태고의 소란을 즐기는 동안 끝없는 어둠에서 한 무리의 고대 신이 아제로스에 떨어졌다. 그들은 아제로스의 표면에 충돌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그들에게 있어 잠재력 강한 아제로스는 타락시키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고대 신들은 마치 거대한 종양처럼 아제로스의 대지에 타락의 기운을 퍼뜨렸다. 고대 신의 촉수는 아제로스의 표면을 뚫고 내핵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그들의 황폐한 몸에선 사악한 생체 물질이 흘러나왔다.

고대 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체 물질은 두 가지 독특한 종족을 탄생시켰다. 첫 번째는 교활하고 지능적인 느라키, 즉 '얼굴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종족이었다. 두 번째는 집요한 곤충 종족 아퀴르였다. 이 두 종족은 고대 신에게 광적인 충성심을 보이며 주인을 섬겼다.

이들은 곧 아제로스 대륙의 중심부에 검은 제국이라는 최초의 문명을 탄생시켰다. 고대신 이 샤라즈의 영토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 문명의 출현은 정령왕들의 적대감을 키웠고, 곧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네 명의 정령왕은 협력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미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그들을 상대하기엔 정령들의 힘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령왕들은 고대 신에게 감염되어 그들의 수족이 되고 만다.

한편, 티탄 아그라마르는 살게라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홀로 계속해서 황천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고 언젠가 살게라스가 돌아와 다시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그라마르는 우주의 외진 구석에서 마침내 아제로스를 발견했다. 아제로스의 심장부에는 분명 동족이 잠들어 있었고, 게다가 이제까지 만난 어느 세계혼보다도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세계혼은 너무도 강력해 활동의 흔적이 행성의 표면까지 전해졌고 아그라마르는 소리만으로도 세계혼의 꿈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아제로스를 살펴본 순간 아그라마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제로스의 표면이 병든 피부처럼 공허의 에너지에 물들어 있었다. 황폐한 땅에는 고대 신과 검은 제국이 솟아나 있었다. 어린 티탄의 영혼이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아그라마르는 그 영혼이 공허에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리라 생각했다.

아그라마르는 판테온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그것은 공허의 군주와 그들의 계획에 관한 살게라스의 이야기가 옳았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아그라마르는 티탄들에게 아제로스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탄 이오나는 고대 신의 사악함에 놀라는 한편 아제로스의 잠재력에 더욱 주목했다. 그녀는 아제로스가 타락할 경우 살게라스를 능가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티탄으로 잘 성장해 깨어나준다면 자신들에게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되어 공허의 군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판테온은 이오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제로스를 예전 살게라스가 했던 것처럼 파괴하지는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고대 신에게 감염된 행성을 정화하고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티탄들은 우선 거인 종족과 수호자들을 창조해 군대를 조직했다. (* 수호자 : 거인 종족의 우두머리. 티탄 감시자, 또는 티탄 관리인이라고도 부른다. 로켄, 오딘, 라, 토림, 호디르, 프레야, 미미론, 티르, 아카에다스 등등이 있다.) 이들 수호자들은 거인들을 이끌고 검은 제국의 최북단 요새부터 강타했다.

고대 신들은 먼저 자신들이 감염시킨 불사의 정령왕들을 내보냈다. 하지만 수호자들은 그들을 소차원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 가두어버렸다. 과거 살게라스가 마르둠 차원을 만들어 황천의 악마들을 가둔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이어서 수호자들은 검은 제국의 아퀴르 군단에 눈을 돌렸다. 곤충류인 아퀴르의 상당수는 지하에 구축한 거대한 땅굴에 살고 있었다. 수호자들은 흙과 바위를 움직여 아퀴르의 동굴을 무너뜨렸다. 결국 동지에서 내몰린 아퀴르는 소수만이 살아남아 패퇴했다.

수호자들은 마지막으로 검은 제국의 심장부를 둘러싼 느라키들을 조각내며 고대 신이 위치한 핵심부로 진입했다. 판테온은 피조물들이 고대 신들에게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직접 그들을 상대했다.

아만툴은 거대한 팔을 들어 아제로스의 표면에서 고대 신 이샤라즈를 뜯어냈다. 이샤라즈의 거대한 몸통은 산산조각 났고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이샤라즈의 촉수는 아만툴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었다. 때문에 어린 티탄의 생혈인 비전 에너지가 상처에서 솟구쳐 나와 사방에 흘렀다. 아만툴은 당황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고대 신을 처치했다간 아제로스도 무사하지 못 했다.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방법이었다.

판테온은 고민 끝에 사악한 고대 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봉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수호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했다. 그들은 필사의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나머지 고대 신인 크툰, 느조스, 요그사론을 모두 아제로스 깊은 곳에 봉인하는데 성공했다.

아제로스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고대 신이 남긴 상처는 끔찍했다. 아제로스에 새겨진 상처, 그 거대한 틈에선 비전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아제로스 전역으로 퍼져 갔다. 티탄들은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그 에너지가 점차 아제로스를 집어삼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호자들에게 '창조의 기둥'이라는 유물을 주어 그들이 직접 아제로스를 치유하고 빚어낼 수 있도록 했다.

수호자들은 밤낮으로 매달려 벌어진 틈으로 분출하는 생혈을 막을 마법의 수호물을 만들었다. 결국 맹렬히 솟구치던 에너지는 잦아들었고 균형을 찾았다. 상처가 있던 자리에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호수만이 남았다. 수호자들은 그것을 영원의 샘이라 불렀다.

영원의 샘은 그 신비로운 힘으로 고통받는 아제로스의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이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도록 도왔다. 수호자들은 아제로스에 더욱 기운을 불어넣고 생명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지의 용광로와 시초의 용광로를 만들었다.

그들은 먼저 아제로스의 북쪽에 '의지의 용광로'를 설치하고 그것을 보호할 요새 울두아르를 건설했다. 또한 울두아르에는 의지의 용광로는 물론 요그사론의 감옥이 있었기에 티탄의 피조물이자 강철 피부를 가진 용맹한 전사 브리쿨로 하여금 요새를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의지의 용광로는 아제로스에서 생명의 정수를 끌어모아 바위와 강철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을 형성했다. 바위 피부를 지닌 아누비사스, 맹수를 닮은 톨비르, 불굴의 모구, 기괴한 트로그가 바로 그들이었다.

수호자들은 아제로스 남단에서 발견한 이샤라즈의 심장을 연구하여 공허의 피조물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심장을 남쪽 영원꽃 골짜기 지하에 이샤라즈의 금고를 만들어 가둔 다음 모구들에게 감시하도록 했다.

이어서 그들은 아제로스 정화 기능을 맡을 '시초의 용광로'를 만들고 그것을 보호할 요새 울둠을 건설했다. 울둠을 지킬 역할로는 톨비르를 배치했다. 동쪽의 땅에는 티탄의 금고 울다만에 실패작 피조물인 트로그들을 수용시켰다. 마지막으로 서쪽에 고대 신 크툰을 감시할 요새 안퀴라즈까지 건설해 아누비사스를 배치했다.

수호자들은 다음으로 아제로스의 표면을 재형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의지의 용광로에서 태어

난 또 다른 티탄의 피조물 토석인들은 산을 만들거나 땅을 깎는데 특기가 있었다. 수호자 미미론이 설계한 기계 노움들은 기계장치의 제작을 돕거나 보수를 담당했다. 거대한 몸집의 거인들은 아제로스에 강과 물길을 만들고 심해의 바닥을 빚었다.

아제로스가 상처를 치유하고 제 모습을 갖춰가자, 수호자 프레이야는 아제로스에 유기 생명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프레이야는 영혼과 자연 마법의 차원 에메랄드의 꿈을 만들었다.

이 차원은 아제로스의 복제 형상으로 작용하면서 동식물의 진화 경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많은 영혼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에메랄드의 꿈을 채웠고 그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즐거이 뛰놀았다. 이 신비로운 꿈은 현실에 관한 필멸자의 인식을 부정했다. 시간이나 거리와 같은 개념은 없었기에 현실에서의 하루가 에메랄드의 꿈에서는 수십 년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프레이야는 에메랄드의 꿈을 만든 이후에도 아제로스를 떠돌며 영원의 샘에서 나온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그 마력의 장소에 자연의 군락을 조성했고, 그곳에서 위대한 생명체가 자연스레 출현했다. 야생 신이라 불릴 거대한 동물들이었다.

야생 신들의 발자국에서는 무성한 숲과 초원이 자라나곤 했다. 특히 하이잘 산의 무성한 숲은 야생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프레이야는 야생 신들의 사랑스러운 영혼을 에메랄드의 꿈에 결속시켰다. 야생 신들은 그 에테르 영역에 굳게 연결되어 아제로스의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제로스에는 계속해서 피와 살을 지닌 낮은 생명체들이 자연 발생했다. 원시 용이 그러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러했다. 어느 황혼이 지던 저녁, 티탄이 버려낸 피조물들은 스스로 빛은 이 세계를 '영원한 별빛의 땅', 즉 칼림도어라 이름 지었다.

판테온은 수호자들의 노력에 만족하여 아제로스를 떠났다. 우주에 아직 세계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금 탐험의 열정에 차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별무리 종족인 관찰자 알갈론을 두어 만약의 경우 행성이 또다시 오염되면 시초의 용광로를 작동시켜 행성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르간논의 원반을 두어 언젠가 판테온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아제로스에서 일어난 일의 기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혼이 자연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제로스에 가장 번성한 생명체는 원시용이었다. 그들은 다채로웠고 강력했다. 아제로스의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점차 다른 생명체 위에 군림했다. 그중 가장 파괴적인 힘과 잔혹함을 보인 원시용은 단연 갈라크론드였다. 아제로스의 하늘을 가른 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시용은 채울 수 없는 굽주림으로 칼림도어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심지어 다른 원시 용마저 먹어치워 칼림도어의 하늘을 공포로 뒤덮었다.

수호자 티르는 갈라크론드의 위협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칼림도어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위대하고 지적인 다섯 원시용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들의 이름은 알렉스트라자, 넬타리온, 말리고스, 이세라, 노즈도르무였다. 이 다섯 원시용은 혈통도 달랐고 각자 고유한 능력도 달랐다. 하지만 티르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티르의 인도에 따라 다섯 용은 칼림도어의 하늘에서 갈라크론드와 섞이고 부딪혔다. 그의 썩은 내 나는 이빨은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가죽은 단단했다. 하지만 다섯 용의 일사불란한 협력은 마침내 이 거대한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갈라크론드의 시체는 얼어붙은 툰드라에 추락했고, 이 협력의 쾌거는 칼림도어에 교훈이 되었다. 알렉스트라자와 다른 원시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결하고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티르는 다른 수호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다섯 원시 용이 앞으로도 아제로스의 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력을 부여해달라고 설득했다. 그의 노력으로 모여든 수호자들은 다섯 용에게 판테온의 축복을 내렸다.

생명을 보살피는 수호자 프레이야는 알렉스트라자에게 티탄 이오나의 권능을 부여했다. 이후부터 알렉스트라자는 생명이 넘치는 아제로스의 청지기가 되었다. 또한 가장 큰 용기와 연민을 인정받아 다른 동족들을 다스리는 용의 여왕이 되었다. 이세라는 아제로스와 에메랄드의

꿈에서 자라나는 야생 동식물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에테르 영역인 에메랄드의 꿈에 결속되어 끝없는 잠에 빠져들었고 이후 꿈의 여왕으로 알려졌다. 수호자 라는 노즈도르 무에게 티탄 아만톨의 수많은 능력 중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했다. 수호자 로켄은 말리 고스에게 티탄 노르간논의 비전 마력을 부여해 마법의 지배자로 만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수 호자 아카에다스는 넬타리온에게 티탄 카즈고로스의 힘을 부여해 대지의 수호자로 탄생시켰 다. 다섯 용은 이른바 용의 위상으로써 아제로스의 수호를 맹세했다.

-25,000년

살게라스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공허의 군주가 이미 다른 세계혼들을 대부분 타락시켰을 것 이라는 공포가 그를 휘감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공허의 군주가 창 조물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면 생명 자체가 사라져야 했다.

살게라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선 대규모 군대가 필요했다. 그가 알기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였다. 추방의 차원 마르둠. 살게라스는 마르둠의 차원을 찢어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와 함께 응축되어있었던 황천 지옥의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 끔찍함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살게라스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 그의 영혼을 불태웠다. 두 눈은 불꽃의 덩어리가 되어 타올랐으며, 한때 고귀했던 육체는 갈라지고 불타올 랐다. 더 이상 그에게서 고결했던 티탄 전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살게라스는 끝없는 어둠 우주와 뒤틀린 황천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무시무시한 천체의 주둥이가 에메랄드 불꽃의 폭풍을 일으키며 현실의 결을 찢고 들어왔다. 그 균열에서, 온갖 악마들이 포효하며 쏟아져 들어왔다. 살게라스는 그들을 규합해 자신의 군대로 재정비했다. 악마들은 앞으로 그가 보장할 파괴의 앞날에 기뻐했다. 살게라스는 이들을 통해 공허의 군주의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리라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불태울 성스러운 투쟁. 불타는 성전이 선포되었다.

불타는 군단은 첫 번째 행성을 덮쳤다. 아주 오래전에 판테온이 정돈한 적이 있는 행성이었다. 살게라스의 군단은 그곳에서 필멸의 문명들을 불태웠고 의식이 있는 수십 종의 생명체를 말살했다. 행성을 지켜야 했던 별무리도 어찌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별무리의 최후를 처음 인지한 이는 티탄 아그라마르였다. 아그라마르는 불타는 군단이 또 다른 행성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되었다. 자신의 스승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 살게라스였다.

아그라마르는 눈을 의심했다. 살게라스는 그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파괴를 계속했다. 그저 자신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불타는 군단의 불길에 사라질 것이라 경고할 뿐이었다. 아그라마르는 그에게 맞서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일단 돌아가 판테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판테온의 모든 티탄은 충격받았다. 가장 위대하고 고결했던 티탄의 전사가 저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아만툼은 살게라스에게 아제로스의 존재를 알려 주며 그 세계혼이 언젠가 깨어나면 공허의 군주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해보았다. 하지만 살게라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에게 일말의 고결함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해 검을 내려놓고 다가왔던 아그라마르의 몸을 두 동강 내기까지 했다.

분노한 판테온은 살게라스와 불타는 군단에게 총공격을 감행했다. 그 격렬한 에너지에 별들은 죽어 갔고 우주에는 거대하게 늘어진 상처가 새겨졌다. 하지만 지옥에서 힘을 끌어올린 살게라스는 거대한 지옥 폭풍으로 판테온의 육체를 집어삼켰다. 수십만 년간 전투만을 해온 살게라스와 그의 군단에게 티탄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다. 티탄 노르간논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판테온 티탄들의 영혼에 보호의 장막을 덧씌웠다. 그리고 끝없는 우주의 어둠 속으로 날려 보냈다. 직후 살게라스의 지옥 폭풍은 그들의 남은 육체를 소멸시켰다.

살게라스는 승리를 선언했다. 이제 판테온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제로스라 불리는 강력한 세계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살게라스는 아제로스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마음먹었다.

불타는 군단은 비록 승리했지만 전투의 손실이 심각했다. 이번 전투로 군단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들에겐 전략적인 지성을 가진 지휘관이 없었다. 살게라스가 알기로, 그가 그동안 우주에서 발견한 종족 중에서 가장 지성이 뛰어난 종족은 아르거스 행성에 거주하는 에레달 종족이었다.

에레달 종족은 끊임없이 지식을 갈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 문명과 철학을 선물한 것은 나루 종족이었다. 에레달 종족은 나루가 선물한 '아타말 수정'을 통해 수도 없이 명상에 빠져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식과 지혜, 우주의 위대한 질문을 고민하는 철학을 갖췄다.

에레달은 세 명의 지도자가 이끌었다. 이들은 무력이나 공포 없이 효과적인 삼두 정치를 해왔다. 킬제덴은 세 지도자 중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명하고 빈틈없는 정책으로 에레달을 번영시켰다. 아키몬드는 강한 카리스마와 담대한 리더십으로 동족들을 규합했다. 벨렌은 종족의 정신적 지주로써 흔들림 없는 평화적 지혜를 보였다.

살게라스는 이들의 능력이 꼭 필요했다. 살게라스가 빛을 내뿜는 우아한 존재로 위장하고 교감을 시도하자, 그들은 반응을 보였다. 살게라스는 에레달이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약속했다. 우주의 비밀, 창조의 근본적 결함, 그 최종적인 답을 알려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에레달이 다스릴 수많은 행성을 보여주었다. 에레달이 지적 사고로 가득한 평화적 안식처로 변화시킬 원시 행성들이었다.

그 제안은 킬제텐과 아키몬드의 마음을 움직였다. 실로 탐나는 제안이었다. 살게라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대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하지만 벨렌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딘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신성한 나무가 선물한 아타말 수정을 통해 명상에 들었다. 그러자 미래의 계시가 보였고, 그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평화적이고 지적이었던 에레달의 동족들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벨렌은 자신이 보았던 미래를 형제들에게 전하며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달콤한 약속에 빠져든 킬제텐과 아키몬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절망한 벨렌이 낙담하고 있던 순간, 아타말 수정을 통해 그에게 계시를 전했던 나무 족 크우레가 다가왔다.

크우레는 벨렌에게 가까운 동족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전했다. 벨렌은 그의 말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에레달 사람들을 모아 탈출을 시도했다. 살게라스가 직접 아르거스 행성에 도착한 그때, 벨렌과 그의 추종자들은 '제네달'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 차원 성채에 올라 고향 행성을 떠났다. 그날 이후 이 벨렌의 무리는 '추방당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드레나이로 불렸다.

얼마 후 아르거스에 강림한 살게라스는 나머지 에레달을 완벽히 타락시켰다. 그의 부정한 의지는 아르거스인들의 마음에 깃들어 이성적인 사고를 무너뜨렸고, 또한 지옥의 에너지를 주입해 흉측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살게라스는 킬제텐의 타고난 치밀함과 지성을 불타는 군단에 맞게 개조했다. 이후 '기만자'라 알려진 킬제텐은 자신의 기지를 활용해 물리 우주에 있는 필멸의 문명들을 불타는 군단의 앞잡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살게라스는 또한 주위 동료의 의욕을 고취하는 아키몬드의 재능이 불타는 군단을 강화하는 귀중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키몬드는 그 이후

'파멸자'라고 알려졌고 그의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 악마의 군대를 극단적인 폭력과 야만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에레달의 지휘 하에 불타는 군단의 병력은 뒤틀린 황천과 끝없는 어둠의 행성에서 새로운 악마 종족을 규합하며 점점 증가했다. 살게라스는 급증하는 병력에 기뻐하며 악마들을 대우주로 보냈고 창조를 끝장낼 불타는 성전을 재개했다. 불타는 군단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행성과 문명을 불태우며 존재의 흔적을 지워 나갔다.

육신을 떠난 판테온 티탄들의 영혼은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을 향해 날아갔다. 판테온은 아제로스에서 깃들 육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그릇이 될 생명체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약해진 영혼이 곧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두려운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티탄의 영혼들은 힘이 크게 빠진 채 아제로스에 도착해 우선 자신의 손으로 창조했던 수호자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수호자들은 마음속에서 티탄의 힘이 이는 것을 느끼고 바로 압도되었다. 그러나 그 힘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희미해졌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원래 성격을 유지했으며 그 이상한 현상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은 창조자의 마지막 흔적이 자신들의 몸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답을 주지 않는 판테온의 긴 침묵에 혼란과 불안을 느꼈을 뿐이었다.

울두아르에 갇혀 있던 고대 신 요그사론은 수호자들의 그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나약함을 보이자, 우선 가까이서 울두아르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수호자 로켄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그의 타락을 유도했다.

로켄의 타락은 그의 은밀한 사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로켄의 형이자 수호자 토림은 브리쿨 여성 시프를 아내로 맞이했었다. 그러나 로켄은 비밀스럽게 시프를 만나며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고, 이 감정에 들러붙은 요그사론의 사악함은 급기야 로켄이 시프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게 만들었다.

요그사론은 시프의 환영으로 로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로켄의 이성을 점점 마비시켜 아무것도 모르는 토림을 울두아르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요그사론은 울두아르 '의지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티탄의 피조물들에게 육체의 저주를 은밀히 퍼뜨렸다. 이 기이한 병은 감염자를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필멸자로 바꾸어버리는 무서운 저주였다.

로켄은 그제서야 자신이 요그사론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을 수습하기보다는 점점 자신의 죄악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그것이 요그사론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로켄은 울두아르에 봉인된 요그사론의 힘을 쓸 수 있다면 남은 수호자들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의 증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켄은 먼저 수호자 오딘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그동안 오딘은 자신만의 영역과 강한 군대를 만들곤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의 수양딸 헬리아의 도움을 받아 울두아르의 한 구역을 떼어 공중으로 띄웠고, 그곳을 용맹의 전당이라 불렀다. 그리고 브리쿨들에게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용맹을 증명한 자는 용맹의 전당에서 '발라자르'라는 위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브리쿨의 영혼을 전당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을 자들이 필요했다. 오딘은 헬리아를 강제로 '발키르'라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그 역할을 맡겼다. 헬리아는 자신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오딘을 증오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

로켄은 이 증오를 품은 헬리아에게 접근했다. 오딘이 건 복종의 사슬을 끊어주는 대가로 용맹의 전당을 봉인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대로 자유의지를 되찾은 그녀는 오딘과 발라자르들을 전당과 함께 봉인한 후 그 자신은 헬하임이라는 안식처를 만들어 은거했다. 이후 죽은 브리쿨들의 영혼은 헬하임의 저주를 받아 '크발디르'가 되었다.

토림은 떠나고 오딘은 봉인되었다. 로켄의 다음 목표는 수호자 미미론이었다. 그동안 수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었던 미미론은 로켄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가장되어 처리당했다. 미미론의 충성스러운 기계 노움들이 미미론의 영혼을 거대한 기계 몸에 서둘러 주입했지만 영혼에도 상처를 입은 미미론은 스스로를 울두아르의 거대한 작업장에 가둔 채 태엽장치 발명 따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점차 요그사론의 힘을 더 많이 받아들여 세를 불린 로켄은 이어서 수호자 프레이야와 호디르의 군대를 상대로도 승리했다. 두 수호자는 울두아르 내부에 감금되었다.

남은 수호자 중 세 명, 티르와 아카에다스, 아이로나야는 근처 폭풍우 봉우리로 몸을 피했다. 울두아르를 완전히 장악한 로켄은 의지의 용광로를 망가뜨리고 성채를 봉인했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끝에 있는 대수호자 라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라는 그동안 판테온이 죽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좌절한 그는 자신의 몸에 남아 있는 티탄 아만툴의 힘을 추출해 영원꽃 골짜기 지역 산속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다. 그는 위대

한 창조자가 남긴 작은 흔적이 그곳에서 보존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북쪽에서 일어난 동료들의 사건에 관심을 끊은 채 조용히 은거했다.

수호자 티르는 절치부심했다. 그는 과거 갈라크론드를 쓰러뜨렸던 다섯 용의 위상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 로켄은 자신이 창조한 화염거인과 용암 골렘, 호전적인 브리쿨 부족 '윈터스코른', 그리고 마법 올가미를 통해 원시 용군단까지 노예로 삼아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 용들까지 건드린 것에 분노한 용의 위상들은 그들에게 주저 없이 마력을 쏟아부었고, 마침 점차 육체의 저주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브리쿨들은 위상들의 위압적인 공격에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윈터스코른 전쟁에서 승리한 티르는 로켄이 있는 울두아르 성채에 눈을 돌렸다. 그가 다음으로 생각한 든든한 우군은 관찰자 알갈론이었다. 그에게 로켄의 악행을 알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로켄을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선 먼저 아제로스의 역사가 기록되는 '노르간논의 원반'을 얻어야 했다. 울두아르 성채에 몰래 잠입한 티르는 계획대로 원반을 훔쳐 달아났다.

로켄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티르 무리가 알갈론에게 원반을 보여준다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절박한 심정이 된 로켄은 기어코 고대 신의 수하였던 '크트락시(느라키의 장군들)'에게까지 손을 빌렸다. 크트락시 자카즈와 키틱스는 검은 제국에서 활약했던 잔혹한 괴물들이었다. 두 괴물은 로켄의 마음속에서 요그사론의 흔적을 읽고 기꺼이 그의 명령에 따라 티르 무리를 추적했다.

티르 일행은 동쪽의 어느 숲에 도착했다. 크트락시가 그들을 추적해오자, 티르는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그들과 싸웠다. 비전 에너지와 암흑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숲을 갈랐다. 결국 티르는 남은 모든 힘을 방출해 생명력을 대가로 눈부신 비전 에너지의 폭발을 일으켰다. 그 충격은 아제로스의 지축을 흔들 정도였다.

티르는 죽었다. 자카즈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사망했고, 키틱스만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남아 저 멀리 서쪽으로 도망쳤다. 수호자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구덩이 주위의 숲을 티르가 쓰러졌다는 뜻을 담아 '티르의 몰락지'라고 부르며 그의 명예를 기렸고, 그 이름은 브리쿨의 언어로 티리스팔이 되었다.

티르와 함께 망명하던 브리쿨들은 티리스팔에 남았다. 수호자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토석인과 기계 노움들을 데리고 동쪽 끝 울다만으로 향하여 그곳에 노르간논의 원반을 숨겼다. 하지만 이들 티탄의 피조물들은 점차 육체의 저주 징후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급기야 토석인들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후일을 기약하며 울다만에서 스스로 동면에 들어갔다.

로켄은 노심초사했다. 비록 티르는 죽었지만, 노르간논의 원반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봉인된 울다만을 쳐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로켄은 가짜 원반을 직접 만들어 울두아르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리고 알갈론을 직접 불러낼 수 있는 교신 장치를 모두 파괴했다. 이제 알갈론을 불러내는 방법은 울두아르의 제1관리자인 자신이 죽는 것뿐이었다. 혹시나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가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면, 알갈론은 로켄이 만들어놓은 가짜 원반(로켄의 과오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시킨 원반)을 보고 아제로스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것이다. 그 정도면 로켄에게도 만족할 만한 복수였다.

브리쿨 부족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갈라져 왔다. 그들 중 일부인 윈터스코른 부족은 용의 위상에 의해 대다수 멸족되었고, 일부 브리쿨의 영혼은 저 구름 위 용맹의 전당에 봉인되었다. 또 일부는 티리스팔 숲에 남았다.

브리쿨의 왕 이미론이 통치하는 용약탈 부족은 아직 아제로스 북부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원

시 용을 사냥의 동반자로 삼아 사나운 곰 종족들을 몰아내고 북부에 확실히 정착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육체의 저주 탓에 용악탈 부족의 여인들은 작고 기형적인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미론 왕은 급기야 그 아이들을 죽여서 부족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한 잔혹한 명령을 따르지 못한 몇몇 부족원들은 갓난 아이들을 티리스팔에 있는 브리쿨들에게 몰래 맡기고 떠났다.

수 세대 동안 육체의 저주에 걸린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계속 퇴화를 거듭해 인간이라 불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다. 기계 노움은 노움으로, 토석인은 드워프로. 그 외에도 톨비르, 모구, 거인 등 다른 티탄의 피조물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아주 극소수만이 그 고통을 물리칠 수 있었다. 요그사론은 흡족한 마음으로 탈출에 집중했다. 이제 고작 수천 년만 기다리면 되었다.

한편, 초목이 우거진 칼림도어의 중심부. 비전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영원의 샘 근처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트롤이라 불렀다.

-16,000년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생명이 만개한 칼림도어에 가장 먼저 활발한 활동을 보인 건 트롤들이었다. 아제로스의 숲과 밀림에서 번성한 그들은 놀라운 신체 회복 능력과 민첩성을 자랑했다. 또한 이들은 야생 신들을 '로아'라 부르며 숭배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집단성을 보인 건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잔달라 부족이었다. 이들은 영원의 샘 남쪽 산맥 고원에 사원을 짓고 그곳을 줄다자르라 이름 지었다.

최초의 트롤, 잔달라 부족

잔달라 부족의 결집 이후에도 트롤은 구루바시 부족, 아마니 부족, 드라카리 부족 등 여러 부족이 따로 두각을 보이며 칼림도어의 무성한 숲 지대를 장악했다.

어느 날 일군의 트롤 무리가 로아에 의해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서 돌무덤 하나를 파헤쳤다. 그것은 과거 수호자 티르와 싸우고 도망쳤던 크트락시 괴물 키텍스가 잠들어있던 곳이었다.

깨어난 키텍스는 검은 제국의 몰락 이후 지하 땅굴에 들어가 숨어있던 아퀴르 종족을 불러냈다. 키텍스는 경멸스러운 트롤 문명을 쓸어버리고 위대한 고대 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제로스의 패권을 되찾고자 했다.

아퀴르 종족 중 일부는 고대 신 요그사론이 봉인되어있는 대륙 북쪽에 나타나 지하 왕국 아즐네롭을 건설했다. 그들은 요그사론의 영향을 받아 거미족 네루비안으로 변형되었다.

또 한 일부는 대륙 남서부에 있는 고대 신 크툰의 영향을 받아 귀라지라 불리는 종으로 진화되었다. 귀라지들은 아누비사스들을 타락시키고 크툰의 봉인처 안퀴라즈에 등지를 틀었다.

대륙 남쪽으로 간 아퀴르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대 신 이사라즈의 정수를 받아들여 사마귀라는 종으로 변형되었다. 사마귀들은 영원꽃 골짜기 근처에 거대한 군락 만티베스를 세우고 이사라즈의 금고를 감시하는 모구 종족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벌였다.

트롤들은 점차 세를 불리는 그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다. 잔달라 부족은 트롤 연합 '줄 제국'을 선포하고 야생 신 로아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키텍스를 비롯한 적의 핵심 세력을 격파했다.

아마니 부족은 북동쪽으로 도망친 키텍스와 아퀴르 잔당들을 추적해 완전히 끝장냈다. 그리고 다시는 땅굴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영토 위에 거대한 줄아만 제국을 세웠다. 이후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여 숲 트롤이라 불렀다.

구루바시 부족은 남서쪽 안퀴라즈에 있는 귀라지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귀라지와는 전

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흩어져 줄파락과 줄구릅이라는 터전을 세웠다. 이들은 훗날 각각 정글 트롤과 모래 트롤이라 불렸다.

드라카리 부족은 대륙 북부의 네루비안들을 쫓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줄드락이라는 군락을 세워 네루비안들을 견제했다. 드라카리 부족은 얼음 트롤로 변화되었다.

세력은 소소하지만 어둠이빨 부족이라는 트롤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트롤 분파와 달리 도시를 세우지는 않고 하이잘 산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아 달빛을 좋아하는 야행성 어둠 트롤로 진화되었다.

아퀴르 세력이 분열되고 그 위에 트롤 문명이 자리 잡자 전쟁은 소강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칼림도어 남쪽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15,000년 ~ -12,000년

그동안 모구가 거주하는 영원꽃 골짜기에선 새로운 종족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짓궂은 원숭이 종족 호젠, 물고기를 닮은 종족 진위, 유목 생활을 해온 야생 소 종족 야운골, 작은 몸집의 그루멀, 야만적인 파충류족 사우록, 그리고 무엇보다 두각을 보인 건 뛰어난 지성과 지혜를 갖춘 판다렌 종족이었다.

영원꽃 골짜기의 생명들을 인도한 건 네 명의 야생 신이었다. 옥룡 위론, 백호 쉬엔, 주학 츠지, 흑우 니우짜오. 판다렌들은 이들 반신들을 자애로운 신으로 여기며 '위대한 천신회'라 칭했다.

이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모구 종족은 점차 가속화되는 육체의 저주와 사마귀 종족의 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마귀 종족은 알을 낳고 침공하는 식으로 100년 주기마다 한 번씩 모구들을 힘들게 했다.

모구 족의 젊은 전사 레이 셴은 대륙을 떠돌며 배신과 분열로 몰락해가는 모구들에 대해 깊게 사색했다. 답을 갈구하던 그는 이윽고 과거 모구들을 영원꽃 골짜기에 정착시켰던 대수호자 라덴('라'를 모구들은 라덴이라 부른다.)을 찾아갔다.

티탄의 죽음을 느낀 이후 골짜기 지하 석굴에 은거하고 있었던 라덴은 레이 셴을 아만툰의 힘을 보관한 장소로 데려가 '창조주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레이 셴은 라덴과 달리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라덴이 어떤 위대한 목표를 갖고 모구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그저 무기력한 좌절에 빠져 은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다. 레이 셴은 돌연 라덴을 공격해 무력화한 다음 천둥산에 가두었다.

레이 셴은 라덴의 힘, 그리고 위대한 아만툰의 힘까지 차지했다. 그의 영혼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밀려들었다. 그는 즉시 모구 부족으로 돌아와 자신을 '천둥왕'이라 칭하고 갈라져 있던 모구 종족을 하나로 평정했다.

레이 셴은 일부 모구들의 육체의 저주를 되돌리기까지 했다. 또한 거대한 성벽 '용의 척추'를 쌓아 지긋지긋한 사마귀 종족의 위협으로부터도 어느정도 해방시켜주었다. 모구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으나 곧 환호했고, 레이 셴의 통치 아래 번영을 갈구했다. 그것은 모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제국의 탄생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른 종족에게는 폭정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레이 셴은 영원꽃 골짜기 주위에서 노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 진위 종족은 그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결국 무너졌다. 호젠 종족은 스스로 모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판다렌 종족은 야생 신 쉬엔의 힘을 빌려 맞서보았으나 티탄의 힘을 흠친 레이 셴을 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천둥왕의 이름 아래 영원꽃 골짜기의 모두가 언어를 비롯한 문명을 철저히 파괴당하고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모구 제국은 곧 다른 문명의 주의를 끌었다.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잔달라 트롤들은 모구들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아제로스 정복자로서의 연대를 주장했다. 그들은 모구에게 아제로스 전반의 환경적인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야육에 차있던 천둥왕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연합은 먼저 영원꽃 골짜기 서쪽에 위치한 울둠에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울둠에 있는 시초의 용광로와 톨비르들을 수중에 넣는다면 아주 강력한 전력이 되리라 판단했다.

잔달라 트롤과 모구의 야육에 찬 동맹

하지만 톨비르들은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천둥왕이 대수호자 라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비록 그들은 전력 상으로 모구와 잔달라 연합을 상대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시초의 용광로가 있었다. 톨비르들은 용광로 출력을 조정하여 아제로스 전체가 아닌 주변 지역에만 영향이 가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천둥왕 연합이 가까이 왔을 때, 용광로를 가동시켰다.

그날, 울둠 주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즉사했다. 울둠 주변 지역은 갈라지고 찌그러져 메마른 사막만이 남았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동식물이 뛰놀았던 그 광대한 밀림은 더 이상 없었다.

울둠 내부에 머물렀던 톨비르는 살아남았다. 일군의 모구 무리는 천둥왕의 시체를 모구 제국으로 가져와 무덤에 안치했다. 이 일로 모구와 잔달라 두 제국은 모두 한동안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치명타를 입었다.

천둥왕의 죽음으로 결속이 약해진 모구 제국은 그럼에도 타 종족의 핍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만에 하나 일어날 반란을 방지하고자 판다렌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계속 노예로 부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위대한 판다렌 칸은 무기 대신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그것을 춤을 추는 것이라 위장했다. 이 기이한 전투 방법은 모구 제국의 억압받는 노예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수많은 노예들이 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헌신적으로 새로운 무술을 익혔다.

모구들이 판다렌의 심장춤은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다. 판다렌들은 천신회를 비롯해 진위, 호젠, 그루멀, 야운골 등등 함께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규합했고, 노예들에게 의지하느라 많이 약해졌던 모구들은 결국 그들의 혁명을 저지하지 못 했다.

그렇게 모구 제국은 몰락했다. 이어서 잔달라 트롤까지 침공해 왔지만 지앙이라는 판다렌이 운룡을 길들여 싸우는 방법까지 동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전쟁은 혁명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판다렌들은 모구 종족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위대한 칸의 가르침대로 평화를 택했다. 영원꽃 골짜기 일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열렸고, 판다렌은 그 지역을 고향으로 여기는 다른 종족들과 함께 번성했다. 이른바 판다리아 제국은 그렇게 한동안 평화로웠다.

한편, 하이잘 산 근처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어둠 트롤들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칼림도어 대륙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혁의 시발점이었다.

와우 스토리 2부 : 세계의 분리

-10,000년

어둠 트롤들은 햇빛을 싫어해 동굴 속에서 살며 밤에만 활동했다. 그러한 야행성 생활 때문에 점차 그들의 피부는 회색빛으로 바뀌어 갔다. 어둠 트롤 비술사들은 다른 트롤들과 달리 자연 세계와 평화롭게 연결되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어둠 트롤들을 칼림도어 중부의 영원의 샘으로 인도했다.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한 영원의 샘에 매료된 어둠 트롤들은 샘 기슭을 따라 정착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샘에서 발산된 에너지는 어둠 트롤의 삶과 뼈에 퍼져 들었고, 점차 그들의 외형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샘 근처에 널려 있는 신비한 티탄의 유물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별의 후예'라는 뜻의 칼도레이. 나이트 엘프라 칭했다.

어둠 트롤의 비술사들은 달의 여신 엘룬이라는 존재가 영원의 샘과 결속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엘룬의 자매회라는 이름을 걸고 헌신적으로 엘룬을 숭배했다. 자매회의 대여사제들은 초기 나이트 엘프 문명의 모든 사안에 관여하며 정신적인 지도자로 활동했다.

자연과 결속한 나이트 엘프의 등장은 야생 신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반신 세나리우스는 나이트 엘프들을 매우 아껴 그들에게 자연 세계의 지식을 전해주곤 했다. 세나리우스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야생 신으로써, 나이트 엘프들은 그를 사슴신 말로론과 엘룬이 낳은 아들이라고 믿었다. (※ 명확한 사실이 아닌 그저 그렇게 생각했다는 정도의 설정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부 나이트 엘프는 다른 삶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원의 샘의 비밀을 풀어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열정적으로 샘의 비전 에너지를 연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과 결속하기보다는 비전 마법사로써 마력을 사용해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는 일에 몰두했다.

나이트 엘프가 비전 마법에 정통해지면서 그들은 아제로스 역사상 검은 제국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강력한 종족이 되었다. 호수 주변에 진아즈샤리라는 수도를 시작으로 칼림도어 서부에 라타르라잘, 텐라로레, 엘드레탈라스, 산다랄, 수라마르 등 다수의 도시를 건설한 그들은 트롤과 모구들도 넘볼 수 없는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일리단 스톱레이지는 수라마르 시에 사는 젊은 마법사였다. 나이트 엘프들이 영원의 샘의 힘으로 발전시켜온 비전 마법의 강력한 권능에 매료되었던 그는 마법을 배울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끝내 마법을 배워냈다. 그에게 있어 영원의 샘과 비전 마법은 동경 그 자체였다.

그는 또한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온 엘룬자매회의 여사제 티란데 위스퍼윈드를 사랑했다. 하지만 티란데의 마음은 야심 넘치고 열정적인 타입의 일리단보다는 진중한 성격의 그의 친형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에게 가있었기에, 일리단은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말퓨리온은 반신 세나리우스에게도 인정받는 최초의 드루이드였다. 그는 나이트 엘프가 비전 마법에 빠져 문명의 이기를 드높일 때도 오롯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드루이드의 가르침

을 전파했다. 엘룬을 섬기는 티란데는 그런 그를 사랑했다.

아즈샤라 여왕은 진아즈샤리의 고고한 지배자였다. 그녀는 '명가'라 불리는 귀족들과 함께 나이트 엘프 사회의 상류 계층을 차지했다. 특히 군주 자비우스, 여군주 바쉬는 여왕의 충실한 심복이었으며, 그들 귀족은 자신들을 다른 나이트 엘프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은 특히 트롤들의 강한 적개심을 불러왔지만,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아즈샤라 여왕은 점점 더 영원의 샘과 그 안에 감춰진 비전 마력의 비밀에 집착했다. 그녀는 나이트 엘프가 지금까지 접한 비전 마법은 영원의 샘에 담긴 마력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귀족들에게 영원의 샘을 더욱 깊이 연구하라고 종용했다.

그러한 계속된 무리한 연구는 결국 파국을 불러왔다. 영원의 샘에 마법의 격류가 일어 뒤틀린 황천과 닿았고, 이로 인해 황천의 악마들은 불꽃에 모이는 나방처럼 아제로스의 마력에 이끌렸다.

마침내 살게라스는 아제로스의 위치를 찾아냈다.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세계혼이 잠들어 있다는, 아만툴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행성이 분명했다. 살게라스는 즉각 악마 군단을 불러모았다. 남은 건 아제로스로 넘어갈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다.

불타는 군단이 행성을 넘어가기 위해선 적당한 차원문이 필요했다. 관문 없이는 이동하는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원문의 역할은 영원의 샘이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 아르거스 행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살게라스는 도착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살게라스는 먼저 아즈샤라 여왕의 긴밀한 조언자이자 최측근인 군주 자비우스를 타락시켰다. 자비우스는 아즈샤라 여왕과 추종자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겠다는 살게라스의 속삭임을 전했고, 예상대로 여왕과 명가 귀족들은 그 달콤한 약속에 매료되었다. 곧 그들은 영원의 샘에서 의식을 통해 스스로 불타는 군단을 아제로스로 불러왔다.

그날, 어느 필멸의 제국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과도 같은 전쟁이 아제로스에 찾아왔다. 여왕의 궁전에는 악마 전사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고, 명가를 제외한 모든 나이트 엘프를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파괴자 만노로스가 이끄는 군단의 선봉대는 죽음과 파괴의 물결이 되어 나이트 엘프 제국을 가로질렀다. 타고르는 지옥불정령이 우아했던 나이트 엘프 도시를 잿더미로 바꿔 냈으며, 수천에 이르는 파멸의 수호병과 게걸스러운 지옥사냥개들은 눈에 보이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피를 뿌려댔다.

군단의 선봉대를 맡은 파괴자 만노로스는 군단의 3인자였다. 당시 군단은 살게라스를 필두로 아키몬드와 킬제덴이 2인자를 맡고 있었고, 만노로스와 티콘드리우스가 3인자의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 만노로스는 아키몬드의 부관이기도 했다.

말퓨리온은 나이트 엘프 사령관 제로드 새도송과 함께 즉각 저항군을 조직해 군단의 침공에 맞섰다. 물론 티란데와 일리단도 함께였다. 말퓨리온의 드루이드 주술과 일리단의 비전 마법은 악마의 침략을 잠시나마 저지시켰다. 격렬한 전쟁 도중 사망한 엘룬자매회의 대여사제를 이어 새로운 대여사제가 된 티란데 역시 악마들에게 결사항전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악마 군단의 병력은 점차 증가하기만 할 뿐이었다.

나이트 엘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말퓨리온은 티란데, 일리단과 함께 하이잘 산의 달숲으로 향했다. 자신의 스승이자 반신인 세나리우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세나리우스는 말퓨리온의 요청에 응하여 하이잘 산의 야생 신들을 최대한 불러모았다.

야생 신들은 강력했지만 단합하여 싸우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말퓨리온은 용의

위상에게도 찾아가 상황을 알렸다. 군단의 침공은 곧 아제로스 전체의 위기였기에 다섯 용의 위상들은 즉각 고룡침터 사원에 모여들었다. (* 대륙 북부에 위치한 다섯 용의 회합 장소)

용의 위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먼저 검은 용의 위상 넬타리온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드래곤 소울(또는 악마의 영혼)이라는 아티팩트를 만들어 용의 위상들에게 각자의 힘을 일부 희생해 주입. 이것을 이용해 아제로스의 표면에서 불타는 군단을 쓸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수가 없었던 위상들은 그 제의에 동의했고, 얼마 후 계획대로 드래곤 소울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넬타리온이 드래곤 소울을 이용해 다른 위상들을 공격해왔다. 사실 넬타리온은 이전부터 아제로스의 깊은 곳에 유폐되어 있던 고대 신들의 끊임없는 속삭임에 의해 타락한 상태였다. 드래곤 소울 역시 다른 용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독식하기 위함이었다.

드래곤 소울을 얻은 넬타리온의 잔혹한 공격으로 먼저 푸른 용 군단이 거의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다. 이때 푸른 용의 위상 말리고스의 첫 번째 부인 신드라고사는 넬타리온과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고 아제로스 북쪽의 얼음 황무지에 추락하고 말았다. 신드라고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필사적으로 자신의 남편 말리고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넬타리온의 배신 때문에 광기에 미쳐있던 말리고스는 그녀의 신호를 무시하고 말았고, 신드라고사는 결국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넬타리온은 계속해서 용의 위상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드래곤 소울에서 흘러나온 에너지는 넬타리온의 몸을 찢기 시작했다. 넬타리온의 비늘 덮인 가죽 곳곳에 타오르는 균열이 생겼고, 그곳에선 용암이 터져 나왔다. 넬타리온은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던 그는 마침내 전투에서 물러나 하늘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자신이 수족으로 부리던 고블린 족들에게 아다만티움 갑옷을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감싸게 했다. 이때부터 넬타리온은 자신을 스스로 데스윙이라 부르며 훗날을 기약했다.

그동안 불타는 군단은 2인자 아키몬드까지 넘어오면서 위세가 더해지고 있었다. 아제로스 저항군은 결사항전으로 군단에게 대항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위기에 처한 아들 세나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뛰어들어간 사슴신 말로른은 아키몬드에게 목을 꺾여 죽고 말았다. 말로른 뿐만이 아니라 우르솔, 우르속, 골드린, 아비아나, 아감마간 등 대다수 야생 신들마저 군단의 잔혹한 공격에 죽음을 맞았다. 이대로 살게라스까지 넘어온다면 정말 끝장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자 말퓨리온은 영원의 샘을 파괴하기로 마음 먹었다. 영원의 샘이 악마들을 불러오는 매개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나리우스와 티란데를 비롯한 대다수 저항군들은 말퓨리온의 의견에 찬성하고 영원의 샘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생 일리단의 생각은 달랐다.

일리단은 형을 배신했다. 그에게 있어 샘의 존재는 나이트 엘프에게 불멸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비전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힘의 근원이었다. 급기야 차원 너머의 살게라스와 접촉한 일리단은 그에게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았다. 살게라스는 일리단의 두 눈을 불태우고 새로운 마안(魔眼)과 힘을 부여했다. 일리단은 그 대가로 데스윙에게서 드래곤 소울을 훔쳐 명가에게 가져다 주었고, 명가는 그 힘으로 살게라스 소환 의식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동안 아즈샤라 여왕을 따르던 한 무리의 나이트 엘프 귀족이 여왕을 향한 시선을 바꿔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라마르에 본거지를 둔 이 정예 명가들은 이 소환 의식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기는 커녕, 언젠가 아제로스 전체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들은 곧 다른 명가와 관계를 끊고 그들이 수년에 걸쳐 수집해놓았던 강력한 유물을 꺼내들었다. 창조의 기둥이었다. 그들은 이 유물을 통해 이미 열린 차원문들을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봉인했다.

다만 그들은 계속해서 악마 군단에 맞설 생각은 없었다. 차원문을 닫은 정도에 만족한 그들은 창조의 기둥 중 하나인 아만톨의 눈을 이용해 비전 마법의 거대한 샘을 만들었다. 밤샘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힘의 원천은 본거지 수라마르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나이트본이라는 새로운 종족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아제로스의 운명을 건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 남쪽의 판다리아 제국에선 이 파국을 미리 예지한 자가 있었다. 샤오하오. 판다리아 제국의 새 황제로 즉위한 그는 진위 족 예언자에게 들은 이 끔찍한 예언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신성한 의식을 행했다.

샤라고 알려진 부정한 영들은 각각 의심, 절망, 분노, 공포, 증오, 폭력 등을 대변했다. 샤오하오는 이 샤들을 지혜롭게 차례로 상대하며 판다리아의 깊은 땅속에 가두고 판다렌 정에 병사 조직 음영파를 창시해 지키게 했다.

의식을 마친 샤오하오는 본격적으로 판다리아를 구제할 작업에 착수했다. 위대한 천신회 옥룡 위론의 힘을 빌어 샤오하오는 자신의 영혼을 두꺼운 안개로 체화시켜 판다리아를 뒤덮었다.

그의 안개는 외부 세계로부터 판다리아를 가려 주었다. 이후 만 년 동안 판다리아는 숨겨졌고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샤오하오가 의식 중에 한 가지 놓친 부정한 감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교만이었다. 이 악의에 찬 샤는 조용히 판다리아에 도사리며 때를 기다렸다.

아즈사라 여왕은 영원의 샘에서 살게라스를 소환할 마지막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맹렬한 주문은 샘의 거친 심연 속에 불안정한 마력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살게라스의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표면으로 가까워져갔다.

말퓨리온은 동생이 저지른 배신의 증거물인 드래곤 소울을 다시 되찾아 그 힘으로 영원의 샘을 파괴하고자 했다. 절박해진 일리단은 샘에 접근하여 미리 자신이 특수 제작해놓은 물병에 영원의 샘물을 담기 시작했다. 누가 이기건, 그의 목적은 오로지 샘의 보존이었다.

얼마 후, 마침내 드래곤 소울의 힘이 폭풍우가 되어 영원의 샘을 강타했다. 명가의 주문은 흐트러졌고 영원의 샘에선 비전 에너지의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솟구쳤다. 차원문을 통해 발을 디디려던 살게라스는 다시 뒤틀린 황천으로 튕겨 나갔다. 군단의 악마 대부분 역시 영원에 샘에서 뿔쳐나온 에너지에 의해 다시 황천으로 날려 보내졌다. 분노의 포효가 황천을 가로지르며 메아리쳤고 대규모 지진이 일어 아제로스의 표면을 찢기 시작했다.

그날, 세계는 분리되었다.

하나였던 칼림도어 대륙은 크게 네 개로 갈라졌다. 영원의 샘이 위치했던 세계의 중심은 혼돈의 소용돌이(Maelstrom)가 생겨나 격렬히 휘몰아쳤다. 훗날 아제로스를 격변시킨 이 대사건

은 '세계의 분리(The Great Sundering)'라 불렸다.

이른바 고대 전쟁은 끝이 났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아제로스의 이후 역사도 격변시켰다. 아제로스는 이제 역사의 한 장을 넘겼을 뿐이다.

-10,000년 ~ -4,500년

말퓨리온과 티란데를 비롯한 나이트 엘프들은 엘룬의 은총으로 대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끔찍한 폭발 속에서 살아남은 나이트 엘프들은 함께 뗏목을 타고 서쪽의 칼림도어 대륙으로 나아갔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침묵 속에서 생존을 위한 여정을 함께 하며 폐허가 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이 모든 파괴가 자신들의 욕망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영원의 샘이 파괴되면서 살게라스의 그의 불타는 군단은 이 세계에서 사라졌지만, 말퓨리온과 그의 동료들은 승리의 끔찍한 대가를 마음 속 깊이 새겼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던 말퓨리온과 나이트 엘프들은 칼림도어 대륙 북쪽의 하이잘 산 정상에서 또다시 영원의 샘의 마법이 깃들어 있는 호수를 발견하게 된다. 영원의 샘이 폭발하기 전, 샘의 물을 담아왔던 일리단이 하이잘 산의 호숫가에 샘물을 부어 새로운 영원의 샘을 만들어놓았던 것이다.

말퓨리온은 일리단에게 샘의 비전 에너지가 불타는 군단이 또다시 침공해올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보았으나 일리단은 끝까지 자신의 마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말퓨리온은 자신의 동생을 거대한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때 '엘룬의 자매회'의 지도층이었던 마이에브 새도송이 나서서 일리단을 영구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일리단을 체포하려다 부상을 당한 제로드 새도송의 누나였다. 일리단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녀는 엘프들의 동의를 얻어 '감시자들'이라는 조직까지 새로 만든 후 일리단을 단단히 지키도록 했다.

나이트 엘프들은 하이잘 산의 새로운 영원의 샘을 파괴하면 또다시 큰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해 샘을 그대로 두고 대신 용의 위상들이 샘에 거대한 나무를 심어 샘을 봉인할 검대지를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게 했다. 엘프들은 이 나무를 세계수 놀드랏실(Nordrassil)이라 부르며 경외의 마음을 담아 보존키로 했다.

또한 말퓨리온과 그를 따르는 나이트 엘프들은 다시는 비전 마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대신 반신 세나리우스의 보살핌 아래 고대 드루이드의 지식을 배워 폐허가 된 땅을 치유하고 하이잘 산의 숲을 다시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꿈의 여왕 이세라는 이번 일로 오염된 에메랄드의 꿈을 정화하기 위해 말퓨리온과 드루이드들을 세계수에 연결된 에메랄드 세계로 불러 정기적으로 긴 잠에 빠져들게 하였으며, 시간의 지배자 노즈도르무는 세계수에 축복을 내려 나이트 엘프들이 불멸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

다.

긴 시간이 흐른 후, 하이잘 주변에서 또다시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 과거 살게라스를 아즈사라에게 소개한 장본인인 자비우스와 일부 귀족들은 살게라스의 힘을 그대로 받아들여 악마형 종족 사티로스로 변질되었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제로스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힘을 모은 후 세력을 규합해 나이트 엘프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티란데는 고도로 훈련된 여전사로 이루어진 파수대를 결성해 사피로스의 침략에 맹렬히 맞섰다. 잠들지 않은 드루이드들도 물론 함께였다.

하지만 전쟁 중 일군의 엇나간 드루이드가 야생 신 골드린의 늑대 형상을 연마하다가 늑대인간이라는 저주받은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고, 전투 현장에서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 바람에 전황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들에게 부상을 당한 나이트 엘프는 저주를 받아 똑같이 늑대인간이 되었다.

에메랄드의 잠에서 잠시 깨어난 말퓨리온은 고민에 빠졌다. 드루이드의 길이 자칫 이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 그는 늑대인간들을 에메랄드의 꿈 한편으로 추방한 후 세나리온 의회를 창설해 드루이드들을 인도하고 수련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

늑대인간 사태가 진정되자 전황은 다시 나이트 엘프 군대의 우세로 흘렀다. 파수대와 드루이드들은 사티로스의 영토 깊숙이 파고들어 대부분의 숲에서 타락을 정화했다. 남은 소수의 사티로스는 어둠 속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다시는 나이트 엘프 사회에 큰 위협이 되지 못 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세계의 분리로 아제로스가 찢겼을 때 지질이 파괴되면서 고대 신들을 봉인했던 감옥이 약화되었고, 그 여파로 고대 신들이 의식을 새롭게 회복하여 서서히 아제로스의 생명체들에게 타락의 촉수를 뻗쳐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즈샤라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격변 당시 소용돌이에 휩쓸려 거친 바다 밑으로 끌려들어 갔었다. 그들이 모조리 익사하려던 순간, 심해 저 너머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다. 고대신 느조스였다. 봉인되어 있던 느조스는 세계의 분리로 인해 심해에 가라앉았다. 아즈샤라 여왕은 망설임 없이 느조스와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마치 바다뱀과 같은 형상으로 변했고, 스스로를 나이트 엘프가 아닌 나가(Naga)라 칭했다. 그들은 혼돈의 소용돌이 밑바닥에 나즈자타라는 나가의 도시를 건설하고 심해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고대 신 요그사론이 간혀있던 노스렌드에는 더 심각한 징후가 발견되었다. 사로나이트라는 낯선 광물이 곳곳에 퍼지면서 노스렌드 토착 동식물의 생명력을 짜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은 점차 아제로스 전역으로 퍼져갔다.

세나리온 의회의 드루이드 집단은 세계수가 하이잘 산 주변을 정화했던 것처럼 사로나이트로 오염된 곳에도 같은 방법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선 우선 용의 위상들의 인도를 요청하여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나리온 의회를 이끄는 대드루이드 판드랄 스태그헬름은 사태가 급박하다고 판단했기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즉각 행동에 나섰다. 먼저 세계수에서 여섯 개의 커다란 나뭇가지를 꺾은 그들은 사로나이트의 오염이 심각화된 여섯 개의 지역에 그 나뭇가지를 심었다. 잿빛 골짜기, 수정노래 숲, 페랄라스, 그늘숲, 동부 내륙지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은 단연 노스렌드의 산속이었다. 판드랄은 그곳에 세계수의 가장 큰 나뭇가지를 심었다.

나뭇가지들은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나무로 자라났다. 이 방법은 의외로 꽤나 성공적

이어서 사로나이트의 광맥을 벗겨내고 효과적으로 오염을 정화해냈다. 특히 노스렌드에 심은 세계수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다. 나이트 엘프들은 그 세계수를 눈의 왕관이라는 의미의 안드랏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새로운 세계수의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간 탓에 요그사론의 지하 감옥을 건드리고 만 것이다. 그 초기 여파로 안드랏실 주변의 생명체들은 점차 포악해지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안 세나리온 의회는 위상의 축복 없이는 안드랏실이 타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수를 다시 쓰러뜨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거대한 안드랏실을 베어냈다. 안드랏실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노스렌드의 얼어붙은 땅에 쓰러졌다. 그 후 드루이드들은 그 쓰러진 세계수를 '부서진 왕관'이라는 뜻을 지닌 볼드랏실이라 불렀다.

때를 기다리던 요그사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판드랄이 심은 나무들을 에메랄드의 꿈으로 통하는 문으로 이용했다. 다른 고대 신들 또한 그 에테르 영역에 손을 뻗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타락의 씨앗이 이세라의 영역에 퍼졌고, 씨앗들은 이윽고 꿈의 길을 더럽혔다. 이는 훗날 에메랄드의 악몽이라고 알려진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7,000년 ~ -2,800년

고대 전쟁 이후 나이트 엘프 사회에서 마법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모든 나이트 엘프들이 말퓨

리온의 마법 금지 원칙을 기꺼이 따른 건 아니었다. 영원의 샘 폭발 당시 바다 밑으로 수장되지 않고 살아남은 일부 귀족 세력들은 끝내 마법 사용을 고수하다가 추방되어 동쪽 대륙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을 앞장선 자는 다트리마 선스트라이더라는 이름의 귀족이었다.

동부 대륙 북서부의 티리스팔 숲에 상륙한 이들은 곧 이곳에도 마수를 뻗치고 있던 고대신의 영향으로 하나둘 미쳐가기 시작했고, 이를 피해 좀 더 북쪽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진 환경 기후 때문에 나이트 엘프들은 하얀 피부로 외형이 변화하게 되었다. 키도 예전보다 작아졌고, 머리색도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양의 아이들이라는 뜻의 쿠엘도레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하이 엘프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동부 대륙의 북쪽에는 이미 토착 종족이 있었다. 아마니 제국의 숲 트롤들이었다. 그들은 과거 아즈사라 여왕 시절의 오만했던 나이트 엘프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트롤은 엘프들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워낙 긴 시간이 흘렀기에 엘프들이 그런 것 따위 신경 쓸 리는 없었다. 안다고 해도 워낙 야만적인 그들의 모습 때문에 진실을 부정했을 것이다.

하이 엘프들은 트롤들을 보는 족족 공격하여 그들의 영토를 일부 빼앗고 하이 엘프만의 새로운 문명인 쿠엘탈라스 왕국을 새로이 건설했다. 또한 다트리마는 일리단의 감옥에서 빼돌려두었던 영원의 샘물이 담긴 물병 하나를 북쪽의 섬에 옮겨담아 새로운 마력의 원천인 태양샘까지 만들어냈다. 그 덕분에 하이 엘프들은 어느 정도 마력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트롤들을 상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법을 사용했다간 또다시 예전처럼 불타는 군단의 주의를 끌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하이 엘프들은 국경을 따라 마법석을 설치하여 일련의 마법

장벽을 생성시켰다. 마법 장벽은 비전 마법 사용을 감지하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트롤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했다. 덕분에 쿠엘탈라스 왕국은 번영했지만, 다탈리마의 증손자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가 권좌에 올랐을 때 하이 엘프는 다시 한 번 숲 트롤들의 맹렬한 반격을 받게 된다. 잔달라 트롤들이 연합한 것이다.

한편 하이 엘프와 트롤들이 적대하고 있는 사이, 동부 대륙에 정착한 또 다른 종족인 인간들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티리스팔에 정착했던 브리쿨의 후예들로, 여러 부족 집단을 형성하여 트롤들의 침략에 굳건히 버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뭉치기 시작했는데, 아라시 부족의 등장 때문이었다. 아라시 부족의 리더 소라딘은 인간 부족들을 통합하여 아라소르라는 국가를 세웠다. 수도는 티리스팔 숲 남동쪽에 건설한 '스트롬'이었다. 이들은 오래전 티리스팔 숲 중심부에 남겨졌던 수호자 티르의 전설적인 은빛 손을 상징으로 한 <성기사단>을 창설하고 타 종족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전력을 키워갔다.

하이 엘프들은 트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동안 트롤들의 핍박에 시달려왔던 인간들 역시 이 전쟁의 승리자가 트롤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이때 소라딘은 엘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엘프들이 인간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면 이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으리란 제안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하이 엘프 국왕 아나스테리안은 인간들에게 기초적인 마법을 전수해 주는 데 동의했다.

스트롬으로 내려온 엘프 마법사들은 수개월 동안 인간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다. 인간들은 마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아함과 정교함은 떨어졌지만 놀랄만한 선천적 친화력을 지니고 있던 것이다.

수개월 후, 충분한 전력을 갖춘 인간과 엘프는 트롤과의 전선 양쪽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계획대로 인간 마법사들도 전선에 나타났다. 그들은 엘프 마법사들과 나란히 서서 새로 얻은 막대한 힘을 불려냈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에서 불덩이가 마구 쏟아져 내렸고 이에 알터랙 산맥 전체가 들썩이고 흔들렸다. 그 에너지는 타고르는 불덩이 속으로 트롤 군대를 집어삼켰다.

마침내 숲 트롤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쓰러지자 살아남은 트롤들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엘프와 인간은 사냥감을 쫓듯이 아마니 전사들을 따라가며 마구잡이로 학살했다. 잔달라에서 온 사절들은 예기치 못한 전투 결과에 당황하며 고향 섬으로 도망쳤다. 이 전쟁의 패배는 트롤 종족으로서는 다시 복구하기 힘든 역사의 암울한 전환점이 되었다.

반면 인간들이 맞이한 것은 새로운 영광의 시대였다. 그동안 움츠려 살아왔던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동부 대륙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2,500년

한편 동부 대륙에 토석인의 후예 드워프들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면에 들어갔

던 그들을 깨운 건 홀로 울다만에 남아 사명처럼 시설을 보수해왔던 한 명의 노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마저 육체의 저주에 걸려 죽음을 앞두자 토석인들이 영원히 울다만의 적막한 전당에 버려질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 동면실의 기상 장치를 작동시켰다.

깨어난 토석인들은 필멸의 존재가 된 자신들을 스스로 드워프라 칭하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다만 서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른 종족이 정착하지 못한 높은 설원 산악지대에 자신들의 창조주인 티탄 카즈고로스의 이름을 따 카즈 모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후 그 중심에 아이언포지라는 웅대한 도시를 건설했다. 비록 필멸의 존재가 되었으나 그들의 건축 재능과 손재주는 여전했다.

드워프들은 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근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노움들을 발견했다. 드워프들보다도 더 작은 몸집을 가진 노움들은 놀랍게도 뛰어난 공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이미 자동화된 기계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같은 티탄의 피조물이자 육체의 저주를 받은 종족으로써 동질감을 느낀 두 종족은 곧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발전해가기 시작했다. 드워프는 석조술과 건축 지식을 노움에게 전해주어 후일 농리건이라고 알려진 기계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고, 대신 노움은 드워프들에게 기계공학과 과학을 가르쳐 화약 무기, 증기 차량 등 드워프 문명 발전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두 종족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공존했다.

그렇게 2천여 년의 시간이 흐르자 드워프들은 크게 세 개의 부족으로 권력이 분산되었다. 영

주 마도란 브론즈비어드가 이끄는 브론즈비어드 부족, 카드로스 와일드해머가 이끄는 와일드해머 부족, 마술사 타우릿산이 이끄는 검은무쇠 부족. 아이언포지의 국왕 앤빌마는 이들 세 부족을 평화롭게 통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족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마침내 앤빌마 국왕이 노환으로 타계하자 부글거리던 아이언포지의 가마솥은 끓어넘쳤다.

세 부족은 종족의 주도권을 두고 이른바 '세 망치단의 전쟁'이라는 내전을 벌였다. 전쟁의 승리자는 브론즈비어드 부족이었다. 그들은 다른 두 부족을 산에서 쫓아내고 아이언포지를 차지했다. 와일드해머 부족은 패배를 인정하고 북쪽에 그림 바톨이라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새로이 건설해 정착했고, 검은무쇠 부족은 남쪽의 붉은마루 산맥에 타우릿산 왕국을 건설했다.

검은무쇠 부족의 영주이자 마술사 타우릿산은 카드로스 와일드해머와 달리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금 세력을 규합해 아이언포지와 그림바톨을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 결과 그림바톨은 저주의 마술로 인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화가 난 와일드해머 부족이 브론즈비어드 부족과 연합을 하여 반격해오자 타우릿산은 사면초가가 되었고, 끝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정령 차원에 봉인되었던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소환한 것이다.

정령왕의 등장에 소환자 타우릿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대지는 찌그러지고 비틀렸으며 불의 폭풍은 붉은마루의 땅을 집어삼켰다. 폐허가 된 타우릿산 왕국은 검은바위 화산이 되어 불을 뿜었으며, 화산 남쪽의 잿빛 황무지는 불타는 평원으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북쪽 지역은 이글거리는 협곡으로 불리게 되었다. 화산재와 용암만이 들끓는 죽음의 대지로 변모한 그곳에서 라그나로스는 검은무쇠 부족의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아 군림하기 시작했다. 검은바위 산 깊은 지하의 끓어오르는 심장부에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검은무쇠 드워프들은 와일드해머와 브론즈비어드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와일드해머 부족은 저주받은 그림바톨을 떠나 동부 내륙지에 맹금의 봉우리라는 새 터전을 짓

고 브론즈비어드의 아이언포지와 평화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검은무쇠 드워프의 영토를 지켜보면서 쉽 없는 경계를 썼다. 그들에게 있어 검은바위 산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활화산이었다.

-1,100년

과거 세계가 갈라지기 전, 판다렌들을 도왔던 유목 민족 야운골은 다시 영원꽃 골짜기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고, 각각 칼림도어 북부와 중부에 자리 잡았었다. 이때 영원꽃 골짜기에 그대로 남은 자들은 야운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북부로 올라간 자들은 타운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차가운 토양에 적응해 갔다. 중부에 정착한 이들은 자신들을 타우렌이라 불렀다. 세계가 갈라진 후 이들은 긴 시간 동안 서로 교류가 끊겨 독자적인 문명을 만들어나가야 했다.

타우렌들은 '대지모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다. 방랑하던 타우렌의 주술사들은 급기야 대지모신의 힘이 느껴진다는 칼림도어 서쪽 돌밭톱 산맥에서 지역 정령들과 소통하며 의식을 진행하여 대지모신을 깨우고자 힘썼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잠들어 있던 것은 대지모신이 아니라 바위 정령왕 테라제인의 딸 테라드라스 공주였다. 한때 티탄의 억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잠들어 있었던 그녀는 타우렌 주술사들 덕분에 다시 깨어나 주변의 생태계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척박해진 그 땅은 타우

렌들에게 잊혀진 땅으로 불렸다.

급작스러운 자연력의 격변으로 아제로스 생태계에 일대 파장이 일자 야생 신 세나리우스의 숲의 아들 중 하나인 재타르가 에메랄드의 꿈에서 나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재타르는 조사 도중 잊혀진 땅 지하의 습기 찬 동굴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테라드라스를 만났다. 그는 곧 테라드라스 공주에게 매료되었고, 급기야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했다.

그 금지된 사랑에서 돌연변이 종족이 태어났다. 켄타우로스라 불린 그들은 매우 야만적인 기질로 칼림도어 땅을 유린했다. 너무도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그들은 서로 뭉치거나 집단 세력화되지는 못했지만, 같은 유목 민족인 타우렌만은 끈질기게 괴롭히며 긴 시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그동안 아제로스의 다른 대륙들로부터 격리된 판다렌들은 세계의 분리와 함께 아제로스의 다른 지역이 괴멸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 판다렌 리우 랑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호기심 많았던 그는 바다 건너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쉰 수라는 작은 거북의 등에 오른 채 안개의 장막을 뚫고 항해해 나갔다.

수년 후, 동족들에게 돌아온 리우 랑은 바다 저편에 있는 신기한 땅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했다. 그러자 더 많은 판다렌들이 이 괴짜 모험가의 여행에 합류했고, 거대거북 쉰 수는 커다란 섬만큼 자랐다. 거북의 등껍질 위에 신비로운 산과 호수가 만들어졌고 마을들까지 생겨났다. 판다렌들은 그 독특한 안식처를 유랑도라고 이름 붙였다. 시간이 흘러 노환으로 죽어가던 리우 랑의 영혼은 바다거북과 합쳐졌고, 유랑도의 판다렌들은 리우 랑의 도전적인 탐험 정신을 이어 갔다.

세계의 분리 이후 잔달라 트롤들은 이러한 대륙과 대륙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수많은 섬들을 탐험해왔다. 고블린들이 사는 케잔 섬 역시 그러한 섬들 중 하나였다.

케잔 섬에는 카자마이트라는 광물이 가득했다. 이 광물은 기화시켜 마셨을 경우 감각이 고조되거나 지능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특별한 광물이었다. 고대의 수호자 미미론은 이 광물을 여러 생명체들에게 실험해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고블린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작은 체구와 녹색 피부를 가진 원시 종족 고블린들은 미미론 덕분에 한때 영리한 지능을 가졌었다.

하지만 미미론은 수호자 전쟁 당시 은거해버렸고, 세계의 분리로 지형이 아예 파괴되면서 고블린들은 수 세대만에 그 뛰어난 지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난처로 삼은 케잔 섬이 카자마이트 광맥이 가득한 섬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 했다.

잔달라 트롤들은 단번에 카자마이트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개한 고블린들을 노예로 삼아 광맥을 채굴하게 했다. 케잔 섬의 지하 깊은 곳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카자마이트가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트롤들의 판단ミス였다. 광산 안에는 항상 카자마이트 분진이 가득했고, 노예로써 매일 광맥을 채굴하던 고블린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진을 잔뜩 마시게 되었다. 점차 지능을 회복한 고블린들은 비밀리에 손에 닿는 재료들을 활용해 덩과 폭탄, 다른 비상한 무기들을 제작했다.

고블린 무리가 잔달라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를 갖추고 광산에서 쏟아져 나왔을 때, 방심하던 트롤 감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블린들의 혁명으로 트롤의 케잔 통치는 무너졌고 광산은 초토화되어 엄청난 파괴의 현장만이 남았다.

살아남은 잔달라는 도망쳤다. 그리고 고블린들은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파벌로 집단화되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집단은 무역회사라 알려진 조직이었다. 이 무역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교역을 시작했고 그 이윤으로 더 큰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 그들은 국가나 부족의 개념이 아닌 회사의 개념으로 뭉쳐 장사를 주 생업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한편 아제로스에 또다시 황천의 악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엘프들로부터 새로이 비전 마법을 배운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마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간들 역시 대책을 세워야 했다.

-2,700년 ~ -1,000년

인간들은 매우 진취적인 태도로 아라소르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해나갔다. 먼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티라스팔 숲에는 로데론이라는 이름의 요새를 건설해 근처 야생 동물로부터 농장을 보호했다. 길니아스라 알려진 해안 지역에는 활기찬 항구를 건설하여 어업에 종사했다. 대담한 항해사들은 그 주위의 공해를 탐험해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큰 섬을 발견했고, 일부 항해사가 그 섬에 남아 쿨 티라스라고 불리는 해양 전초기지를 세우기도 했다. 트롤과의 전쟁 동안 건설되었던 국경 지대의 알터랙 요새는 곧 부산한 교역 기지로 발전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새로운 도시들은 계속 성장하며 독자적인 관습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아라소드 왕국의 수도 스트롬의 지배층은 이들 도시가 지나치게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항상 경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면모를 보인 곳은 마법 교역 도시로 성장한 달라란이었

다.

알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법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달라란에 모여든 이민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달라란 시민의 존경을 얻고서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알도간의 통치하에 달라란은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주적인 도시국가로 발전했다.

또한 달라란은 마법사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마법사들은 아라소르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들에 대한 은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이 불화와 의심은 점차 깊어졌고 마법을 사용하는 이들과 나머지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불붙었다. 대부분의 마법사는 근거 없는 망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분개하며 도시와 마을을 떠났다. 달라란의 지도자 알도간은 불만에 찬 마법사들을 달라란으로 초대해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덕분에 많은 마법사들이 달라란으로 모여들어 정착했고, 그들의 힘으로 달라란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마법의 사용은 결국 재앙을 불러왔다. 마법의 무모한 사용으로 인해 달라란에서 현실 구조가 찢기기 시작했다. 마법사들은 알지 못했지만, 달라란에서 피어오른 비전 마법의 물결은 뒤틀린 황천까지 이르렀다. 그 마력의 물결은 흩어져 있던 불타는 군단 악마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 악마들 중 소수가 물리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와 달라란에 침투했다. 악마들은 보통 악하고 혼자였지만, 평화로운 달라란에 혼돈의 씨앗을 뿌리고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기에는 충분했다.

마법 의회는 악마의 침입을 처리하는 한편, 그 사실을 대중에게서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공황에 빠져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법 의회는 도시의 벽 바깥에서 도움을 구했다. 하이 엘프. 그들이라면 이 악마의 침입에 대응할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

쿠엘탈라스를 통치하는 실버문 의회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 비전 마력과 악마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고 마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달했다. 하지만 달라란의 마법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애초에 그들이 달라란으로 온 것은 비전 마법을 계속 연구하고 향유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은 하이 엘프들처럼 마법 장벽을 칠 수 없었고, 나이트 엘프들처럼 세계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해 낸 타개책은 당장 눈앞의 악마 침입자들을 상대할 비밀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새롭게 구성된 이 조직은 티리스팔 의회 키린 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재능 넘치는 구성원들은 악마들을 찾아 추방하는 책임을 맡았다. 또한 무분별한 주문 사용의 위험성을 다른 마법사들에게 조용히 가르치기도 했다.

키린 토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한 명의 마법사에게 능력을 집중시켜 상대했다. 이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반대로 능력을 넘겨준 자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능력의 집중도 끊겨 결국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알로디라는 마법사는 고민 끝에 영구적으로 한 명의 마법사에게 힘을 몰아주고 나머지 마법사들은 전투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내 자신에게 처음으로 행했다. 마법 의식은 성공적이었다. 먼저 막대한 마력을 통해 수명을 늘린 그는 무려 백 년 동안 불타는 군단의 하수인들을 사냥했다. 이때부터 알로디는 자신을 티리스팔의 수호자라 칭했다.

그렇게 이른바 수호자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백 년마다 새로운 마법사가 나서서 아제로스의 보호에 일생을 바치고 임무를 마무리한 뒤엔 자진해서 마력을 포기했다. 덕분에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라란은 선도적인 비전 지식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천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아라소르 왕국의 수도 스트롬의 영향력은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다.

바위투성이 산악 지형에 둘러싸이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스트롬은 다른 도시국가와 경제력 면에서 경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귀족들이 로데론을 비롯한 주변 영토로 떠났고, 결국 소라딘 왕의 마지막 후손들마저도 아라소르를 떠났다. 그들은 남쪽에 위치한 드워프들의 영토보다도 더 남쪽에 비옥하고 드넓은 토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소라딘의 후손들은 천혜의 방비를 자랑하는 절벽 안쪽에 정착해 스톰윈드 왕국을 건설했다. 자원도 풍부하고 교역과 군사적 거점으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한 스톰윈드는 순식간에 다른 도시국가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왕의 후손마저 떠나간 스트롬은 몇몇 지배 가문의 손에 남겨졌다. 그들은 옛 수도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완고했다. 그들 중에는 과거 트롤 전쟁에서 전설이 된 장군, 이그네우스 트롤베인의 후손들도 있었다. 수년 동안 그 가문들은 스트롬의 무너지는 기반 시설을 재건하여 도시의 이름을 스트롬가드로 개명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

일곱 개로 갈라진 인간들의 도시는 각자 별개의 국가로 성장했다. 비록 통합을 바랐던 소라딘의 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비해 인간들이 크게 번영한 것은 분명했다. 세대가 지나고 국가 간에 경쟁의식이 생기면서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배타적인 경향을 띠었다. 한동안 그들은 각자 내정에 집중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한 인간 여성이 아제로스의 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상 최강의 수호자 에이그윈. 그녀의 재능은 불타는 악마들을 이끄는 티탄 살게라스마저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800년

에이그윈은 뛰어난 수호자였다. 하지만 티리스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면을 보였다. 그녀는 의회를 깊이 불신했고 그 때문에 장로 마법사들과 종종 불화를 일으키곤 했다. 에이그윈은 그들의 권고와 조언을 무시한 채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오랜 시간 수호자로 활동했다.

백 년에 걸친 그녀의 의무가 끝나갈 때쯤, 에이그윈은 노스렌드의 얼음 덮인 땅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머나먼 대륙 노스렌드를 찾았고 그곳에서 한 무리의 악마들이 길 잃은 푸른 용들을 사냥해 비전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에이그윈은 즉각 고룡십터 사원으로 향해 용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함께 불타는 군단의 하수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노스렌드의 하늘이 뒤틀리며 어둠에 휩싸였고, 전장에 무시무시한 악마의 형상이 나타났다. 불타는 군단의 수장, 살게라스였다. 그것은 악마 군주 살게라스의 우주적 힘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가 나타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힘과 분노를 내뿜었다.

과거 한번 아제로스 침공에 실패했던 살게라스는 다시 아제로스로 넘어오길 원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원문을 열어줄 추종 세력이 없었기에, 우선 차원문 없이 약화된 상태로 아제로스에 일시적으로 강림해 에이그윈 앞에 나타났다.

에이그윈은 주저하지 않고 반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력을 끌어내어 살게라스의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가장 힘든 전투가 뒤따랐다. 살게라스와 에이그윈의 싸움은 노스렌드의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어두운 하늘을 갈랐다. 그 위력은 저 강력한 용들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다. 에이그윈은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주문을 난사하며 적을 물리쳤다. 전투로 녹초가 되었지만 에이그윈은 승리했다. 아니,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에이그윈이 살게라스를 쓰러뜨렸을 때 살게라스는 자신의 영혼을 약해진 에이그윈의 몸에 내보냈다. 그렇게 해서 살게라스의 영원한 악의의 조각이 에이그윈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다.

에이그윈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어둠의 존재가 깃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거대한 살게라스의 부서진 육체를 모았다. 그리고 고대 나이트 엘프들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가라앉은 외딴 섬 수라마르에 그 조각난 유해를 파묻었다. 에이그윈은 그곳에서 살게라스의 유해가 영원히 방해받지 않고 잠들기를 바랐다.

노스랜드 사건 이후 에이그윈과 티리스팔 의회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에이그윈은 의회가 갈수록 왕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 불만스러웠고, 자신이 백 년의 의무를 다한 뒤 수호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면 그들은 더 약한 수호자, 즉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수호자를 선택할 것이라 우려했다.

결국 에이그윈은 자신의 마력을 이용해 생명을 연장하고 수호자로 계속 남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그 결정을 불만스러워했지만 워낙 뛰어난 업적을 자랑한 그녀였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어둠이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그것에 불안해하며 외진 곳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카라잔. 그 높은 탑은 주위 지역의 강력한 지맥을 흡수하여 에이그윈에게 마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 한 세대가 지났다. 새롭게 티리스팔의 의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 에이그윈을 더더욱 적대했다. 급기야 그들은 마력을 약화시키는 유물과 무기로 무장한 티리스가드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다. 그들은 오로지 에이그윈을 쓰러뜨리기 위해 훈련을 받고 그녀를 찾아 헤맸다.

에이그윈은 카라잔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카라잔을 외부로부터 봉인한 후 새로운 피난처로 향했다. 그녀가 다시 찾은 곳은 심해에 가라앉은 수라마르의 폐허였다. 에이그윈은 그곳에 새로운 거처로 수호자의 성소를 지었다. 그곳은 수 세기 동안 티리스가드에게 비

밀로 남겨졌다.

-45년

니엘라스 아란은 티리스가드의 멤버였다. 그는 수개월 동안 수호자 에이그윈을 뒤쫓았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내었다. 그는 유물을 이용해 에이그윈의 마력을 약화시키며 그녀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대결 중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그는 에이그윈이 사실 티리스팔 의회가 주장하는 파렴치한 반역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에이그윈 또한 니엘라스가 놀랍게도 자신과 비슷한 이유로 티리스팔 의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둘은 곧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했다. 계속된 대화와 만남으로 급기야 두 남녀는 사랑의 감정마저 피워냈고, 함께 아이를 낳아 수호자의 마력을 물려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에이그윈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을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렇게 물려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 에이그윈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이 엘프의 언어로 '비밀의 수호자'를 뜻하는 메디브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재능 덕분에 마법에 엄청난 친화력을 보였다. 또한 에이그윈은 자신의 마력을 아이의 영혼 속에 가두고 메디브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남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메디브의 영혼 속에는 살게라스의 남은 영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에이그윈은 몰랐지만 살게라스는 그녀의 자궁에서 메디브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를 차지하고 있었다.

에이그윈과 니엘라스는 메디브를 기를 안전한 장소를 찾아 스톰윈드에 정착했다. 스톰윈드는 티리스팔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고 달라란이나 다른 북부 왕국들과의 관계도 약했다. 그곳에서 니엘라스는 스톰윈드의 궁중 마법사가 되었다.

에이그윈은 메디브를 니엘라스의 손에 맡긴 뒤 수호자의 의무에서 물러나 세상으로부터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니엘라스가 아들을 교육하고 비전술을 가르칠 것이며, 때가 되면 메디브가 수호자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니엘라스가 스톰윈드의 궁중 마법사로 임명되면서 어린 메디브 역시 왕궁의 일원이 되었다. 메디브는 성장하면서 두 비범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아라소르 혈통의 후손인 안두인 로서와 스톰윈드의 왕자 레인 린이었다.

세 아이는 짓궂은 장난과 모험을 즐기곤 했다. 메디브는 니엘라스의 엄격한 마법 훈련과 언젠가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쳐 힘들어하다가도 두 친구와 어울릴 때면 언제나 즐거워 했다.

메디브가 14살이 되던 해, 마침내 어머니 에이그윈이 봉인해놓았던 수호자의 마력이 깨어났다. 메디브에게 깃들어있던 엄청난 마력이 폭발하면서 결국 소년을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한동안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스톰윈드 북녘의 수도원에서 간호를 받으며 지내야 했다.

그리고 십수 년이 흘러 메디브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의 주변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레인은 왕이 되어있었고, 안두인 로서는 스톰윈드의 장군이 되어있었다. 메디브는 그러한 변화된 주변과 더불어 자신에게 깃든 엄청난 마력의 힘에도 적응해야 했다. 그는 그 새로운 힘을 스톰윈드를 지키고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메디브는 알지 못했다. 그의 영혼 속에 숨어든 거대한 악이 다음 목적을 발견했음을. 타락한 티탄 살게라스는 마침내 불타는 군단의 다음 아제로스 침공을 시작할 완벽한 도구를 발견했다.

그것은 저 멀리 드레노어 행성에 존재했다. 그 누구보다 용맹과 명예를 중시하는 긍지 높은 종족, 강한 힘과 갈색 피부를 가진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오크라 불렀다.

와우 스토리 3부 : 갈색 피부의 전사들

<드레노어> -30000년 ~ -1000년

잠시 시간을 되돌려 수만 년 전, 티탄들이 아제로스 행성에 질서를 창조하고 막 떠났을 무렵으로 이야기를 돌려보자. 끝없는 어둠의 우주 한쪽에서 아제로스나 아르거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작은 행성이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드레노어 행성. 그곳은 세계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섯 번째 원소인 생명의 정기가 가득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드레노어 행성은 넘치는 생명의 정기 때문에 불, 바람, 대지, 물과 같은 원소 정령들이 날뛰지 못 했고, 덕분에 포자더미라는 이름의 식물 종이 행성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드레노어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된 포자더미는 육식을 즐기며 거대한 유기체로 성장했다.

한편 아제로스를 떠나 계속해서 우주를 여행하던 티탄 아그라마르는 드레노어 행성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행성의 파멸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포자더미가 언젠가 행성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집어삼켜 드레노어를 먼지만 휘날리는 폐허로 만들 것이라 판단했다.

아그라마르는 포자더미의 위세를 누그러뜨리고 드레노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론드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빚어냈다. 그것은 드레노어의 가장 큰 산에 정기의 폭풍을 불어넣어 만든,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바위 산이었다.

얼마 후 아그라마르는 별무리의 죽음을 감지하고 우주 너머로 돌아갔다가 살게라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창조주로부터 방치된 거인은 드레노어에 남아 홀로 포자더미와 오랜 시간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론드는 포자더미 중 하나를 찢어 지상에 떨어뜨렸다. 그 썩은 시체는 훗날 버섯이 무성한 지역인 '장가르 해'가 되었다. 그론드가 또 하나를 찢어버리자 그 지역은 '타나안 밀림'이라는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포자더미의 끊임없는 공격에 결국 그론드마저 쓰러졌다. 그론드의 거대한 시체는 '나그란드'라는 지역의 산맥이 되었다. 마지막 포자더미는 그론드의 시체에서 태어난 거대괴수들에게 쓰러졌고, 그곳은 '파랄론'이라는 지역이 되었다.

포자더미가 모두 사라진 후 많은 원시생물이 생겨났다. 야생으로 퍼진 수많은 포자들은 기존의 식물 생명체들에게 지각을 선사했다. 가장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번창한 종족은 신록지기라는 존재였다. 그들은 포자더미에서 먼저 파생되었던 제네사우루스를 숭배하며 헌신적으로 숲을 보호했다. 포들링, 스포어링 같은 작고 단순한 생명체도 있었다. 훗날 포자더미를 기원으로 하는 이들 식물 중 모두는 통칭 '원시생물'이라고 불렸다.

그론드의 몸에서 태어난 거대괴수들 역시 드레노어 생태계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거대괴수의 유해에서 태어난 마그나론이라는 생명체는 긴 시간 동안 또다시 그론이라는 거인의 후예를 만들어냈고, 그론은 외눈박이 괴수 오그론을, 오그론은 오우거를, 오우거는 오크를 파생시켰다.

종족이 파생될수록 거인의 크기와 육체적 힘은 약해져갔다. 바위 같았던 피부는 살덩이가 되었다. 하지만 지능은 점차 높아지고 개체 수는 늘어나 개별적이었던 생활 습성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그론드에서 파생된 수많은 종족들은 훗날 '파괴자'라는 통칭으로 불렸다.

포자더미가 사라지면서 아그라마르가 걱정했던 드레노어의 미래는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원시생물과 파괴자들의 계속되는 대립은 불가피했다. 두 진영은 오랜 시간 동안 산발적인 전투를 치렀고, 이로 인해 서서히 각자의 경계가 구축되었다. 파괴자들은 서리불꽃 마루, 고르그론드, 나그란드 등의 지역을 장악했다. 원시생물들은 타나안 밀림, 장가르 해, 파랄론, 어둠달 골짜기, 탈라도르의 자연을 가꾸었다.

하지만 두 진영만이 드레노어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파괴자와 원시생물이 날뛰는 가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아 번영하기에 가장 유리했던 것은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조류 종족이었다. 대부분의 조류 종족은 남쪽의 아라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아라코아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들을 창조한 것은 드레노어에 태초부터 존재한 고귀한 반신 불새 루크마르였다. 아라코아 종족은 그녀에게 마법 능력을 전수받아 아라크 침탈의 가장 높은 곳에 에팩시스라는 화려한 문명을 일궈냈다. 그들은 원시생물들과 한 차례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덕분에 아라코아의 기세는 한동안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에펙시스 문명은 오래가지 못 했다. 자신들의 지성과 마법, 과학 발전에 심취한 그들은 점점 욕심이 과해져 내분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 다툼은 큰 전쟁으로 번져 에펙시스 문명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었다. 이후 살아남은 아라코아가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아라코아가 원시생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무너지자, 자연히 파괴자들의 세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집으로 드레노어의 최강자로 군림한 그론, 그보다는 작지만 공동체를 형성하여 드넓은 영토를 점령한 무자비한 포식자 오그론, 하지만 그중 에펙시스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문명을 이뤄낸 자들은 바로 오그론의 노예였던 오우거들이었다.

무자비한 오그론들에게 정복당한 오우거들은 노예로 부림 당하며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론 살아있는 제물로 그론에게 바쳐지기도 했다. 그론을 달래어 오그론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몰락한 아라코아 종족 중 살아남은 소수의 마법사들은 오그론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노예인 오우거들에게 주목했다. 그들이 노예의 삶에 분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라코아 마법사들은 비밀리에 오우거 노예들에게 접근하여 비전 마법을 전수해주었다. 오우거들은 생각보다 뛰어난 학습자였다. 본래 티탄이 마력을 부여한 그론드의 먼 후손인 그들은 본능적으로 비전 마법에 동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에 통달한 첫 번째 오우거 중 하나가 고그였다.

강력한 힘을 얻은 고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오그론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더욱 강력한 존재를 노리고 있었다. 모든 오우거가 신으로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거대 약탈자, 그론이었다.

고그의 야망에 아라코아마저 충격에 빠졌으나 결과는 반박할 수 없었다. 고그는 한 손으로 그

론을 쓰러뜨렸다. 고그의 잔혹한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포로 오우거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졌다. 고그는 또 다른 그론을 처치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론을 제압했다. 다섯 번째 그론을 쓰러뜨렸을 때 고그의 무용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모든 오우거 주둔지에 퍼졌다. 거대한 그론은 오우거에게 체격이나 힘에 있어서 사실상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보였다. 그들은 오우거처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최소한 노예들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고그의 영웅담은 그 믿음을 깨뜨렸다. 그론도 쓰러뜨릴 수 있는데, 오그론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동족에게 돌아온 '그론사냥꾼 고그'는 반란을 위해 다른 노예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곧 사지가 찢긴 오그론들의 시체가 사방에 뒹굴기 시작했다.

엄청난 수의 오그론이 쓰러졌다. 복수를 향한 오우거의 열망과 새로 얻은 비전 마법의 위력은 오그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지가 찢기지 않고 살아남은 오그론들은 탈출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오우거가 노예의 사슬을 집어 던지자 아라코아의 마법사들은 도시의 폐허 속으로 조용히 진입했다. 그곳에 묻혀있던 옛 에펙시스 문명의 유물들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고그는 그들을 저지했다. 고그는 강력한 마력의 원천이라면 무엇이랴도 그냥 내어줄 수 없었다. 오우거들은 피를 흘리며 그 땅을 차지했다. 고그는 자신을 고그 왕을 뜻하는 '고르고그'라는 이름으로 칭하며 그 도시의 지배자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왕의 옥좌를 의미하는 '고리아'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개명했다. 이른바 고리안 제국의 탄생이었다.

한편 오우거의 반란은 또 다른 종족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론드의 후예 중 가장 작은 체격을 가진 그들은 그동안 저 멀리 고르그론드 지하의 거대 동굴에 자리잡고 있었다. 다소 척박한 환경이더라도 그론과 오그론의 노예가 될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우거의 반란이 두 강력한 위협을 제거해주자 그들 오르는 수 세대 만에 처음으로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드레노어> -800년 ~ -13년

오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집단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으나 큰 전쟁으로 번지기 전에 많은 오크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또한 그들은 지하에서 살아왔던 경험으로 주변의 광맥을 연구하여 제련술과 대장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주변의 야수들을 조련하여 사냥을 하기도 했다.

먼저 동쪽의 타나안 밀림으로 이주한 오크들은 가혹한 야생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때 야생의 충동에 이성을 잃어버린 자들은 동쪽을 잡아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해골이빨 부족이 되었다. 이성을 지킨 자들은 자신들을 피눈물 부족이라 칭했다.

서쪽의 황무지 서리불꽃 마루에 도착한 오크들은 혹독한 추위를 가진 그곳의 환경에 먼저 적응해야 했다. 서리늑대 부족과 흰발톱 부족은 그 지역의 야생 늑대를 친구로 길들여 사냥을 이어갔다. 천둥군주 부족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그론을 사냥하곤 했다. 그들은 한 차례 그론 사냥에 성공하면 수 주 동안의 식량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더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남쪽의 비옥하고 기름진 탈라도르 땅에는 세 부족이 정착했다. 불타는 칼날 부족, 붉은걸음 부족, 칼바람 부족이 그들이었다. 그곳에서 더욱 남쪽으로 내려간 어둠달 골짜기에는 어둠달 부족이 자리잡았다. 어둠달 부족은 하늘의 별에 매료되어 점성술을 발전시켰다.

탈라도르에서 서쪽에 위치한 나그란드 지역에도 오크 무리가 정착했다. 그들은 전쟁노래 부족이라 불렸다. 오우거 제국을 가까이 두고 있는 탓에 그들은 유목민처럼 대초원을 떠돌아야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전투를 좋아하는 부족이었기에 생존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검은바위 부족, 웃는해골 부족, 번개칼날 부족, 용아귀 부족은 북쪽의 고르그론드 근처에 그대로 남았다. 그중 용아귀 부족은 주변 지역의 날개 달린 생명체를 길들여 타고 다니곤 했다. 검은바위 부족은 근처 검은바위 광맥을 통해 그 어느 부족보다 강한 무기를 생산해냈다.

드레노어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어둠달 부족은 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전통 의식을 발전시켜 대륙 곳곳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러던 중 나그란드 북서쪽 산맥 근처에서 그들은 기이한 꿈과 계시를 경험했다. 그곳은 사실 그론드가 쓰러진 유해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드레노어에선 보기 힘든 불, 바람, 대지, 물의 원소 정령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했다. 어둠달 부족 순례자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그곳에 '정령의 옥좌'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크들은 열린 마음과 조화로운 감각으로 원소 정령을 인도할 방법을 익혔다. 가차 없는 마법으로 대지를 가르고 형태를 바꾸던 오우거와는 달리 오크는 절대적인 경의 속에서 자신의 힘을 억제했다. 마침내 정령이 그들에게 힘을 허락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다. 홍수가 뒤집혔고 강풍은 밀려나 초원을 갈랐다. 어떤 오크도 그러한 기적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떤 필멸자도 자연과 그러한 유대를 가진 적이 없었다. 순례자들은 그 힘을 주술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오크 부족에게 헌신적으로 전수했다.

오우거들은 처음에 오크들이 가졌다는 주술의 힘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

히 어느 주술사가 위력적인 홍수의 물길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목격한 이후로는 그 힘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들은 먼저 정령의 옥좌에 모여있는 오크들을 내쫓고 자신들의 마법의 힘으로 정령의 옥좌를 살살이 분석했다. 하지만 오우거들이 가진 마법력은 옥좌에 모여있는 원소 에너지의 힘과는 맞지 않았다. 결국 이 충돌은 큰 폭발을 일으키고 만다.

신성한 옥좌에 대한 모독에 분노한 오크들은 모든 부족과 연대하여 오우거와 전면적인 전쟁을 개시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인구 수와 주술의 힘, 제련 무기의 기능 덕에 오크들은 오우거 제국의 강대함에도 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오우거의 군대를 그들의 수도 고리아로 밀어 고립시켰다. 고리아의 방어는 견고했지만 결국 원소 정령의 도움으로 오크 주술사들은 고리아마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정령의 분노는 맹렬한 폭풍으로 고리아의 하늘을 휘젓고 대지를 흔들었다. 몇 시간 동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 고리아의 모든 벽과 건물을 폐허로 만들었다. 결국 오우거의 위대한 문명 고리안 제국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완전히 멸망한다.

고리안 제국은 다시 위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남은 오우거 부족은 대륙 서쪽 끝에 높은망치와 칼날첨탑 요새를 짓고 은둔했다. 두 부족은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인 환경을 구축했고, 반대로 오크들은 과거 오우거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넓은 영토를 점령했다. 이제 오크들은 드레노어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으로 거듭났다. 적어도 외계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래전 아르거스 행성에서 살게라스에 의해 타락한 동족들(불타는 군단)을 피해 도망쳤던 에레달 종족은 자신들을 '추방당한 자'라는 뜻에서 드레나이라 이름을 바꾸고 우주를 배회하고 있었다. 빛의 종족 나루가 만든 차원 성채 '제네달'을 우주선으로 삼아 떠돌던 그들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던 나루의 힘이 점점 쇠락해가는 것을 느끼고 급히 불타는 군단의 손길이 닿지 않은 행성으로 불시착을 시도했다. 드레나이를 이끄는 수장 벨렌은 도착한 행성을 '추방자의 은거처'라는 뜻으로 '드레노어'라 이름 붙였다. (이전까지는 사실 이름 없는 행성이었고 이때 이름이 붙었다.)

제네달에는 세 명의 나루가 타고 있었다. 크아라, 도레, 그리고 벨렌과 드레나이들을 이끌었던

크우레였다. 하지만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도레는 죽어버렸고, 크아라는 빛과의 연결을 잃고 공허에 잠식당하고 말았다. 벨렌은 공허의 어둠이 살아남은 나루 크우레에게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급히 크아라를 제네달 밖으로 밀어버렸다. 이후 타락한 나루 크아라는 드레노어 남쪽 어둠달 골짜기의 하늘을 떠돌게 된다. 하지만 크우레 역시 쇠락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크우레는 착륙 후 드레나이들을 함선 밖으로 내보내 새로운 세계에 적응토록 하고 자신은 홀로 제네달에 남아 죽음을 기다렸다.

드레나이 수장 벨렌이 동족을 이끌고 정착한 곳은 과거 오우거의 도시 고리아가 있었던 장소였다. 드레노어의 다른 종족들은 고리아를 집어삼킨 정령의 분노를 기억했기에 누구도 그곳에 다시 정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드레나이들은 그런 기억이 없었기에 거리낌 없이 그곳에 샤프라스라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했다. 그리고 나루 도레의 유해를 통해 죽은 드레나이 형제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쪽 아라크 지역 근처 테로카르 숲 외곽에 아킨둔이라는 거대한 무덤도 지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어둠달 골짜기 동쪽 끝의 카라보르 사원이었다. 사원은 곧 드레나이의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했다.

한편 도레의 유해가 죽은 드레나이의 영혼들을 끌어들이 것처럼 제네달의 크우레는 죽은 오크의 영혼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오크 부족은 이를 발견하고 조상과의 대화를 위해 그곳에 오슈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신성시했다. 하지만 일부 오크들은 크우레에게서 흘러나온 공허의 에너지에 잠식되어 점차 흰 피부를 가진 '창백한 오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얼굴에 백골 문신을 새기고 나그란드 지하의 동굴에 은둔했다.

수십 년간 드레나이와 오크는 큰 전쟁 없이 공존했다. 가끔 간헐적인 국지전이 벌어질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교류가 이어졌다. 이는 드레노어에서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는 벨렌의 노력 덕분이기도 했다.

어느 날 두 명의 오크 소년이 드레나이의 도시에 발을 디디게 된다. 한 명은 검은바위 부족의

아이였고, 한 명은 서리늑대 부족의 아이였다. 출신지가 다름에도 깊은 우정을 가졌던 두 소년은 자주 함께 모험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테로카르 숲에서 오우거를 만나 위험에 처했던 것을 드레나이 경찰대가 구조하여 도시로 데려온 것이었다. 이때 벨렌은 두 오크 소년들의 마음속에 한 점 어둠 없이 자긍심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이후 드레나이 경찰병들은 오크 소년들을 안전하게 경계 지역까지 호위해주었고, 집으로 돌아온 두 소년은 친구들에게 드레나이 도시에서 본 놀라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후일, 두 오크 소년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듀로탄과 오그림.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크 종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드레노어> -11년

오크 부족 대부분은 호전적인 성향을 띠었다. 규모가 크고 강력한 부족일수록 그랬다. 하지만 <서리늑대 부족>은 달랐다. 그들의 족장 가라드는 다른 오크 전사들과 달리 대지와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중시하고 내면의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을 금지로 여겼다. 그에겐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막내아들 듀로탄이 이를 잘 따랐다.

사실 듀로탄이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릴 적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에서 다친 어머니를 공격하는 맹수들의 공격에 맞서 싸운 일이 있었다. 이때 피의 욕망에 휩쓸려 수호늑대마저 죽이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던 듀로탄은 이후 자신이 죽인 수호늑대의 가족을 뒤집어쓰고 과거를 상기하며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가라드의 첫째 아들 펜리스는 이러한 서리늑대 부족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몰래 늑대 가면을 쓰고 밖으로 나가 천둥군주 부족들과 함께 광기 어린 그론 사냥을 즐겼다. 천둥군주 부족의 기치인 용기와 무용을 무엇보다 가치있게 여겼기 때문이다. 펜리스는 곧 '강철늑대'라는 별명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졌고, 펜리스 본인도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가라드는 그러한 첫째 아들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펜리스는 급기야 아버지에게 '막고라(목숨을 건 결투 의식)'을 신청했고, 규정상 막고라를 거부할 수 없었던 가라드는 이에 응하여 승리하긴 했지만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를 오히려 더 수치로 여긴 펜리스는 결국 서리늑대 부족을 떠나 천둥군주 부족으로 귀의한다.

이후 가라드는 오우거 부족과의 전쟁 중 둘째 아들을 잃고 얼마 안 가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다. 이로 인해 듀로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리늑대 부족의 족장이 된다.

<검은바위 부족>은 드레노어의 희귀 금속인 검은바위 광석을 독점한 덕분에 제련 기술에 통달하여 매우 뛰어난 장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족장 블랙핸드는 이러한 이점을 기반으로 자신의 부족을 오크 부족 중 가장 크고 조직적인 부족으로 만들었다. 블랙핸드 본인 역시 오크 전사들 중 무력만큼은 가장 뛰어난 전사로 알려져 있었다.

이밖에도 검은바위 부족에는 현명한 부관 아이트리그, 간신배 말코록, 용맹한 형제 브룩시가르 사울팽과 바로크 사울팽 등 뛰어난 전사들이 많았으며 듀로탄의 어릴 적 친구 오그림 뚝해머는 블랙핸드가 총애하는 검은바위 부족의 부사령관이었다.

툼해머 가문에는 위대한 힘이 담긴 무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름 그대로 '툼해머'라는 이름을 가진 망치였다. 툼해머는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오크 부족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이지만, 이후 그 망치를 물려받은 자가 오크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재건시킬 거라는 전설을 갖고 있었다.

오그림이 아직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교만에 빠져 툼해머를 정령들에게 뺏긴 일이 있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 툼해머는 당시 한창이던 오우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블랙핸드는 죽음을 무릅쓰고 정령들의 용암 속에서 툼해머를 꺼내들었다. 정령들은 오로지 부족을 위한 이타적인 감정을 느끼고 블랙핸드가 툼해머를 다시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덕분에 오우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랙핸드는 망설임 없이 망치를 툼해머 가문에게 돌려주었다. 이때 블랙핸드는 용암에 손을 담근 탓에 한 손이 검고 단단하게 변했는데, 그가 블랙핸드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오크 전사들 중 무력이 가장 뛰어난 자로 블랙핸드와 함께 이름이 꼽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전쟁노래 부족>의 족장 그롬마쉬 헬스크림이었다. 대단히 호전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그의 부족은 비록 규모는 검은바위 부족보다 작았지만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나그란드의 잔존 오우거들을 평정하고 그 일대를 차지했다. 그롬의 아들 가로쉬 헬스크림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다.

호전적인 성향을 띤 검은바위 부족과 전쟁노래 부족과 달리 <어둠달 부족>의 족장 넬줄은 매우 지혜로운 자였다. 그는 모든 부족에게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것은 분화된 오크 종족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넬줄은 모든 주술사의 조언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부족 간 느슨한 유대를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힘썼다.

오우거의 노예 출신이었다가 스스로 손을 자르고 탈출하여 일대 노예들을 해방시킨 카르가스는 <으스러진 손>이라는 새로운 부족을 만들고 '칼날주먹'을 뜻하는 블레이드피스트라는 이름을 얻었다.

자신의 두 눈을 찢어 자신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받은 킬로그 데드아이는 나약한 아버지를 살해하고 새 족장으로 오름으로써 쇠락했던 <피눈물 부족>을 일으켰다.

한편 이렇게 각각의 오크 부족들이 드레노어에서 세력을 잡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 불타는 군단의 2인자 킬제덴였다.

그동안 킬제덴은 자신의 옛 동족이었던 벨렌과 드레나이를 추적하고 있었다. 마침내 드레노어 행성에서 그들을 찾아낸 킬제덴은 검사 그곳에 있는 오크 종족에게도 관심을 두었다. 살게라스가 찾으라 명령한 어떤 '적당한 종족'이 되어줄 것 같아서였다.

살게라스는 두 번째 아제로스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아제로스의 강력한 생명체를 하나 찾아 자신의 영혼을 심어 다음 침공을 위한 그릇으로 쓰고자 했다. 그것이 에이그윈이었고, 메디브였다. 또한 불타는 군단이 두 번째 침공을 시도할 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도록 아제로스의 세력들이 분열돼있길 바란 살게라스는 자신의 수하들로 하여금 우주를 뒤져서 적당한 종족을 타락시켜 군단에 편입하라 명령했다. 아제로스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킬제덴은 우선 오크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이용할 대리인을 물색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적당

한 후보자는 변방의 작은 오크 부족에 있었다. 이름 없는 소규모 부족에서 태어난 그 작은 오크는 선천적으로 허리가 휘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의 뒤틀린 육체가 불길한 징조라고 여긴 그의 부족은 그를 추방했고, 쫓겨난 그는 야생에서 홀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 오랜 경멸과 굶주림에 지쳐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그는 마지막으로 신성한 정령의 옥좌를 찾아 무릎 꿇고 간청했다.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정령들은 굴단의 마음에서 어둠을 감지하고 그의 부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거절했다. 뒤틀린 오크는 슬픔에 휩싸였다. 온 세상이 그를 버렸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킬제덴은 절망에 빠진 먹잇감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에 속삭였다. 킬제덴은 뒤틀린 오크를 누구도 다시 동정하거나 지배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신처럼 강력한 능력을 얻어 그를 모욕했던 이들을 모두 벌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막강한 힘에 대한 대가는 오크 종족을 타락시키고 이를 무기 삼아 드레나이까지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뒤틀린 오크는 이 어둠의 계약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종족을 경멸했다. 그들의 관습과 전통은 자신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다. 신과 같은 능력이 오크 종족을 조종하는 것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킬제덴은 뒤틀린 오크에게 지옥 마법을 구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뒤틀린 오크는 불안정한 지옥 마법을 생각보다 빠르게 습득했다. 그렇게 최초의 오크 흑마법사가 탄생했다. 굴단, 그의 증오와 복수심은 킬제덴의 상상 이상이였다.

굴단이 처음 행한 일은 정령의 옥좌를 지옥의 마력으로 물들이는 일이었다. 이 여파로 드레노어의 땅은 황폐화되고 숲과 밀림은 끔찍한 눈보라와 얼음으로 뒤덮였다. 강과 개울이 바닥을 드러내며 갈라지고 사냥감들이 죽어나갔다. 때문에 오크들은 식수와 식량 부족,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주술사들의 능력으로도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다. 또한 굴단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퍼뜨려 몇 달 만에 수백 명이 넘는 오크가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다. 서리늑대 부족의 족장 가라드를 사망하게 만든 전염병도 이 때문이었다.

굴단이 다음으로 한 일은 자신의 옛 부족으로 돌아가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

게 과거를 지운 굴단은 어둠달 부족에게 접근해 오우거가 자신의 마을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몰살시켜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이를 가엾게 여긴 어둠달 부족의 족장 넬줄은 굴단을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 굴단이 노린 것은 바로 그 넬줄이었다.

넬줄은 현명한 자였지만 마음의 틈을 갖고 있었다. 수년 전 넬줄은 사랑하는 아내 룰칸을 잃었다. 넬줄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최근 드레노어를 잠식한 정령의 혼란은 그의 오랜 상처를 일깨웠고 때문에 넬줄 내면에 혼돈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굴단은 넬줄 내면의 어둠을 공략했다. 긴 시간을 들여 넬줄의 신뢰를 얻고 가까운 사이가 된 굴단은 넬줄의 꿈에 룰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드레나이가 오크를 전멸시키려 한다는 경고를 전했다. 현명한 넬줄은 꿈을 경계했다.

굴단은 다음으로 작은 오크 마을 <칼바람 부족>에 접근해 최근 일어난 전염병과 재앙이 드레나이의 탓이라며 분노를 종용했다. 어둠달 주술사를 신뢰하던 그들은 굴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드레나이의 짐마차를 습격해 무고한 드레나이들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드레나이의 지도자 벨렌은 처음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시켰지만, 포로들마저 학살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로는 동족들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곧 칼바람 마을엔 피바람이 불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오크들은 어둠달 골짜기로 도망쳤으나 목적지에 이른 이는 없었다. 굴단이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존자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굴단이 전하는 이야기만이 유효했다.

굴단은 즉시 어둠달 부족에게로 돌아와 자신이 목격한 참사를 전했다. 드레나이가 칼바람 마을을 상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유 없는 학살을 감행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끔찍한 사건에 관한 소문이 오크 부족들 사이에 퍼져 갔다. 넬줄 역시 자신이 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맞아들어가자 굴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곧 넬줄은 오크 부족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유명한 오크 지도자들이 신성한 오슈군의 수정산 그늘 아래 모였다. 블랙핸드, 그롬마쉬 헬스크림, 킬로그 데드아이, 카르가스, 오그림 둠해머, 듀로탄. 그리고 천둥군주 부족의 족장이 된 펜리스도 함께였다. 넬줄은 최근 일어난 각종 이상 기후와 전염병, 칼바람 마을 습격이 모두 드레나이의 소행이라며 꿈에서 들었던 예

언적 경고도 함께 전했다. 오크 지도자들은 밤새 토론을 이어갔고, 마침내 결론이 나왔다. 평화를 추구하는 흰발톱 부족과 서리늑대의 듀로탄은 반대했지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전쟁을 위한 오크의 대통합.

그날부터 그들은 호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드레노어> -7년

호드가 결성된 이후 굴단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우선 존경받는 어둠달 주술사인 테론고르를 포함한 일부 어둠달 주술사들을 흑마법사로 만들어 자신만의 조직 <어둠의 의회>를 만들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넬줄을 유폐하는 것이었다. 넬줄이 오슈군에서 진짜 아내의 영혼을 만나 진실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어둠의 의회는 오로지 굴단에게만 충성했다.

굴단이 다음으로 만든 조력자는 굴단과 비슷한 처지의 하프오크 소녀 가로나였다. 칼바람 부족 출신으로 오크와 드레나이 포로 사이에 태어난 혼혈 오크였던 그녀는 오랫동안 멸시를 받으며 성장하여 사나운 투사로 거듭났다. 그녀는 강인한 신체는 물론 뛰어난 지능과 언변도 갖추어 칼바람 부족의 포로들에게서 드레나이어를 익히고 부족원을 위해 종종 통역을 맡기도 했

다.

칼바람 부족의 근거지가 드레나이에게 파괴된 후, 가로나는 근처 숲으로 도망쳤다. 당시 그녀에게서 큰 가능성을 보았던 굴단은 추방자의 괴로운 삶에 대해 공감을 보이며 그녀에게 접근했다. 가로나가 경계심을 내려놓자, 굴단은 어둠의 힘으로 가로나를 세뇌하여 암살자로 이용했다. 첫 타겟은 호드 결성 당시부터 평화 운운하며 잡음을 내었던 골칫거리, 흰발톱 부족의 족장 자그렐이었다. 가로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그렐의 숨통을 끊었다.

굴단의 세 번째 조력자는 오우거 부족에 있었다. 높은망치 부족의 오우거 마법사 초갈. 그는 머리가 둘 달린 오우거였다. 다만 가로나나 굴단과는 달리 오우거들은 그의 신체적 특징을 행운의 징조로 여겼다. 덕분에 초갈은 높은망치 부족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엘리트 코스로 비전 마법을 익혔고, 그를 추종하는 오우거 무리들도 많았다.

하지만 오우거 귀족들은 초갈의 그런 인기와 거만함을 경계했다. 급기야 그들은 초갈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가까스로 도망친 초갈은 어둠의 의회와 만났다. 굴단은 초갈의 자유분방한 자신감과 끝없는 권력욕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초갈을 수제자로 삼아 지옥 마법의 비밀을 가르치고 불타는 군단의 존재에 대한 것까지 말해주었다. 초갈은 그 힘을 바탕으로 나그란드 지하 동굴에 은신해있던 창백한 오크들을 꼬드겨 <황혼의 망치> 부족을 창설했다. 창백한 오크들은 오랜 시간 나루 '크우레'의 공허의 에너지에 잠식되어 있었기에 초갈은 그 힘에도 주목했다.

얼마 후 블랙핸드가 호드 대족장의 자리에 오른다. 호드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당장이라도 드레나이들을 씹어먹을 것 같았다. 정령들은 오크들이 타락해가는 것에 분노하여 '불의 군주 사이루크'라는 하나의 존재로 융합해 오크들을 벌하려 했지만 오히려 굴단의 계략에 의해 정령 에너지를 뺏기고 파괴되었다. 이때 오크들과 정령 간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다.

벨렌은 그동안 오크들의 배후에 킬제덴과 불타는 군단이 있음을 눈치채고 드레나이 병력을 샤프트라스와 카라보르 사원으로 결집시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곧 전투에 휩쓸린 오크와 드레나이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됐다.

드레나이들이 그동안 평화를 추구했다고 한들, 그들은 만만찮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신체능력은 특별히 뛰어나진 않았지만 마법력과 기술력만큼은 아직 야만성을 벗어나지 못한 오크들과 비교를 불허했다. 굴단은 급기야 지옥 마법으로 어린 오크들까지 강화하여 전선에 투입시켰지만 전세는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이때 굴단은 한 가지 꾀를 낸다. 카라보르 사원 위에 떠돌던 검은 별, 나루 '크아라'를 추락시키는 방법이었다. 오래전 어둠에 굴복한 크아라의 육체에선 강력한 공허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의 의회는 합심하여 마력을 별에 집중시켰고, 그 여파로 공허 에너지의 기둥이 드레나이가 있는 곳으로 내리꽂혔다. 많은 드레나이 수호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벨렌은 생존자들과 함께 간신히 탈출했다. 찬란했던 카라보르 사원은 공허의 에너지가 영원한 어둠을 채우게 되었다. 후일 그곳은 <검은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오크들은 승리를 자축했지만 굴단은 고민에 빠졌다. 드레나이의 전력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들의 최대 방어선인 샤프트라스 주둔군과는 더욱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었다. 비록 카라보르 사원에선 검은 별을 이용해 승리할 수 있었지만 드레나이의 최대 방어선인 샤프트라스엔 그런 것도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답은 킬제덴이 주었다. 바로 악마의 피를 마시고 이계의 힘을 얻는 것.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이었다. 그러나 굴단은 고민하지 않았다.

굴단은 오크들에게 힘을 부여하겠다고며 부족들을 성채 부근의 산꼭대기로 불러 모으라 블랙핸드를 설득했다. 그는 블랙핸드에게 그저 지옥 마법을 구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만 말했다. 블랙핸드는 부족에 소집을 명했고 그 사이 킬제덴은 엄청난 마력을 동원하여 검은 사원

에 임시 차원문을 열었다. 곧 차원문을 통해 파괴자 만노로스라 알려진 지옥의 군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채 가까이 솟은 산의 정상에서, 굴단은 모인 부족장들을 맞이했다. 굴단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만노로스의 끓어오르는 피 웅덩이를 모두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액체가 오크에게 지옥 마법을 알려준 자애로운 존재의 선물이라고만 밝혔다. 굴단은 이제 그 존재가 오크에게 더 강력한 것을 주었으며 그 웅덩이의 액체를 마시면 신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 나선 자는 그롬마쉬 헬스크림이었다. 언제나 대담했던 전쟁노래 족장은 주저하지 않고 만노로스의 피를 한껏 들이켰다. 오크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지옥의 마력이 그의 피를 타고 흐르자 헬스크림의 근육이 부풀어 올랐다. 두 눈에선 지옥의 붉은빛이 선명하게 타올랐다. 전쟁노래 족장 헬스크림은 드레나이의 피를 탐하며 우렁찬 전쟁의 함성을 내질렀다. 이에 경도된 오크들은 앞다투어 피를 마셨다. 곧 그들의 몸에도 지옥 에너지의 기운이 피부와 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피부색은 이미 예전과 같은 갈색이 아닌, 형형한 초록색이었다.

만노로스의 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한 자들도 있었다. 듀로탄은 미리 넬줄로부터 경고를 받아 경계하고 있었고, 오그림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껴 회피했다. 하지만 주위의 모든 오크들에게 악마의 기운이 퍼지자 그 영향으로 악마의 피를 맛보지 않은 이들 역시 피부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말았다. 만노로스의 피를 마신 오크들은 모여든 현장에서 가슴을 두드리고 소리치며 드레나이의 죽음을 갈망했다. 대족장 블랙핸드는 즉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바로 그날 밤, 블랙핸드는 호드 전체에 샤트라스로 진격 명령을 내렸다.

샤트라스는 파멸할 운명이었다. 벨렌은 그것을 예견했다. 카라보르가 무너지고 수 주 동안 예언자 벨렌은 종말의 계시에 시달렸다. 샤트라스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유독한 비가 내려

드레나이가 괴물처럼 뒤틀리는 광경이었다. 수천 명의 용감한 드레나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크에게 난도질당했고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드레나이의 사랑하는 안식처인 샤트라스를 집어삼켰다.

그 계시는 사실이었다. 굴단은 흑마법사들로 하여금 마법에 천연두를 혼합하여 공성 전차를 이용해 전염병을 샤트라스에 날려 보냈다. 폭탄은 샤트라스 성벽에서 터져 지저분한 안개를 만들어 냈다. 안개는 드레나이의 피부를 태우고 호흡을 방해했다. 불고 진한 안개가 샤트라스의 흉벽을 휘감으며 접근하는 호드 군대의 모습을 가렸다. 안개가 샤트라스의 수호자들을 덮치는 동안 오크는 샤트라스 성벽의 틈을 통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흑마법사들은 길제덴에게 배운 주문을 읊고 하늘에서 초록색 유성을 소환하여 샤트라스의 성루를 강타했다. 피가 강물처럼 흐르며 샤트라스의 거리와 사원과 정원을 적셨다. 학살에 굶주린 호드 앞에서 누구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 많은 호드 병사의 시체가 드레나이 시체와 함께 나뒹굴었다. 오크 역시 큰 피해를 본 전투였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다.

마라아드를 비롯한 일부 드레나이 수호자들은 피난민들을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갔다. 수천 명의 드레나이가 샤트라스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희생으로 많은 시민이 탈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호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무덤의 도시 <아킨둔>으로 퇴각했다. 아킨둔은 드레노어에서 가장 신성한 드레나이의 성지였다. 그들은 아킨둔에서 조상들의 영혼을 불러내어 함께 호드에 맞섰다.

드레나이들의 드센 저항에 당황한 테론고르와 흑마법사들은 길제덴이 가르쳐 준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 마력을 모은 후 현실의 장막 너머로 내보냈다. 강력한 악마를 현실로 불러내어 적을 쓰러뜨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다급했던 나머지 전혀 다른 존재를 소환하고 말았다. '울림'이라는 이계의 정령이었다. 울림은 머나먼 우주 저편에서 드레노어로 끌려와 아킨둔에서 형체를 드러냈다. 울림의 도착과 함께 충격파가 일어 대지가 갈라졌고 무덤의 도시가 폭발하며 많은 드레나이가 즉사했다. 울림의 파괴적인 에너지는 물결처럼 퍼지며 아킨둔 주위의 숲을 휩쓸었다. 상황이 일단락된 후, 테론고르와 흑마법사들은 울림을 간신히 아킨둔 깊은 곳에 가두었다. 혹여 풀려날까봐 소수의 흑마법사는 계속 아킨둔에 남아 울림을 감시해야 했다.

이러한 계속된 여파로 일부 드레나이 생존자들은 결국 정신과 신체가 모두 변형되어 '뒤틀린 드레나이'가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드레나이'로 퇴화했다. 벨렌을 위시한 정상적인 생존자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장가르 해에 있는 외딴 사원 <텔레도르>에 몸을 숨겼다. 굴단의 추적을 열심히 피한 덕분에 텔레도르의 생존자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 후일 그 일대는 바다가 마르며 <장가르 습지대>라 불리는 늪지를 형성한다.

블랙핸드는 정찰병들을 내보내 드레노어를 살살이 뒤졌다. 강한 힘을 얻은 그들의 목표는 이제 드레나이뿐만이 아니었다. 킬로그 데드아이의 병력은 파랄론 섬으로 건너가 원시생물들을 학살하고 숲을 불태웠다. 헬스크림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오우거들의 남은 세력도 마저 무너뜨렸다. 그동안 지옥 마법과 공허의 비밀을 모두 익힌 초갈은 높은망치 부족의 군주 마르고크를 찾아내 그들의 옥좌에 결박한 후 산 채로 불태웠다. 그밖에 그론, 오그론, 마그나론 등 남은 종족들도 거의 멸종에 가깝게 몰아붙였다. 그 선두엔 천둥군주 족장 펜리스가 있었다.

이제 드레노어에 남은 위협적인 세력은 아라크 지역 높은 곳 <하늘탑>에 사는 아라코아들이었다. 지능적인 그들 종족은 고대 에펙시스 기술을 재발견하여 하늘탑 위에 거대한 포를 만들었다. 그 기계는 태양의 불타는 힘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호드로부터 그들 영토를 보호하고 있었다.

블랙핸드는 카르가스에게 아라코아 소탕을 맡겼다. 카르가스는 하늘탑 꼭대기에서 뿔어져 나오는 불타는 광선을 뚫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근처 테로카르 숲에서 조력자를 찾았다. 바로 추방된 아라코아들이었다. 이 날개 달린 생명체들은 하늘탑과 고위 아라코아를 증오했다. 카르가스는 그들을 이용해 도시 꼭대기의 기계장치를 파괴하고 하늘탑을 맹습했다. 심지어 그는 동맹이었던 추방된 아라코아들에게까지 곧바로 칼을 겨누어 아라코아 종족의 씨를 말렸다. 살아남은 극소수의 아라코아들은 세데크 골짜기 등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호드에 대한 쓰디쓴 증오를 키우며 언젠가 동족의 피를 흘뿌린 오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수할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살게라스는 기뻐했다. 악마의 피를 주입받은 오크들은 불타는 군단에 버금가는 불굴의 군대였다. 그들은 살게라스가 찾던 완벽한 도구였다. 다만 지금의 오크들은 승리에 취한 탓에 오만

해졌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살게라스는 오크가 자멸의 문턱에 내몰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일 만큼 절박해지기를 바랐다. 너무도 절박하여 다른 행성으로의 여행도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다. 킬제덴은 살게라스의 명령대로 굴단을 비롯한 그 어떤 오크와의 대화도 중단했다. 정령들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옥 마력 때문에 드레노어의 대부분 지역은 황폐한 사막으로 변모해 있었다. 타나안 밀림은 갈라진 황무지가 되어 붉은 모래와 뼈만이 나뒹굴었다. 다음 해엔 기아가 오크를 덮쳤다. 오크의 사냥감이었던 드레노어의 토착 동물들 대부분이 멸종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크들은 세계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으나 그 과정에서 드레노어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부에 위치한 호드의 요새 <지옥불 성채>만이 할 일을 잃은 채 상징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굴단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드레나이들의 탓으로 돌렸었지만 그들을 몰아낸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져 있었다. 당황한 굴단은 블랙핸드에게 킬제덴이 오크의 앞날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둘러댔다. 그러는 동안에도 오크들의 핏줄에선 여전히 피의 욕망이 타올랐지만 싸울 적조차 없었고, 식량과 식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몇몇 부족은 광기에 휘말려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굴단은 곧 블랙핸드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드레노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그런 그의 앞에, 어느 날 두건을 쓴 한 이방인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메디브라 소개했다.

메디브는 수년 전 긴 잠에서 깨어난 후, 점차 타락해갔다. 첫 계기는 구루바시 트롤들과의 전쟁이었다. 대륙 남부에 위치한 인간들의 스톰윈드 왕국과 정글 트롤들의 구루바시 부족은 영토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스톰윈드의 국왕 바라덴은 트롤과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했지만 그의 아들 레인 린은 생각이 달랐다. 결국 레인은 친구인 안두인 로서와 메디브와 함께 트롤 영토에 잠입했고, 이때 메디브는 자신도 정체를 모르는 강력한 어둠의 마력으로 트롤 영토 일부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들의 군주까지 살해하고 말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구루바시 트롤과 스톰윈드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다. 연로한 스톰윈드의 국왕 바라덴은 이때 전장에서 죽음을 맞았다. 레인이 비통해 하는 동안, 메디브는 다시 한 번 정체 모를 자신의 힘을 끌어모아 스톰윈드 주변에 포진한 트롤들에게 불과 얼음의 비를 내렸다. 수많은 트롤들이 그의 강력한 마력에 휩쓸려 나갔다. 어느새 메디브는 자신의 힘을 즐기고 있었다.

전쟁은 스톰윈드의 승리였다. 메디브와 그의 두 친구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레인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왕에 올랐고, 로서는 장군이 되었다. 하지만 메디브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며 스톰윈드를 당분간 떠나있기로 결정했다. 새 거처는 얼마 전부터 꿈속에 나타난 여인이 줄곧 오라고 손짓했던 곳, <카라잔의 탑>이었다.

탑에 도착한 메디브는 곧 꿈속의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 에이그윈이었다. 이후 메디브는 1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수호자에 대한 의미를 비롯해 그녀가 전하는 모든 지식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메디브는 자신의 내면에 깃든 수상한 어둠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으나 그녀는 그것을 묵살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상, 그것이 그저 마력을 구사하는 부담이자 책임의 무게일 것이라 치부했다.

에이그윈이 자신을 쫓는 티리스팔 의회를 피해 다시 망명 생활로 돌아가고 난 후, 메디브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는 도서관의 책들 사이에 파묻혔다. 수많은 책들 중 그가 주목한 것은 고대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로 다른 종족들과 강력한 생명체들이 한데 모여서 막강한 불타는 군단에게 맞선 이야기. 메디브의 눈에 고대 전쟁은 아제로스 역사의 금자탑이었다. 어쩌면 아제로스에는 그러한 영광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됐다. 아제로스의 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대의와 단결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툼과 논쟁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자신이 경험했던 트롤과 인간의 분쟁도 그랬다. 별 의미 없는 이득을 위해 아제로스의 부족과, 국가와, 종족은 서로를 배척했다. 오래전 불타는 군단이 고대의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아제로스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아제로스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었다. 절대로.

메디브는 급기야 공허의 어둠에 대비한 살게라스의 해결책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아제로스를 분열시킨 모든 것, 즉 국가와 문화, 정부, 왕을 무너뜨려야 했다. 상황을 바꾸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아제로스의 수호자 메디브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하기로 마음 먹었다. 메디브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군대가 필요했다. 그는 수호자의 마력을 이용해 아제로스 너머 우주로 여행했다. 살게라스는 교묘하게 메디브를 조종하여 특정한 행성에 주의를 돌렸다. 드레노어였다. 메디브는 드레노어를 관찰하며 마침내 오크라 불리는 강력하고 호전적인 종족을 발견했다.

수년간 메디브는 오크를 지켜보았다. 그는 까마귀 모습으로 변신한 채 드레노어 대륙을 여행했다. 소수의 오크만이 그 작고 수상한 새에게 눈길을 주었을 뿐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메디브는 굴단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메디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크들에게 거대한 마법의 차원문을 건설한다면 드레노어를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맛보기로 메디브는 그들에게 그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깨끗한 강과 신록의 초원과 싱싱한 사냥감이 가득한 곳 아제로스. 굴단은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굴단이 메디브를 신용한 것은 그에게서 악마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이 방문객이 살게라스의 말을 대신하는 악마라고 생각했다. 킬제덴은 갑자기 사라졌지만, 불타는 군단은 자신을 인도하는 또 다른 전령을 준비해 보낸 것이리라. 메디브는 또한 굴단 개인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해주었다. 지금보다 더욱더 강한 힘. 메디브는 그것이 아제로스 어딘가에 있는 <살게라스의 무덤>에 있다고 했다. 굴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각 드레노어에 존재하는 마법 지맥의 집중점을 찾았다. 그곳은 드레노어 동쪽 끝에 있었다. 굴단과 블랙핸드는 오크들에게 그곳에 마력 깃든 석조 골격을 건설하라 명했다. 군대가 지나가기 위해선 매우 거대한 관문을 지어야 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있고 전투의 열망을 채울 수 있는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마법의 관문. 오크들은 열의에 차 빠르게 구조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제 부턴가 <어둠의 문>으로 불렸다.

차원문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메디브는 아제로스에 있는 카라잔 동쪽 검은늪이라는 외딴 습지에 자리잡았다. 굴단과 함께 현실을 찢고 문을 여는 작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아제로스의 메디브와 드레노어의 굴단의 힘이 의식을 통해 하나로 결합되자 곧 어둠의 문이 빛을 내며 두 세계를 잇는 균열이 발생했다. 굴단은 그 작은 틈으로 우선 일부 작업병들을 보내 아제로스의 검은늪에도 석조 골격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균열의 파장을 느낀 에이그윈은 원인을 조사하다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들 메디브가 불타는 군단의 악마들과 손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에이그윈은 조용히 카라잔의 탑으로 들어가 메디브를 설득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메디브는 이미 살게라스에 의해 정신을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다. 살게라스는 메디브의 사고와 기억을 억제하면서 모든 행동을 조종하고 있었다. 에이그윈은 살게라스와의 두 번째 대면을 통해 비로소 자신과 메디브가 느꼈던 내면의 어둠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격노한 에이그윈은 메디브의 정신을 장악한 살게라스와 두 번째 대결을 펼쳤다. 수백 년간 수련해온 그녀의 마력은 인간의 몸을 빌린 살게라스로써는 쉽게 볼 수준이 아니었다. 게다가 메디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선 살게라스의 명령을 저항하고 있었다. 불리함을 느낀 살게라스는 급기야 탑 주변의 인간 수백 명의 생명력을 흡수해 그 힘으로 에이그윈을 어딘가로 추방해

버렸다. 전투가 끝나고 정신이 돌아온 메디브는 비록 살게라스에게 지배당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전투를 벌인 기억은 남아 있었다. 메디브는 재빨리 어머니의 기운을 추적해봤지만 아제로스의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 또다시 마력의 통제를 잃었다고 생각한 메디브는 한동안 실의에 빠졌다.

바로 이때 카라잔의 탑에 들어온 불청객이 있었다. 굴단이 보낸 첩자, 하프오크 가로나였다. 메디브가 한동안 연락이 끊기자 굴단은 가로나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메디브는 탑에 침입한 가로나를 즉시 사로잡았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메디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였다. 가로나는 온전한 오크도, 온전한 드레나이드도 아니었다. 게다가 몹시 총명했다. 인간 포로들을 통해 벌써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었다. 메디브는 그녀에게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가르쳤고, 가로나는 그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카라잔에 돌아와도 좋으며 가로나를 풀어주었다. 이를 전해 들은 굴단은 메디브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예 가로나를 카라잔에 머물게 한다. 메디브를 이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카라잔의 탑에 찾아온 손님은 한 명 더 있었다. 티리스팔 의회 <키린 토>에서 보낸 젊은 마법사 수습생 카드가였다. 의회는 스톨윈드에서 메디브가 활약한 뒤로 계속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관찰 결과 의회는 에이그윈에 이어 메디브 역시 자신들의 제어를 받는 수호자가 되리란 기대는 접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괜한 적대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재능 있는 마법사 훈련생을 제자로 보내 그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다.

메디브는 이 젊은 제자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 메디브는 어느 때보다 외로웠고, 카드가는 매우 영리한데다 지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카드가는 강력한 마법사인 수호자 밑에서 수련할 기회를 얻은 것에 만족해했다. 비록 카라잔의 탑은 엉망이고 메디브는 놀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카드가는 메디브가 시키는 과제들을 빈틈없이 처리해냈다.

다만 카드가가 카라잔의 탑에 온 후로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가로나와의 만남이었다. 젊은 마법사는 그녀를 즉시 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메디브는 친절하게 가로나를 맞이했다. 메디브

는 카드가에게 가로나를 정중히 대하라고 당부했다. 당황한 카드가는 쉽게 그 당부를 지키지 못했고, 따라서 며칠 동안 카드가와 가로나는 곧잘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둘은 곧 우정을 키웠다. 오히려 메디브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통에 카드가는 스승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 워크래프트 코믹스에만 등장하는 '메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가로나와 메디브 사이의 자식이다. 수호자의 자식답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먼치킨이지만 본작 게임에선 언급이 거의 없다. 후에 코믹스에 나오는 메단의 '행보'는 정사가 아님이 공식화되었지만 메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진 않았다.)

한편, 아제로스와 드레노어 양쪽에서 만들어지던 어둠의 차원문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오크 군단은 드디어 아제로스에 첫 발을 디디게 된다. 사실상 불타는 군단의 두 번째 아제로스 침공이었다.

와우 스토리 4부 : 1차/2차 대전쟁

0년

블랙핸드는 광기에 이성을 잃어 통제가 어려워진 일부 부족들(전쟁노래 부족, 으스러진 손 부족, 천둥군주 부족 등)을 드레노어에 남겨놓고 왔다. 따라서 전력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에겐 부족의 2인자 오그림 둠해머와 용맹한 사울팽 형제, 그리고 아이트리그가 있었다. 피눈물 부족의 킬로그 데드아이와 오우거 마법사 초갈, 굴단의 흑마법사들 역시 든든한 전력이었다.

스툼윈드 국왕 레인 린은 왕으로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종족과 조우하게 된 것에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전의 트롤들과 달리 그들의 목표는 '정복'이었기에 적당히 분쟁을 축소시키거나 협상할 여지도 없었다. 게다가 스툼윈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고립 정책을 고수해왔기에 주변 왕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곧 호드의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목표는 단연 어둠의 문에서 가장 가까운 스톨윈드 왕국이었다. 호드 대족장 블랙핸드는 우선 어둠의 문 근처에 선봉 기지를 세우고 곧바로 스톨윈드 영지로 진격했다. 스톨윈드는 이 낯선 이방인들의 침략에 아무런 대비가 돼있지 않았다. 사정을 파악할 새도 없이 그들은 서부 몰락지대와 그늘숲, 붉은마루 산맥 일대를 호드의 손에 내주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된 후에는 인간들 역시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악마의 피를 마신 오크들은 강했지만 인간들은 잘 정비된 군대와 말을 이용한 우수한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제로스 지리에 능했으며, 오크에겐 없는 성직자들도 있었다. 성직자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여 다시 전장에 복귀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톨윈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전력은 바로 그들의 지휘관 안두인 로서였다. 그는 뛰어난 전략 전술로 스톨윈드 성을 둘러싼 1차 공성전에서 아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굴단의 행보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온 서리늑대 부족의 족장 듀로탄이 호드에서 추방된다. 듀로탄은 이미 망가져버린 드레노어에 부족이 살 길은 없으리라 판단하여 아제로스 원정에는 찬성했었다. 하지만 그는 드레노어가 망가진 원인이 지옥 마법의 무분별한 사용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기에 아제로스에서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결국 이곳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해 굴단에게 반대해왔다. 그 탓에 결국 쫓겨난 듀로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족을 데리고 따로 북쪽으로 떠나게 된다.

낯선 대륙의 북쪽으로 가는 여정에서 듀로탄의 아내 드라카는 마침 출산일이 임박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름은 고엘.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새로 태어난 아이마저 피부가 초록색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본 듀로탄은 그동안의 심증을 확증으로 굳히고 발 길을 돌렸다. 오랜 벗 오그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듀로탄은 부족의 원로 드렉타르에게 서리늑대 부족을 맡겨 알터랙으로 먼저 떠나있으라 일러둔 뒤, 자신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은밀히 오그림을 만나러 갔다. 오그림은 듀로탄으로부터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전해 들었다. 넬줄의 경고, 어둠의 의회의 이상 행동, 고엘의 모습... 사실 오그림도 이전부터 굴단의 행보를 의심해오던 차였기에 듀로탄의 말을 신뢰했다.

오그림은 일단 듀로탄 가족에게 경비병을 몇 명 붙여 알터랙으로 호위하게 한 후 진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일은 오그림에게 있어 평생 후회할 일이 되고 말았다. 경비병 중에 굴단의 첩자가 있어 듀로탄 가족을 급습해 살해해버린 것이다.

분노한 오그림은 더 이상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 듀로탄의 의지를 잇는 것이 그나마 오랜 친구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오그림은 즉시 모두에게 그동안 드레노어를 파괴한 것이 다름 아닌 지옥 마법이라며 굴단과 흑마법사의 정체를 폭로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오크의 행보에 책임이 있는 블랙핸드에게 막고라를 신청했다. 블랙핸드는 호드의 리더이자 그룹마쉬와 함께 최강의 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크였다. 만약 오그림이 그를 이긴다면, 규율에 따라 모두는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오그림의 말에 따를 것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의 동안의 결투가 벌어졌다. 승자는 오그림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어둠의 의회는 곧바로 도망쳤다. 이제 호드의 대족장은 오그림 뒤편에 있었다. 오그림은 앞으로 지옥 마법을 금지할 것이며, 호드를 중독시킨 부정한 어둠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인간과의 공성전에서 패배한 블랙핸드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기에 반발은 없었다. 이제 오그림이 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차례였다.

오크 사이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 스톰윈드에서도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 영웅 메디브가 타락하여 오크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카드는 아무래도 메디브의 행동이 이상해서 그의 기억을 소환해 살펴보았다. 거기서 그는 두건을 쓴 메디브가 굴단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애초에 아제로스로 오크들을 불러온 것이 메디브였다니. 카드는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즉시 레인 왕을 알현하여 자신이 들은 것을 보고했다. 가로나의 증언도 함께였다.

레인과 로서는 그들의 말을 믿기 힘들어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레인은 그동안 카드와 가로나를 몇 차례 만나 그들을 신뢰할 만한 자들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실 로서도 최근 메디브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곧 로서와 카드가,

그리고 가로나 셋은 함께 카라잔의 탑으로 향했다.

카라잔의 탑은 이미 낚새를 눈치 챈 메디브(살게라스)가 풀어놓은 악마로 가득했다. 로서와 카드가는 탑의 악마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메디브와 마주했다. 카드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법진을 펼쳤지만 메디브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가로나는 메디브의 정신 공격에 혼란에 빠져버렸고, 카드가는 생명력의 일부를 흡수당해 일찍 노화해버렸다. 그러나 이때 로서가 달려들어 메디브의 시선을 흠어놓은 덕분에 카드가는 스승 메디브의 가슴에 칼을 꽂아 넣는데 성공한다.

사실 메디브가 카드가 일행과 싸우는 동안 이 상황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가 한 명 더 있었다. 굴단이었다. 굴단은 가로나의 눈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혹여 메디브가 죽을까봐 그전에 메디브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뒤져 <살게라스의 무덤>에 관한 정보를 찾아헤맸다. 결국 굴단은 메디브가 죽기 직전에 원하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으나 그와의 정신 연결을 끊기 전에 메디브가 사망하면서 그 영향으로 굴단 역시 혼수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렇게 메디브가 죽자 살게라스의 영혼은 빠져나왔고, 굴단은 정신을 잃었다. 로서와 카드가는 원치 않았던 비극의 결과에 슬퍼했다. 하지만 아직 비극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명. 가로나가 탑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로나는 그동안 카라잔의 탑에서 지내면서 굴단의 세뇌와 명령에 저항해왔다. 하지만 조금 전 메디브의 정신 공격으로 폭주하면서 오래전 굴단으로부터 은밀히 받아두었던 한 가지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곧 그녀는 스톰윈드에 발 빠르게 도착해 레인왕을 알현했다. 레인은 카라잔의 탑에서 벌어진 일을 매우 궁금해하던 차였기에 좌우를 물리치고 즉시 가로나를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다. 가로나는 대답 대신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다. 굴단이 오래전 가로나의 정신에 새겨 넣었던 세뇌는 바로 왕의 암살이었다.

왕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스톨윈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레인 린의 아들은 너무도 어렸고, 로서마저 자리를 비운 통에 상황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왕의 암살자는 소리 없이 사라졌으나 어린 왕의 아들 바리안 린은 그 살해 장면을 똑똑 목격했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이 일로 오크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오그림은 즉시 호드를 이끌고 스톨윈드를 전면 공격했다. 그는 비록 호드의 부정한 과거를 드러내어 바로잡고자 했지만 어차피 여기서 이미 황폐화된 드레노어로 되돌아갈 순 없었다. 오크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스톨윈드를 정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는 것뿐이었다.

왕의 죽음으로 사기가 떨어져 전세가 기울어진 스톨윈드는 로서가 돌아온 이후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왕에 이어 왕비의 죽음에 대한 소식도 통제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틈에 암살자는 어지러운 전장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결국 로서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다. 스톨윈드를 버리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 로서는 어린 바리안 왕자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피 명령을 내렸다. 곧 스톨윈드의 항구에 도착한 그들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남은 배를 모두 파괴한 다음 항해에 나섰다. 멀리서 스톨윈드가 잿더미로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1차 대전쟁은 그렇게 호드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북부 던홀드 요새 근처에서 한 남자가 길가에 버려져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다. 부모가 살해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는 굶주리고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살아있었다. 던홀드 요새의 귀족 블랙무어는 아이의 피부가 초록색인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일단 데려가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이를 잘 관찰한다면 아제로스에 나타난 새로운 적에 관한 정보를 알 수도 있으리라 남자는 생각했다.

블랙무어는 그 낯선 이방인의 아이에게 쓰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다. 인간의 언어로 노예란 뜻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운명은 결국 아이의 본명대로 흘러갈 것이란 걸 블랙무어는 이때 알지 못했다. 아이는 친부모가 붙여준 고엘(구세주)이란 이름 그대로, 훗날 세상을 구할 대영웅이 될 운명을 갖고 있었다.

그 시각, 이름 없는 오크 전사 한 명이 호드 무리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왔다. 무언가 할 일이 있는 눈치였다. 그는 수개월 동안 오크의 일원으로 생활하며 호드를 관찰해왔다. 그는 또한 주변 오크들로부터 신뢰받는 오크 전사였다. 아무도 그가 아제로스의 타락한 검은 용, 데스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4년

오그림은 스톨윈드를 정복한 것에 만족하고 싶었다. 그곳에 오크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곧 다른 인간 왕국들이 연합하여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오그림은 인간들이 제대로 연합하기 전에 먼저 치기로 결정했다. 우선 목표는 인간 문화의 중심지로 파악된 로데론 왕국이었다.

다만 안 그래도 드레노어에 남은 부족들 때문에 전력이 나뉘는 데다 지옥 마법까지 금지했기에 세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오그림의 그런 고민을 잘 파고든 것이 바로 굴단이었다. 얼마 전 호드에서 도망쳤던 어둠의 의회의 흑마법사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잡혀와 모

조리 처형당했다. 굴단은 역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굴단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곤 오그림에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했다. 죽은 스톰윈드 병사들의 시체에 흑마법사들의 영혼을 융합시켜 새롭고 강력한 전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오그림은 굴단을 믿지 않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취하기로 했다. 곧 굴단은 피의 의식을 통한 강령술로 죽음의 기사들을 만들어냈다. 첫 죽음의 기사는 테론고르의 영혼이 되살아난 테론 고어핀드였다.

그러나 죽음의 기사들만으론 인간 왕국 연합에 대항하기 힘들었다.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에겐 엘프라는 종족이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아군을 더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도 그런 오그림에게 먼저 찾아와 동맹을 제안한 것이 바로 '아마니 트롤'들이었다.

일명 숲 트롤로 불리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인간과 엘프를 증오했다. 한동안 인간과 싸우는 호드를 지켜본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인간들에게 붙잡혀 있다며 그를 구해주면 호드에 합류하겠다고 했다. 오그림은 때마침 이런 좋은 제안을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오그림은 직접 습격대를 이끌고 가 줄진을 구출해냈다.

위대한 아마니의 대장군 줄진은 호드에 합류하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오그림은 호드의 이름 아래 오크와 트롤은 동등한 입장으로 적 앞에 설 것이라며 줄진을 설득했다. 오그림의 외교 수완은 놀라웠고, 결국 줄진은 받아들였다. 이제 오크와 트롤은 하나의 호드였다.

낮선 땅에서 만난 오크의 조력자는 트롤뿐만이 아니었다. 스톰휘들 무역회사의 고블린들은 침략자인 오크를 피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거래를 시도해왔다. 오그림은 고블린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자들이란 기질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적극 받아들였다. 오크는 고블린에게 스톰윈드에서 얻은 비싸고 쓸모없는 전리품들을 넘겼다. 대신 고블린은 오크에게 최신 기술과 지도, 그리고 다른 유용한 아제로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했다. 고블린들은 조선공에

능했기에 오그림은 그들을 고용하여 함대도 건설했다. 이로써 고블린 역시 호드의 우군이 되었다.

그러나 호드가 대륙 중부에서 만난 종족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카즈 모단의 브론즈 비어드 드워프들은 이세계에서 온 난폭하고 야만적인 침략자들을 적대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노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그림은 미련을 두지 않고 즉각 카즈 모단으로 진격했다. 이러한 침략에 대비하지 않은 드워프들은 그들의 수도인 아이언포지로, 노움은 농리건으로 퇴각하여 농성전을 벌였다. 호드는 견고한 아이언포지를 함락하진 못했지만 대신 카즈 모단의 풍부한 자원을 마음껏 약탈했다. 광물과 제련소를 빼앗고 새로 제작한 병기와 공성 무기를 나누어 가졌다.

오크가 이렇게 착실히 세를 불리는 동안, 로데론의 왕 테레나스 메네실은 일곱 왕국의 의회를 소집해 연합을 제안하고 있었다. 스트롬가드의 왕 토라스 트롤베인, 쿨 티라스의 제독 델린 프라우드무어, 달라란의 대마법사 안토니다스, 길니아스의 왕 겐 그레이메인, 알타렉의 왕 아이덴 페레놀드는 모두 로데론의 수도에 모여 로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 전 스톰윈드의 생존자들을 데리고 로데론으로 피난 왔던 로서와 카드가는 인간 왕국의 지도자들에게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호드는 인간 왕국을 차례대로 쓰러뜨릴 것이라 경고했다. 그들의 주장은 영명한 군주로 평가받는 테레나스가 보장했다.

오랫동안 경쟁 관계로 다뤄왔던 지도자들은 연합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대마법사 안토니다스는 카드가의 말을 신용했다. 델린 프라우드무어는 안두인 로서의 친구였기에 스톰윈드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았고, 로데론과 긴밀한 관계였던 스트롬가드의 토라스 트롤베인도 함께

싸울 의사를 표명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길니아스와 알터랙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았지만
오크들이 드워프 영토마저 점령하고 복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연합을 계속 반대할 순 없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던 한 남자의 웅변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로
데론 최고의 사제라 불리는 투랄리온이라는 남자였다.

투랄리온이 일장 연설을 쏟아낸 그날, 마침내 호드에 대응하는 대연합 얼라이언스가 결성되었
다. 얼라이언스 군대를 이끌 책임자는 북부 인간 왕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안
두인 로서로 결정되었다. 고대 소라딘 왕국의 마지막 후예이기도 한 그가 얼라이언스를 이끄
는 총사령관이 된 것에 다들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냈다.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로서는 이질적인 국가로 구성된 군대를 하나로 묶을 무언가가 필요했
다. 그는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뒤따를 수 있는 용사를 필요로 했고, 이에 대주교
알론서스 파울이 도움을 주어 <은빛 성기사단>이 창설되었다.

은빛 성기사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평소 충성심과 용기, 명예의 귀감이 되어 모두에게 존경받
는 인물들이었다. 얼라이언스의 결성을 도운 사제 투랄리온, 산처럼 강력한 육체와 힘을 타고
난 세이든 다스로한, 열정과 강인함의 기사 티리온 폴드링, 스톰윈드 출신의 기사 가빈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울의 수제자이자 성스러운 빛의 수호자 우서가 그들이었다.

호드에게 트롤과 고블린이 가세했듯이, 얼라이언스와도 동맹을 맺은 종족이 있었다. 호드의
약탈을 받은 드워프와 노움. 그리고 오랜 세월 트롤들과 싸워온 쿠엘탈라스의 하이엘프들이었

다. 오래전 인간과 엘프는 아마니 트롤을 상대로 혈전을 펼쳤다. 로서의 조상과 쿠엘탈라스의 엘프는 서로 협력하여 적을 물리쳤다. 승리를 거둔 후 하이 엘프는 인간의 소라딘 왕에게 맹세했다. 만약 소라딘이나 그의 후손이 언제라도 어려움에 처한다면 두말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라딘의 혈통인 로서는 하이 엘프에게 고대의 서약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이엘프의 왕 아나스테리안 선스트라이더는 사안을 그리 심각하지 보지 않았다. 그는 얼라이언스에 적당히 소규모 엘프 함대만을 지원했다. 다만 하이엘프의 뛰어난 순찰대장 알레리아 윈드리너는 생각이 달랐다. 호드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던 그녀는 호드가 아제로스의 모두에게 대단한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지원하여 얼라이언스에 가세했다. 그녀는 로서가 매우 필요로 했던 궁수, 정찰병, 기동 지원 병력을 갖고 있었기에 든든한 전력이었다.

그 시각 오그림은 함대를 구축하여 해상 경로를 통해 인간의 영토 심장부에 기습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부 내륙으로 이어지는 좁다란 육상 경로는 예상하기 쉬운 진로인데다 인간들이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이었다. 오크는 본래 해상 종족이 아니었지만 고블린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수의 함선과 해양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곧 수천 명의 병사와 물자를 실은 오크 함선 수백 척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델린 프라우드무어 제독이 이끄는 얼라이언스 해군이었다. 마침내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바다 위에서 최초로 대격돌한다.

해양 국가 쿨 티라스 출신인 델린 프라우드무어 제독은 험난한 바다에서 일평생을 보낸 자였다. 아제로스에서 그의 해전 경험을 능가할 자는 없었다. 프라우드무어의 날렵한 함선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호드의 함대를 유린했다. 첫 번째 얼라이언스 포탄이 오크의 함선을 조각냈다. 수십 척의 수송선이 가라앉았고 오크 병사들은 휘몰아치는 물결에 휩쓸렸다. 프

라우드무어 제독은 곧 호드 전체를 바다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호드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전쟁을 끝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대한 붉은 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길로 얼라이언스 함대를 휘감았다. 프라우드무어는 도 대체 왜 아제로스의 붉은 용들이 호드를 돕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자신에겐 저 용들을 물리칠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수백 척의 얼라이언스 함대가 속절없이 침몰해갔다.

6년

1만 년 전, 검은 용 넬타리온은 고대신에 의해 타락했다. 그는 다른 네 명의 용의 위상들을 속여 그들의 힘을 <드래곤 소울>이라는 아티팩트에 한데 모으게 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용의 위상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소울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여 몸이 찢긴 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긴 잠에 빠졌다. 나머지 용의 위상들은 드래곤 소울을 되찾아 붉은마루 산맥 외딴곳에 숨긴 후 은둔했다.

데스윙이 다시 깨어난 것은 메디브가 어둠의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엄청난 양의 마력 때문이었다. 긴 잠에서 눈을 뜬 그는 선불리 세간에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머지 용의 위상들과 필멸의 종족들이 연합하여 자신에게 대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가 흥미

롭게 지켜본 것은 어둠의 문 너머에서 건너온 오크들이었다. 데스윙은 이세계에서 온 그들을 잘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드래곤 소울은 애초에 불멸자인 불타는 악마들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따라서 같은 불멸자인 용의 위상들에게도 치명적인 물건이었지만, 필멸자들에게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 오크들은 필멸자였고, 아제로스의 위상들에게 아무런 존경심도 없는 자들이었다. 데스윙으로써는 더할 나위 없이 이용하기 좋은 종족이었다.

그는 우선 오크의 모습으로 폴리모프하여 수개월간 오크들의 신뢰를 샀다. 그리고 용아귀 부족의 족장 줄루헤드에게 접근하여 그가 한 가지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만들었다. 그의 부족이 거대한 용을 타고 전장을 날아다니는 멋진 꿈이었다. 줄루헤드가 그 꿈에 취했을 무렵, 데스윙은 그를 Драгон 소울이 숨겨진 붉은마루 산맥으로 인도했다. 산맥 깊은 지하에는 단순한 모양의 황금 원반이 붉은 수호용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누구의 손길도 타지 않은 채 묻혀 있던 Драгон 소울이었다.

줄루헤드와 용아귀 부족은 즉시 유물을 지키는 수호용을 덮쳤다. 많은 오크 전사들이 쓰러졌지만 결국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줄루헤드는 부족의 흑마법사 네크로스에게 유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네크로스는 유물의 보호 마법을 깨고 그것에 <악마의 영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붉은 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는 Драгон 소울의 방어가 깨진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오크와 같은 미개한 생명체가 Драгон 소울에 깃든 비밀을 풀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소울을 다시 빼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다. 네크로스는 데스윙으로부터 Драгон 소울의 진정한 힘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 모두 전수 받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데스윙이 네크로스에게 전해준 가장 강력한 지식은 그 유물로 알렉스트라자와 다른 용의 위상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네크로스는 드래곤 소울의 힘을 끌어내 생명의 어머니 알렉스트라자를 극심한 고통으로 불태웠다. 그녀는 하늘에서 고꾸라져 근처 산중에 곤두박질쳤다. 나머지 용아귀 부족 오크들은 그 거대한 생명체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사슬에 묶었다. 다른 붉은 용들은 자신들의 여왕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오크를 노리고 내려갈 때마다 네크로스는 드래곤 소울의 엄청난 마력으로 알렉스트라자를 가격했다. 그는 용의 언어를 몰랐지만 분명한 뜻을 전하고 있었다. 용들이 오크를 공격할 때마다 알렉스트라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네크로스는 알렉스트라자를 저습지 동부의 외딴 성채 <그림 바톨> 지하에 가두었다. 알렉스트라자는 갇혀있는 동안 새로 알을 낳기 시작했고, 네크로스는 그 알들을 부화시켜 새끼 용을 호드의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길러냈다. 이 모든 행위는 배후에서 데스윙이 교묘히 조연해준 덕분이었다. 이로써 호드는 붉은 용 기수 군단이라는 강력한 전력을 얻게 되었다.

호드의 예상 밖의 전력 때문에 프라우드무어 제독의 함대는 패퇴하여 흩어졌다. 호드는 언덕마루 구릉지에 상륙했다. 해상 경로를 이용한 덕분에 이제 알터랙 산맥만 넘으면 바로 로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수도를 함락한다면 얼라이언스는 분열하여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물론 로서가 그것을 용납할 리 없었다. 얼라이언스의 총사령관 로서는 병력을 언덕마루 곳곳에 배치하여 수도로 통하는 북부와 서부 경로를 차단해놓았다. 그리고 최대한 병사를 끌어모아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날 오후, 호드의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초록색 피부의 전사들이 벌떼처럼 북쪽으로 돌진했다. 손에는 기름칠한 무기를 들고 입으로는 전쟁의 함성을 내지르며, 오크의 군대가 인간의 군대와 맞붙었다. 아직 새끼 용에 불과한 용 기수 군단은 그리핀을 길들여 타고 다니는 와일드해머 드워프들이 상대했다. 알레리아의 하이엘프 순찰대는 활과 화살로 아마니 트롤들을 공격했고, 로서와 성기사들은 부패한 안개를 내뿜는 죽음의 기사들과 싸웠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카드가와 달라란의 마법사들이 접근하는 흑마법사들에게 비전 마력을 방출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전 병력이 맞붙은 순간이었다.

오그림은 언덕마루 구릉지를 뚫고 가기 힘들다는 것을 파악하고 병력을 동쪽으로 돌렸다. 그곳엔 아마니 트롤의 본진 <줄아만>이 있었다. 호드는 줄아만의 트롤들과 합류했다. 다만 그들은 하이엘프의 수도를 먼저 무너뜨리기 전까진 로데론으로 향할 생각이 없었다. 때문에 굴단은 하이엘프의 영토를 지키는 마법석 방어진을 해체하여 아마니 트롤들이 쿠엘탈라스를 짓밟는 것을 도왔다. 방심하고 있던 하이엘프의 왕 아나스테리안은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자신들의 수도 <실버문>을 지켰다. 전황이 길어지자 오그림은 일단 트롤을 남겨놓고 나머지 병력을 다시 서쪽으로 틀었다. 그곳엔 알터랙의 왕 페레놀드가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오그림에게 변절의 의사를 전해왔다.

페레놀드는 2차 대전쟁 초기부터 호드와의 전투를 두려워했다. 그는 오크가 무적의 군대라고 생각했고, 붉은 용의 소식을 들은 후로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페레놀드는 살아남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그래서 오그림에게 먼저 제안했다. 호드가 알터랙 왕국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군대가 알터랙 산맥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오그림은 경계 병력조차 없는 경로를 따라 알터랙을 손쉽게 통과했다.

오그림은 얼라이언스의 병력이 로데론으로 집결하기 전에 빠르게 치기 위해 정예 병력만을 끌고 서둘러 알터랙 산맥을 넘었다. 킬로그 데드아이의 피눈물 부족은 아이언포지의 드워프들이 양동 작전에 나서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있었고, 초갈의 황혼의 망치 부족과 굴단의 폭풍약탈자 부족은 쿠엘탈라스에 남아 트롤을 돕기로 했다. 줄진을 도와 실버문을 마저 빠르게 무너뜨리고 트롤과 함께 후발 지원군으로써 합류하겠다는 굴단의 제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그림의 판단ミス였다. 로데론의 방벽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수도의 방어를 지휘하는 테레나스 왕은 뛰어난 지도력과 책략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들은 얼라이언스 지원군이 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텼다. 결국 누구의 지원군이 먼저 올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만약 쿠엘탈라스에서 호드의 지원군이 먼저 온다면 로데론의 수도는 함락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것은 투랄리온의 얼라이언스 병력이었다. 심지어 호드의 지원군은 로데론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굴단이 배신한 것이다.

굴단의 관심사는 예나 지금이나 호드의 승리가 아닌 오로지 <살게라스의 무덤> 뿐이었다. 굴단은 오그림이 알터랙으로 떠난 직후 트롤을 돕긴커녕 바로 호드를 버렸다. 그들은 언덕마루 남쪽 해안가에 정박해있던 오크 함대로 향했다. 호드의 함선을 탈취하여 바다 건너 있을 살게

라스의 무덤으로 향하기 위해서였다. 분노한 오그림은 즉각 퇴각하며 검은니 웃음 부족에게 굴단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겼다.

굴단은 수호자 메디브의 정신 속에서 엿보았던 정보를 기반으로 살게라스의 무덤으로 향했다. 항해는 길고 험난했다. 거대한 파도와 무시무시한 폭풍이 굴단의 함대를 덮쳤다. 그러나 굴단은 마침내 해저 속에 감춰져 있던 무덤을 발견했다. 그는 부하들의 마력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주문을 지었다.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바위투성이 섬이 떠올랐다. 따개비투성이인 지면 위로 당당히 솟은 탑이 보였다. 살게라스의 무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오래전 에이그윈은 살게라스의 화신을 무덤에 옮기면서 동시에 수많은 악마들을 함께 가두었다.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마들은 살게라스의 화신에서 흘러나온 마력을 흡수하여 살기등등한 상태로 무덤을 떠돌고 있었다.

그 지옥의 생명체들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굴단의 부하들을 사정없이 찢어발겼다. 설상가상 검은니 웃음 부족까지 뒤따라 온 탓에 초갈과 황혼의 망치 부족은 무덤 입구에서 그들을 막아야 했다. 굴단은 부하들을 과감히 희생시키며 필사적으로 무덤 내부로 향했다. 원하는 것을 찾지만 한다면, 그런다면 이깟 상황쯤은...

그러나 굴단은 염원을 이루지 못했다. 애초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살게라스는 굴단에게 무덤의 힘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굴단을 잡아낸 악마들은 산 채로 그의 가족을 버리고 뼈에서 살과 근육을 발라냈다. 잠깐 동안 굴단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무덤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침묵이 감돌았다. 상황이 틀어지자 무덤 입구에 있던 초갈은 살아남은 황혼의 망치 부족들과 배를 타고 도망쳤다. 검은니 웃음 부족은 전리품으로 <굴단의 해골>을 챙겨 무덤을 빠져나왔다. 굴단의 야심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 시각 로서와 투랄리온은 병력을 다시 규합하여 퇴각하는 호드를 뒤쫓고 있었다. 오그림은 카즈 모단에 있던 피눈물 부족에게 얼라이언스의 추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맡기고 나중에 <검은바위 침탈>으로 집합하라 지시했다. 용아귀 부족에겐 그림 바톨에서 용기수 전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마찬가지로 검은바위 침탈으로 모이도록 명령했다.

오그림은 드레노어로 되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이 전쟁은 영광을 얻기 위함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종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만약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의 운명이라면, 굶주림이나 질병보다는 명예로운 전투에서 죽으리라 오그림은 다짐해왔다. 따라서 그들의 최후의 배수진은 어둠의 문이 아닌 검은바위 산이었다. 그곳이라면 북쪽과 남쪽 어디에서도 협공당할 일 없이 남은 전력을 최대한 쏟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며칠 후, 오그

림의 생각대로 망치와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검은바위 산 일대에 울려 퍼졌다.

오그림은 얼라이언스의 군대를 힘으로 격파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로서를 향해 내달렸다. 인간 역시 오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사기가 저하되고 지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 오그림은 생각했다. 어차피 죽기 살기였다. 오그림은 직접 정예 병력을 이끌고 자살과도 같은 돌진으로 적진을 뚫고 로서에게 몸을 던졌다. 최고 사령관 로서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로서는 명예로운 전사답게 오그림과의 단독 결투에 응했다.

두 위대한 전사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위의 호드와 얼라이언스 병사들이 어느새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결판이 났다. 오크의 대족장은 전쟁 망치를 크게 휘둘러 로서의 대검을 부러뜨렸다. 얼라이언스의 사령관은 무릎을 꿇었다. 오그림 뒤흔드는 다시 무기를 휘둘러 로서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오그림의 승리였다.

오크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았다. 얼라이언스의 많은 병사가 투지를 잃고 흔들렸다. 오그림의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어쩌면 오늘 전투에서 승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곧 피눈물 부족과 용아귀 부족, 검은니 웃음 부족이 차례로 합류할 것이다. 어둠의 문 너머로 보낸 전령이 드레노어에 남아있던 부족들도 데리고 와 가세할지도 모른다. 버티면 된다. 오늘날 버티면 어떻게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

빛이 뿔어져 나왔다. 빛은 모두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다시 시야가 확보됐을 때, 오크 전사들은 이번엔 쓰러진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도해야 했다. 오그림을 발 아래 둔 자는 투랄리온이었다. 얼라이언스 병사들의 함성이 검은바위 산을 뒤덮었다.

투랄리온은 로서의 죽음이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빠르게 막아 남은 전투를 진두지휘했다. 변수만 막는다면 애초부터 얼라이언스에게 매우 유리한 싸움이었다. 그는 로서의 부러진 검으로 기절시킨 오그림을 사슬에 묶고 검은바위 산의 전투를 기어코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 많은 오크들이 죽거나 생포되었다.

테론 고어핀드와 죽음의 기사가 이끄는 일부 호드 무리는 어둠의 문으로 도망쳤다. 투랄리온과 얼라이언스는 그들을 추적했지만 어둠의 문 너머까지 쫓아가진 않았다. 대신 어둠의 문을

파괴하여 혹시 모를 호드의 귀환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곧 카드가와 마법사들이 관문 주위에 모여 강력한 주문을 읊었다. 차원의 균열이 흐트러지자 차원문의 석조 골격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의 문은 눈부신 비전 마력의 빛을 내뿜으며 폭발했다.

아제로스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어둠의 문이 먼지로 사라졌다. 얼라이언스 전선을 따라 우렁찬 함성이 일었다. 사력을 다해 싸운 병사들, 친구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본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환호했다. 많은 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전쟁이 끝났다.

얼라이언스는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7년

호드는 패배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렀지만 오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패잔병들은 아제로스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거나 인간의 포로가 되었다. 드레노어로 넘어간 자들은 죽

어가는 행성에서 암울한 미래만 기다려야 했다.

아제로스에 아직 남은 호드 병력이 있었으나 그들도 망연자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검은바위 침탐에 뒤늦게 도착한 피눈물 부족은 호드의 패배를 확인하고 어둠의 문 북쪽의 숲으로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용아귀 부족 역시 그림 바툼의 요새로 숨었다.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검은니 웃음 부족이었다.

검은니 웃음 부족을 이끄는 리더는 전 호드 대족장이었던 블랙핸드의 아들 렌드 블랙핸드와 마임 블랙핸드 형제였다. 그들은 얼라이언스가 검은바위 산 일대에서 철수하기를 기다린 후, 슬그머니 검은바위 침탐을 차지했다. 그리고 호드의 패배를 오그림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남은 오크들을 일부 규합했다. 이때 블랙핸드 형제는 검은니 웃음이 아닌 검은바위 부족의 깃발을 내걸었다. 오그림이 아닌 자신들이 검은바위 부족의 정통 후계자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피눈물 부족의 킬로그는 그들을 무시했다. 검은바위 부족의 부관이었던 아이트리그도 모든 것에 염증을 내며 홀로 사라졌다.

얼라이언스가 호드를 격파하는 동안 쿠엘탈라스의 하이엘프들은 아마니 트롤을 혼자서 상대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지켜내는데 성공했지만 얼라이언스가 절박한 순간에 하이엘프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연합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모든 엘프가 그것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수가 그렇게 믿었다.

인간과 드워프, 노움은 하이엘프의 불만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도 벅찼다. 그들은 얼라이언스의 새로운 최고 사령관이 된 투랄리온의 지시 아래 동부 왕국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로데론의 테레나스 왕은 무너진 스톰윈드 왕국 재건에 특히 신경 써주었다. 그는 바리안 린 왕자가 왕위에 올라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불화를 보인 것은 오크 포로들의 처리 문제였다.

전쟁으로 많은 오크들이 포로로 붙잡혔다. 이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길니아스와 스트롬가드는 포로의 처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로데론은 오크의 처형에 반대했다. 그는 수용소를 만들어 오크들을 감금하고 얼라이언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신들이 호드보다 문명화되고 명예로운 존재임을 입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달라란의 키린 토 역시 감금을 지지했는데 그들의 이유는 오크들의 기이한 마법과 성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각각의 이유로 결국 얼라이언스는 오크들을 감금하기로 합의했다. 스트롬가드의 왕 토라스 트롤베인의 조카이자 저명한 군인인 다나스 트롤베인이 수용소 전체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결국 이 수용소 유지 비용 문제는 불화의 씨앗이 되어 길니아스의 얼라이언스 탈퇴로 이어진다.

동부 왕국이 열심히 재건되는 동안, 스톨윈드의 왕자 바리안 린은 로데론에서 한 포래 친구를 만났다. 로데론의 어린 왕자 아서스 메네실이었다. 한동안 바리안과 아서스는 항상 붙어 다녔다. 두 악동은 왕족의 혈통 답지 않게 곧잘 농가로 내려가 뛰어놀곤 했다.

아서스에겐 바리안 외에도 포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 로데론 왕국으로 찾아온 또 다른 손님, 쿨 티라스 왕국의 공주 제이나 프라우드무어였다. 그녀는 로데론을 거쳐 마법 왕국 달라란으로 마법 수행을 떠나는 길이었다. 제이나가 마음에 든 아서스는 그녀를 호위하는 일을 자청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제이나와 함께 일행을 빠져나와 오크 수용소를 구경하러 가곤 했다. 그렇게 여정을 함께 하며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제이나가 달라란 왕국에 도착한 이후로 둘은 한동안 보지 못했다. 제이나는 달라란의 대마법사 안토니다스의 제자이자 키린 토의 멤버가 되어 마법사로서의 수련을 시작했다. 아서스는 은빛 성기사단장 우서 경에게 수련을 받으며 어엿한 성기사로써 성장하는데 열중했다. 그 기간 동안 둘 사이에 끼어든 남자가 한 명 있었다. 하이엘프 왕가의 후계자 켈타스 선스트라이

더였다.

켈타스는 자신의 마법 제자로 들어온 제이나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였다. 이때 켈타스의 나이는 엘프로써는 매우 어린 수십 살 정도였지만 제이나는 고작 8살이었다. 페도필리아 새끼.. 하지만 제이나는 아서스를 잊지 않고 있었다. 수년 후, 다시 재회한 아서스와 제이나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 일은 훗날 켈타스에게 앙금으로 남는다.

인간과 엘프의 애정 관계가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이엘프 순찰대장 알레리아 윈드러너와 로데론의 성기사 투랄리온은 전쟁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둘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잡것들이 쾡냥대는 동안, 동정을 유지하는 위대한 대마법사 카드가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2차 대전쟁 중 보인 영웅적인 활약으로 대마법사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어차피 동정이니까 얻을 칭호였다. 한때 가까웠던 가로나도 메디브랑 애 낳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카드가 자신은 메디브 때문에 외모가 폭삭 늙었으니 앞으로도 더욱 위대한 대마법사가 될 일만 남았다. 장밋빛 미래였다. 그보다 문제는 어둠의 문이 있던 자리 일대에 퍼지고 있는 지옥 마력이었다.

차원문은 파괴되었지만 어째서인지 지옥 마력은 계속 아제로스에 번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결국 그 일대는 황폐화되어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 카드가는 아제로스와 드레노어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차원의 균열이 어딘가에 아직 남아 오크의 고향 행성의 지옥 에너지가 새어 나온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어쩌면 호드가 다시 침략해올 수도 있었다. 카드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국가에 균열을 감시할 요새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을 요청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네더가드 요새>였다.

네더가드 요새가 다 지어졌을 무렵, 한 명의 손님이 카드가를 찾아온다. 가로나였다.

8년

한편 어둠의 문 너머, 드레노어 행성은 더욱더 삭막해져 있었다. 악마가 남긴 욕망은 오크들의 핏속에서 계속 날뛰고 있었고, 지옥 마력은 여전히 확산되어 자연의 생명을 멸종시키고 있었다. 이제 오크들도 절멸할 위기였다.

하지만 테론 고어핀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어둠의 문에 조그마한 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오크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갖고 있었다. 고어핀드는 오크들의 존경을 아직 완전히 잃지 않은 넬줄에게 찾아갔다. 넬줄은 고어핀드를 경계했다. 하지만 고어핀드는 넬줄이 오크의 생존을 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고어핀드의 계획은 이러했다. 그는 일단 오크 피난민들의 손에 의해 얻은 <굴단의 해골>을 갖고 있었다. 해골의 강력한 마력은 미약하게 남은 아제로스와의 균열을 확장시켜 어둠의 문을 다시 재건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아제로스로 넘어가면, 이번엔 그들이 할 일은 아제로스 정복이 아니라 세 가지 유물을 찾는 것이었다. 첫째는 <메디브의 책>. 그것은 수호자의 막강한 마력 일부와 서로 다른 마법을 혼합하는 지식이 포함된 고서였다. 두 번째는 <달라란의 눈>. 키린 토가 제작한 그 유물은 마법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증폭시키는 힘이 있었다. 세 번째 <살게라스의 홀>은 행성 간 차원문을 열 수 있었다.

즉 고어핀드는 이 아티팩트들을 훔쳐 와 드레노어에서 새로운 차원의 균열을 열어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제로스일 필요도 없었다. 호드가 정착할 수 있는 행성이라면 어디든 상관 없었다.

넬줄은 동의했다. 지금 오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해봐야 했다. 오랫동안 앉아만 있느라 전투에 목말라 있던 다른 오크 부족들도 기꺼이 찬성했다. 전쟁노래 부족, 으스러진 손 부족, 천둥군주 부족 모두 넬줄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곧 본격적인 아제로스 2차 원정이 시작되었다.

차원의 균열이 다시 열릴 징조를 미리 느끼고 있었던 카드가는 네더가드 요새에서 새 호드에 맞섰다. 투랄리온, 다나스 트롤베인이 함께였다.

그들이 상대한 그롬마쉬 헬스크림이 이끄는 전쟁노래 부족은 일전의 검은바위 부족 못지않게 강인한 전사들이었다. 아제로스에 은신해있던 피눈물 부족도 가세했다. 모크나탈(오크/오우거 혼혈 부족)의 전사 렉사르도 함께였다. 다만 그들은 왜인지 적당히 치고 빠지는 전술만을 썼다. 때문에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 고어핀드와 죽음의 기사들은 천둥군주 부족과 함께 은밀히 유물을 찾아 나섰다. 이에 도움을 준 것은 뜻밖에도 데스윙이었다. 그는 호드의 첫 원정 실패 후 자신의 검은용군단을 재건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제로스에서는 얼라이언스나 다른 위상들의 주의를 끌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는 드레노어라는 장소를 이용하고자 했다. 그 세계가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용들은 필멸자처럼 땅에서 삶을 일구지 않았다.

데스윙은 유물들의 정확한 위치를 고어핀드에게 알려주었다. 첫 번째 유물 <메디브의 책>은 알터랙 왕국에 있었다. 고어핀드는 어렵지 않게 책을 얻어냈다. 데스윙이 알터랙 왕을 실성하게 만들고 왕국을 혼란에 빠뜨려냈기 때문이었다. 2차 전쟁이 끝난 후 알터랙은 배신자 왕국으로 찍혀있었기에 사람들은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유물 <달라란의 눈>은 이름 그대로 달라란에 있었다. 이번에도 데스윙은 검은 용들로 달라란 마법사들의 주의를 끌어 오크가 유물을 탈취하는 것을 도왔다. 세 번째 유물 <살게라스의 홀> 역시 검은 용들이 도움을 주었다. 다만 홀 추적대는 살게라스의 무덤 안에서 거의 절멸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홀 하나를 겨우 얻어낼 수 있었다.

데스윙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쉽게 유물들을 얻어낸 추적대는 곧 드레노어로 귀환을 준비했다. 데스윙은 자신의 '귀중한 화물'을 실은 거대한 수레를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것을 드레노어로 옮기는 것을 호드가 돕는 것이 데스윙의 도움의 조건이었다. 수레는 크고 무거웠으며 마력이 깃들어 있어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 고어핀드는 상자의 내용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물을 얻어낸 것에 만족했다. 데스윙은 호드가 자신의 검은용 알들을 드레노어까지 옮겨주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곧 전쟁노래 부족만을 남기고 나머지 호드는 모두 드레노어로 복귀했다. 피눈물 부족도 오랜 만에 귀환했다. 용아귀 부족의 족장 줄루헤드 역시 부족의 절반을 데리고 드레노어로 넘어왔다. 다만 그는 <드래곤 소울>은 가져오지 않고 그림 바톨에 남기로 한 자신의 제자 네크로스에게 맡겨두었다.

그즈음 카드가는 오크들의 목적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동안 은밀히 오크의 움직임을 추적해온

가로나가 정보를 전해준 덕분이었다. 가로나는 카드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신에 걸려있던 어둠의 마법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동을 처절히 후회했다. 그저 그 짓값을 갚을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카드가는 가로나의 이야기와 오크 포로들을 심문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호드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투랄리온에게 전했다.

투랄리온과 카드가는 호드가 또 다른 세계를 침공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어떤 곳도 아제로스가 겪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드레노어로 쫓아가 호드의 음모를 와해하고 유물을 되찾고자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다. 아제로스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끼어들어 병력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었다. 투랄리온은 결국 자체적으로 원정대를 모집했다. 강제 징병이 아닌 원하는 사람만 자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로서의 후예들>이라는 깃발을 들고서 오크의 고향 행성에 쳐들어가 호드를 영원히 끝장내겠다고 선포했다.

생각보다 많은 불나방들이 그의 부름에 응했다. 알레리아 윈드러너, 다나스 트롤베인, 그리고 와일드해머 드워프의 대영주 쿠르드란 와일드해머까지 쟁쟁한 영웅들이 원정대에 합류했다. 그들은 우선 어둠의 문을 막아서고 있는 전쟁노래 부족을 저주받은 땅 곳곳에 흩뜨려 놓았다. 이때 가로나도 원정대에 속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카드가는 그녀에게 다른 할 일을 주었다. 아제로스에 아직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둠의 의회의 잔당들(ex 초갈)을 추적하여 처치하는 임무였다. 그리하여 투랄리온, 카드가, 알레리아, 트롤베인, 쿠르드란 이렇게 다섯 명의 영웅을 선두로 한 드레노어 원정대가 마침내 어둠의 문 너머로 첫 발을 디딘다.

차원문을 넘은 로서의 후예들은 황폐한 드레노어의 세계를 처음으로 목도했다. 포로들의 정보에 의하면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드레노어의 동쪽 끝, 오래전 타나안 밀림이라 불렸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황폐해져 <지옥불 반도>라 불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우뚝 선 지옥불 성채에서 으스스한 손 부족을 이끄는 카르가스 블레이드피스트가 원정대를 맞이했다. 그는 데스윙에게서 검은용의 지원을 받은 상태였다. 물론 원정대에게도 쿠르드란이 이끄는 그리핀 기수들이 있었다. 곧 이세계에서의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첫 전면전이 벌어졌다.

그동안 넬줄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수집한 유물은 다른 세계로 차원문을 열 수 있는 충분한 마력을 제공해 주었다. 문제는 의식을 시작할 장소였다. 마법의 지맥이 교차하는 지점에 세워진 어둠의 문은 얼라이언스 병력이 점령한 탓에 이용할 수 없었다. 넬줄은 지맥의 교차점을 한 군데 더 알고 있었다. 드레노어의 남동쪽 끝, <검은 사원>이 자리한 곳이었다. 넬줄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더 이상 호드와 함께 할 필요가 없는 데스윙은 자신의 알들을 가지고 드레노어의 북쪽, 고르그론드 지역으로 향했다. 이때 데스윙은 넬줄이 가지고 있던 굴단의 해골도 받아 가지고 갔다. 아직 상당한 마력이 담긴 굴단의 해골이라면 검은용 알들을 빠르게 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원정대는 지옥불 성채에서 카르가스가 이끄는 으스스한 손 부족을 어렵지 않게 패퇴시켰다. 으스스한 손 부족은 드레노어의 황무지 구석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원정대는 다음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고민을 해야 했다. 상대 진영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카드가가 추적 마법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굴단의 해골이 내뿜는 마력은 드레노어 북쪽으로 향했고, 나머지 유물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정대 역시 병력을 둘로 나누기로 했다. 다나스 트롤베인과 쿠르드란은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넬줄을 뒤쫓았다. 카드가와 투랄리온, 알레리아는 북쪽으로 굴단의 해골을 찾아 나섰다.

데스윙은 척박한 땅 고르그론드를 검은용 알들을 부화시킬 장소로 정했다. 그곳엔 소수의 그론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침입자를 좌시하지 않았지만 데스윙은 그들을 무시했다. 몇마리의 검은 용과 그론들은 처절히 싸웠고, 그 사이 데스윙은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 알들을 가져다 놓았다.

뒤따라온 투랄리온은 데스윙의 가장 큰 부화장을 습격해 알을 파괴했다. 이에 분노한 데스윙이 나타나자 알레리아는 '그를'이란 이름을 가진 그론을 유인해 데스윙을 상대하게 했다. 그를

은 그론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이었다. 둘이 싸우는 동안 카드는 비전 마력으로 데스윙의 약점을 공격했다. 데스윙은 고대 전쟁 당시 드래곤 소울을 사용한 대가로 몸이 부서져 아다만티움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카드는 데스윙의 갑옷을 뒤틀리게 하는 변환 마법을 걸었고, 결국 데스윙은 엄청난 고통에 괴로워하다가 도망쳤다.

일행은 데스윙이 떨어뜨린 굴단의 해골을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향했다. 이때부터 그론은 동족들에게 용 학살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편 넬줄을 쫓아 남쪽으로 향한 트롤베인과 쿠르드란은 아킨둔 요새에서 피눈물 부족을 상대하고 있었다. 아킨둔은 원정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였지만 아라코아 생존자 중 하나인 '그리직'이라는 자의 도움으로 일행은 길을 잘 찾을 수 있었다.

이내 전투의 굉음이 요새 내부를 가득 채웠다. 아킨둔 곳곳에서 피가 흩뿌려졌다. 킬로그는 어두운 무덤의 도시 안에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하지만 결국 다나스의 검에 의해 쓰러졌고, 피눈물 부족은 족장을 잃고 흩어졌다. 그러나 킬로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넬줄이 남은 호드를 이끌고 안전하게 검은 사원에 도착할 시간을 벌어 주었다. 킬로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언제인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로서의 후예들은 다시 모여 검은 사원으로 향했다. 잔여 오크 부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동안 넬줄은 검은 사원에 도착해 의식을 준비했다. 그는 검은 사원 지하의 지맥이 연결되는 곳에서 마력을 끌어냈다. 카드는 검은 사원의 꼭대기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느끼고서 경악했다. 넬줄과 그의 추종자들은 곧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넬줄은 시간에 쫓긴 탓에 의식에 필요한 기술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무모한 시도에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의식이 끝나자 마침내 넬줄이 원했

던 차원의 균열은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군데가 아니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드레노어의 지맥을 뒤틀며 곳곳에 수많은 균열을 만들었다. 매 순간 드레노어는 엄청난 격변 속에서 신음을 터뜨렸다. 대지와 바다 곳곳이 갈라졌다. 드레노어가 붕괴되고 있었다.

그 충격의 연쇄 반응이 펼쳐지고 있을 때 카드가와 다른 마법사들은 의식의 장소에 도착해 달라란의 눈과 메디브의 책을 간신히 되찾았다. 하지만 살게라스의 홀은 손에 넣지 못했다. 넬줄은 살게라스의 홀을 손에 든 채 몇 명의 부하를 이끌고 근처 차원문 중 하나로 탈출했다. 하지만 넬줄은 이내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된다. 넬줄이 넘어간 차원은 낙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불타는 군단의 악마 킬제덴이 있는 뒤틀린 황천의 세계였다.

킬제덴은 기다렸다는 듯 넬줄을 사로잡아 얼음 속에 가두고 끝없이 고문하기 시작했다. 넬줄의 육체는 갈가리 찢기고 영혼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넬줄은 킬제덴에게 죽음을 애걸했다. 하지만 킬제덴은 그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킬제덴은 넬줄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고통으로 굴복시켰다. 그것은 킬제덴이 가진 어떤 계획의 과정이었다. 곧 넬줄의 영혼이 한 별의 갑옷과 룬검에 결속되었다. 넬줄의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었다. 그들의 찢긴 몸은 강력한 언데드 리치의 모습으로 다시 빚어졌다. 이제 넬줄의 과거 삶은 사라졌다. 그는 영원히 속박되어 형언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킬제덴은 그를 리치왕이라 불렀다.

드레노어의 대지 곳곳에 발생한 불안정한 균열은 기어코 세계를 조각냈다. 이제 아그라마르의 손이 닿은 세계, 원시생물과 파괴자에 의해 빚어진 세계, 영광스러운 에팩시스 문명과 신비로운 오크 부족의 세계인 드레노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조각난 그 땅을 <아웃랜드>라 불렀다.

10년

그동안 붉은 용의 위상, 생명의 어머니 알렉스트라자는 용아귀 부족에 의해 감금된 채로 계속해서 강제로 알을 낳는 암탉 신세로 지내고 있었다. 네크로스가 가진 드래곤 소울의 힘은 여전히 유효했기에 붉은 용들은 어찌 손쓸 도리 없이 알렉스트라자가 임신과 산란을 반복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했다.

드레노어에서 검은용군단을 재건하는데 실패한 데스윙은 이들 용아귀 부족을 흑시 모를 얼라이언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다. 붉은 용의 알이 충분히 모였을 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얼라이언스의 분열을 초래하여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데스윙은 다발 프레스톨 경이라는 귀족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로데론 귀족층을 분열시키고 호드 잔여 병력 추적 임무의 행정을 마비시켰다.

이때 데스윙의 딸 오닉시아와 아들 네파리안도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아버지의 활동을 도왔다. 오닉시아는 '카트라나 프레스톨'이라는 이름의 귀족으로 분장하고 스톨윈드의 왕궁에 잠입했다. 그녀는 스톨윈드의 재건 작업을 망치고 지역 정치에 간섭하며 스톨윈드를 로데론 등 북부의 왕국들로부터 고립시켰다. 네파리안은 검은바위 산에 모인 오크들을 만나 그들을 부리며 그곳을 검은용군단의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다.

어느 정도 작업이 진척되었을 때, 데스윙은 달라란의 마법사 로닌이 이끄는 얼라이언스의 소규모 부대를 용아귀 부족의 비밀 거처로 유도했다. 혼란통을 만들어 그 틈에 붉은 용의 알과 드래곤 소울을 모두 가져가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장소에 참전한 이들은 몇 명 더 있었다. 알렉스트라자의 남편 코리알스트라즈와 그의 동료들이었다.

붉은용 코리알스트라즈는 '크라서스'라는 이름의 강력한 하이엘프 마법사로 모습을 바꾸고서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림 바톨로 뛰어들었다. 하이엘프 순찰자 베리사 윈드리너(윈드리너 3자매 중 막내), 드워프 그리핀 기사 폴스타트 와일드해머도 함께였다.

이때 전투가 펼쳐지는 동안 알렉스트라자가 사슬을 끊고 풀려났다. 네크로스는 재빨리 드래곤 소울로 제압을 시도했으나 알렉스트라자는 그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그동안의 분노를 데스윙에게 돌렸다.

그 틈에 크라서스와 일행은 드래곤 소울의 결함을 찾아내어 유물을 파괴했다. 그 순간, 유물에 갇혀 있던 마력이 풀려나 용의 위상들에게 되돌아갔다. 데스윙은 힘을 되찾은 위상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데스윙은 또다시 도망쳤고, 붉은용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

얼마 후, 로닌과 베리사는 눈이 맞아 결혼했다. 크라서스와 알렉스트라자 역시 오랜만에 신혼 생활에 들어갔다. 용맹한 폴스타트만이 홀로 고향으로 복귀했다. 폴스타트는 웬지 모를 패배 감에 한동안 치를 떨어야 했다.

15년

수년 전, 드레노어는 파괴되었고, 원정대는 아제로스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동안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전쟁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각자의 운명에 따라 흩어졌다.

로서의 후예들은 드레노어가 파괴될 당시 아제로스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둠의 문을 파괴하여 스스로 고립됐다. 아제로스의 사람들은 원정대가 죽었다고 생각해 그들을 기리는 동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카드가와 쿠르드란, 트롤베인은 아웃랜드에 남아 검은 사원을 점거한 '타락한 호드'들을 상대하며 계속해서 국지전을 벌였다. 타락한 호드는 아웃랜드에 새로 찾아온 불타는 군단의 악마 마그테리돈에게 굴복하여 그를 따르는 세력이었다.

투랄리온과 알레리아는 드레노어 파괴 당시 혼란통에 다른 동료들과 헤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뒤틀린 황천에 갇혔고, 그곳에서 뜻밖의 존재와 만났다. 시초의 나루 제라였다. 필멸의 생명을 인도하고 길러낸 빛의 생명체 나루들 중에서도 제라는 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오래전 불타는 군단에 맞서 싸우는데 헌신할 이들을 규합하여 빛의 군대를 만들었다. 그 구성원은 대부분 드레나이들이었지만 제라는 아제로스의 두 후예가 훗날 불타는 군단의 약점을 밝힐 열쇠라는 계시를 갖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에 따라 결국 투랄리온과 알레리아는 빛의 군대에 합류했다.

반대로 아제로스에 남은 오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제로스에 적응해야 했다.

전쟁노래 부족의 그룹마쉬 헬스크림은 고향에 남겨두고 온 아들 가로쉬 헬스크림을 그리워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그룹은 슬픔을 뒤로 한 채 전쟁노래 부족을 이끌고 북쪽의 외딴 슬픔의 늪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때를 기다렸다. 그룹에게 있어 오크와 인간 사이에 평화는 절대 있을 수 없었다.

검은바위 산에 자리 잡았던 블랙핸드 형제는 자신들이 호드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강조하며 차근차근 호드 군대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검은 용 네파리안이 나타난 후로는 그의 꼭두각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쟁 전에 이미 알터랙 산맥에 자리 잡았던 서리늑대 부족은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다. 알터랙 산맥은 춥고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에 익숙했다. 부족의 원로 드렉타르는 아제로스에 충만한 정령과의 유대도 되살려 그것을 이용해 부족을 안전하게 지켰다.

혼혈부족 모크나탈의 전사 렉사르는 최근의 모든 사태를 혐오스럽게 바라봤다. 호드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이제 먼지가 되었다. 한참 전에 아이트리그가 그랬듯, 렉사르 역시 아제로스의 자연으로 들어가 홀로 세계를 방황했다.

살게라스의 무덤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초갈과 황혼의 망치단은 바다 건너 서쪽 칼림도어 대륙으로 향했다. 그들은 처음에 칼림도어 남쪽에 정착하려 했으나 그들을 추적해온 가로나의 방해로 새로운 거처를 계속 찾아 헤매야 했다. 어디가 됐든 초갈과 그의 추종자들은 언제나 고대 신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얼라이언스에게 붙잡혔던 오그림 둠해머는 수용소를 탈출했다. 이 사건은 얼라이언스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그림을 중심으로 호드가 또다시 뭉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얼라이언스는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용소의 감시와 방어를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크는 이미 그럴 의지가 없는 상태였다. 달라란의 한 마법사는 그들의 몸에서 지옥 마법이 빠져나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얼라이언스 구성원들은 오크들의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무척 만족해했다. 오크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었다. 그 사이 오그림은 서리늑대 부족에 망명하여 한동안 은둔의 삶을 살기로 한다.

아제로스의 새로운 위협은 다른 곳에서 퍼지고 있었다. 킬제덴은 오크를 이용한 아제로스 침략의 실패를 감안하여 새로운 군대를 고안했다. 그 어떤 고통도, 공포도 느끼지 못하는 망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언데드 군대였다. 킬제덴은 넬줄에게 언데드를 다루는 힘과 함께 리치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그리고 엄청난 마력을 소모하여 뒤틀린 황천에서 아제로스로 통하는 작은 차원문을 열었다. 리치왕의 얼어붙은 감옥은 밤하늘을 가르며 아제로스의 북쪽, 얼어붙은 대륙 <노스랜드>로 떨어졌다. 낙하하는 동안 일그러진 그의 감옥은 왕좌를 닮은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킬제덴의 명을 받은 악마들은 리치왕의 얼어붙은 왕좌 주위에 <얼음왕관 성채>를 건설했다.

그동안 리치왕은 노스랜드 곳곳에 흩어진 토착 생명체들에게 의식을 확장하여 정신을 어둡게 물들였다. 수천 년간 전쟁에 굶주려 있던 브리쿨, 야만적인 얼음 트롤, 어둠땅에서 영혼을 수

집하는 발키르, 용의 안식처 주변에 살고 있던 인간들 등등. 리치왕은 역병의 힘을 통해 그들을 죽이고 언데드로 다시 일으켰다. 그중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고대의 곤충 종족 네루비안들이었다. 네루비안의 지도자 아놉아락은 리치왕의 역병 공격 시도를 간파해 수년간 저항했다. 하지만 리치왕은 결국 그들마저 굴복시켰다. 조금씩 죽어나간 네루비안 시체들이 지속적으로 언데드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노스랜드에서 리치왕에게 거역할 자는 없었다.

노스랜드를 정복한 리치왕은 아제로스 곳곳에도 자신의 의식을 퍼뜨려 자신을 도울 이를 찾았다. 그의 부름을 들은 가장 강력한 이들 중 하나는 달라란의 마술사 의회, 키린 토의 옛 지도자 켈투자드였다. 켈투자드는 한때 비전술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학자였다. 그러나 2차 대전쟁 이후 발견한 새로운 학문인 강령술을 연구하다가 추방되고 말았다. 분노와 좌절에 매몰되어 있던 그에게 리치왕의 속삭임은 매우 달콤한 것이었다. 켈투자드는 강령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리치왕에게 경외심을 느끼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켈투자드는 이후 로데론에서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활용해 주민들을 선동했다. 가난한 하층민들은 왕정에 대한 환멸감을 자극했고, 귀족이나 지주들에겐 불멸의 삶을 미끼로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모아 은밀한 지하무덤 아래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이라는 종교 단체를 창설했다. 그들은 어두운 성채 아래에서 강령술을 이용한 끔찍한 실험들을 자행했다. 무엇보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로데론의 곡물 보급을 이용해 역병을 퍼뜨릴 계획에 대한 준비였다. 켈투자드는 희생자의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병 전에 인간이 오염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역병의 잠복 기간을 늘리는데 집중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리치왕의 충성스러운 언데드 병력은 끝도 없이 늘어날 것이다.

아제로스에 새로운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 왕국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여 점차 과거의 번영을 되찾고 있었다.

스툼윈드의 어린 왕자였던 바리안 린은 어느새 어엿한 왕이 되어 공정하고 선견지명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는 스툼윈드 재건을 감독했으며 티핀 엘레리안이라는 귀족 여인과 결혼했다. 그들은 2차 대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사령관, 안두인 로서를 기리며 아들에게 안두인 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바리안은 오닉시아에 의해 배로 납치되었다가 난파되는 수난을 겪는다. 기억을 잃은 채 칼날바위 만에 표류한 바리안 린은 오크 검투사 마스터 레가르를 만나 검투사 수련을 받기 시작한다.

쿨 티라스의 공주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는 오랜 달라란 마법 유학을 마치고 전설적인 대마법사 안토니다스의 곁에서 비전 마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이나의 연인이자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 메네실은 은빛 성기사단에 가입하여 성기사가 되었다. 비록 고집불통에 완고한 면이 있었지만 아서스는 용감한 영웅의 자질을 보였으며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얼마 후 로데론에 역병이 창궐했을 때, 제이나와 아서스는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동분서주하게 된다.

한 명의 오크 역시 세상에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고 인간의 손에 맡겨졌던 듀로탄의 아들 쓰랄이었다. 그는 동부 대륙에 흩어져 있던 오크들을 규합하여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치를 내건 신생 호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영웅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와우 스토리 5부 : 3차 대전쟁

18년

인간과 오크의 2차 대전쟁이 끝난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인간에 의해 쓰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오크 아이는 고등 학문과 전술 전법을 폭넓게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를 주워다 키운 애델라스 블랙무어라는 인간의 후원 덕분이었다.

애델라스 블랙무어는 로데론의 귀족 장교였다. 2차 대전쟁 당시 활약한 그는 현재 던홀드 요새에서 포로 수용소 소장직을 맡고 있었다. 다나스 트롤베인이 없는 지금, 그는 사실상 모든 오크 수용소의 총 책임자였다.

하지만 블랙무어는 자신이 수용소 감시직을 맡은 것이 얼라이언스 지도부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 에델린 블랙무어는 오래전 군사 기밀을 알터랙에 팔아넘겨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과거가 있었다. 즉 역적의 자식이라는 출신의 한계 때문에 애델라스는 쪽 괘시를 받아왔고, 수용소 감시직 역시 그런 괘시의 일환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로데론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오크 고아 쓰랄을 얻었다. 블랙무어는 쓰랄을 유능한 전사로 키웠다. 훗날 쓰랄을 수용소 오크들의 지도자로 내세워 그들로 구성된 오크 군대를 이용해 로데론을, 나아가 인간 왕국들을 전복하기 위함이었다. 재능이 뛰어났던 쓰랄은 블랙무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놀랍게 성장했다. 그는 검투사로써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 일대에 명성을 알렸다.

하지만 쓰랄은 블랙무어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블랙무어는 매우 잔혹하고 거만한데다 술꾼이었다. 그는 쓰랄을 걸고 곤잘 도박을 즐겼고, 무엇보다 쓰랄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오크 아이에게 붙여주었던 이름 그대로, 쓰랄을 노예처럼 부렸다.

쓰랄은 블랙무어의 하인 클라니아에게 맡겨져 그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물론 클라니아 역시 주인의 명령 때문일 뿐, 오크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오직 클라니아의 어린 딸 타레사 폭스텐만이 젖먹이였던 쓰랄을 편견 없이 친동생처럼 아끼며 애정을 쏟았다. 그녀 덕분에 쓰랄은 비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

블랙무어의 잔혹한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쓰랄은 투기장에서 8연속 전투 강요를 받은 탓에 지쳐 패배했다. 그날 밤 블랙무어는 쓰랄에게 심하게 매질을 했고, 이를 계기로 쓰랄은 결국 블랙무어로부터 탈출을 결심한다.

쓰랄이 마음을 굳히자 타레사는 적극 도왔다. 마굿간에 불을 질러 소동을 일으킨 후 약속 장소에서 식량을 전달하고 오크 레지스탕스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타레사는 이 일을 블랙무어에게 들켜 그 대가로 강제로 그의 정부가 되고 말았다. 사실 이전부터 그녀는 매일 밤 블랙무어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쓰랄은 탈출에 성공해 로데론 너머로 사라졌다.

탈출 후 쓰랄은 다른 오크 수용소들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수용소엔 주체적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인간의 노예로 적응해버린 한심한 오크들뿐이었다. 무기력증에 걸린 그들은 그 어떤 의지도 없었다. 쓰랄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제로스에 남아있던 또 다른 오크들, 전쟁노래 부족에게로 향했다.

전쟁노래 부족의 족장 그롬마쉬 헬스크림은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얼라이언스에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쓰랄에게 오크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전해주며 이후 쓰랄이 목표를 갖고 살도록 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쓰랄이 본래 서리늑대 부족 출신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젓먹이부터 인간 손에서 자랐던 쓰랄로서는 전쟁노래 부족에서 배우고 겪은 것들이 매우 큰 경험이 되었다.

쓰랄은 다음으로 자신의 핏줄 부족인 서리늑대 부족을 찾아가 원로 주술사 드렉타르를 만났다. 듀로탄이 죽은 이후 서리늑대 부족을 이끌어온 장로 드렉타르는 자신을 찾아온 쓰랄이 듀로탄의 아들임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동안 아제로스 정령과의 결속을 되살리는데 성공한 드렉타르는 쓰랄에게 주술의 길을 가르치고 부족의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었다.

쓰랄이 마지막으로 만난 자는 호드의 대족장이었던 오그림 둠해머였다. 오그림은 옛 친구의 아들이 생환한 것에 매우 기뻐했다. 오그림은 쓰랄에게 오크의 전투 방식을 가르쳤다. 그리고 부족들이 잃어버린 오크의 고결함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쓰랄의 낙천성과 강인함은 오크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돌리려는 오그림의 희망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옛 맹우의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했음에 매우 만족해하며 자신의 무기 둠해머를 물려주고 쓰랄에게 다시 한 번 호드를 이끌 것을 천명했다.

쓰랄은 그동안 인간들에게 전략 전술과 전투 기술을 배웠고, 그롬마쉬에게서 오크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찾았으며, 드렉타르에게서 주술을, 오그림 둠해머에게 오크의 긍지를 배웠다. 그리고 서리늑대 부족과 전쟁노래 부족의 동맹을 결성시켜 마침내 오크들의 해방을 위해 싸울 것을 결심했다. <신생 호드>의 탄생이었다.

몇 주 뒤, 쓰랄은 신분을 숨긴 채 제 발로 오크 수용소 안으로 잡혀들어갔다. 그 사이 서리늑대 부족과 전쟁노래 부족은 오그림의 지휘 아래 수용소 근처에 집결했다.

경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던 이른 아침. 쓰랄은 수용소 안의 단단한 토양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양손을 들자,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곧 하늘이 세 가닥의 뽀죽뽀죽한 번개로 갈라졌다. 성난 천둥이 대지를 가를 듯 연이어 내리쳤다. 그것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쓰랄의 설득으로 수용소 오크들은 의지를 되찾고 돌이나 막대기 따위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신호와 함께 요새 내부에서부터 반란을 감행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비병들은 재빨리 움직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장벽은 무너졌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오그림의 오크 부족들까지 가세했다. 이윽고 온 사방에 살을 가르는 검과 도끼의 철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얼마 뒤 수용소 안에 더 이상 오크 노예는 없었다. 자유와 긍지를 되찾은 오크들만이 쓰랄을 에워싸고 있었다.

쓰랄은 수용소 습격 중에 한 오크 전사와도 만났다. 검은바위 부족의 전사였던 바로크 사울팽이었다. 그는 1차, 2차 대전쟁 당시 자신이 이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맹장이었다. 호드의 타락을 내심 경계했던 그는 쓰랄의 개혁 의지와 패기를 마음에 들어 하며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다.

쓰랄은 계속해서 수용소의 오크들을 해방시켰다. 새로운 호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호드 리더들과는 지향점이 확실히 달랐다. 어느 날 작은 오크 무리 하나가 외딴 인간 마을을 유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쓰랄은 곧장 그 무리의 숙영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리더를 땅바닥에 내친 뒤 주변의 오크들을 향해 외쳤다. 더 이상 오크들은 인간 도살자들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비무장한 민간인들에게 해를 가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엄포였다. 그는 앞으로 신생 호드의 전투의 목적은 오로지 사로잡힌 형제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못 박았다.

쓰랄은 인간 마을을 유린한 이런 행태가 어두운 흑마법사들에 의해 휘둘렸던 예전 호드의 모습이라며, 더 이상 옛 방식이 아닌 자랑스러운 전사로써 싸울 것을 피력했다. 오그림은 쓰랄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걱정했다. 하지만 그만큼 쓰랄을 믿었다.

5번째 수용소를 점령한 쓰랄은 마침내 블랙무어와 타레사가 있는 던홀드 요새로 다음 목표를 정했다. 전투 전날 밤, 쓰랄은 타레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그녀를 비밀리에 만났다. 쓰랄은 타레사에게 던홀드를 떠나있기를 권했다. 하지만 타레사는 만약 자신이 없다면 자신의 부모가 블랙무어의 화를 대신 입을 거라며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쓰랄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쓰랄의 군대는 요새를 포위했다. 그리고 블랙무어에게 오크들을 풀어달라며 협상을 시도했다. 굳이 피를 흘리지 않고 동족들을 해방할 수 있다면 쓰랄은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블랙무어는 사람 머리 하나를 성벽 밖에 있는 쓰랄의 발치로 내던짐으로써 답을 대신했다. 타레사의 머리였다.

쓰랄은 절규를 터뜨렸다. 던홀드 요새에 곧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무어와 쓰랄은 검을 맞댔다. 블랙무어는 자신이 키운 쓰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거두었던 오크에 검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쓰랄은 블랙무어를 요새 파편 밑에 묻었다. 모든 전투가 마무리된 후, 쓰랄은 초승달 장식의 목걸이를 그룹에게 전해주며 폭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들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것은 쓰랄이 던홀드를 떠날 당시 타레사가 건네주었던 목걸이였다.

전투가 끝난 후 오그림은 쓰랄에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건넸다. 그는 이미 전투 중 복부를 관통당해 더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그림은 쓰랄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했고, 쓰랄은 그리했다. 얼마 후 쓰랄은 새로운 호드의 대족장이 되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19년

티리온 폴드링은 한때 호드와의 전쟁 선봉에서 오크들을 물리쳤던 은빛 성기사였다. 로데론 왕국의 영지 하스글렌의 영주이기도 한 그는 전쟁 종료 후 가족과 함께 마르덴홀드 요새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티리온은 영지 산자락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근처 빈 감시탑에서 낮선 오크와 맞닥뜨린다. 오크를 실로 오랜만에 본 티리온은 곧바로 전투로 돌입했다. 그러나 그 오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오그림 둠해머와 함께 검은바위 부족 선봉에서 싸웠던 백전노장의 오크, 아이트리그였다.

티리온과 아이트리그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도중 아이트리그가 다리에 상처를 입자 티리온은 은빛 성기사단의 규율에 따라 쓰러진 적을 공격하지 않고 유예를 주어 상대가 다시 일어나 싸우도록 했다. 그러자 아이트리그 역시 자세를 가다듬고 오른 주먹을 가슴에 가져다 대어 오크식 예로 답을 했다.

티리온은 놀랐다. 야만적인 괴물들로만 생각했던 오크가 보인 예의 있는 행동이 충격적이었던 것. 둘은 다시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도중 감시탑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티리온이 잔해에 깔렸다.

나흘 후, 티리온은 자신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경비대장의 말로는 자신이 애마에 단단히 묶인 채 요새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누가 나를? 설마 그 오크가? 티리온은 당장 부관들을 불러 자신이 보았던 오크의 처리 문제에 대해 회의에 들어갔다. 당연히 대부분 당장 오크를 공격할 부대를 조직해 쓸어버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특히 하스글렌의 2인자이자 성기사 직속 부하 발실라스가 흥분하며 당장 쳐들어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오크들에게 가족을 살해당한 과거가 있는 자였다.

하지만 티리온은 자신을 구해 애마에 묶어 하스글렌으로 가는 길까지 찾아보낸 자가 그 오크 인지를 먼저 알고 싶었다. 흥분하는 발실라스를 꾸짖어 돌려보낸 티리온은 며칠 후 다시 그 부서진 탑의 잔해로 향했고, 원하던 대로 다시 그 오크를 만나게 된다.

아이트리그는 또다시 오른 주먹을 가슴에 갖다 대며 예를 갖추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놀랍게도 공용어로 티리온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날 티리온은 아이트리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제로스로 넘어오기 전의 오크 부족의 역사와 타락, 배신, 죽음. 또한 자신은 호드에 환멸을 느껴 탈영한 후 지금껏 홀로 아제로스를 떠돌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티리온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뿌리부터 뒤흔들림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동시에 아이트리그에게는 깊은 우정을 느꼈다. 티리온은 아이트리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영지에서 원하는 대로 머물러도 좋으며, 절대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헤어졌다.

그러나 며칠 후,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만다. 부관 발실라스가 오크에 대한 이야기를 상부에 알린 것이다. 곧 스트라솔름의 사령관 다스로한이 병력을 이끌고 하스글렌에 들이닥쳤다. 다스로한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티리온에게 아이트리그의 은신처로 안내할 것을 명했다. 티리온은 어쩔 수 없이 부서진 경비탑으로 그를 안내했고, 아이트리그를 생포해오게 된다. 자신이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을 깨게 된 티리온은 아이트리그를 볼 맛이 없었다.

발실라스와 다스로한의 병사들은 아이트리그에게 밤낮으로 린치를 퍼부으며 온갖 모욕을 주었다. 이를 지켜보기 힘들었던 티리온은 결국 폭발하여 아이트리그를 채찍질하던 병사를 내리치고 아이트리그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얼라이언스에 대한 반역 행위였다. 다스로한은 어쩔 수 없이 티리온을 가두고 아이트리그와 함께 로데론 북부의 대도시 스트라솔름으로 압송했다.

얼마 후 은빛성기사단 단장 우서 경, 아서스 왕자, 프라우드무어 제독 등 얼라이언스 주요 관직의 인사들이 티리온과 아이트리그에 대한 재판을 위해 모였다. 티리온은 마지막까지 아이트리그에 대한 변호를 멈추지 않았다. 발실라스는 티리온의 사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우서 경의 자비로 인해 영지 추방과 성기사 직위 해제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크인 아이트리그는 무조건 처형 확정이었다.

티리온은 아이트리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급기야 그는 스트라솔름의 공개 처형장으로 다시 쳐들어가 발실라스를 쓰러뜨리고 아이트리그를 구출해냈다. 반역을 넘어서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이때, 스트라솔름에 일단의 오크 무리들이 들이닥친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들 때문에 거리는 삽시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 틈을 타 티리온은 아이트리그를 데리고 도시를 빠져나갔다. 티리온은 이미 죽어가는 아이트리그를 살리기 위해 파문 당시 잃어버렸던 빛의 힘을 되찾아 그를 혼신의 노력으로 치료했다. 이때 그들 앞에 도시를 습격했던 무리의 리더가 나타났다. 파란 눈의 오크, 쓰랄이었다.

스트라솔름을 습격했던 건 쓰랄의 신생 호드들이었다. 쓰랄은 새롭게 태어날 호드에 아이트리그와 같은 현명한 원로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셔가려 했다. 아이트리그는 여태껏 구 호드와 동족들에게 실망하고 조용히 여생을 살아가려 했었다. 그러나 쓰랄의 의지를 보고 다시금 열정을 불태우며 그를 따르기로 한다. 이로써 쓰랄의 신생 호드에는 사울팽, 아이트리그, 그롬마쉬 등 쟁쟁한 노장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아이트리그는 티리온과 작별했다. 이후 티리온은 고결했던 초대 은빛성기사의 과거를 버리고 홀로 국경지대로 떠나 추방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가 다시 영광을 되찾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1차 대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얼라이언스는 쇠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인간과 하이엘프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은 같은 동부 왕국에 속한 길니아스와 스트롬가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호드와 같은 외부 위협이 없거니와, 데스윙의 딸 오닉시아가 인간 귀족의 모습으로 분하여 열심히 이간질한 덕분이기도 했다. 끝내 길니아스는 공식적으로 얼라이언스와 모든 군사 협정을 끊고 거대한 그레이메인 성벽을 건설하여 왕국을 고립시켰다. 바다를 삼면에 두고 자급자족하는 반도 국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트롬가드 역시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했으며 스톨윈드마저 내부의 갈등으로 고전했다.

리치왕은 비로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금이야말로 로데론에 언데드 역병을 퍼뜨릴 완벽한 시기였다. 리치왕은 본격적인 계획에 앞서 자신을 대신해 전장에서 활동할 강력한 대리인을 찾았다.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 메네실이었다.

아서스는 타고난 전략가이자 전사였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으며,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또한 강하여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명실상부한 로데론의 차기 지도자였다. 그런 그의 위상은 리치왕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그를 타락시킬 수 있다면, 모든 일이 손쉽게 풀리리라.

리치왕의 충실한 하수인 켈투자드과 그의 교단은 우선 로데론의 농작물 보급지 <안돌할>에 오염된 곡물을 집어넣어 역병을 퍼뜨렸다. 역병은 삼시간에 퍼졌다. 치료제도, 물약도, 사제들의 신성한 마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역병에 대한 소식은 곧 로데론의 수도로 전해졌으나 누구도 대처 방법을 몰랐다. 질병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사망자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나 사라진다는 흉흉한 소문이었다.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국왕 테레나스는 자신의 아들 아서스가 이끄는 사절단을 안돌할로 파견했다. 달라란의 키린 토 역시 제이나를 파견했다. 그들의 임무는 역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아서스와 제이나는 곧 안돌할에 도착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시체는 산을 이루고 있었고, 아직 살아있는 주민들도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에 대한 공포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때 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평온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야말로 끔찍한 참상이었다. 아서스는 주민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마음이 찢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서스의 백성이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아서스는 백성을 파멸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맹세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서스와 제이나는 역병에 관한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갔다. 역병은 안돌할에서 곡물 보급로를 따라 동쪽 숲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추적한 끝에 일행은 흥흥한 소문이 진실이었음을 직접 경험한다. 그들은 걸어 다니는 시체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역병을 퍼뜨린 것은 켈투자드라는 자가 이끄는 인간 이교도들이었다. 역병의 배후에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서스의 마음에 건잡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서스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켈투자드와 추종자들을 추적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았다.

리치왕은 하수인의 눈을 통해 아서스를 지켜보며 그를 노스렌드로 인도할 방법을 고심했다. 아서스 정도의 존재를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마검 <서리한> 뿐이었다. 아서스가 서리한을 집어 들게 할 수 있다면 그를 확실히 타락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서리한은 노스렌드의 얼음왕관에 있었다. 우선 그를 노스렌드로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서스는 마침내 켈투자드를 찾아냈다. 켈투자드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죽음 이후에 더 강력한 존재로 되살아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전에 그가 할 일은 그저 아서스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신성한 도시 <스트라솔름>에 자신이 섬기는 악마 말가니스가 있으며 그곳에도 곧 역병이 퍼질 거라는 정보였다.

스트라솔름은 인구가 무척 많고 로데론에게 있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또한 성기사단이 탄생한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만약 스트라솔름이 역병에 물들고 언데드에 뒤덮인다면 그것은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서스는 또 한 번 분노를 터뜨리며 켈투자드를 죽이고 즉각 스트라솔름으로 향했다. 어느새 아서스는 절망과 분노에 휩쓸려 광기마저 보이고 있었다.

아서스와 제이나 일행은 서둘러 스트라솔름에 도착했다. 아서스의 스승 우서 경도 합류했다. 그러나 스트라솔름 주민들은 이미 안돌할의 오염된 곡물을 받아서 소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역병이 그들을 영혼 없는 언데드로 뒤바꾸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대로 두면 감염된 스트라솔름의 언데드들이 로데론 왕국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역병을 퍼뜨리며 해를 가할 것이 뻔했다.

아서스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것은 피눈물을 머금지 않고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참혹한 명령이었다. 긴 장고 끝에 아서스는 스트라솔름을 불태우고 시민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결정했다. 아서스를 지원하러 왔던 우서 경은 그의 결정에 놀라 강하게 반대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했지만 아서스의 고집은 확고했다. 그간 역병을 쫓 조사해왔던 아서스는 이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우서 경을 비롯한 몇몇 기사들은 아서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등을 돌렸다. 제이나 역시 동참하지 않았다. 나머지 기사들은 결국 아서스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들으로써도 건디기 힘든 임무였지만 더 많은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결정한 바를 강행했다.

곧 아서스와 그의 부하들이 스트라솔름을 휩쓸며 학살을 시작했다.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켰고 거리에서는 잿가루와 불씨가 솟아올랐다. 날카로운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무고한 자들의 피가 자갈길을 흥건하게 적셨다. 노인, 여자, 아이들, 수많은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이 존경했던 왕자와 기사들의 칼에 도륙 당했다.

대학살의 현장에서 아서스는 말가니스와 조우했다. 이 학살극을 초래하게 만든 그 악마에게 아서스는 모든 분노를 쏟으려 했다. 그러나 말가니스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을 막고 싶다면 노스렌드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말가니스를 기필코 찾아 죽이겠다는 다짐을 한 아서스는 즉시 그를 쫓아 노스렌드로 향했다.

3일 후, 폐허가 된 스트라솔름에 제이나가 돌아왔다. 도시의 대부분은 불에 타고 형체만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시신이 나뒹굴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몹시 슬퍼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다. 아서스는 앞으로 평생을 악몽으로 기억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에 대한 연민과 후회는 그 후 오랫동안 제이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리치왕은 아서스가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히 그를 서리한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했다. 이를 위해 리치왕은 노스렌드의 탐험가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때마침 산속 도시 아이언포지에서 온 드워프 전사 무라딘 브론즈비어드가 이끄는 드워프 일행이 고대 유물을 찾아 노스렌드를 여행하는 중이었다.

무라딘은 카즈 모단의 왕위 계승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보다는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계승권을 포기하고 대륙을 떠돌며 모험을 해왔다. 또한 그에게는 아서스가 어렸을 때 로데론에 대사로 파견되어 아서스에게 무술을 가르친 과거가 있었다. 무라딘은 아서스에게 서리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릴 완벽한 전령이었다. 리치왕은 수하들을 통해 탐험가 야영지에 서리한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심어두었다. 예상대로 무라딘은 룬검에 이끌렸고 드워프들은 룬검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 사이 아서스와 병사들은 <울부짖는 협만>이라 불리는 노스렌드의 지역에 상륙했다. 리치왕은 언데드들을 이용해 무라딘과 아서스 일행을 만나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그것을 우연한 조우로 생각했다. 사실 아서스는 고지식한 스승 우서보다는 시원한 성격의 스승 무라딘을 좋아했기에 그 우연한 만남을 매우 반가워했다. 예상대로 무라딘은 아서스에게 노스렌드 탐험의 목적과 서리한을 찾아 나선 최근의 여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룬검에 대한 이야기는 왕자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말가니스와의 전투에서 유용하게 쓰일 무기였다.

그러나 곧 로데론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왕실 특사가 아서스 왕자를 추적하여 테레나스 왕의 지시를 전했다. 부하들을 데리고 즉시 로데론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테레나스 왕은 우서 경으로부터 스트라솔름의 일을 모두 보고받은 상황이었다. 왕자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했다. 하지만 아서스는 지금 돌아간다면 다시 말가니스를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급기야 그는 아무도 모르게, 험한데 정박해 두었던 배를 한 척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렸다. 부하들은 누구도 그것이 왕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배를 만들 때까지 노스랜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말가니스와 언테드 무리가 왕자 일행을 공격해왔다. 언테드는 아서스가 전에 보지 못한 규모로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아서스 일행을 압도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아서스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전설의 룬검 서리한을 찾는 것뿐이었다. 부하들이 언테드들을 상대하는 동안 아서스와 무라딘은 서둘러 서리한을 찾아 헤맸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어느 작은 동굴 속에서 마침내 서리한을 발견했다.

무라딘의 상상과 달리 서리한은 불길한 이계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저주받은 마검이었다. 무라딘은 아서스에게 서리한을 그냥 두고 돌아가자고 했다. 아서스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 말가니스를 처치하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저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아서스는 결국 서리한을 뽑아들었다. 서리한의 끔찍한 힘이 그의 몸을 타고 전해졌다. 피를 얼릴 듯이 차가운 기운이었다. 서리한은 기어코 아서스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서리한이 뽑히자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동굴 속에서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고 그중 하나가 무라딘을 찔러 쓰러뜨렸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홀로 정신을 차린 무라딘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고 눈 덮인 황무지를 배회해야 했다. 다행히 그는 노스랜드에서 살아가는 드워프인 서릿결 부족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아서스는 서리한을 들고 돌아와 마침내 말가니스와 마주했다. 그의 귓가에 말가니스를 죽이라는 리치왕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실 리치왕 넬줄은 처음부터 킬제덴과 불타는 악마들

에게 충성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들키지 않게 세력을 조금씩 확장하여 언젠가 자신에게 끄찍한 고통을 준 악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리치왕의 의지대로 아서스는 말가니스를 서리한으로 단 칼에 베어 죽였다. 나머지 언데드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아서스의 부하들은 주군의 승리를 축하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아서스는 이미 로데론의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죽음처럼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백골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서스는 검을 들어 그대로 자신의 부하들을 학살했다. 서리한은 그들의 영혼을 마음껏 들이켰다. 아서스의 부하들은 그렇게 모두 죽음의 기사가 되었다. 왕자는 더 이상 노스렌드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언데드 군단 <스컬지>를 이끌고 로데론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서스가 노스렌드로 돌아오는 동안, 무슨 일인지 동부 대륙에서 언데드가 물러나고 자취를 감추었다. 시민들은 이유를 모른 채 추측만 할 뿐이었다. 인간들 대부분은 그들의 사랑하는 왕자가 노스렌드에서 스컬지를 무찌르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실제로는 리치왕이 아서스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스컬지를 물린 탓이었다. 그러면 아서스는 승리한 영웅으로 환영을 받으며 로데론 수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얼마 후 아서스와 몇몇 죽음의 기사들이 함께 로데론에 도착했다. 그들은 두건이 달린 망토로 창백한 피부와 여윈 몸을 가리고 있었다. 곧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아서스를 환영하기 위해 수도에 모여들었다. 아서스의 도착에 맞추어 종이 울렸고 환희에 찬 군중은 장미꽃 잎을 던지며 아서스 일행을 환영했다. 아서스는 군중을 무시했다. 그는 기이한 침묵을 지키며 왕실에 들어섰다. 성대한 환대를 뒤로 한 채 아서스 일행은 주변을 봉쇄했다. 당황하여 이게 무슨 일이나 묻는 테레나스에게 아서스는 말했다.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아서스는 서리한의 첫 번째 제물로 로데론의 국왕 테레나스를 살해했다. 그와 동시에 로데론 곳곳에 숨어 있던 스컬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서스는 시민들을 향해 선포했다. 로데론은 멸망할 것이며,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고.

곧이어 스컬지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지옥도가 펼쳐졌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로데론은 이날 완전히 멸망한다.

20년

대해 너머 칼림도어의 동부 해안에서, 고독한 누군가가 홀로 떠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를 아는 이는 더욱 적었다. 그녀는 가장 위대한 티리스팔의 수호자 중의 한 명인 에이그윈이었다.

에이그윈은 자신의 아들 메디브와 아제로스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난했다. 호드의 침공, 1차 대전쟁과 2차 대전쟁의 참극, 끝내 살해당한 아들... 그녀는 이제 살아갈 의욕도 무엇도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중,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까마귀 깃털을 수놓은 망토 차림의 남자가 전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신을 아제로스로 계속 불러달라는 꿈이었다. 에이그윈은 처음엔 군단의 술수라 생각하며 꿈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진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꿈속의 남자는 아들 메디브의 영혼이었다.

수년 전 목숨을 잃은 메디브의 영혼은 현실의 경계 너머로 표류하면서 그동안 아제로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목격했다. 육체의 죽음 이후 살게라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는 아제로스 세계에 닥칠 일에 대해 경고를 현실에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로데론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방법은 없었다. 아제로스에서 단 한 사람, 마법보다도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그의 어머니 에이그윈만이 그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이를 알게 된 에이그윈은 지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한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메디브의 영혼을 불렀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메디브를 아제로스로 소환하는데 성공했다.

메디브는 영혼이 되어 떠도는 동안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뒤틀린 황천의 악마들의 정신에 접촉해 언데드 역병에 대한 사실은 물론, 군단이 역병으로 아제로스를 약화시킨 다음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았다. 1만 년 전 고대전쟁 당시 파괴되었던 영원의 샘 대신 이용할 또 다른 매개체, 하이잘 산의 꼭대기의 거대한 세계수 놀드랏실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두 번째 영원의 샘이 그들의 다음 목표였다. 살게라스는 그 영원의 샘을 이용하여 불타는 군단의 모든 병력이 다시 아제로스로 침공할 수 있는 차원문을 열고자 했다.

메디브는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아제로스의 왕국들이 1만 년 전의 그때처럼 다시 단결하여 스스로 아제로스를 지켜야 했다. 메디브는 그 단결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생전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에이그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메디브의 소환 의식을 진행하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그녀의 몸은 늙고 쇠약해졌고,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회복을 한다고 해도 전처럼 젊어지거나 강력해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메디브는 홀로 나서야 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언데드 역병이 로데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후 메디브는 신분을 숨기고 자신을 '예언자'라 칭하며 세상에 다가올 위협을 경고했다. 모두가 동부 왕국을 떠나 고대의 땅 칼림도어를 향해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메디브는 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물론 유력 왕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경고를 전했다. 당연히 대부분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신분 모를 예언자의 경고가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달라란의 안토니다스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역병이 마법의 성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유망한 제자인 제이나를 조사차 현장으로 보냈고, 로데론 역시 아서스 왕자를 안돌할로 보내는 정도가 다였다.

메디브는 이처럼 인간들로부터 박대를 받았지만, 의외로 오크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대족장 쓰랄이 이끄는 신생 호드가 메디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것이다. 그동안 쓰랄은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오크들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거처가 없었고, 따라서 유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대로라면 얼라이언스와의 또 다른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메디브가 쓰랄을 찾아왔다. 쓰랄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군단이 오크 종족을 노예로 삼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악마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오그림과 그롬 등 나이 많은 오크들이 군단이 오크 종족을 파멸로 이끈 과정을 쓰랄에게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다. 메디브의 말이 사실이라면, 쓰랄은 종족을 위해 악마들과 맞서야 했다. 게다가 오크들에겐 인간들과 부딪히지 않고 지낼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기도 하던 참이었다. 다만 쓰랄은 이방인을 신뢰하기가 망설여졌다. 그래서 아제로스의 정령들에게 답을 구했다. 정령들은 즉시, 그리고 다급하게 이방인을 믿으라고 답했다. 쓰랄과 같은 주술사에게 그 이상의 확신은 필요하지 않았다. 곧 쓰랄과 신생 호드는 대해를 건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칼림도어와 동부 대륙은 갈라진 후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기에 그들에게 칼림도어는 미지의 대륙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아서스가 로데론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은 빠르게 동부 왕국에 퍼져나갔다. 다른 얼라이언스 국가들은 그 소식을 믿기조차 어려웠다. 누구도 그러한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대부분 국가가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달라란의 마법사들, 아이언포지와 맹금의 봉우리의 드워프, 농리

건의 도움, 인간 왕국의 병사들이 로데론에 모여 스컬지에 맞섰다. 심지어 얼라이언스와 동맹을 끊은 쿠엘탈라스도 언데드 퇴치를 돕기 위해 하이엘프 사제를 파견했다.

그러나 무엇도 스컬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의 강령술사는 쓰러진 적의 시체를 일으켜 세웠다. 누더기골렘은 걸어 다니는 공성 병기가 되어 얼라이언스 병사들을 짓밟았다. 지하마귀는 땅속에 잠복해 있다가 방심한 적들을 습격했다. 가고일과 서리고룡은 그리핀 기수를 비롯한 얼라이언스의 공중 병력을 상대했다. 그리고 아서스와 그의 죽음의 기사들은 스컬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들은 강령술은 물론 무력을 사용하는 전투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단 한 명의 죽음의 기사만으로도 전투의 흐름이 스컬지 쪽으로 기울었다. 그중 발군은 단연 아서스였다. 아서스는 로데론의 지형에 익숙했고, 상대 얼라이언스의 전략에 대한 통찰력도 있었다. 얼라이언스는 맹렬히 저항했다. 그것은 그저 완고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던 리치왕 넬줄은 다음 계획에 앞서 우선 켈투자드를 되살리고자 했다. 켈투자드는 생전에 달라란의 마법사 중 한 명이었기에 달라란 침공에 큰 전력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켈투자드는 군단의 악마들이 아닌 자신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는 심복이었기에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 역할은 아이러니하게도 켈투자드를 죽였던 아서스가 맡았다. 아서스는 리치왕의 명령에 따라 켈투자드의 유해가 있는 안돌할로 향했다. 이때 아서스는 켈투자드의 유해를 담기 위해 아버지 테레나스의 유해가 담긴 납골 단지를 빼앗아 챙겨왔다.

안돌할은 역병의 기운이 안개가 되어 해를 가릴 정도로 부패한 땅이 되어 있었다. 아서스는 그곳에서 자신의 옛 스승인 우서 경과 재회했다. 우서는 테레나스 국왕의 유해마저 능욕하려는 아서스에게 크게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은빛성기사단과 함께 아서스의 스컬지에 맹렬히 맞섰다. 그들은 아서스로서도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생전에 아서스가 우서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서는 노련한 영웅답게 아서스를 최후까지 몰아붙였다. 그러나 우서는 자신의 제자를 죽이는 행위에 일말의 망설임을 갖고 있었다. 그 망설임의 대가는 컸다. 막판에 연민을 느낀 우서가 보인 틈을 아서스는 놓치지 않았다. 아서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서의 가슴에 서리한을 꽂아 넣었다. 그렇게 얼라이언스의 영웅 우서는 목숨을 잃었다. 아서스는 납골 단지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유해를 아무런 감정 없이 길바닥에 내버린 뒤 켈투자드의 유해를 담았다. 후일 안돌할이 있던 지역은 언데드의 소굴이 되어 <역병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다.

리치왕은 자신의 대리인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켈투자드의 유해를 단순한 언데드가 아닌 강력한 리치로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것을 위해선 강력한 비전 에너지의 원천이 필요했다. 리치왕은 그 유력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 바로 하이엘프의 왕국 안쪽 깊은 곳에 있는 <태양샘>이었다.

6일 후, 아서스는 스컬지 병력을 이끌고 쿠엘탈라스 왕국 외곽에 도착했다. 그들은 왕국 주변에 설치된 마법석 때문에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걱정 없었다. 하이엘프 다르칸 드라시르가 아서스의 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칸은 본래 쿠엘탈라스 왕국의 고위 마법사였다. 그러나 강령술과 흑마법에 손을 대어 타락했고, 그러던 차에 아서스가 스컬지를 이끌고 오자 냉큼 그에게 붙었다. 다르칸은 아서스에게 길을 안내해주며 정보를 제공했다. 덕분에 아서스는 목표하는 태양샘에 한 발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태양샘은 하이엘프의 고향을 영원한 빛으로 적셔주는 힘의 원천이었다. 하이엘프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엘프들은 샘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쿠엘탈라스의 국왕 아나스테리안은 엘프들을 총결집시켜 스컬지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 선봉에 선 자는 순찰대(엘븐 레인저) 총사령관 실바나스 윈드러너였다.

실바나스는 윈드러너 3자매 중 둘째로, 2차 대전쟁에서 오크 호드가 쿠엘탈라스를 침공하고 숲을 불태울 때 자매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운 자였다. 실종된 언니 알레리아의 뒤를 이어 순찰대 사령관직을 맡은 그녀는 왕국의 모든 마법사와 사제들을 실버문으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정예 순찰대와 함께 실버문 외곽의 숲에 진을 쳤다. 원정순찰대라고 알려진 그들은 고도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경장갑 부대였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최전방을 지키며 쿠엘탈라스를 위협하는 모든 적에 맞섰다. 위험했지만 크나큰 명예와 영광이 따르는 역할이었다.

곧 아서스와 스컬지가 숲 안쪽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실바나스의 순찰자들은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전투는 격렬했고 뜨거웠다. 사실 스컬지의 규모는 순찰대를 훨씬 뛰어넘는 데다 다르칸의 배신 때문에 결국 전선이 뚫릴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의 완강한 저항은 아서스의 분노를 일으켰다. 실바나스는 실버문의 수호자들에게 공성전을 준비할 시간이라도 벌어주고자 했다. 그것을 위해 실바나스는 직접 아서스 앞으로 나섰다.

실버문의 장엄한 침탑을 뒤로하고 죽음의 기사 아서스와 순찰대장 실바나스가 격돌했다. 실바나스는 매섭게 공격했지만 며칠 동안의 격렬한 전투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서히 지쳤고 아서스는 빈틈을 발견했다. 서리한이 순찰대장의 몸을 가르며 그녀의 핏줄에서 생명을 쏟아냈다.

아서스는 실바나스에게 죽음 뒤의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서스는 자신에게 저항한 대가로 실바나스의 영혼을 빼내어 그녀를 언데드 뱀시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스컬지 부대에 복속

시켜 그녀가 자신의 썩어문드러지는 몸을 느끼며 영원히 고통받도록 만들었다.

결국 스컬지는 실버문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아나스테리안 국왕과 생존자들은 배를 타고 실버문 북쪽의 <쿠엘다나스 섬>으로 후퇴했다. 태양샘은 그곳에 있었다. 도시는 언제든 재건할 수 있지만 태양샘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아나스테리안은 스컬지에게 함선이 없음을 알고 언데드가 바다를 건널 수단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서스는 함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서리한이 있었다. 아서스는 쿠엘탈라스의 북부 해안에 도착하여 거품이 이는 바다에 서리한을 담갔다. 서리한 주위의 물이 얼어붙었고 얼음은 서서히 바다 너머로 퍼져나가 얼음의 다리를 만들었다.

더 물러설 길이 없었던 아나스테리안은 얼어붙은 해안에서 아서스와 맞붙었다. 아나스테리안은 펠로멜로른이라는 고대의 검으로 서리한을 상대했다. 두 자루의 검이 울부짖는 소리가 천둥처럼 하늘을 뒤흔들었다. 아나스테리안은 강했지만 아서스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아서스는 펠로멜로른을 부러뜨린 후 아나스테리안의 목숨을 거뒀다. 국왕뿐 아니라 이번 침공으로 쿠엘탈라스 왕국의 하이엘프 대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때마침 왕국 밖에 있었던 국왕의 아들 켈타스 선스트라이더와 소수의 하이엘프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아서스는 곧장 태양샘에 다가가 켈투자드의 유해를 빛나는 샘 깊이 담갔다. 그리고 리치왕이 일러준 주문을 사용했다. 그러자 마침내 켈투자드가 강력한 리치로 되살아났다. 동시에 태양샘은 오염되어 버렸다. 부활한 켈투자드는 아서스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군단의 악마들이 아닌, 리치왕과 우리들만을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는 악마들을 믿을 수 없으며 스컬지 역시 군단이 아제로스를 차지하게 되면 버려질 소모적인 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서스는 동의했다. 악마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대로 소모품으로 버려질 수는 없었

다.

그렇게 목표를 이룬 스컬지는 쿠엘탈라스에서 떠났다. 뒤늦게 폐허가 된 쿠엘탈라스에 도착한 켈타스 왕자는 참혹한 현실에 통탄했다. 그는 대체로 배타적인 다른 하이엘프들과 다르게 세상의 다른 종족들과 어울리며 세계를 배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달라란에 유학을 가있었다. 엘프들은 그런 켈타스를 원망했다. 그는 쿠엘탈라스를 지키지 않았다. 켈타스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왕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여 엘프들에게 인정받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그가 처음 한 일은 태양샘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태양샘의 타락한 에너지는 서서히 쿠엘탈라스와 그곳에 남아 있던 엘프들에게 침투하고 있었다. 켈타스는 오염된 태양샘이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고위 엘프들을 설득해 샘을 파괴했다. 문제는 평생을 태양샘에 의지해 살아왔던 하이엘프들에게 샘의 부재는 매우 가혹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엘프들은 마력의 원천이 갑자기 없어지자 금단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엘프들은 중독의 고통으로 심신이 약화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켈타스는 살아남은 엘프 생존자와 폐허의 잔재를 수습했다. 그리고 고향 땅의 참화에 슬퍼하며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의미로 자신들을 블러드 엘프라 개명했다.

로데론과 쿠엘탈라스가 함락되었다. 알터랙과 스트롬가드 역시 연이어 무너졌다. 얼라이언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불타는 군단은 이제 동부 왕국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군대를 규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악마들은 대해를 지나 두 번째 영원의 샘을 차지할 계획이었다. 킬제덴은 침공의 기반을 닦았지만 직접 전쟁을 이끌 생각은 없었다. 그 영광은 킬제덴과 동급인 군단의 2인자, 파멸자 아키몬드의 몫이었다.

킬제덴이 어둠 속에서 적을 조종하는 책략가 타입이라면 아키몬드는 다혈질의 전투 사령관이였다. 킬제덴은 아키몬드와 소수의 군대를 먼저 아제로스로 소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강력한 대악마 아키몬드를 소환하는 차원문을 열기 위해선 아티팩트 <메디브의 책>이 필요했다. 한때 오크의 손에 의해 드레노어로 넘어갔었던 아제로스의 유물들 중 메디브의 책과 굴단의 해골은 카드가가 보낸 전령에 의해 간신히 다시 아제로스로 넘어올 수 있었다. 메디브의 책은 막대한

수호자의 마력 일부가 주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문을 창조하는 데 사용한 주문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책에 깃든 에너지와 기록을 이용한다면 아키몬드와 군단의 선봉대를 아제로스에 불러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 달라란의 마법사들은 그 아티팩트들을 달라란 내부에 엄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서스의 다음 목표는 달라란이었다. 스컬지는 달라란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이에 달라란의 수장이자 키린 토의 대마법사 안토니다스는 도시에 방어막을 형성하고 결사항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년

안토니다스는 후회하고 있었다. 오래전 자신을 찾아와 경고를 전했던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 마음을 쓰리게 했다. 그 이방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안토니다스는 이제 와서 서쪽으로 떠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키린 토의 지도자로서 달라란을 버릴 수 없었다. 달라란과 비전의 보관소를 보호하는 것은 그의 의무였다. 대신 이방인의 충고를 실행에 옮겨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인물이 있었다. 키린 토의 제자, 제이나 프라우드무어였다.

제이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다가오는 스컬지 무리 속에서 아서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제이나는 스트라솔름에서 그를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아서스를 구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안토니다스의 설득 끝에 그녀는 결국 스승의 말에 따르기로 한다. 제이나는 수일 동안 최대한 많은 수의 피난민들을 모았다. 거의 모든 얼라이언스 종족의 구성원이 그 무리에 속했다. 제이나는 그들을 데리고 마침내 긴 여정을 위한 배에 올랐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아서스의 스컬지 부대가 달라란 앞에 당도했다. 그들은 쿠엘탈라스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저항과 맞닥뜨렸다. 달라란 마법사들은 도시에 방어막을 펼치고 비전 에너지를 연속해서 퍼부으며 침입자들에게 파국을 선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서스에게는 달라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군이 있었다. 그는 켈투자드의 지식을 활용해 달라란 내부 방어 시설을 우회했다. 그리고 메디브의 책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함을 찾아 바로 나아갔다. 그곳에 안토니다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마법사 안토니다스는 강했다. 비록 수호자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는 지혜롭고 재능이 뛰어난 마법사였다. 그러나 그 역시 아서스의 서리 한의 힘을 당하지는 못했다. 안토니다스는 제자 제이나에게 희망을 걸며 아서스의 칼에 숨을 거둔다.

아서스는 제이나가 달라란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아서스는 기이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던 과거 삶의 한 조각이었다. 아서스는 제이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감정은 다가온 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아서스는 메디브의 책이 간직된 보관함을 파괴하고 유물을 차지했다. 다른 많은 유물이 메디브의 책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중에는 굴단의 해골도 있었다. 이때 아서스를 감시하던 군단의 악마 티콘드리우스는 굴단의 해골이 내뿜는 지옥 에너지의 오라에 이끌려 그것을 함께 훔쳐냈다.

킬제덴 휘하의 군단의 3인자 티콘드리우스는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지략가 타입의 대악마였다. 그는 킬제덴의 명령으로 리치왕 넬줄과 아서스를 도우며 동시에 그들을 감시해왔다. 아네테론, 메피스트로스, 말가니스 등 휘하의 다른 악마들도 함께였다. 다만 말가니스의 갑작스러

운 죽음으로 티콘드리우스는 넬줄과 아서스를 의심하고 있었다.

켈투자드는 악마의 군단을 불러들일 길을 열 준비를 하면서 메디브의 마법책에 매료되었다. 책에는 엄청난 양의 마력과 지식이 담겨 있었다. 켈투자드는 그것을 모두 흡수하여 생전에 지었던 그 어떤 주문보다 거대한 주문을 만들어냈다. 마력이 밀어닥치며 아제로스와 뒤틀린 황천을 연결하는 균열이 생겨났다. 그 불길의 구렁이 속에서 악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야수 같은 지옥사냥개와 지옥불정령이라고 불리는 영혼 없는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군단의 3인자 만노로스와 파멸의 군주 카자크 등 더욱 큰 악마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런 다음 마침내 아키몬드가 거대한 몸을 드러냈다.

만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아키몬드는 다시 아제로스를 굶어보고 췌다. 아키몬드는 즉시 달라란에 분노를 돌렸다. 그는 달라란에 갇든 잠재적인 에너지를 모아 도시를 전복시킬 주문을 지었다. 달라란의 빛나는 침탑이 하나씩 부서졌고 돌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로데론에 이어 달라란 역시 이날 결국 멸망하고 만다.

아서스가 쿠엘탈라스와 달라란을 무너뜨리는 동안 나머지 스컬지 군단은 계속해서 다른 북부 왕국들을 침략해갔다. 스트롬가드 왕국은 초반 스컬지의 침공을 맹렬히 막았지만 결국 국왕 토라스 트롤베인이 사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쿨 티라스 부대 역시 전력의 역부족을 느끼고 퇴각만을 반복했다.

도시국가 길니아스 왕국은 일찍이 세워놓은 그레이메인 성벽 덕분에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다. 언데드들은 성벽을 넘지 못하고 밤낮으로 벽을 두들기기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휴식도 음식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성벽 바깥의 언데드 군세는 점점 더 불어나기만 할 뿐이었다. 길니아스 국왕 겐 그레이메인은 왕실 마법사 아루갈에게 해결책을 찾으라 명령했다. 이때 아루

같이 주목한 것은 에메랄드의 꿈이라 알려진 에테르 영역에 잠자고 있는 고대의 존재, 늑대인간(Worgen)이었다.

늑대인간이란 고대에 반신 골드린을 섞기던 일부 나이트엘프들이 야수의 본성에 빠져 탄생한 존재들이었다. 당시 다른 나이트엘프 드루이드들은 이 늑대인간들을 격리시켜 영원한 잠에 빠지도록 해놓았었다.

아루갈은 늑대인간이 통제 불능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소환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국왕의 독촉에 하는 수 없이 소환 의식을 강행했다. 그는 물리 세계와 에메랄드의 꿈을 연결하는 균열을 열고서 늑대인간을 언데드가 모인 은빛소나무 숲으로 불러들였다. 소환된 늑대인간은 즉시 스컬지에게 분노를 퍼부었다. 송곳니와 발톱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언데드를 찢어발겼다. 그 생명체들은 아루갈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강력했다.

곧 스컬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길니아스에 온 스컬지 군대는 마땅한 리더가 없었기에 생각보다 쉽게 물러갔다. 그러자 늑대인간들은 이번엔 피를 갈구하며 길니아스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늑대인간에게 적과 아군의 구분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살육을 원했다. 생존한 길니아스 병사들은 재빨리 성벽 안으로 후퇴했다. 성문이 굳게 닫혔다. 그레이메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듯했다. 스컬지는 물러갔고 늑대인간은 성벽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과 아루갈은 늑대인간이 저주를 옮긴다는 사실을 몰랐다. 성벽 안으로 후퇴한 길니아스 병사들 중에는 늑대인간에게 물린 이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저주가 퍼졌다. 시간이 지나자 고통스러운 저주는 인간 희생자를 늑대 야수로 변화시켰다. 새로운 늑대인간들은 길니아스를 활보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저주를 퍼뜨렸다. 길니아스를 구하려던 그레이메인은 괴물을 또 다른 괴물로 바꾼 셈이었다. 죄의식에 미쳐버린 아루갈은 어느 날부터인가 늑대인간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겐 그레이메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문을 폐쇄하고 직접 늑대인간들을 사냥하며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얼라이언스의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공격받고 있는 동안, 전투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종족이 있었다. 바로 노움이었다.

고도로 영리한 노움 종족은 과학과 기계공학 기술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얼라이언스에 게 최신 무기와 전쟁 기계를 제공했다. 3차 대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노움은 얼라이언스에 그러한 무기를 계속 공급했지만 병력 측면에서는 지원이 미약했다. 그들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른 얼라이언스 국가들은 알지 못했으나, 농리건은 스컬지가 아닌 트로그라고 불리는 잔인한 생명체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아이언포지의 드워프들은 울다만이라 불리는 고대의 성채에서 유물과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뒤졌다. 그러다 그 구석진 틈에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트로그들을 깨우고 말았다. 트로그는 잔혹하게 탐험가들을 학살했다.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울다만 밖으로 도망쳐 나와 아이언포지로 돌아갔다. 트로그는 땅굴을 파 그들을 쫓았다. 그러나 도중 다른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고 관심을 돌렸다. 노움의 놀라운 도시, 농리건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의 소리였다. 트로그들은 노움들 쪽으로 동굴을 뚫어 그들의 도시를 침략했다.

노움은 트로그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했으나 지능 면에선 훨씬 우월했다. 노움의 뛰어난 지도자이자 일명 '땀장이왕'이라 불리는 겔빈 맥카토크는 트로그의 침공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겔빈은 요충지마다 병력과 전쟁 기계를 배치하여 침략자의 접근을 막아냈다. 한동안 겔빈은 얼라이언스와 연락을 줄이고 트로그를 막는데 집중해야 했다.

한편 달라란을 무너뜨린 아키몬드는 곧바로 스컬지의 지휘권을 티콘드리우스를 비롯한 공포의 군주들에게 넘겨버렸다. 아키몬드는 리치왕을 불신했다. 그는 이제 동부 왕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리치왕 넬줄과 아서스도 필요 없었다. 아키몬드는 군단의 도착에 앞서 길을 낼 수 있도록 군단의 3인자 티콘드리우스와 만노로스를 칼림도어로 미리 보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영원의 샘의 마력을 억누르고 있는 세계수, 놀드랏실이었다. 스컬지의 지휘권을 뺏긴 아서스는 당황했다. 하지만 켈투자드는 리치왕이 이 상황까지도 모두 예견하고 있

었다며 아서스에게 조용히 할 일이 더 있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며칠 후, 아서스는 칼림도어 대륙에서 뜻밖의 한 남자를 만난다. 일리단이었다.

와우 스토리 6부 : 얼어붙은 왕좌

1

쓰랄과 신생 호드는 배를 타고 칼림도어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 다수의 오크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전쟁노래 부족과 그롬마쉬도 그중 일부였다. 쓰랄은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

남은 오크들은 일단 근처의 군도로 대피했다. 그곳은 마엘스트롬(영원의 샘이 있던 자리에 생긴 거대한 소용돌이) 근처의 화산섬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구름이 물러가고 바다는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행을 재개하려면 먼저 폭풍우에 피해를 입은 선박을 수리해야 했다.

쓰랄은 한동안 섬에 머물며 그곳에서 정글 트롤의 한 분파인 검은창 부족을 만났다. 그들은 본래 잔혹한 구루바시 제국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검은창 부족만큼은 다른 분파와 달리 야만적이거나 무자비하지 않았다. 특히 부족의 연로한 족장 센진은 매우 선하고 지혜로운 자였다. 센진은 결국 부족을 데리고 구루바시를 떠나 지금의 섬에 정착했다.

쓰랄은 검은창 트롤과 그들의 지도자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신생 호드와 그들 부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두 부족은 모두 잔혹했던 종족의 과거를 털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했다.

쓰랄은 센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그들 모두 섬의 어인족 멸록들에게 습격당해 납치된 것이다. 멸록들은 쓰랄 외에도 일단의 트롤과 오크들을 모두 화산섬 지하로 끌고 갔다. 사실 화산섬은 처음부터 멸록들의 서식지였다. 그들은 이전부터 틸틈이 검은창 트롤들을 습격해 제물로 잡아가곤 했다.

멸록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판다리아의 어인족인 진위의 조상이라는 것 정도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본래 바다에서 살던 종족이었다. 그러나 심해의 '어떤 존재' 때문에 그들은 점차 대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야 했고, 이후 화산섬에 머물게 된 멸록들은 '바다 마녀'라는 존재를 섬기며 살아갔다. 그들이 제물을 데려가는 이유도 그들을 지배하는 바다 마녀 때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정신을 잃었던 쓰랄이 눈을 뜬 곳은 멸록들의 지하 감옥이었다. 쓰랄은 즉시 주술을 이용해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다른 오크와 트롤들도 찾아 세력을 다시 규합했다.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제법 큰 전투가 벌어졌다. 멸록들은 끝도 없이 달려들었고 오크와 트롤은 연합 전선을 펼쳐 그들을 격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과정에서 센진은 목숨을 잃고 만다.

그즈음 갑자기 화산 지하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센진의 죽음을 뒤로하고 일단 지상 밖으로 탈출했다. 그 길에서 일행은 마침내 멸록들이 섬기고 있던 바다 마녀와 조우했다. 바다 마녀의 정체는 바로 나가족의 마법사였다.

섬 아래 동굴은 자르지라라고 불리는 나가 마법사의 소굴이었다. 그 증오에 찬 바다뱀들은 아주 오래전 화산섬에 가장 먼저 정착한 자들이었다. 이후 멸록들이 어떤 큰 존재의 위협에서 도망쳐 섬으로 왔을 때 나가는 그들을 굴복시켜 수하로 삼았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 트롤들이 섬에 흘러왔을 때 그들은 멸록을 시켜 트롤을 제물로 삼았고, 오크가 흘러왔을 때는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얼마 후 섬의 화산이 터져 섬 전체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오크와 트롤들은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나가와 멀룩 무리를 물리치고 함께 섬을 탈출했다. 바다 마녀는 그들이 언젠가 더 큰 존재 '고대신 느조스'에 의해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 저주를 퍼부으며 바닷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쓰랄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부서졌던 그들의 함선이 모두 수리되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이때 쓰랄은 전사한 족장 센진을 기리며 검은창 트롤을 호드에 초대했다. 엉망이 된 섬에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던 트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센진의 아들이자 새로운 검은창 부족의 지도자 볼진이었다. 젊은 어둠사냥꾼 볼진은 최대한 물자를 수집한 후 오크를 따라 서쪽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쓰랄의 신생 호드에 합류한 첫 번째 동맹이었다.

또 한 번의 기나긴 항해 끝에 쓰랄과 볼진 일행은 마침내 칼림도어 대륙에 상륙했다. 쓰랄은 해안 근처에서 함선의 잔해를 발견했다. 그롬마쉬 헬스크림과 전쟁노래 오크들이 폭풍우에서 살아남아 먼저 도착한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쓰랄은 그들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갔으리라 짐작했다.

제이나의 피난민 일행 역시 한 발 뒤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후발로 출발했지만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기에 비교적 빨리 건너올 수 있었다. 양 진영이 모두 칼림도어에 도달했음을 안 메디브는 두 일행을 모두 칼림도어의 특정한 장소, <돌발톱 봉우리>로 불러들였다. 돌발톱 산맥에 위치한 그곳은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중요한 장소라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쓰랄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은 <불모의 땅>이라 불리는 붉은 황무지였다. 황무지 너머의 날카로

운 언덕에는 야생의 가시멧돼지와 맹독 전갈이 어슬렁거렸다. 하피, 펄볼그 등의 미지의 종족도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만남은 바로 타우렌과 켄타우로스였다.

칼림도어의 두 토착 종족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두 종족은 모든 게 달랐다. 소를 닮은 타우렌은 거대한 몸집과는 달리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지모신이라고 부르는 신을 통해 자연과 깊은 유대를 맺었다. 또한 오랜 주술의 전통을 통해 아제로스의 정령과도 소통했다. 반면 켄타우로스는 잔혹한 전쟁광이었다. 그들은 타우렌의 신비주의적인 행동을 나약함으로 보고 놀이 삼아 타우렌을 사냥했다. 말을 닮은 그들의 강력한 하체는 칼림도어의 넓은 평원에서 싸우는 데 적합했다.

수 세대 동안 타우렌들은 켄타우로스의 간헐적인 공격에 지쳐 갔다. 타우렌은 충분히 강했지만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켄타우로스의 공격을 피해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고수했다.

쓰랄은 많은 타우렌이 대지를 존경하며 주술을 연마하는 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타우렌의 지혜로운 지도자 케른 블러드후프와 곧 친구가 되었다. 타우렌들은 고귀한 마음을 가졌으나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었다. 쓰랄은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불모의 땅이라 불리는 먼지투성이 땅에서 호드는 타우렌과 손을 잡고 함께 싸웠다. 그들의 단합된 힘은 어렵지 않게 켄타우로스 부대를 박살 냈다. 켄타우로스는 패배에 충격을 받고 불모의 땅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는 타우렌을 손쉬운 사냥감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타우렌의 유랑 생활이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다. 케른 블러드후프는 오크들에게 감사해하며 신생 호드의 두 번째 동맹이 되어주었다. 그는 오크들이 돌밭톱 봉우리까지 가는 동안 필요할 물자와 몇 명의 타우렌 전사들을 보내주었다. 나머지 타우렌들은 모두 불모의 땅 남쪽에 있는 <멀고어>라는 초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 마침내 영구 정착지 <썬더 블러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제이나 일행은 <잿빛 골짜기>라 알려진 울창한 숲 외곽에 들어섰다. 그곳은 깨끗한 강

과 호수, 사냥감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러나 위험이 없지는 않았다. 제이나가 돌발톱 산맥의 기슭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오크가 숲 덩불 속에서 적대감을 보이며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쟁노래 부족의 오크들이었다.

그롬마쉬와 제이나는 오랜 시간 불모의 땅을 떠돌다가 잿빛 골짜기에서 마주쳤다. 그롬마쉬는 인간들에게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제이나는 전투를 피했다. 그녀는 피난민들을 데리고 서둘러 돌발톱 산맥으로 올라갔다. 일부 병력이 뒤에 남아 방어선을 구축하여 오크의 추적을 막았다.

그리고 뒤이어 쓰랄과 나머지 신생 호드가 산기슭에 도착했다. 쓰랄은 전쟁노래 부족과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노래 부족을 잿빛 골짜기 깊은 곳으로 보내 전초기지를 세우도록 했다. 전쟁노래의 오크들은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잿빛 골짜기의 고목들을 마구 가르고 베어 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쓰랄의 판단 실수였다. 그곳은 나이트 엘프의 땅이었다. 그들은 숲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 간과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높다란 나무 위에서 폭풍처럼 화살이 쏟아졌다. 밤호랑이라 불리는 거대한 야수와 히포그리프라는 날개 달린 야수들이 숲을 훼손하는 오크들을 덮쳤다. 야수의 등에는 보랏빛 피부를 가진 나이트 엘프들이 올라타 있었다. 심지어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무려 야생신 세나리우스였다. 그들은 오크가 만났던 어느 적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오래지 않아 오크들은 자신들이 크게 열세임을 깨달았다. 그롬마쉬는 간만의 전투에 흥분했지만 숲의 지형에 익숙한 나이트 엘프들에게 당할 재간이 없었다. 전투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으나 패배는 임박한 듯 보였다. 그 절망적인 순간, 어둡고 익숙한 형태의 에너지가 그롬마쉬와 전쟁노래의 오크들에게 달았다. 오크들은 그 마법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곧 울창한 숲의 한쪽에 숨겨진 에메랄드빛 액체의 웅덩이에 다다랐다. 그롬마쉬 헬스크림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피였다. 악마의 피였다.

그롬마쉬와 그의 오크들이 악마의 피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키몬드의 명령에 따

라 칼림도어에 먼저 도착한 악마 만노로스와 티콘드리우스는 칼림도어에 있을 방해 요소를 물색했다. 가장 귀찮은 건 야생신 세나리우스의 존재였다. 그들은 고대의 전쟁에서 불타는 군단에게 격렬히 저항했다. 군단이 두 번째 영원의 샘을 손쉽게 차지하려면 먼저 세나리우스와 숲의 동맹을 쓰러뜨려야 했다.

만노로스와 티콘드리우스는 야생의 힘을 무마하기 위해 <굴단의 해골>을 칼림도어까지 가지고 왔다. 그 유물은 군단의 손아귀에 들어간 후 변화했다. 악마들은 굴단의 해골에 더욱 많은 지옥 에너지를 주입하여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만노로스와 티콘드리우스는 그 에너지를 끌어내어 잿빛 골짜기의 숲을 오염시키고 세나리우스의 힘을 빼낼 계획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은 다른 호재를 발견했다. 세나리우스와 싸우고 있는 오크들이었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티콘드리우스는 오크들을 이용해 세나리우스를 처리할 계책을 짰다. 바로 만노로스의 피를 계곡에 있는 웅덩이에 흘려 오크들을 다시 한 번 군단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다. 오크가 만노로스의 피를 처음 들이킨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저주는 아직 그들의 핏속에 남아있었다. 만노로스는 티콘드리우스의 말대로 자신의 피를 웅덩이에 쏟아 놓았고, 그 타락한 기운은 오크를 강하게 유혹했다.

예상대로 그롬마쉬는 웅덩이를 이끌렸다. 그롬마쉬는 그것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지 의심하면서도 세나리우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롬마쉬는 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악마의 피를 깊이 들이켰다. 부하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롬마쉬는 과거에도 최초로 만노로스의 피를 받아들여 오크들을 타락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이계의 힘이 몸을 타고 흘렀다. 본래 갈색의 피부에서 한 번 피를 마시고 녹색으로 변했던 그들의 몸은 이번엔 아예 검붉은 핏빛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 모습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전쟁노래의 오크들은 잿빛 골짜기를 누비며 날뛰었다. 수많은 나이트 엘프와 숲의 생명체들이 그들의 굽주린 칼날에 쓰러졌다. 그롬마쉬 헬스크림은 직접 세나리우스를 상대했다. 야생신 세나리우스는 모든 원시의 분노를 동원하여 싸웠으나 그조차 그롬마쉬의 초자연적인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도끼가 세나리우스의 몸을 갈랐다. 세나리우스가 쓰러진 순간, 하이잘 주위로 그늘이 드리웠고 숲이 떨렸다. 드리아드와 키메라, 나무 정령, 요정들이 공포에 질려 물러났다. 그롬마쉬는 뒤늦게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롬마쉬와 전쟁노래의 오크들은 이미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만노로스의 의지에 구속됐다.

한편 돌발톱 봉우리에 도착한 쓰랄과 제이나 일행은 처음으로 서로를 대면하게 되었다. 즉시 검이 들리고 전선이 형성되었다. 제이나와 쓰랄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었다. 그때 일행들을 칼림도어로 부른 예언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메디브는 양쪽을 진정시킨 후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스컬지의 탄생 배경, 그 배후에 있는 불타는 군단의 계획, 만년 전 있었던 악마의 침공... 상상치 않은 이야기에 모두가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메디브의 목적은 동부 대륙의 종족들과 칼림도어의 종족들이 모두 연대하여 스컬지와 불타는 군단의 위협에 맞서게 하는 것이었다.

쓰랄이 특히 충격받은 내용은 조금 전 벌어진 전쟁노래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메디브는 잿빛 골짜기에서 그롬마쉬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며 그를 먼저 속박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얼마 간의 논의 후 쓰랄과 제이나는 마침내 힘을 합치는데 동의했다. 인간과 오크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잠시 오랜 증오를 뒤로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 그 미약한 동맹의 첫 번째 시험은 그롬마쉬 헬스크림과 전쟁노래 부족을 상대하는 것이었다.

3일 후, 쓰랄과 제이나 일행은 불모의 땅 최북단에서 그롬의 타락한 오크 부대와 마주했다. 그들은 피아도 구분하지 못한 채 피에 굽주려 있었다. 쓰랄은 전쟁노래 부족의 전선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그롬마쉬를 붙잡았다. 동시에 호드의 주술사와 얼라이언스의 사제가 마법 주문을 읊어 그의 피에서 피의 욕망을 정화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롬마쉬의 눈에서 증오의 구름이 걷혔다. 그롬마쉬는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깨닫고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롬마쉬는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한 자를 기억해 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피난민 부대가 전쟁노래 부족의 나머지 오크들을 치료하는 동안 그롬마쉬와 쓰랄은 만노로스를 추적했다. 두 오크는 잿빛골짜기 동남쪽, 지옥의 마력에 오염된 협곡에서 만노로스를 발견했다.

만노로스는 그롬마쉬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감히 주인인 자신에게 맞설 수는 없었다. 실제로 그롬마쉬의 영혼에는 피의 저주가 아직 타올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종족을 해방시키려는 욕망이었다. 그롬마쉬는 만노로스의 가슴 깊이 도끼를 박아넣었다. 치명상을 입은 악마의 몸은 조각나기 시작했다. 만노로스는 폭발했다. 그 불타는 지옥 에너지가 협곡을 뒤덮었다.

지옥의 군주는 사라졌다. 그러나 대가가 뒤따랐다. 폭발로 인해 그롬마쉬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롬마쉬는 쓰랄의 곁에서, 만노로스를 처치하고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롬마쉬는 악마를 쓰러뜨렸고 마침내 오크 종족에게서 피의 저주를 완전히 정화했다. 그들은 해방되었다.

쓰랄은 그롬마쉬 헬스크림을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는 한때 오크 종족이 타락하는 데에 큰 일조를 해버렸던 인물이었지만, 마지막은 자신을 희생해 오크를 구원하고 숨을 거뒀다. 그롬마쉬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그 장소는 후일 <악마벼락 협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후일 그곳은 군단의 저주에서 종족을 해방시킨 전사를 기리는 많은 오크의 순례지가 된다.

만노로스는 비록 죽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 세나리우스가 죽었다. 남은 숲의 정령들이 군단의 침공에 저항하겠지만 원시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다. 아키몬드는 군대를 끌어모았다. 칼림도어를 침공할 시간이었다.

칼림도어의 하늘에서 지옥불정령이 비처럼 떨어졌다. 잿빛 골짜기 동쪽 가장자리에선 수천 마리의 언데드와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키몬드의 군대는 나이트 엘프와 숲의 정령, 그리고 얼라이언스와 호드 연합군의 저항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군단은 손쉽게 적들을 제압했다. 아

키몬드의 불굴의 군대는 마주치는 모든 적과 숲을 짓밟으며 서서히 내륙으로, 하이잘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티콘드리우스는 군단의 본대보다 앞서갔다. 그는 하이잘 근처 숲의 평온한 구석을 찾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굴단의 해골의 지옥 에너지를 끌어내어 대지에 주입했다. 유독한 마법이 부글거리며 땅을 가로지르자 나무들과 근처 야생 동물들이 군단을 섬기는 괴물로 바뀌었다. 숲 사이로 흐르던 맑은 강은 역겨운 녹색으로 변했다. 그 오염된 숲은 후일 <악령숲>이라 알려졌다. 지옥 마법은 계속해서 하이잘 산까지 퍼졌고 닿는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 지옥의 에너지가 두 번째 영원의 샘 가에 닿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나이트 엘프의 수장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세나리우스는 죽고 잿빛 골짜기는 더럽혀졌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1만 년 전 그녀는 많은 경험을 했었다. 군단이 칼림도어에 발을 들인 목적은 숲 정복이 아니었다. 악마들은 전 아제로스를 집어삼키기를 원했다.

티란데는 하이잘 방어를 위해 모든 전력을 동원해야 했다. 그것은 에메랄드의 꿈속에 체류 중인 드루이드를 깨우는 것을 의미했다. 말퓨리온을 비롯한 나이트 엘프의 드루이드들은 꿈의 여왕 이세라의 요청으로 오래전부터 에메랄드의 꿈속에 들어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나리우스의 죽음으로 그들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을 강제로 깨웠다. 말퓨리온은 잿빛 골짜기의 상황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지옥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고 유독한 언데드 역병이 골짜기의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말퓨리온은 숲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은 야생신과 다른 드루이드들을 서둘러 깨웠다.

말퓨리온은 인간과 오크들이 악마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티란데는 그들이 세나리우스를 죽인 자들이라며 반대했다. 대신 그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녀는 하이잘의 지하굴 속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말퓨리온의 쌍둥이 동생, 배신자 일리단의 감옥이었다.

일리단과 그의 동족들은 고대 전쟁 시기에 함께 싸웠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동족들을 배신하고 마력의 유혹에 빠졌고 그 죄로 1만 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티란데는 일리단을 풀어주어 전력을 보강하고자 했다. 일리단은 뛰어난 마법사였고, 게다가 악마에 대한 지식은 나이트 엘프 중에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자였다.

말퓨리온은 그 의견에 격렬히 반대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배신자 일리단에 대한 말퓨리온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일리단이 아제로스 세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티란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리단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홀에 다가가자 수천 년 동안 배신자를 지키고 있었던 나이트 엘프의 조직, 감시자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들은 일리단을 풀어주라는 티란데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감시자들은 대가를 치렀다. 아제로스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지금, 티란데는 거역을 용납할 수 없었다. 티란데는 자신을 막은 감시자들을 쓰러뜨리고 일리단의 감옥에 다가갔다. 지하굴의 어둠 속에서 배신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리단 스톱레이지는 만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힌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끝없는 고독은 그의 이성의 가락을 풀어헤쳤다. 그러나 티란데의 생각대로, 악마들을 잘 아는 일리단은 시간이 지나며 아제로스가 군단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할 나름의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아제로스는 절대 방어적인 전쟁을 통해선 군단을 무찌를 수 없었다. 악마들이 쫓겨났다고 해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고대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도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했다. 어찌어찌 방어한다고 해도 그들은 아제로스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군단의 핵심적인 힘은 회복력이었다. 아제로스에서 죽은 악마들은 뒤틀린 황천에서 실체를 갖추었고 또다시 싸울 수 있었다. 그러한 효과로 군단의 병력은 끝없이 늘어갔다. 악마를 영구적으로 죽이는 방법은 황천에서, 또는 황천의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서 그들을 처치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악마의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감옥에서 나온 일리단은 전쟁에 피폐해진 하이잘 숲으로 뛰어들었다. 일리단은 군단을 꺾기 위해 더욱 강력한 지식과 마력이 필요했다. 그는 잿빛 골짜기의 북부에서 두 가지를 모두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의 숲에서는 막대한 지옥 에너지가 퍼져 나왔다. 일리단은 그 마법의 원천을 추적하여 곧 악령숲에 이르렀다. 그의 앞을 막아선 첫 번째 생명체는 악마가 아니었다.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인간이었다.

아서스는 군단의 칼림도어 침공에 합류했다. 그러나 아서스는 은밀하게 군단의 전쟁을 방해하고자 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굴단의 해골이었다. 티콘드리우스는 굴단의 해골을 사용해 잿빛 골짜기의 넓은 지역을 지옥 마법으로 물들였다. 그 어두운 에너지는 날마다 더 넓게 퍼져 서서히 하이잘 산 주위를 잠식하고 있었다. 만약 티콘드리우스를 쓰러뜨리고 굴단의 해골을 파괴한다면, 지옥 마법이 퍼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군단의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서스는 자신이 직접 티콘드리우스를 처치하면 아키몬드가 리치왕의 배신을 눈치챌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일리단을 만났다. 아서스는 일리단에게서 마력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감지했다. 일리단의 야망을 무기로 사용하기는 쉬운 일이었다. 아서스는 굴단의 해골이라는 강력한 유물이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일리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유물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서스는 티콘드리우스라는 교활한 공포의 군주가 악령숲을 떠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리단은 아서스를 무척이나 의심했지만 이미 악령숲에서 퍼져 나오는 강력한 마력을 감지하고 있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일리단은 아서스를 뒤에 남기고 유물을 찾아 나섰다. 도중 악마들을 연이어 쓰러뜨린 일리단은 마침내 굴단의 해골을 찾아냈다. 일리단은 그 유물이 강력한 에너지는 물론 수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뻐했다. 오래전 굴단은 메디브의 정신에서 많은 지식을 흡수했고, 굴단의 해골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일리단은 단순히 유물의 마력을 흡수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일리단의 피와 살 속에 지옥 마법이 몰아쳤다. 일리단의 두개골에서 거대한 뿔이 솟아났고 등에서는 끔찍한 날개가 돋았다. 나이트 엘프였던 일리단은 무언가 다른 존재로 변화했다. 그것은 악마였다.

마력과 함께 굴단의 기억이 일리단에게 밀려들었다. 일리단은 굴단의 고향 행성, 드레노어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살게라스의 무덤 속 수수께끼와 고대 유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일리단은 티콘드리우스를 찾아내어 쓰러뜨렸다. 계약으로 흥했던 티콘드리우스였지만 그 역시 아서스와 리치왕 넬줄의 계책에 당한 셈이었다. 덕분에 굴단의 해골이 제거되자 타락의 에너지는 하이잘까지 퍼지지 않았다. 일리단은 분명히 군단의 전력에 타격을 입히고 나이트 엘프의 전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말퓨리온과 티란데는 일리단의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경악했다. 일리단은 나이트 엘프 종족이 그토록 힘겹게 싸우고 있는 존재인 악마가 되어 있었다. 일리단은 선을 넘었다.

말퓨리온은 일리단을 나이트 엘프의 땅에서 추방했다. 일리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어차피 하이잘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이트 엘프가 이번에 군단의 침공을 저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차례 패배한다고 해도 군단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일리단은 자신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일리단에게 중요한 전쟁은 그것뿐이었다.

군단이 서서히 하이잘 산에 오르며 두 번째 영원의 샘에 다가가는 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나이트 엘프 파수대와 드루이드가 하이잘 산 정상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혼자서 싸우지 않았다. 비록 야생신을 불러내지는 못했지만 드리아드와 숲의 수호자 등 많은 숲의 정령들을 대의에 끌어들였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피난민들도 온 힘을 다하여 악마의 군대와 싸웠다.

종족들 간의 이러한 연합은 고대의 전쟁 이후 볼 수 없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전력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게다가 대부분은 제대로 협력하지 못했다. 나이트 엘프와 숲의 생명체들은 호드와 얼라이언스 피난민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특히 티란데는 군단을 칼림도어로 끌어들인 책임이 두 진영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메디브는 쓰랄과 제이나, 티란데, 말퓨리온을 불러 모았다. 만남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티란데는 얼라이언스 피난민은 물론 호드와 연합을 한다는 제안에 망설였다. 그러나 메디브는 편견을 덮어두고 아제로스를 생각하자며 티란데를 설득했다. 논의 끝에 결국 이질적인 진영이 서로 단결했다. 이로 인해 마침내 아제로스 최대의 연합이 탄생했다. 제이나 일행의 인간, 하이엘프, 드워프, 쓰랄 일행의 오크, 타우렌, 트롤. 그리고 말퓨리온의 드루이드와 나이

트 엘프들, 숲의 정령들, 펄볼그 등 모두가 같은 목표 아래 뭉쳤다.

말퓨리온은 티란데에게 나지막이 이야기했다. 만 년 전 나이트 엘프들에게 불멸의 삶을 부여 해주었던 세계수 놀드랏실에 그 영생의 힘을 돌려줄 때가 왔다고. 티란데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다음날, 아키몬드의 군단이 하이잘 산으로 침공해왔다. 아제로스 연합은 전력을 다해 이들을 막았다. 오크와 인간, 나이트 엘프와 타우렌, 트롤과 드워프 모두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무자비한 언데드와 악마를 상대로 잔혹한 전투를 벌였다. 아네테론, 아즈갈로, 레이저 윈터철 등등 군단의 쟁쟁한 악마들도 가세했다. 뿔보다 아키몬드의 힘이 그 무엇보다 강대했다.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아제로스 연합은 점차 밀렸다. 그날 수천 명의 연합군이 쓰러졌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연합의 모든 기지는 초토화되었다.

아키몬드는 마침내 놀드랏실 앞에 서서 아제로스 세계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제 놀드랏실을 제거하고 두 번째 영원의 샘을 통해 차원문을 열면 되었다. 그러면 그의 주군 살게라스와 모든 군단이 아제로스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었다.

그런데 이때,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위습이라 알려진 육체 없는 영혼들이 하이잘 주위의 숲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아키몬드의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말퓨리온의 요청에 따라 세계수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그 안에 갇든 마력을 터뜨렸다. 놀드랏실에서 눈부신 에너지의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칼림도어를 뿌리째 뒤흔들 정도의 위력이었다.

세계수 놀드랏실은 용의 위상에게서 주입받은 강력한 마법을 품고 있었다. 나이트 엘프 종족에게 영생을 부여하고 질병과 고통에 면역이 되도록 만들어준 마력이었다. 말퓨리온과 동료 드루이드들이 함께 그 마력을 이용해 폭발을 일으킨다면 아키몬드와 군단 침략자들을 말살하

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은 놀드랏실의 마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고, 나이트 엘프 종족이 만 년 동안 겪지 않았던 노화와 질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이트 엘프 사회는 막대한 충격을 감당해야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놀드랏실에서 터져 나온 에너지는 아키몬드를 즉사시켰다. 대부분의 다른 언데드와 악마도 마찬가지로였다. 두 번째 영원의 샘을 차지하려는 군단의 희망도 산산이 조각났다. 오래전 용의 위상들이 놀드랏실을 만들 때 염원했던 아제로스 수호의 의지가 결국 통한 샘이었다.

연합은 즉시 남은 군단의 병력에 반격을 시작했다. 분노에 찬 그들의 공격으로 칼림도어에 남아 있던 악마와 언데드는 거의 궤멸되었다. 한 발 물러서 있던 아서스는 간신히 공격을 피해 빠져나왔다. 그는 남은 스컬지를 최대한 규합하여 동부 대륙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하이잘 산의 전투는 마침내 아제로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메디브는 멀리서 전쟁에 찢긴 세계를 살피며 그 광경에 안도하고 있었다. 군단의 침공은 실패했다. 아제로스는 당분간 안전했다. 물론 메디브는 리치왕과 같은 다른 위협이 아직 아제로스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메디브의 힘은 시들고 있었다. 그가 물리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메디브는 그저 아제로스의 종족들이 지금처럼 계속 함께 싸우기를 바랄 뿐이었다.

얼마 후, 아제로스 최후의 수호자는 모습을 감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피난민들은 승리를 거둔 후 하이잘 산에서 내려와 새 정착지를 찾아 나섰다. 티란데와 말퓨리온은 하이잘에 남아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나이트 엘프들은 불멸의 영생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다른 필멸의 종족들처럼 늙고 쇠약해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었다. 불타버린 세계수 놀드랏실의 아래에 새로운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 비록 나무가 다시 자란다고 해도 용의 위상이 부여했던 예전과 같은 마력이나 영생의 힘은 존재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존재 자체가 나이트 엘프에게 희망이었다.

한편, 하이잘의 지하굴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일리단의 감시자 마이에브 새도송. 그녀에게 있어 일리단은 단순한 임무 대상이 아니었다. 일리단을 향한 그녀의 원한은 만년이 지나서도 유효했다. 마이에브는 일리단의 탈출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의 각오로 일리단을 쫓기 시작했다.

21년

기회였다. 리치왕 넬줄은 하이잘 산의 패배를 군단에게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아직 수천에 달하는 스컬지가 로데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넬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아서스와 켈투자드, 나머지 스컬지 병력을 규합해 동부 대륙에 남아있던 악마 발나자르, 바리마 트라스, 데서록을 공격했다. 악마들은 역병지대로 도망쳤다. 이제 군단은 리치왕에게 맞설 수 없었다. 스컬지는 그의 것이었다. 그만의 것이었다.

킬제덴은 분노했다. 리치왕을 그리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배신할 줄은 몰랐다. 넬줄은 이미 킬제덴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킬제덴은 이제 리치왕을 제거하여 스컬지의 지배권을 다시 찾아와야 했다. 그 과업을 수행할 적격자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일리단. 그는 고대 전쟁에서 이미 군단과 한 번 동맹을 맺었던 자였다. 그러면 과업을 믿고 맡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곧 일리단에게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킬제덴은 일리단에게 리치왕을 없애주면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킬제덴의 예상대로 일리단은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일리단은 킬제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만 했다. 킬제덴은 그가 설마 군단을 향한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일리단은 스컬지의 엄청난 규모를 알고 있었다. 그가 혼자서 리치왕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리단은 우선 다른 것에 주목했다. 그는 굴단의 해골을 통해 <살게라스의 눈>이라 불리는 유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굴단이 그토록 갈망했으나 결국 얻지 못했던 악마의 유물이었다.

유물은 바다 너머의 군도, 부서진 섬에 있는 고대 건축물 <살게라스의 무덤>에 있었다. 일리단은 우선 조력자를 찾았다. 만년 전 고대 전쟁 당시 영원의 샘이 붕괴했을 때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아즈샤라 여왕과 귀족(명가)들이었다. 그들은 바닷속에서 고대신 느조스에 의해 목숨을 부지했으나 대가가 따랐다. 뱀처럼 구불거리고 비늘 덮인 몸을 가진 나가라는 이름의 생명체가 된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심해의 해구처럼 어둡게 변했고 증오가 그들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일리단은 명가의 운명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깊은 바다의 명가에게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여 보냈을 때 그들은 답을 보내왔다. 나가족의 여군주 바쉬가 깊은 바다에서 비늘과 송곳니의 군대를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놀랍게도 쉽게 일리단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왔다.

물론 그들은 일리단을 경외하는 게 아닌 그저 고대신의 의지를 따랐을 뿐이었다. 고대신은 일리단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리치왕을 쓰러뜨리려는 일리단의 행보는 아제로스에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었다. 언데드와 아제로스의 국가, 군단까지도 집어삼킬 수 있는 전쟁이었다. 아제로스가 혼돈에 빠져든다면 초갈과 그의 이교도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고대신을 깨울 수 있었다. 고대신은 일리단이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면, 바쉬를 통해 일리단의 심장을 도려낼 생각이었다. 어느 쪽이든 고대신은 그들을 이용해 아제로스에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일리단이 부서진 섬에 도착했을 때, 마이에브와 그의 감시자들은 일리단을 바짝 쫓고 있었다. 일리단은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살게라스의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덤 안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지만 일리단은 굴단의 기억 덕분에 내부 길을 제법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일리단은 살게라스의 눈을 발견했다. 수많은 감시자가 일리단을 포위한 채 다가왔다. 그러나 그를 저지할 수는 없었다. 살게라스의 눈으로 마력이 증폭된 일리단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감시자는 전멸했고, 마이에브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간신히 살아남아 무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일리단의 추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오히려 더욱 타오르고 있었다.

일리단은 이번엔 동쪽의 빛나는 도시 달라란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곳은 비록 무너졌지만 강력한 비전 지맥의 연결점이 위치한 곳이었다. 일리단은 여군주 바쉬와 나가들을 미리 보내어 달라란과 그 주위의 지맥을 조사하고 공격을 준비하게 했다.

그 사이 마이에브는 칼림도어에 전령을 보내어 말퓨리온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말퓨리온과 티란데가 파수대와 드루이드를 이끌고 부서진 섬에 도착했다. 그들은 일리단이 나가 군대를 모아 악마의 유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티란데는 일리단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제 일리단을 더 이상 동쪽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일리단은 이제 하이잘 산을 침략했던 자들과 다르지 않은 악마일 뿐이었다. 나이트 엘프 지원군은 일리단을 주저 없이 공격했다. 일리단은 동쪽으로 탈출해 필사적으로 달라란을 향해 나아갔다. 일리단은 티란데와 말퓨리온에게 살게라스의 눈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나이트 엘프가 그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도 일리단은 아직 티란데에게 일말의 감

정이 남아 있었다.

한편 동부 대륙의 얼라이언스는 그동안 가리토스라는 자가 이끌고 있었다. 실력보다는 인맥과 운으로 자리에 오른 총사령관 가리토스는 자신의 부대에 있는 다른 종족을 경멸하고 차별하는 괴팍한 인물이었다. 일례로 블러드 엘프를 이끄는 켈타스 선스트라이더가 얼라이언스 저항군에 합류했을 때 가리토스는 마지못해 받아들였으나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경멸을 드러냈다.

가리토스의 냉대에도 켈타스와 블러드 엘프는 헌신적으로 스컬지와 의 전쟁을 수행했다. 켈타스는 쿠엘탈라스 재건에 앞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연대하여 스컬지를 완전히 박멸하는 데에 목표를 뒀다. 그래야 블러드 엘프의 앞날에 미래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리토스는 계속 켈타스를 난해한 전장으로만 돌려 투입시켰다.

그러던 찰나에 전장에서 켈타스가 우연히 만난 자들이 있었다. 말퓨리온, 티란데, 마이에브. 즉 일리단을 쫓아 대해를 건너온 나이트 엘프들이었다. 블러드 엘프와 나이트 엘프는 같은 조상을 두었지만 문화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켈타스는 그러한 차이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먼 친척인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말퓨리온은 자신들이 일리단이라는 위험한 자를 쫓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리단은 현재 달라란의 지맥의 힘을 끌어내어 살게라스의 눈에 갇힌 파괴력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말퓨리온은 그를 막고자 했다.

실제로 일리단은 달라란에서 비전 에너지의 폭풍을 일으켜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힘을 증폭시킨 일리단은 즉시 목표물이 있는 노스렌드로 향했다. 리치왕 넬줄은 킬제덴이 일리단을

통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넬줄은 새삼 자신의 약점을 실감했다. 그는 처음부터 킬제덴에 의해 얼음 속에 갇혀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다. 아서스와 그의 스컬지는 로데론 남서부에 있었기에 당장 귀환도 힘들었다.

얼음왕관 성채에 도착한 일리단은 곧 빙하에 힘을 집중시켰다. 그 원초적인 힘이 드러나자 여군주 바쉬와 나가마저 경외감에 휩싸였다. 마법이 내리치면서 땅이 찌그러졌다. 그 강력한 폭격에 마침내 얼음의 감옥이 부서졌다. 리치왕은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되었다. 단 몇 차례만 공격하면 일리단은 스컬지의 지배자를 끝장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리단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나이트 엘프와 블러드 엘프의 연합군이 나타나 일리단을 덮친 것이다. 나이트 엘프의 습격은 일리단의 마법을 흐트렸고 살게라스의 눈마저 파괴시켰다. 얼음왕관 빙하를 뒤덮었던 일리단의 강력한 마법의 폭풍은 삼시간에 잦아들었다. 결국 일리단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야 했다.

일리단은 킬제덴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했다. 일리단은 이 위태로운 시기에 킬제덴의 분노를 끌어들인다면 계획이 엇나가리라 생각했다. 그는 우선 킬제덴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군대를 구축할 은신처가 필요했다. 일리단은 굴단의 기억 속에서 아주 적합한 장소를 찾아냈다. 생명을 잃고 황폐해진 세계 드레노어였다. 마침 달라란 근처에 현실의 장막이 찢긴 틈이 있었다. 그것은 일전에 켈투자드가 차원문을 열고 아키몬드와 군단 선봉대를 불러들인 흔적이었다. 일리단은 굴단의 해골에서 얻은 지식을 그 작은 균열에 이용하여 드레노어로 통하는 새로운 차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일리단이 차원 너머에 발을 디디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굴단의 기억과는 좀 다른 풍경이었다. 그곳은 드레노어가 산산이 부서진 세계 <아웃랜드>였다.

아웃랜드에는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구석으로 통하는 수많은 차원문이 버려진 땅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일리단은 그곳에서 한동안 자신의 전력을 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리단은 누군가 자신을 쫓아 아웃랜드까지 넘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마이에브 새도송이었다. 나가도, 살게라스의 눈도 없는 일리단은 마이에브와 그의 감시자들에게 쉬운 사냥감이었다. 마이에브는 마침내 일리단을 제압하고 마법 깃든 우리에 가두었다. 그녀가 특별히 제작한 마력 중화용 우리였다.

일리단이 아웃랜드로 넘어오기 전, 그는 바쉬와 나가들에게 따로 임무를 하나 주었다. 자신이 드레노어를 조사할 동안 아제로스에 남아 새로운 전력, 동맹을 찾아보라는 임무였다. 그동안 말퓨리온과 티란데를 비롯한 나이트 엘프들은 칼림도어로 돌아간 상태였다. 바쉬의 눈에 들어 온 것은 남은 자들, 켈타스와 블러드 엘프들이었다.

켈타스는 노스렌드 전투 후 얼라이언스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자신을 차별하는 가리토스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바쉬는 그것에 주목했다. 그녀는 켈타스와 블러드 엘프가 마력 중독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가리토스의 부당한 처우로 사기가 흔들리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것은 좋은 틈이었다. 바쉬는 켈타스에게 접근해 일리단과 나가들이 아무런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일전의 나이트 엘프와 일리단의 반목도 과거의 동족 간에 있는 사사로운 다툼이라며 자신들의 목표 역시 켈타스와 마찬가지로 스컬지를 없애는 것이라 설명했다.

켈타스는 바쉬를 경계했지만 생각보다 호의적인 그들의 태도에 편견을 한걸 벗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과 목적이 같았으며 오히려 가리토스보다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켈타스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가리토스가 평소처럼 스컬지와 매우 불리한 전선에 켈타스를 투입시켰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바쉬와 나가의 지원군이 켈타스의 목숨을 구했다. 이후 블러드 엘프는 나가와 함께 스컬지의 전진을 막았다. 그러나 가리토스는 전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생환한 켈타스를 오히려 비난했다. 사악한 나가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급기야 가리토스는 블러드 엘프들에게 족쇄를 채운 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준비했다. 충격을 받은 켈타스는 결국 얼라이언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 바쉬가 또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켈타스가 갇힌 지하감옥에 침입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과 함께 아웃랜드로 넘어가 일리단과 함께 한다면, 블러드 엘프들의 족쇄를 풀어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마력 갈증에서도 해방시켜주겠다고.

켈타스는 길게 고민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지금 블러드 엘프에게 더 나은 다른 미래를 찾을 수 없었다. 그에겐 종족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잠시 아제로스 세계 너머로 가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했다.

켈타스와 바쉬는 아웃랜드에 도착한 후 광활한 지옥불 반도의 갈라진 황무지를 가로지르며 부하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일리단을 감금하고 있던 마이에브와 그의 감시자들을 찾아 협공을

퍼부었다. 감시자들은 무섭게 반격했지만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켈타스와 바쉬는 일리단을 풀어주고 마이에브와 살아남은 감시자들을 황무지로 내쫓았다.

일리단은 바쉬가 데려온 새로운 전력에 매우 만족했다. 블러드 엘프는 잘 훈련되고 충성스러운 전사들이었다. 일리단은 그들의 마력 중독 상태를 알고 태양샘보다 더 강력하고 새로운 마법의 원천을 찾아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우선 아웃랜드를 장악하고 있는 악마 마그테리돈과 그의 수하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드레노어가 붕괴된 이후 현재의 아웃랜드에 넘어왔던 마그테리돈은 아직 열려있는 차원문들에서 악마들을 조금씩 소환해 세를 불리고 있었다.

일리단은 마그테리돈의 권좌가 있는 검은 사원에 다가가면서 새로운 동맹을 발견했다. 아카마라는 자가 이끄는 뒤틀린 드레나이들이었다. 한때 드레나이의 총독이었던 아카마는 드레노어 붕괴 이후 뒤틀린 드레나이가 되어 자신과 같은 자들을 데리고 마그테리돈과 싸우고 있었다. 마그테리돈에게 장악당한 검은 사원은 드레나이의 옛 성지였고, 그곳을 되찾는 것이 아카마는 뒤틀린 드레나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일리단은 아카마를 회유해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자신의 협력자들을 <일리다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었다.

일리단과 여군주 바쉬, 켈타스는 각자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모였을 때의 힘은 더욱 무시무시했다. 강력한 악마 마그테리돈도 결국 그들의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때 일리단은 마그테리돈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마그테리돈의 피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그테리돈은 만노로스처럼 자신의 피를 아웃랜드에 남은 오크들에게 먹여 '타락한 오크'를 만들어 조종하고 있었다. 일리단은 그 피의 힘을 이용해 타락한 오크와 나머지 악마들도 굴복시켜 자신의 전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실제로 마그테리돈이 쓰러지고 난 후 대부분이 일리단을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일리단은 마그테리돈을 지하감옥에 유폐하여 가만히 피나 빨리는 신세로 만들었다. 켈타스와 아카마는 그러한 일리단의 행태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일리단은 대의를 위해서라며 그들을 설득했다.

킬제덴은 일리단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여러 동맹을 모은 일리단이 오히려 이전보다 유용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킬제덴은 화신의 모습으로 일리단의 앞

에 다시 나타나 예전의 약속을 수행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아직도 일리단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일리단은 킬제덴의 요구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했다. 그는 군단과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했고 마침 킬제덴이 그러한 시간을 준 셈이었다. 일리단은 아웃랜드에 열려 있는 많은 차원문 중 하나를 이용하여 아제로스로 돌아가는 새로운 차원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카마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을 다시 한 번 아제로스로 이끌었다.

리치왕 넬줄은 난감했다. 그는 일전에 나이트 엘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 얼음왕관이 일부 부서진 탓에 그의 정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컬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다행히 아서스는 아직 리치왕의 명령을 들었다. 그는 일리단이 또다시 노스렌드로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이번엔 빠르게 넬줄이 있는 얼음성채의 빙하로 향했다. 아서스는 일리단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땅속으로 뚫은 네루비안의 왕국, 아줄네롭의 잊힌 지하굴로 뛰어들었다. 그곳은 고대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지만 아서스는 의지로 뚫고 나갔다.

일리단은 아서스와 스컬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곧 얼음왕관 성채의 그림자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서로를 포로로 잡거나 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의 전쟁이었다.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서스가 일리단과 단독으로 맞섰다. 리치왕은 아서스에게 자신의 남은 힘을 주입했다. 리치왕을 망각의 문턱에 더욱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서스가 실패한다면 리치왕도, 나머지 스컬지도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렇게 두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서스 메네실은 일리단 스톱레이지와 싸웠다. 한때 나이트 엘프였던 일리단의 전설적인 전투검, 아지노스의 쌍날검과 서리한이 충돌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것은 아서스였다. 리치왕의 마력에 힘을 얻은 아서스는 일리단을 강하게 몰아붙여 쓰러뜨렸다. 일리단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불명예스럽게 아웃랜드로 후퇴했다.

넬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는 넘겼다. 다만 아직도 얼어붙은 왕좌의 갈라진 틈에서는 그의 정수가 흘러나왔다. 이대로면 리치왕은 사라지고 넬줄의 영혼은 노스랜드의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흩어질 운명이었다.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 아서스의 육체와 병합하여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아서스의 몸을 차지하면 넬줄은 마침내 육체의 그릇을 얻어 얼어붙은 왕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리치왕은 아서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달했다.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아서스는 그의 말대로 얼어붙은 왕좌에 다가갔다. 그리고 서리한을 한 차례 휘둘러 남은 얼음을 깨뜨렸다. 리치왕의 영혼이 담긴 마법의 투구가 죽음의 기사 아서스의 발치에 굴러떨어졌다. 리치왕은 드디어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나 아서스의 생각은 달랐다. 아서스는 서리한으로 넬줄의 영혼을 단 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리치왕의 투구를 쓰고 얼어붙은 왕좌에 앉았다. 이제 아서스가 스컬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리치왕이었다.

한편 리치왕 넬줄의 지배력이 처음 약해졌을 때 자아를 찾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아서스에 의해 뱀시가 되었던 실바나스 윈드러너였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데드가 자연스럽게 자유 의지를 되찾았다. 그들은 대부분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 채 무너진 왕국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확실한 목표를 재설정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실바나스는 자신을 괴물로 만든 아서스에 대한 증오감을 불태우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언데드들을 끌어모았다. 마찬가지로 리치왕의 지배력이 풀린 언데드들을 모으는 자들이 있었다. 아서스의 스컬지에 패퇴하여 동부 대륙에 숨어있던 3명의 악마들, 바리마트라스와 데서록, 발나 자르였다. 그들은 아서스에게 증오심을 가진 실바나스가 쓸모 있는 동맹이 되리라 생각했다. 이를 경계한 얼라이언스의 지휘관 가리토스 역시 실바나스에게 협력의 손을 뻗었다. 그들은 모두 실바나스에게 자기들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전쟁으로 화답했다. 그녀는 어떤 새로운 주인에게도 다시 머리를 숙일 생

각이 없었다. 동맹은 더더욱 필요 없었다. 그녀는 생전에 가졌던 뛰어난 전략 전술 능력과 죽음 이후 얻은 힘을 바탕으로 악마들을 몰아쳤다. 곧 데서록과 발나자르가 쓰러졌고, 바리마트라스는 실바나스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나아가 실바나스의 구울들은 가리토스의 유해마저 먹어치웠다. 그들이 남긴 것은 뼈다귀뿐이었다.

이로써 옛 로데론 땅에서 적대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린 실바나스는 곧 로데론의 폐허 지하에 자신을 따르는 언데드들을 집결시키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왕국 <언더 시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을 더 이상 스컬지가 아닌, 포세이큰이라 선포한다.

와우 스토리 7부 : 오리지널

1

가로나는 사냥 중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초갈의 이교도들을 하나씩 살해하고 다시 사라졌다. 황혼의 망치단이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그녀는 암살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초갈은 분통을 터뜨렸다. 고대신의 부활을 위해 신대륙까지 건너왔건만 그 성가신 암살자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다니, 참다못한 초갈은 일부러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걸어 가로나를 유인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로나가 그를 덮쳤다. 오우거 마법사 초갈과 하프오크 암살자 가로나는 안개 자욱한 숲속에서 암투를 벌였다. 그 결과 가로나는 초갈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나 치명타를 입히진 못했고 오히려 초갈의 정신지배에 당하고 만다. 오래전 가로나의 정신에 채워졌던 족쇄를 인간 마법사 카드가가 풀어준 적이 있었다. 초갈은 그 족쇄를 되살려냈다. 그리하여 가로나를 자신의 암살자로 변화시켰다.

초갈은 원래의 임무로 돌아갔다. 그는 남은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들을 모아 칼림도어 남쪽,

<실리더스 사막>으로 떠났다. 초갈은 그 황금빛 사막 아래 어딘가에서 고대신의 존재를 감지했다. 고대신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초갈은 자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크툰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002.png

양농?

2

아서스가 리치왕으로 군림하며 스컬지와 <얼음왕관 요새>를 재건하는 사이, 그의 부관 켈투자드는 동부 대륙에 남은 스컬지 병력을 수습했다. 실바나스와 포세이큰은 그들을 견제하며 로데론 왕성 지하에 <언더 시티>를 만들어 정착했다. 아서스에게 패배한 켈타스와 바쉬는 쓰러진 일리단을 데리고 아웃랜드의 <검은 사원>으로 돌아가 권토중래를 피했고, 유랑 생활을 끝낸 타우렌들은 멀고어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썬더 블러프>를 완성했다.

003.png

새로이 건설된 썬더 블러프와 언더시티

나이트 엘프들은 기존의 보금자리를 재건하며 불멸을 잃은 것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드루이드 판드랄 스태그헬름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나이트 엘프의 불멸성을 복원할 새로운 세계수를 십자고 제안했다. 말퓨리온은 지난번 볼드랏실이라는 실패를 떠올리며 반대했지만 판드랄은 그를 따를 생각이 없었다. 판드랄은 급기야 말퓨리온을 기습하여 에메랄드의 꿈 깊은 곳에 그의 영혼을 가둬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행했다.

사실 판드랄은 이미 자비우스라는 자에 의해 타락한 상태였다. 자비우스는 고대 전쟁 당시 아즈샤라 여왕의 신뢰받는 고문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분리 사태를 겪으며 저주받은 사티로스라는 종족으로 변해버렸고, 지금은 고대신의 의지에 복종했다. 자비우스의 영향력은 판드랄을 광기로 몰아갔다. 판드랄은 세나리온 의회의 드루이드들을 장악해 그들을 칼림도어 북쪽의 섬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에 기어코 '대지의 왕관'을 뜻하는 새로운 세계수 <텔드랏실>을 심었다. 텔드랏실은 바다 위로 높게 자라났고 밀동은 하나의 섬처럼 거대해졌다. 나이트 엘프들은 그 세계수의 거대한 나뭇가지 사이에 <다르나서스>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003_1.png

나이트 엘프들의 새 보금자리 <다르나서스>

그러나 볼드랏실과 마찬가지로, 위상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텔드랏실은 어두운 영향력에 취약했다. 곧 에메랄드의 꿈의 심장부에서, 악몽이 텔드랏실로 마수를 뻗었다. 오래지 않아 악몽은 텔드랏실의 정수에 스며들었다. 그 모든 것은 고대신들이 의도한 바였다.

003_2.png

서서히 악몽에 물드는 세계수 텔드랏실

칼림도어에 남은 쓰랄의 신생 호드 역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칼림도어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에 <듀로타>라는 이름의 새로운 터전을 건설했다. 쓰랄의 아버지 듀로탄의 이름을 딴 명칭이었다. 또한 수도의 이름은 영웅 오그림 돔해머의 이름을 딴 <오그리마>로 지었다.

004.png

칼림도어에 정착하는 오크들

오크들의 새로운 터전은 방랑자 렉사르의 주의를 끌었다. 혼혈오크 렉사르는 한때 구 호드를 따라 어둠의 문을 넘어왔다가 홀로 아제로스 전역을 떠돌던 방랑자였다. 그는 어느 날 칼림도어의 황야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오크 전사로부터 쓰랄에게 전하는 서신을 부탁받았다. 렉사르는 서신을 전해주려 오그리마에 들렀고, 쓰랄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렉사르에게 한동안 오그리마에 머물 것을 권했다.

005.png

야수조련사 렉사르의 등장

칼림도어로 넘어왔던 제이나의 피난민들은 조금 더 남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먼지진흙 습지대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테라모어>라 불리는 항구 도시를 세웠다. 쓰랄을 따라왔던 검은창 부족 트롤들은 듀로타 조금 아래 <메아리 섬>에 정착했다. 이후 제이나와 쓰랄은 소통을 계속 이어가며 일시적이었던 휴전을 조금 더 영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두 지도자는 서로의 영토를 존중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삼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005_2.png

바다와 인접한 터전 테라모어와 메아리 섬

006.png

분주해진 칼림도어 대륙

호드와 테라모어 섬의 인간들은 수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될 수 없었다. 제이나의 아버지, 델린 프라우드무어 제독 때문이었다. 델린은 2차 대전쟁에서 호드에게 아들을 잃었다. 그는 인간 왕국들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생명체들이 힘을 되찾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쿨 티라스의 대규모 함대가 곧 칼림도어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적은 호드의 전멸이었다.

888.png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델린 프라우드무어

쓰랄은 평화조약을 맺은 인간들이 전초 기지를 짓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쓰랄은 제이나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고, 그 역할은 렉사르가 맡았다. 렉사르는 자신이 방랑 중 만났던 판다렌 친구 첸 스톰스타우트와 함께 제이나가 있는 테라모어로 향했다.

008.png

호방한 성격의 판다렌 방랑자 '첸 스톰스타우트'

제이나는 렉사르의 서신을 받고 나서야 온전히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 오크들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피력했지만 델린은 딸의 호소를 무시했다. 그는 테라모어마저 점거하고 전쟁을 준비했다.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렉사르 일행은 테라모어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듀로타로 돌아가는 길에 오크의 동맹이었던 타우렌과 검은창 트롤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호드를 재결성했다. 쓰랄은 렉사르로부터 전말을 전해 듣고 즉시 델린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델린의 의지가 너무도 확고하기에 전쟁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며칠 후, 쓰랄은 호드의 군대를 끌고 테라모어로 이동해 조용히 제이나를 찾았다. 전면전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제이나에게 호드를 테라모어에 들여보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호드는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여 델린의 세력만을 무력화시키고 떠

나겠다는 요청이었다. 물론 그것은 델린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다.

제이나는 비탄에 잠겼다. 그녀는 테라모어의 시민들을 전화에 휩싸이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긴 고민 끝에 그녀는 결국 호드를 테라모어에 들였다. 그날 저녁 렉사르의 군대가 도시를 가르며 빠르게 나아갔다. 렉사르는 직접 델린 제독에게 치명타를 안기고 효과적으로 쿨 티라스의 병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인이나 테라모어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지휘관을 잃은 나머지 쿨 티라스는 퇴각했고, 쓰랄 역시 약속대로 테라모어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

777.png

딸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전투가 끝난 후, 쓰랄은 렉사르에게 계속 오그리마에 남아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렉사르는 거절했다. 그는 본래 방랑자일 뿐이었다. 다만 렉사르는 자신이 어디 있던 항상 신생 호드의 일원이 돼줄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벗 첸과 함께 다시 방랑길에 올랐다.

010.png

막을 수 없는 첸과 렉사르의 방랑 기질

011.png

3

수년 전, 쿠엘탈라스의 태양샘은 파괴되었다. 그러나 태양샘의 마력은 남아 있었다. 붉은 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를 일편단심 바라보는 순애남 크라서는 남은 태양샘의 힘을 보존하기 위해 태양샘의 정수를 안비나 티그라는 인간형 여성으로 만들어 숨겨놓았다. 안비나는 자신의 정체를 자각하지 못한 채 크라서가 만든 부모님(환영)과 가짜 기억과 함께 작은 농경 마을에서 지냈다.

012.png

이런 능력 있으면 루리웹 모쏨들도...

어느 날 안비나는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공격으로 부모님을 잃는다. 푸른용의 위상 말리고스는 태양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젊은 푸른용 칼렉고스를 파견했다. 그러나 칼렉고스는 얼마 못가 용사냥꾼들에 의해 포획당했다. 그들을 사주한 자는 스컬지 일당의 앞잡이 다르칸(과거 하이엘프 배신자)이었다. 그 역시 태양샘의 마력을 쫓고 있었다. 이때 칼렉고스는 다르칸에 의해 다시 용으로 변하지 못하는 저주에 걸리게 된다.

013.png

허당끼 넘치는 푸른용 칼렉.

안비나는 포획당한 채 곤란에 빠져있는 칼렉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돕는다. 그녀는 칼렉에게 걸린 저주를 풀 마법사를 찾을 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기이한 일들에 대해 알아낼 겸, 칼렉과 함께 '보렐'이라는 마법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명의 동료가 더 안비나의 여정에 합류했다. 한 명은 말리고스의 딸 타이리고사, 그녀는 칼렉고스가 걱정되어 뒤따라온 칼렉고스의 약혼자였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한때 아서스의 부관이었던 인간 성기사 조라드 메이스였다. 이때 조라드는 남의 약혼녀인 타이리에게 한눈에 반한다.

014.png

아 NTR 각인가요...

안비나 일행은 여정을 함께 하며 여러 세력의 위협을 받는다. 모두 안비나의 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었다. 일행은 안비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안비나는 다르칸에 의해 납치되어 쿠엘탈라스의 태양샘이 있던 곳으로 끌려갔다. 다르칸은 지체하지 않고 안비나의 마력을 흡수하기 위한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중 자신의 힘을 자각한 안비나가 태양샘의 화신으로 각성하면서 다르칸과 그의 스컬지 부대는 모조리 소멸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안비나 앞에 그녀가 그토록 찾던 보렐이라는 자가 나타난다. 보렐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만들었던 붉은용 크라서스였다. 그는 안비나에게 태양샘의 마력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다.

이후 안비나는 쿠엘탈라스에 남아 블러드 엘프 로르테마르 테론의 보호를 받으며 왕국의 재건을 돕기로 했다. 테론은 한때 쿠엘탈라스의 순찰대 사령관이었던 자였다. 켈타스가 아웃랜드로 떠나고 난 뒤 테론은 쿠엘탈라스에 남아 섭정을 맡고 있었다.

015.png

쿠엘탈라스를 재건하고 있던 로르테마르 테론

다르칸의 죽음으로 푸른용 칼렉은 자신에게 걸렸던 저주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쿠엘탈라스에 남아 계속 안비나를 직접 지키기로 했다. 반면 칼렉의 약혼녀 타이리는 다른 일을 하러 떠났다. 그녀는 황천의 용군단(검은용의 후손)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남이 아닌 조라드가 있었다.

016.png

017.png

4

제이나와 쓰랄은 칼림도어에서 함께 두 번의 전란을 치른 후 다시금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인간들은 다른 세계에서 침략해온 오크들에 대한 증오가 아

직 남아있었고, 오크들 역시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인간들에게 양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018.png

가시지 않는 두 종족의 양금

그런 두 진영 사이에 기름을 붓는 자가 있었다. 하이잘 산에서의 패배 이후 한동안 숨어 있었던 군단의 악마 즈모드로어였다. 그는 오그리마와 테라모어를 동시에 와해시키기 위해 양측의 불만분자들을 유혹하여 칼날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규합했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두 세력을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양 진영은 불 붙은 듯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제이나는 누군가 배후에 있음을 직감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나섰으나 즈모드로어의 함정에 빠져 마력을 봉인당하고 갇히고 만다. 이때 제이나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난다. 자신이 존경하는 대마법사 에이그윈이었다.

019.png

은거 중이던 티리스팔의 수호자 에이그윈

에이그윈은 메디브를 부활시킨 뒤로 한동안 은거 중이었다. 그러나 도중 즈모드로어에게 발각되어 봉인되었다. 그녀는 아들 메디브를 부활시키느라 마력을 모두 소진해 즈모드로머조차 당

해낼 힘이 없었다. 다행히 에이그윈은 제이나의 도움으로 봉인을 깨고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제이나가 자리를 비운 동안, 테라모어와 오그리마는 계속되는 칼날단의 음모로 결국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이나와 에이그윈,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쓰랄이 돌아와 양측의 군대를 제압하면서 칼림도어의 전화는 다시 한 번 진정된다. 내친김에 제이나와 에이그윈은 칼날단의 아지트로 쳐들어가 칼날단의 배후에 있던 즈모드로어 역시 추방의 주문을 통해 뒤틀린 황천으로 돌려보냈다.

020.png

여자 잘못 건드린 악마

이후 에이그윈은 한동안 테라모어에 머무르기로 했고, 쓰랄과 제이나는 다시 한 번 평화 협정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인간과 오크의 양금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이번 오해는 풀렸지만 두 종족 간의 증오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평화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닌 제이나도 이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아버지를 등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주 깊은 상처가 되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마저 호드의 손에 내맡겼다.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피눈물이 나는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그녀의 평화에 대한 염원은 깊었다. 만약 그것이 깨지는 날,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그리고 어리석은 평화를 경멸할 것이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야 했다.

666.png

021.png

25년

3차 대전쟁 이후 인간 왕국의 힘의 균형추가 흔들렸다. 로데론은 무너졌고 길니아스와 쿨 티라스는 스스로 고립되었다. 그들의 자리에 스톰윈드가 얼라이언스의 지도력과 군사력의 새로운 보루로 떠올랐다. 그로 인해 스톰윈드 왕국은 세계 무대에서 막대한 특권과 영향력을 얻었다.

021_2.gif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얼라이언스에 새로운 동맹도 있었다. 칼림도어의 나이트 엘프들이었다. 그들은 3차 대전쟁 당시 신생 호드와 연합했던 만큼 호드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전쟁노래 부족이 나이트 엘프의 영토를 훼손하고 세나리우스를 살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호드 측에서 제대로 지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데다, 듀로타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나이트 엘프의 세력권인 잿빛 골짜기에서 과도하게 채집함에 따라 갈등이 심해져서 호드와 대립하는 얼라이언스와 손을 잡았다.

한동안 소원했던 노움들도 다시 얼라이언스와 동맹을 확고히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잃고 드워프들에게 의탁한 채 얼라이언스에 운명을 맡겨야 했다. 농리건에 일어난 방사능 유출 사고 때문이었다. 농리건의 천재 공학자 시코 텔마플러그는 평소 나라의 국력을 키우지 않고 기계공학에만 몰두하는 땀장이왕 겔빈 맥카토크에게 불만이 많았다. 트로그가 농리건을 침략했을 때, 텔마플러그는 트로그를 물리치고 겔빈의 자리까지 차지할 겸 방사능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 결과 트로그는 물리쳤지만 동시에 노움 종족의 약 80%가 목숨을 잃었다. 죄의식에 미친 텔마플러그는 농리건에서 자신이 저지른 공포 속에 갇혔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도시를 탈출해 아이언포지로 향했다.

드워프들은 농리건의 피난민들을 받아주었다. 노움은 그 산속 도시에 스스로 소규모 터전을 마련하여 <땀장이 마을>이라고 이름 지었다. 맥카토크는 얼라이언스와 노움의 운명이 뒤얹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얼라이언스가 휘청인다면, 노움도 농리건을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운명공동체였다.

022.png

얼라이언스 하설?

신생 호드 역시 세력 변화가 있었다. 실바나스가 이끄는 포세이큰 세력이었다. 이들은 생전에 대부분 얼라이언스 종족이었다. 그러나 언데드 괴물로 변해버렸다는 이유로 인간, 엘프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박대당했다. 비록 리치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형 때문에, 스컬지에게 고통받았던 종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호드는 달랐다. 타우렌의 대드루이드 하물 룬토텐은 흉측한 언데드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들이 비록 육체는 되찾지 못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타우렌 종족의 대족장 케른 블러드후프 역시 동의했다.

쓰랄은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오그리마로 초대했다. 쓰랄은 실바나스와 포세이큰에게 연민을 느꼈다. 오크들 역시 타락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그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유산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포세이큰의 전략적인 가치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로데론의 폐허에 살고 있었다. 만약 얼라이언스가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도시는 귀중한 거점이 될 수 있었다.

023.png

호드 하설?

이로써 스톰윈드 왕국을 주축으로 하는 인간, 아이언포지의 드워프, 겔빈이 이끄는 노움, 그리고 티란데가 이끄는 나이트 엘프는 <신생 얼라이언스> 연합으로. 쓰랄의 오크, 케른의 타우렌, 불진의 검은창 트롤, 실바나스의 포세이큰은 <신생 호드> 연합으로 각자의 세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대립은 계속됐다.

024.png

어휴 호드 놈들... 어휴 얼라 놈들...

한편, 세계 곳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엘윈 숲의 인간 마을에는 코볼트 도둑과 질병에 걸린 동물이 들끓었다. 멀고어의 타우렌은 가시멧돼지라 불리는 미개한 생명체의 침략에 시달렸다. 듀로타에서는 켄타우로스 전투 부대가 외곽의 오크 영토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비명은 끝이 없었다. 모든 대륙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서 혼돈이 퍼졌고 위험천만한 재앙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무질서가 분출한 배경에는 부분적으로 고대신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대신들은 은밀하게 분쟁의 불길을 퍼뜨려 아제로스 국가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파괴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 나선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전설적인 영웅들이 아니었다. 그저 아제로스의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여정에 나섰다. 누군가는 모험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정의라는 숭고한 대의를 위해 싸웠다. 일부는 복수를 위해 싸웠고 증오하는 진영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 어떤 이는 돈을 위해 싸웠고 분쟁에서 이득을 얻을 방법을 찾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제로스 세계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며 영광을 위해 싸웠다. 홀로 여행한 이들도, 강력한 길드를 결성하여 힘을 합쳐 어둠에 대항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될 자질이 충분했다.

025.png

당신의 로그인이 아제로스를 구할 것이오...!

아제로스를 혼란의 전화 속으로 빠뜨리려는 고대신들의 영향력은 계속됐다. 칼림도어 남서쪽 <페랄라스> 지역에선 고대신의 사악한 에너지에 의해 타락한 소규모 오우거 부족과 엘프 단체가 광기와 살육에 미쳐 있었다. 그보다 조금 위쪽 <잊혀진 땅>에선 한동안 조용했던 켄타우로스들이 미쳐 날뛰었다. 쓰랄의 호드는 그들을 모두 쓰러뜨려 혼란의 불길을 잠시나마 잠재웠다.

동부 대륙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동부 대륙의 검은바위 산에는 두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 번째는 한때 화염의 정령왕 라그나로스를 불러들였다가 오히려 그에게 지배당하고 말았던 검은무쇠 부족의 드워프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 호드의 잔존 세력 일부를 규합한 렌드 블랙핸드와 그들을 지배하는 검은용 네파리안이었다. 이들은 모두 고대신의 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026.png

검은바위 산의 드워프와 오크 무리

검은무쇠 드워프 부족의 현 군주 다그란 타우릿산은 어느 날 라그나로스로부터 전쟁을 준비하라는 계시를 하달 받았다. 다그란은 환호했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드워프 부족들을 정복할 날을 꿈꾸었다. 나아가 더 강력해진 힘으로 불의 군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꿈이었다.

다그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이언포지의 국왕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딸 모이라를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마그니는 아제로스의 모험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카즈 모단 왕국은 정치적 내분과 요새 방어로 벅찬 상황이었기에 모험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027.png

드워프 국왕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부탁

얼라이언스 모험가들은 왕의 요청대로 모이라를 구하러 검은바위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검은무쇠 드워프들과 다그란을 물리치고 모이라를 구출했다. 그러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 모이라는 납치당한 게 아니라 다그란과 사랑에 빠져 스스로 검은바위 산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다그란과 결혼하여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밝히며 모험가들의 구출의 손길을 거부했다.

모이라는 사랑하는 남편 다그란의 꿈과 의지를 이어받았다. 그녀의 염원은 다그란과 마찬가지로 검은무쇠 드워프의 해방이었다. 모이라는 고심 끝에 검은바위 산의 깊은 곳에 엄청난 보물과 유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바깥 세계에 퍼뜨려 모험가들을 다시 한 번 검은바위 산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의 손으로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이라의 계획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 모험가들은 불의 정령과 대립하는 물의 군주 히드락시안의 지원을 받아 라그나로스를 단숨에 무찌르고 정령계로 추방해버렸다.

검은무쇠 드워프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그러나 모이라가 이어받은 남편의 꿈은 한 가지 더 있었다. 아이언포지의 정복이었다. 그녀가 뱃속에 가진 아기의 혈통은 브론즈비어드와 타우릿산 두 왕가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아이였다.

028.png

화염의 정령왕 라그나로스를 물리친 모험가들

사실 라그나로스는 검은바위 산의 하부만을 지배했다. 검은바위 산의 상층에는 데스윙의 아들, 네파리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네파리안은 렌드 블랙랜드의 오크들을 지배했다. 그리고 검은용군단을 복원하려 했던 아버지의 과업을 이었다. 그는 사로잡은 용들에게 다른 용군단의 피를 결합하는 끔찍한 실험을 강행하여 '오색용군단'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다섯 용군단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그 새로운 오색용의 자손들은 제대로 부화조차 하지 못했고,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검은바위 산의 상층에서 네파리안이 점점 세력을 불려가자 모이라는 긴장했다. 그녀는 네파리안이 이대로 가면 언젠가 라그나로스의 옛 동지를 정복하고 검은무쇠 드워프들마저 지배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얼마 전 라그나로스를 물리쳤던 용사들의 무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이라는 다시 한 번 렌드 블랙랜드와 네파리안에 대해 정보를 세상에 흘려 주목을 끌었다. 이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신생 호드의 지도자 쓰랄이었다. 그는 렌드 블랙랜드가 데스윙의 아들을 신뢰할 만큼 어리석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쓰랄은 몇몇 용맹한 부관들을 데리고 동부 대륙으로 원정을 떠났다. 렌드 블랙랜드의 구 호드는 직접 검은바위 침탐에서 쓰랄의 호드를 상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생 호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렌드 블랙랜드는 결국 자신의 요새에서 최후를 맞는다.

이어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모험가들이 네파리안 사냥에 함께 참전했다. 결국 네파리안도 그들의 힘과 끈기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호드의 용사들은 승리의 징표로 네파리안의 머리를 들고 오그리마로 돌아왔다. 아제로스의 주민들은 검은용군단의 강력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으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777.png

검은용 네파리안의 최후

모험가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고대신의 영향력은 아제로스의 구석구석으로 더욱더 퍼지고 있었다. 에메랄드의 악몽 역시 마찬가지였다. 판드랄이 만들었던 세계수 텔드랏실을 통해 스며들었던 사악한 에너지는 물리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발현됐다.

천 년도 더 지난 과거에, 용의 위상 이세라와 녹색용군단은 아탈라이라는 일군의 광신도 트롤이 아제로스에 어둠의 신을 소환하려 하자 그에 개입했다. 그 신의 이름은 혈신 학카르였다. 피의 로아 학카르는 살아 있는 생명을 희생시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였다. 녹색용군단은 아탈라이의 사원을 가라앉히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그러나 녹색용들은 에메랄드 악몽에 은밀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아탈라이 트롤의 후손들은 가라앉은 사원으로 돌아가 녹색용 감시자들이 혼란에 빠져 약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광기와 타락의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었다. 이에 나이트 엘프의 드루이드들은 한동안 타락한 녹색용들을 힘겹게 상대해야 했다.

아탈라이 트롤들은 구루바시 정글 트롤의 수도인 줄구룹에도 침투하여 여러 강력한 사제들의 정신마저 지배했다. 준비를 마친 그들은 마침내 아제로스에 다시 학카르를 불러들였다.

030.png

혈신 학카르를 소환하는 아탈라이 트롤

학카르의 부활 조짐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잔달라 트롤들이었다. 그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검은창 트롤을 통해 호드의 도움을 빌렸다. 쓰랄은 즉각 대규모 돌격대를 구성하여 위협에 대응했다. 줄구룹의 전투는 잔혹했고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카르는 결국 아제로스에 강림했다. 죽음과 광기의 힘을 체화한 학카르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체의 피를 흡수하겠다는 본능적인 충동으로 가득했다. 절박해진 호드는 학카르의 성향을 파악해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들은 모두에게 독을 나눈 뒤 학카르가 자신들의 타락한 피를 흡수하게 했다. 얼마 후 사냥감의 피를 실컷 흡수한 학카르는 결국 스스로의 어두운 마법에 무릎을 꿇는다.

호드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했다. 연이은 전쟁에 너무도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이 모든 어둠의 근본이 되는 진짜 위협이 아제로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대신 크툰이었다.

25년

비록 그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고대신들의 손길은 아제로스의 모든 요지에 미치고 있었다. 에메랄드 악몽의 확산은 다시 나타난 고대신들의 힘을 암시하는 징조에 불과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그들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초갈과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들은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예언된 '황혼의 시간'을 인도할 준비를 이어갔다. 그들의 여정은 <안퀴라즈>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 실리더스 사막으로 이어졌다. 그 안에 고대신 중 하나인 크툰이 갇혀 있었다.

수백 년 전, 나이트 엘프와 용의 연합군은 마법 장벽을 세우고 안퀴라즈의 생명체들, 즉 실리시드와 퀴라지라고 불리는 사악한 곤충 종족을 가두었다. 아무도 그 장벽을 지나갈 수 없었다. 하늘로 날아갈 수도,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초갈은 물리적으로 장벽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초갈은 이교도들을 데리고 장벽 바깥에서 거대한 의식을 수행했다. 흘러 들어간 마력은 장벽의 안쪽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 고대신 크툰의 속박을 풀어 해쳤다. 그러자 마침내 광기와 혼돈의 고대신 크툰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031.png

노릇노릇 구워보고 싶게 생긴 크툰의 위용

크툰이 풀려나자 희생이 뒤따랐다. 크툰이 뿜어낸 에너지 때문에 의식을 수행한 이교도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한 소수는 정신분열을 일으켜 말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초갈은 그들을 사막에 버려두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초갈은 다시 길을 떠났다. 아제로스 지하에는 다른 고대신들이 갇혀 있었다. 초갈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의 속박을 풀어야 했다.

아주 오래전 빛의 나루 크우레는 드레노어에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빛과의 연결을 잃고 공허에 잠식당했다. 크우레에게서 흘러나온 공허의 에너지는 근처 나그란드 지하의 오크들을 잠식하여 이른바 '창백한 오크'들을 발생시켰고, 초갈은 그들을 통해 고대신을 영접했다. 처음에 초갈은 그저 그 광신도들을 잘 속여서 호드의 전력을 보강하고자 했었다. <황혼의 망치단>의 결성도 그런 목적이었다. 그러나 초갈은 점차 황혼의 시간이라는 파멸의 예언에 영도되어 누구보다 고대신을 섬기는 추종자가 되었다. 굴단을 따라 아제로스로 넘어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갈은 그 무엇보다 고대신의 부활을 자신의 가장 큰 숙업으로 여겼다. 그것을 이룬다면 고대에 존재했던 <검은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고 진정한 황혼의 시간을 도래시킬 수 있었다. 초갈의 이교도들은 비밀리에 곳곳에 흩어졌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역병처럼 모든 도시와 길드와 진영에 침투했다. 그들은 때가 되어 고대신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숨을 골랐다. 그 때가 오면 그들은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황혼의 시간을 인도할 것이다.

032.png

고대신을 따르는 이교도들의 은밀한 숙원

크툰은 실리더스 사막 아래에 잠든 수천 마리의 퀴라지와 실리시드를 깨웠다. 두 종족 모두 검은 제국의 후예였고 고대신의 피로 만들어진 충성스러운 하수인이었다. 크툰은 강력한 지배력으로 그들을 모두 결집시켰다.

한편 안퀴라즈의 소란은 세상에 즉시 알려졌다. 퀴라지 무리의 공격을 처음 받은 것은 실리더스 사막의 드루이드 전진기지였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모두 실리더스를 지키기 위해 많은 지원군을 보냈다. 고대신 크툰은 너무도 오랫동안 감혀 있었다. 따라서 힘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대족장 쓰랄과 얼라이언스는 신속하게 전례 없는 협약을 맺었다. 두 진영은 군사력을 합쳐 크툰에게 반격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휘관은 노련한 오크 전사 바로크 사울팽이었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나란히 서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퀴라지와 실리시드에게 맞섰다.

032_2.png

와우 오리지널 최대의 일전

곤충들은 끝없이 밀려들었다. 그들의 인해전술은 당해내기 버거운 수준이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승리할 방법은 안퀴라즈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고대신 크툰과 직접 대적하는 것뿐이었다. 아제로스의 모험가들은 먼저 안퀴라즈의 마법 장벽을 열 수 있는 <흐르는 모래의 홀>의 조각들을 모아 유물을 완성했다. 이에 바로크 사울팽은 즉각 군대를 이끌고 안퀴라즈 성문에 이르러 홀을 사용하라고 명령했고, 마침내 성문이 열렸다. 마치 댐이 터지길래도 한 듯이 끝없는 퀴라즈의 물결이 쏟아져 나와 아제로스의 군대를 공격했다. 그날 셀 수 없는 많은 영웅들이 벌레 무리에게 쓰러졌다. 그러나 전선은 한치도 밀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033.png

커다란 위협 앞에서 다시 뭉친 호드와 얼라이언스

크툰의 대규모 병력이 쓰러져 나뒹굴었을 때 안퀴라즈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 바로크는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고대신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병력을 구축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바로크는 크툰의 군대에 양면 공격을 명령했다. 첫 번째 부대는 엄청난 수의 퀴라지가 들끓는 안퀴라즈의 폐허를 습격했다. 바로크는 그 곤충들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호드의 가장 뛰어난 정예 부대를 배치했다. 그 끔찍한 전투를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라 생각했다.

호드가 퀴라지 전선을 맡는 동안 얼라이언스는 안퀴라즈 지하를 습격했다. 그들의 적은 곤충 군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크툰의 가장 강력한 하수인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로소 고대신 크툰과 싸워야 했다. 호드가 지상에서 퀴라지 군대를 상대하는 동안 얼라이언스 전사들은 광기의 심연으로 들어갔다. 크툰의 속삭임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정신을 어지럽히며 서로를 적으로 돌려세웠다.

034.png

나 보러 왔쨌염~? 뿌우~

힘겨운 전투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했다. 용맹한 키보드 전사들은 밥도 안 먹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매달려 마침내 고대신을 쓰러뜨렸다. 물론 안퀴라즈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의 기

뾰을 이해한 부모님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아제로스를 지킨 눈부신 영광과 고결한 명예가 찬란하게 빛났다.

164c3fcfff2d8820.png

아제로스를 지킨 위대한 영웅들의 위용

036.png

25년

알렉산드로스 모그레인은 로데론의 존경받는 은빛 성기사였다. 그는 과거 2차 대전쟁 도중 주웠던 정체불명의 검은 보주가 빛의 힘을 흡수해 치유의 힘을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것을 드워프 국왕 마그니에게 들고 가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

마그니는 카즈 모단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대장장이기도 했다. 호기심을 느낀 마그니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주를 제련하여 검을 베풀어주었다. 그 검은 언데드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보구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무기에 파멸의 인도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037.png

최강의 성검, 파멸의 인도자

얼마 후 알렉산드로스는 성기사들과 함께 스트라솔름으로 향했다. 첫째 아들 르노 모그레인, 둘째 아들 다리온 모그레인, 그리고 초대 은빛 성기사 세이든 다스로한도 함께였다. 스트라솔름 폐허는 아서스에 의해 잿더미가 된 후 스컬지에게 여전히 장악당한 상태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료들과 함께 스트라솔름을 수복하고자 했다.

038.png

성기사 모그레인 가문의 두 형제

이때 은밀히 배후에서 그들을 노리는 악마가 있었다. 동부 대륙에 남아 있던 공포의 군주 발나자르였다. 발나자르는 얼마 전 로데론의 폐허를 장악한 실바나스의 군대에게 패배했으나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다. 그는 성기사들 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군대를 조직할 방법을 찾았다. 발나자르는 혼란의 틈 배후에서 위대한 성기사 세이든 다스로한을 처치하고 그의 형상을 취했다. 숭고하고 신성한 기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발나자르는 대부분 성기사들의 정신을 자신의 뜻에 맞게 뒤틀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가 하나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였다.

알렉산드로스가 파멸의 수호자를 휘두르는 모습은 신앙심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발나자르가 성기사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그가 사라져야 했다. 발나자르는 시간을 두고 알렉산드로스의 장남, 르노 모그레인의 마음을 조종했다. 평소 르노는 아버지가 동생 다리온만 편애한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발나자르가 스며들기 좋은 마음의 틈이었다. 발나자르는 그 젊은 인간을 어둠에 굴복시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 르노는 파멸의 인도자로 아버지를 살해했다.

르노는 악마의 계약에 넘어가 아버지를 유인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말았다. 동시에 성검 파멸의 인도자는 타락한 검으로 변질되었고, 알렉산드로스의 시체는 스컬지 켈투자드의 손에 넘어가 죽음의 기사로 부활한다.

039.png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죽기로 부활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에 성기사들은 동요했다. 일부 성기사들은 어둠의 힘이 세이든을 지배하

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한 의심은 성기사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신성한 전사들은 은빛 여명회와 붉은 십자군의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은빛 여명회>는 빛의 교리에 충실했다. 그러나 세이든을 따르는 강경파 <붉은 십자군>은 그렇지 않았다. 발나자르는 붉은 십자군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붉은 십자군은 곧 부패와 극단주의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들마저 정확라는 이름 아래 불태워 죽이는 등 점차 광신화되기 시작했다.

040.png

은빛 여명회와 붉은 십자군으로 나뉜 성기사들

모그리온 형제의 운명 역시 갈라졌다. 아버지를 살해한 첫째 르노는 붉은 십자군에 속했고, 둘째 아들 다리온은 은빛 여명회에 들어갔다. 다리온은 아버지의 영혼이 스컬지의 떠다니는 죽음의 요새인 <낙스라마스>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다리온은 은빛 여명회의 동료들과 함께 낙스라마스로 향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리온이 쉽게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죽음의 기사가 된 알렉산드로스는 은빛 여명회를 맹렬히 공격했고, 다리온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파멸의 인도자를 주워 요새를 빠져나와야 했다.

그런데 파멸의 인도자에는 아버지의 영혼이 남아 있었다. 타락한 그의 영혼은 검 속에 스며든 채로 아들을 교묘히 조종해 자신의 복수를 행하게 만들었다. 결국 다리온은 자신의 형 르노의 목을 베어 살해했다. 이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다시 아버지가 아들을 이용해 다른 아들을 죽이는 패륜적인 상황의 연속에 다리온은 절망했다. 신앙심으로 똘똘 뭉쳤던 자신의 가족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깊은 절망과 고민에 빠진 다리온은 주변의 조언으로 은거 중인 성기사 티리온 폴드링을 찾아

갔다. 티리온은 파멸의 인도자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무기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개탄했다. 그것을 정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주를 깨뜨리고 그 안에 갇힌 영혼을 해방하는 방법은 그가 알기로 한 가지였다. '검을 타락시킨 악의 행위보다 더 큰 선의 행위'를 행하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의 영혼을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 티리온의 조언이었다.

041.png

은거 중이던 티리온 폴드링

다리온은 티리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빛 여명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켈투자드의 스컬지 대군이 옛 성기사들이 묻혀있는 빛의 예배당으로 침략해왔다. 희망의 빛 예배당의 전투는 필사적인 최후의 저항이었다. 여기서 은빛 여명회가 진다면 스컬지는 그 축복받은 땅은 물론 그곳에 잠든 모든 정의로운 영혼들까지 차지할 상황이었다.

전투의 흐름은 예배당의 수호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때 다리온은 전선에서 싸우면서 마침내 티리온의 말을 이해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드로스는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 해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궁극의 희생을 행하는 것뿐이었다. 다리온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타락한 검 파멸의 인도자를 스스로 자신의 몸에 꽂았다. 다리온의 생각은 맞았다. 그의 희생적인 행동에 아버지가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영혼들까지 깨어났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빛의 분노를 터뜨리며 침략자 스컬지들을 초토화했다.

그렇게 희망의 빛 예배당은 지켜졌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다리온을 포함한 일부는 스컬지에 의해 되살아났다. 다리온은 아버지의 영혼을 구했지만 스스로는 저주를 받았다. 이제 다리온 모그레인도, 파멸의 인도자도 스컬지의 손에 있었다.

042.png

티리온의 조언대로 희생을 택한 다리온

이후 켈투자드와 그의 스컬지들은 얼라이언스 모험가들에 의해 또 한 차례 격파된다. 그러나 켈투자드의 생명력이 봉인된 성물함이 남아있었기에 부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붉은 십자군은 티리온의 아들 텔런 폴드링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맞이한다.

26년

다음 해, 아제로스에 낯선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거대한 보랏빛 요새 통째로 아제로스의 차원으로 건너와 칼림도어 대륙 북부의 하늘안개 섬에 장렬하게 추락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었기에 아제로스의 모두는 긴장했다.

와우 스토리 8부 : 불타는 성전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은 항상 앞으로 흘러간다. 뒤틀린 황천과 같은 장소의 혼돈 에너지는 시간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뀔 수 없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 모든 힘으로 구성된 사건과 선택은 강물처럼 서로 합쳐져서 동일한 현실을 공유한다. 다른 선택과 다른 가능성은 마치 개울과 하구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의 강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만약, 그 다른 가능성의 찌꺼기에 어떤 노력이 가해진다면, 그리하여 그것이 시간의 주류로 되돌아와 역류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시간의 길의 거주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매우 경계했다. 그것은 파멸과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아제로스의 모든 생명체들은 앞으로만 가는 시간에 의지한다. 날마다 태양이 뜨고 지는 확실성이 사라진다면 계절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주기는 의미를 잃게 되며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은 지속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청동용군단의 가장 신성한 임무였다. 시간의 권능을 부여받은 용의 위상 노즈도르무는 자신의 그러한 숙업을 위해 아제로스의 역사를 언제나 살살이 훑었다. 1만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전쟁은 특히 세세하게 봐야 할 역사적 길목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역사가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러한 이상 징후가 미묘했지만 점차 극적으로 발전했고 결국에는 불타는 군단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002_2.png

시간의 지배자 노즈도르무

노즈도르무는 시간의 길을 타락시키는 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큰 불안에 휩싸였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발견된 것은 수습해야 했다. 그는 세 명의 영웅을 과거로 파견했다. 인간 마법사로닌과 붉은용 크라서스, 그리고 1~3차 대전쟁의 오크 역전용사인 브록시가르였다. 시간을 잊은 세 영웅은 나이트 엘프 저항군에 합류하여 군단에 맞섰다. 악마들의 패배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다.

견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된 최후의 전투에서 브록시가르는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전투에 임했다. 그는 그 전장에서 죽고자 했다. 그것은 브록시가르에겐 더 없는 영광이었다. 사실 브록시가르는 하이잘 산 전투에서 전우들이 명예롭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신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해 매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투혼을 불태우며 고대의 악마들을 자신의 도끼로 쓸어 담았다.

003.png

과거로 넘어가 고대 전쟁에 뛰어든 브록시가르 사울팽

도중 사울팽은 차원문이 닫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 너머로 주저 없이 뛰어들었다. 그곳은 군단의 본거지인 아르거스였다. 수천 만 마리의 악마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브록시가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브록시가르는 그들 사이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004.png

드루와 드루와!!

악마들을 가르며 나아간 브록시가르는 그들의 수장 살게라스의 본체와도 대면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필멸자도 살게라스에 대항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브록시가르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는 세나리우스와 말퓨리온이 마법을 걸어준 무기로 살게라스에게 상처를 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살게라스는 결국 차원문 유지에 신경을 쓰지 못해 아제로스로 건너가는데 실패하고 만다. 브록시가르는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브록시가르의 용맹한 희생을 지켜본 붉은용 크라서는 그 명예로운 희생과 업적을 오크들에게 전했다. 쓰랄은 브록시가르 사울팽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었고, 그것은 훗날 브록시가르의 조카인 투라의 공지가 되었다.

005.png

살게라스에게 홀로 맞서 아제로스를 구한 브록시가르

노즈도르무는 임무를 완수한 로닌과 크라서를 다시 현재로 데려왔다. 시간의 길의 고결성은 회복했지만 역사 속 이상 징후의 등장은 그것이 마지막일 수 없었다. 노즈도르무는 무엇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점차 집착하게 되었다. 노즈도르무는 시간의 길로 사라진 채 오랫동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주 너머에는 아제로스, 드레노어, 아르거스 행성 외에도 무수한 별이 존재했다. 각자의 별들은 고유의 역사를 가졌고, 그중에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별들도 있었다. 크아레쉬 행성이 바로 그랬다.

크아레쉬 행성에는 신비로운 에테리얼 종족이 살았다. 그들은 뛰어난 과학자와 마법사의 종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과 비전 기술을 한계까지 추구한 끝에 결국 스스로 고향을 파멸의 운명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공간을 찢어 공허 속으로 통하는 균열을 열었고 그 행위는 만물의 포식자 디멘시우스라고 알려진 존재의 분노를 일으켰다.

006.png

공허에 잠식당하는 크아레쉬 행성

디멘시우스는 불안정한 에너지로 크아레쉬를 가득 채웠다. 그 에너지는 서서히 행성을 찢었다. 에테리얼 종족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파국을 막았고, 그 시도는 일부 효과를 거두었다. 그들의 마법은 디멘시우스의 어두운 마력을 차단했다. 그러나 비극은 다른 형태로 발현되었다. 정제되지 않은 비전 에너지가 에테리얼 종족의 육신을 파괴한 것이다. 남은 것은 마력으로 가득한 그들의 영혼들뿐이었다.

006_2.png

공허에 다가간 대가로 육신을 잃은 에테리얼 종족

이후 에테리얼은 다른 세력으로 분리되었다. 일부는 방랑자와 상인이 되어 마법과 강력한 유물을 찾아 우주를 떠돌았다. 다른 이들은 복수를 위해 디멘시우스와 공허의 생명체들을 처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아웃랜드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상인들은 교역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를 원했고, 상대적으로 호전적인 에테리얼들은 공허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찾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선 평화로운 곳보다는 전쟁의 불길이 한창인 곳이 좋았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한차례 파국을 겪었던 아웃랜드는 또 한 번 걱정의 회오리 속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성전이란 이름의 폭풍이었다.

26년

일리단은 아서스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그에겐 아직 아웃랜드라는 기회의 땅이 있었다. 마그테리돈을 제압하고 검은 사원을 차지한 지금 아웃랜드는 사실상 그의 영토였다. 물론 킬제덴은 일리단에게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일리단은 더 이상 그런 기회가 필요 없었다. 속박해둔 마그테리돈의 피로 만든 군대는 이전보다 더욱 불어나 있었다. 악마사냥꾼이란 충실한 전력도 만들었다. 일리단의 군대는 예전보다 강했다. 이제 군단에 대한 거짓 충성을 끝낼 때였다.

008.png

슬슬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는 일리단

일리단이 새롭게 만든 악마 사냥꾼들은 대부분 본래 블러드 엘프와 나이트 엘프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군단의 악마들에게 가족이나 누군가를 잃은 자들이었다. 일리단은 그들의 슬픔과 증오를 키워 자신과 비슷한 괴물로 만들어냈다. 그들은 악마의 육신을 소화하여 지옥의 에너지를 주입받았다. 그러자 엘프들의 몸이 변했다. 뿔이 돋았고 일리단의 것과 비슷한 날개가 생겨났다. 일리단은 그들에게 악마의 살점을 강제로 먹이고 악마와 그들의 영혼을 하나로 묶었다. 그로 인해 엘프들은 군단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끔찍했기에 자신의 눈을 스스로 파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완성된 악마 사냥꾼 부대는 그 누구보다 충실한 일리단의 전력이었다.

009.png

악마 사냥꾼의 탄생

일리단의 군대가 커지자 보급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아웃랜드의 대부분은 먼지만 날리는 황야였다. 식량은 귀했다. 물은 더욱 귀했다. 일리단은 아직 식량과 물이 있는 소수의 지역 중 하나, 장가르 습지대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군주 바쉬와 나가를 보냈다.

바쉬는 장가르 습지대의 심장부에 갈퀴송곳니 저수지를 건설했다. 그 거대 요새는 그물처럼 얽힌 복잡한 기계 장치를 갖추고서 늪지대에서 물을 끌어냈다. 장가르 습지대의 물이 빠져나가자 생태계의 미묘한 균형이 흔들렸다. 곰팡이 거인과 같은 몇몇 생명체들이 죽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쉬는 그런 결과에는 거의 무신경했다. 갈퀴송곳니 저수지는 성공이었다. 그 덕분에 일리단의 군대는 더욱 보강되었다.

010.png

여기 처음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일리단과 그의 사냥꾼들은 드레노어에 열린 차원문들을 이용해 군단이 지배하는 행성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악마의 피로 복수에 대한 갈증을 채웠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서곡에 불과했다. 일리단은 군단의 세계를 파괴해야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르거스 행성이었다. 그곳은 군단의 권좌이자 킬제덴 등 고위 지휘관들의 거처였다. 그곳은 뒤틀린 황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악마를 처치하면 영원히 죽일 수 있었다.

일리단이라고 해서 행성을 통째로 파괴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드레노어의 운명을 연구했고 넬줄의 무분별한 주문이 어떻게 드레노어를 산산조각 냈는지 알아냈다. 일리단은 아르

거스를 그렇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먼저 그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단서가 될 만한 장소를 하나 알고 있었다. 악마들 중 공포의 군주로 분류되는 자들의 고향 행성이자 군단의 금지된 지식 저장소인 <나스레자>였다.

011.png

군단의 본토를 노리는 일리단

킬제덴은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일리단을 그저 골치 아픈 벌레쯤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일리단은 군단이 지배하는 행성을 공격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아르거스를 파괴할 작정이 분명했다.

킬제덴은 계획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우선 그가 주목한 것은 일리단과 아제로스의 관계였다. 일리단의 동족들은 현재 일리단과 악마를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아제로스의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일리단을 괴물로 여겼다. 만약 일리단이 아웃랜드를 차지하고 군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알게 된다면, 게다가 그것이 악마의 피를 잔뜩 주입한 군대라면 그들은 일리단을 저지할 것이 분명했다. 킬제덴은 그저 계기만 마련해주면 되었다.

동시에 킬제덴은 다른 기회도 포착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를 그렇게 아웃랜드로 끌어낼 수 있다면 아제로스는 제2전선이 되어 군단의 침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킬제덴이 직접 공격을 이끌 생각이었다. 리치왕이 실패했고 심지어 아키몬드도 실패했다. 그것은 아제로스를 차지하려면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차원문이 필요했기에, 킬제덴은 하이잘 산의 영원의 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렸다. 태양샘이었다.

킬제덴은 아제로스에 남은 첩자를 통해 쿠엘탈라스 안쪽 어딘가에 아직 태양샘 마력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교활한 킬제덴의 첩자는 블러드 엘프의 형상을 취하고 왕국의

핵심층에 접근해 비로소 태양샘의 잃어버린 에너지의 화신인 안비나 티그의 존재마저 알아냈다. 그녀는 태양샘을 차원문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였다. 다만 킬제덴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선 쿠엘탈라스를 잘 아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마침 켈타스와 일리단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다. 킬제덴은 우선 켈타스를 지켜보기로 했다.

012.png

아제로스의 운명의 열쇠가 된 안비나

켈타스는 블러드 엘프가 마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도록 유물이나 생명체, 주위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을 일리단으로부터 배웠다. 애초에 일리단이 약속한 바가 그것이었으니 마땅히 그래야 했으나 그가 가르쳐준 방법은 너무 미약했다. 게다가 그 행위는 공교롭게도 더 많은 마력을 갈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급기야 켈타스는 일리단에게 지옥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리단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고, 얼마 후 켈타스는 지옥 마법에 절망적으로 중독되기에 이르렀다. 그 어두운 에너지를 흡수할수록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피폐해졌다. 지옥 마법에 빠져들자 블러드 엘프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켈타스는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실패자라 생각한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사실 켈타스의 아웃랜드행은 블러드 엘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블러드 엘프의 고통을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켈타스는 이대로 쿠엘탈라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그런 맥 빠진 결말을 원하지 않았다.

킬제덴은 그런 켈타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일리단이 지옥 마법의 더 세련된 흡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켈타스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켈타스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옥 마법의 진정한 힘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그저 일리단을 버리라는 것뿐이었다. 켈타스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킬제덴의 말은 켈타스의 마음속 혼란을 계속 부추겼고, 일리단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렸다.

013.png

갈증과 의심에 물드는 캘타스

한편 아웃랜드에 남아있던 다른 세력들도 아웃랜드에 또다시 일어나는 불길한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드레나이의 지도자 벨렌은 매일 기도를 올렸다. 술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는 신성한 빛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인간 마법사 카드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른 로서의 후예들과 함께 아웃랜드에 남아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카드가는 마법을 사용하여 군단과 함께 싸울 동맹을 찾아 끝없는 어둠을 뒤흔들었다. 벨렌의 기도와 카드가의 절실함, 그 두 가지는 결국 우주 너머 누군가에게 닿았다. 빛의 군대의 나루들이었다.

빛의 군대는 군단과 전쟁을 수행하던 중이었다. 그들은 아웃랜드가 악마들과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했다. 곧 빛의 나루 아달과 므우루, 오로스가 아웃랜드의 주민들을 돕겠다고 자원하여 나섰다. 그들은 폭풍우 요새라고 불리는 차원의 요새를 타고서 우주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아웃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황천의 폭풍> 지역에 도착했다.

014.png

차원을 넘나드는 기동 요새, <폭풍우 요새>

도착 직후 아달은 아웃랜드를 조사했다. 그리고 저 멀리 샤프트라스에 신성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요새를 그곳으로 옮겼다. 곧 벨렌을 위시한 드레나이들이 그 힘에 이끌려 샤프트라스를 찾았다. 카드가와 로서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였다. 군단을 적대하는 두 세력이 샤프트

스에 모두 모였으나 그들은 서로를 경계했다. 아달은 빠르게 동요를 잠재우고 단결을 요청했다. 서로 나뉘어서는 군단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나루의 충고는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온갖 역경을 겪은 그들은 새로운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곧 아달의 인도하에 로서의 후예들의 얼라이언스 세력과 드레나이는 함께 샤프트라스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015.png

나루의 인도하에 재건되는 샤프트라스

일리단은 아웃랜드의 잔존 세력들이 모여 샤프트라스를 재건하는 것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았다. 그들이 충분히 힘을 모으게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여겼다. 일리단은 아직 샤프트라스가 약할 때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켈타스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켈타스는 악마 사냥꾼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리단이 무엇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악마 사냥꾼들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켈타스는 일리단의 반응에 분개하면서도 명령에 따랐다. 그는 보렌살이라는 재능 있는 마법학자에게 공격의 지휘를 맡겼다. 곧 블러드 엘프의 군대가 샤프트라스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보렌살은 샤프트라스로 가던 도중 계시를 경험했다. 블러드 엘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중독과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 계시의 중심에 나루가 있었다. 나루의 신성한 빛이 쿠엘탈라스에 퍼져나가면서 빛에 닿은 모든 블러드 엘프의 영혼의 고통을 달래주었다. 보렌살은 그 계시를 보고서 완전히 변화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면서, 부하들에게 나루가 블러드 엘프를 구할 수 있는 열쇠라고 설득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웃랜드에서 거의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없는 역경을 겪었다. 블러드 엘프에게는 새롭게 나아갈 길이 절실했다. 결국 보렌살과 블러드 엘프는 샤프트라스에 도착한 후 무기를 거두고 아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새로 합류한 블러드 엘프들은 후일 <점술가 길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016.png

헤어나올 수 없는 아달의 매력(?)

켈타스는 보렌살의 배신에 분개했다. 동시에 그의 변절을 자신의 실패라고 여겼다. 켈타스는 일리단에게 나루를 상대로 복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리단은 악마 사냥꾼에게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보렌살의 군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킬제덴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일리단은 켈타스와 블러드 엘프에게 관심이 없었다.

켈타스는 블러드 엘프를 일리단의 노리개로 만들 수 없었다. 그는 일리단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새로운 조력자로 킬제덴에게 기대를 걸었다. 켈타스는 군단 역시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킬제덴이 가르쳐줄 지옥 마법의 새로운 흡수 방법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켈타스는 마침내 킬제덴과 서약을 맺고 일리단을 등지기로 동의했다. 킬제덴은 그 대가로 켈타스가 가장 원하는 것, 즉 지옥 마법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허락했다.

016_2.png

결국 일리단과 척을 진 켈타스

곧 켈타스는 검은 사원을 떠나 북동쪽 황천의 폭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뒤틀린 지옥 에너지와 함께 나루의 기동 요새 <폭풍우 요새>가 있었다. 폭풍우 요새는 켈타스가 이제껏 아제로스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기술을 자랑했다. 켈타스는 폭풍우 요새 내부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황천의 폭풍 지역의 어긋난 마법을 모으고 흡수하는데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켈타스는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폭풍우 요새를 습격했다.

폭풍우 요새는 총 4개의 위성(엑소다르, 신록의 정원, 알카트라즈, 메카나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요새를 타고 왔던 세 명의 나루 중 아달은 샤프트라스로 떠났지만 나머지 오로스와 므우루는 그대로 남아 폭풍우 요새를 지키고 있었다. 그중 오로스는 요새의 한쪽 지구인 <엑소다르>라는 이름의 위성 구조체를 보호했다. 그러나 므우루는 방어에 실패하여 블러드 엘프의 지배 속에 떨어졌다.

켈타스는 므우루의 마력에 주목했다. 그는 므우루의 신성한 마력으로 쿠엘탈라스에 있는 블러드 엘프들의 마력 갈등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곧 켈타스는 몇몇 부하를 시켜 므우루를 쿠엘탈라스에 데리고 가 마력을 흡수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했다. 쿠엘탈라스의 블러드 엘프는 자신들의 왕자가 보내온 첫 번째 선물에 기뻐했다. 물론 섭정 로르테마르 테론과 몇몇 엘프들은 신성한 빛의 존재에게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나루의 신성한 에너지를 끌어내어 빛의 힘마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블러드 엘프 사제들의 여군주 리아드린은 므우루의 에너지에 탐닉한 첫 번째 엘프였다. 얼마 후 그녀와 그녀를 따른 블러드 엘프들은 <혈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엘프 성기사의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017.png

블러드 엘프 최초의 성기사 리아드린

켈타스가 황천의 폭풍에서 자리를 잡는 동안 일리단은 군단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다. 악마 사냥꾼에 대한 일리단의 집착은 곧 또 다른 동료, 아카마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카마와 뒤틀린 드레나이들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인 검은 사원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서 일리단에게 합류했다. 그러나 그들은 검은 사원을 갖지 못했다. 일리단은 비밀스럽고 잔혹한 지도자였다. 그는 공공연히 지옥 마력을 받아들였고 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악마 사냥꾼들도 그랬다. 어떻게 보면 일리단은 검은 사원의 전 지배자였던 마그테리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아카마는 결국 일리단에 대한 믿음을 거두며 악의 손아귀에서 검은 사원을 해방할 수 있는 새 동맹을 찾아 나섰다. 그들 중 유력한 이가 마이에브 새도송이었다.

마이에브와 감시자들은 아웃랜드에 남아 일리단에게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병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방어에 취약했다. 일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마이에브의 부하들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나스레자로 통하는 차원문을 여는 연료로 썼다. 다만 마이에브는 사로잡아 가둬두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만큼 긴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곧 악마 사냥꾼들은 나스레자 침공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나스레자로 통하는 길을 열고 아주 정교하게 공포의 군주의 고향 행성을 타격했다. 그들은 나스레자의 기록 보관소를 덮쳤고 수호병들을 학살했다. 일리단은 거침없이 나아가 목표했던 전리품인 아르거스의 문장을 차지했다. 유물은 강력한 에너지와 지식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일리단은 그것이 자신의 전쟁을 위한 열쇠임을 알았다. 그 유물에는 군단의 권좌가 위치한 곳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일리단과 악마 사냥꾼들은 나스레자의 악마들을 쓰러뜨리면서 다시 차원문을 타고 아웃랜드로 돌아왔다. 일리단은 차원문을 닫지 않고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 그것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오래전 드레노어에서 있었던 일을 나스레자에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시간이었다. 차원문이 흐트러졌고 마법의 물결이 나스레자를 덮쳤다. 대지가 항거하듯 포효했다. 공포의 군주의 도시들은 무너져 가루가 되었다. 일리단은 재빨리 아웃랜드의 차원문을 닫고 나스레자에서 펼쳐지는 파멸에서 자신의 영역을 보호했다.

일리단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다. 차원문이 닫힌 직후, 나스레자는 조각나 부서졌다. 그곳의 모든 악마는 사멸했다. 수천 년 동안 불타는 군단이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패배였다.

018.png

아제로스의 누구도 이루지 못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일리단

일리단은 자신이 목적인 바를 착실하게 성취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이 있었다. 그가 가둬둔 마이에브의 감시를 아카마에게 맡겨두었던 점이다. 아카마와 마이에브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019.png

4

아달은 동맹이 필요했다. 킬제덴이 불러들인 악마 대군주 크롤과 그의 침략군이 아웃랜드의 곳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힘은 커졌다. 반면 샤프트라스에 모인 병력은 한계가 있었다.

아달은 아제로스에 눈을 돌렸다. 아달은 군단과 전쟁을 치른 그곳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제로스에 이르는 것은 어렵긴 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비록 켈타스에게 일부 뺏겼지만 폭풍우 요새의 한쪽 지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로스가 지켜낸 위성체 <엑소다르>였다. 아달은 그것을 이용한다면 우주를 여행하여 아제로스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벨렌은 그 위험천만한 여행에 적극 자원하고 나섰다. 그의 드레나이들은 지겨우리만큼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 벨렌은 남은 드레나이를 군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벨렌은 아달의 축복을 받은 후 드레나이 병력을 이끌고 폭풍우 요새로 향했다. 벨렌이

모습을 드러내자 즉시 킬제덴이 알아차렸다. 킬제덴은 벨렌을 오랫동안 찾아왔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드레나이들이 아제로스로 향해서 그곳의 주민들에게 일리단에 대해 전한다면, 아제로스의 거주자들은 킬제덴이 원하는 대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었다.

벨렌과 드레나이들은 오로스가 있는 위성 구조체 엑소다르에 도착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아제로스로 향로를 설정해 여행을 나섰다. 그러나 도중 잠입해온 일부 블러드 엘프들의 난동으로 엑소다르의 장치가 일부 파괴되었고, 그 탓에 통제가 불가능해진 엑소다르는 아제로스의 하늘에 열린 균열 속에서 마치 유성처럼 급격하게 추락했다. 엑소다르는 칼림도어 북부, 하늘 안개 섬이라고 불리는 외딴 섬에 떨어졌다. 그 추락으로 엑소다르는 거의 파괴되었다. 일부 희생자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대부분의 드레나이들은 생존하여 아제로스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020.png

마침내 아제로스로 넘어온 드레나이 종족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자들은 텔드랏실의 나이트 엘프들이었다. 그들은 드레나이를 경계했지만 곧 벨렌 일행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군단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었다. 스톱윈드에서 아이언포지까지 전령들이 드레나이의 도착과 아웃랜드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얼라이언스는 투표를 통해 드레나이를 연합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고 거처와 보호를 제공했다.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다만 얼라이언스는 일리단의 음흉한 행동과 아웃랜드에 군단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했지만 지도자들은 행동에 나서는 것에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쿠엘탈라스의 블러드 엘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남쪽에서는 아마니 트롤이 약해진 블러드 엘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언데드도 여전히 곳곳에서 무리 지어 떠돌았다. 섭정 로르테마르 테론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홀로 왕국을 지킬 수 없었다. 왕국의 군대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캘타스 왕자는 아직도 아웃랜드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쿠엘탈라스를 남겨두

고 원정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간과 드워프, 노움, 나이트 엘프는 아니었다. 바쉬와 일리단에게 합류한 켈타스의 결정으로 쿠엘탈라스와 얼라이언스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았다.

답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 포세이큰의 지도자 실바나스 윈드러너였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뱀시 여왕 실바나스는 블러드 엘프와 동맹을 맺으라며 호드의 지도자들을 설득했다. 소문에 의하면 실바나스의 남은 인격의 일부가 쿠엘탈라스와 블러드 엘프의 고난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고 했다. 물론 다른 공공이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실바나스는 호드 대족장 쓰랄과 케른 블러드후프가 로르테마르와 만나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블러드 엘프는 오크와 쓰라린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로르테마르는 동맹 제안을 수용했다. 로르테마르는 현재의 호드가 과거에 쿠엘탈라스를 파괴한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동맹은 모두에게 이로웠다. 블러드 엘프는 도움을 청한 아군이 생겼으며 호드는 동부 왕국에서 또 다른 전략적 기반을 얻었다. 이로써 블러드 엘프는 호드에, 드레나이는 얼라이언스에 새로이 합류하게 되었다.

021.png

각각 양 세력에 편입된 드레나이와 블러드 엘프

이 시기 호드와 얼라이언스 양측 모두에게 전쟁을 선포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숲 트롤들을 이끄는 아마니 제국의 지도자 줄진이었다.

줄진은 2차 대전쟁 당시 오그림의 권유에 따라 호드에 가입했었다. 그리고 블러드 엘프들과 맹렬히 싸우다 패배했다. 이후 하이엘프들은 줄진의 오른쪽 눈을 도려낸 후 사슬로 묶어냈으나 줄진은 자신의 왼쪽 팔마저 잘라내고 탈출했다. 생환한 줄진은 아마니 제국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으나 도중 들려온 호드의 소식은 그의 분노를 일으켰다. 신생 호드라는 것들이 원수같은 블러드 엘프들과 손을 잡은 채 또다시 자신들에게 동맹을 제의해온 것이다. 줄진을 치를 떨며 호드와 얼라이언스 양쪽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다가오는 모두를 적대했다. 곧 호드의 가장 용감한 용사들이 자원하여 줄아만을 습격했다. 호드의 돌격대는 트롤의 군대가 쿠엘탈라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줄진과 사제들을 처치했다. 새로운 동맹을 위해 옛 동맹을 가차 없이 처리한 무정한 처사였다.

022.png

블리자드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아제로스의 세력 변화를 지켜보던 킬제덴은 슬슬 행동에 나섰다. 그는 파멸의 군주 카자크를 시켜 아제로스에 남은 악마들을 모아 어둠의 문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부하들로 하여금 대규모 의식을 진행하게 하여 어둠의 문에 남은 균열을 다시 열게 했다. 비록 지금은 닫혔지만 한 때 어둠의 문이 존재했던 그곳의 현실은 영구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군단의 주문이 그 악해진 현실을 찢는 순간, 두 세계를 잇는 통로가 번쩍이는 빛을 내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대군주 크룰과 카자크는 소규모 침략군을 이끌고 스톨윈드와 오그리마 등 세계의 곳곳을 공격했다. 물론 정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단지 호드와 얼라이언스를 분노로 몰아넣기 위한 책략이었다. 예상대로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악마들과 전쟁에 나섰다. 크룰과 부하들은 거짓으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동부 왕국에 모였고 적들을 어둠의 문으로 유인했다.

곧 어둠의 문 바깥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아제로스 연합은 어둠의 문 너머로 악마들을 몰아냈지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아웃랜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둠의 문은 계속해서 복원되었다. 문을 닫는다고 해도 군단이 다시 열면 그만이었다.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병사들은 아웃랜드로 군대를 이끌었다. 크룰과 카자크 역시 군단의 대부대를 이끌고 어둠의 문 반대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023.png

불타는 성전의 시작

얼라이언스와 호드 병사들 대부분은 이때 처음으로, 부서진 세계 드레노어를 보았다. 오크 중에는 과거에 그곳에 살았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아웃랜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서서히 지옥불 반도로 밀고 들어가 요새를 건설했다. 이때 얼라이언스 병사들은 명예의 요새와 그곳의 거주자들을 발견하고서 몹시 놀랐다. 로서의 후예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죽지 않았다. 다나스 트롤베인은 두 팔 벌려 얼라이언스 병사들을 맞이했다.

호드 역시 지옥불 반도의 북부에 스랄마라는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의를 위해 손을 잡을 동료를 발견했다. 마그하르 오크였다. 마그하르는 과거 굴단이 드레노어에 전염병을 퍼뜨렸을 때, 병에 걸린 오크들을 따로 격리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악마의 피를 섭취하지 않아 피부색을 그대로 갈색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듀로탄의 아버지 가라드 역시 병에 걸려 족장 자리를 아들에게 넘기고 이곳에 남아 오랫동안 병자들을 돌보다 죽었다. 마그하르는 자신들의 터전의 이름을 가라드를 기리는 뜻에서 <가라다르>라고 지었다. 이후 마그하르의 오크들은 아웃랜드에서 오크의 오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주술의 전통을 연마해왔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호드는 원래의 오크들이 지녔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은 존재였다.

023_2.png

곳곳에서 조력자들을 만나는 호드와 얼라이언스

이때 쓰랄은 가라다르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난다. 가라다르에는 듀로탄의 어머니이자 쓰랄의 할머니, 게야가 살고 있었다. 쓰랄은 게야를 만나고서 인생이 바뀌었다. 갓난 아이였을 때 부모를 잃은 쓰랄에게 게야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다. 게야는 쓰랄의 부모에 대해서, 오크 종족에 대해서, 그리고 쓰랄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쓰랄도 가르쳐 줄 것이 있었다. 현재 가라다르의 지도자는 전설적인 전사 그롬마쉬 헬스크림의 아들, 가로쉬 헬스크림이었다. 가로쉬는 아버지의 아제로스에서의 행적을 알지 못했다. 다만 그롬마쉬가 종족을 악마의 손아귀로 이끈 장본인 중 하나였으며 괴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쓰랄은 가로쉬의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쓰랄은 그롬마쉬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여 만노로스를 쓰러뜨렸는지, 오크를 괴롭혔던 피의 저주를 어떻게 정화했는지 설명했다. 그동안 큰 무력감에 휩싸여 살고 있었던 가로쉬는 진실을 듣고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았다.

쓰랄은 그런 가로쉬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다.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지만 오크 문화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과 지식은 호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쓰랄은 가로쉬에게 아제로스에서 자신의 조연가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며 그를 호드에 끌어들었다.

024.png

쓰랄 인생 최대의 실수, 가로쉬 스카웃

세력을 다진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맹렬한 기세로 악마들을 쓰러뜨렸다. 지옥불 성채에 있던 마그테리돈과, 마그테리돈의 피를 마시고 타락한 오크 카르가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사실 킬제덴은 아제로스의 영웅들을 진심으로 저지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크룰과 카자크를 희생하여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사기를 높여줄 생각이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아웃랜드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일리단에게 분노를 돌려야 했다.

024_2.png

대악마 카자크와 으스스한 손 카르가스

예상대로 아제로스의 용사들은 아웃랜드를 지배하는 일리단에게 주위를 돌렸다. 두 진영은 배신자 일리단에 관한 불편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최근에 만난 마그테리돈의 피를 뽑아 오크들을 타락시키고 있던 것도 일리단이었고, 게다가 그는 동쪽 엘프들에게마저 악마의 마력을 주입하여 음험한 군세를 늘리고 있었다. 그들은 군단을 무너뜨리려는 일리단의 진정한 목표를 알지 못했다. 일리단 역시 진실을 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어차피 일리단은 아르거스를 공격할 준비를 거의 마쳤고 이제와서 아제로스의 사람들에게 뭘 설명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리단과 악마 사냥꾼들이 그들의 임무에 집중하는 동안,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장가르 습지대에 들어섰다. 나가 여군주 바쉬가 습지대를 쥐어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때문에 드레나이의 은신처 텔레도르의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욱 고통받고 있었다. 얼라이언스는 망설이지 않고 나가의 수중 요새 갈퀴송곳니 저수지를 습격했다. 요새에는 병든 야생의 생명체들과 여군주 바쉬의 전사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제로스 연합을 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여군주 바쉬도 그들의 칼날에 마지막으로 쓰러졌다. 사실 바쉬는 고대신의 도구로써 거짓으로 일리단에게 접근했었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일리단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025.png

그녀의 충정을 기리는 의미에서 1만 년 전 리즈 시절 모습으로 한 컷.

이윽고 아제로스 연합은 샤프라스에 다다랐다. 아달은 그들의 도착에 기뻐했다. 벨렌의 과감한 아제로스 탈출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샤프라스는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핵심 작전 지역이 되었다. 그들은 샤프라스에서 대마법사 카드가와 만났다. 검은 사원이 있는 어둠달 골짜기에선 쿠르드란 와일드해머와도 만났다. 그들은 아웃랜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든든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슬픈 소식도 있었다. 블러드 엘프들의 왕자 켈타스가 불타는 군단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블러드 엘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비탄에 잠겼지만 공통된 결론에 이르렀다. 켈타스는 가망이 없었다. 그를 제압하고 배신을 끝내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다.

전투는 곧 켈타스가 있는 폭풍우 요새로 번졌다. 왕자는 최후의 전투를 치렀다. 켈타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켈타스는 죽지 않았다. 킬제덴은 켈타스의 패배를 예견하고 그의 영혼을 인도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데려왔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다음으로 검은 사원으로 향하는 동안 켈타스와 군단은 어둠의 문을 통과하여 태양샘으로 향했다.

026.png

킬제덴에 의해 태양샘으로 인도되는 켈타스

일리단은 시간이 부족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샤프라스의 군대와 함께 검은 사원 성벽에 도착해 전투를 시작했다. 검은 사원의 수비는 견고했으나 오래 버틸 순 없었다. 일리단은 절박했다. 그는 아르거스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강력한 마법이 행성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차원문을 열 수 없었다. 군단의 권좌에 다가갈 방법은 마르둠이라고 알려진 뒤틀린 황천의 부서진 세계에 있었다. 일리단은 그 부서진 땅에 또 다른 키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살게라이트 켄기돌'이라고 불리는 그 유물이 아르거스로 길을 낼 수 있는 열쇠였다.

적들이 검은 사원을 뚫고 요새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일리단은 결정을 내렸다. 마르둠에 악마 사냥꾼들을 보내고 자신은 검은 사원에 남아 적들을 상대했다. 버거운 역할이었지만 그는 아르거스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일리단은 모든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아제로스의 모험가들을 상대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단과의 전쟁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싸웠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그에겐 결정적인 패배의 씨앗이 자라나 있었다. 배신자 아카마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마이에브 새도송이었다. 그녀는 침입자들과 함께 일리단에게 대적해 오랫동안 갈구했던 복수를 실현했다. 결국 일리단은 쓰러졌다.

026_2.png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진 일리단

일리단이 보호하고자 했던 그 세계의 영웅들이 그를 처치하고 악마와의 전쟁을 막은 것은 운명의 가혹한 장난이었다. 마지막 순간, 일리단의 정신은 오랜 적에게 향했다. 일리단은 자신의 패배로 마이에브가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이에브는 일리단의 교도관이자 추적자로서 삶의 대부분을 살았다. 임무가 끝난 지금, 그녀는 목표를 잃었다.

일리단의 악마 사냥꾼들은 살게라이트 썩기돌을 찾아서 마르둠에서 돌아왔지만 주인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에브는 빠르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악마 사냥꾼들과 일리단의 시체를 마력 깃든 수정에 올려 두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제로스로 옮겨와 부서진 섬의 감옥, 감시관의 금고에 가두고 엄중하게 감시했다.

027.png

첫... 신포도같은 년...

아웃랜드는 일리단 스톱레이지와 그의 군대에게서 벗어났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승

리를 기념할 수 없었다. 끔찍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켈타스 선스트 라이더가 아제로스에서 타락한 엘프와 악마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5

켈타스는 쿠엘탈라스를 침공했다. 왕국의 병력 대부분이 아웃랜드에 있었던 블러드 엘프는 타락한 왕자에게 거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켈제덴의 명령에 따라 켈타스의 군대는 나루 므우루와 태양샘의 에너지를 가진 화신 안비나 티그를 붙잡았다. 그녀의 수호자 칼렉고스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켈타스는 안비나와 므우루의 힘을 흡수하여 무너진 태양샘을 복원했다. 샘에서 눈부신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3차 대전쟁 이후 처음으로 생기를 띠고 빛났다. 켈타스는 황천의 폭풍에서 수집한 마나 저장기의 에너지로 자신의 의식에 더 많은 힘을 불어넣었다.

028.png

비어있는 쿠엘탈라스로 치달은 켈타스

켈타스는 태양샘의 마력으로 켈제덴을 아제로스로 소환할 차원문을 짓기 시작했다. 그동안 몇몇 블러드 엘프가 아웃랜드로 도망쳐 호드의 지도자들에게 사태의 추이를 전했다. 혈기사 리

아드린도 그중 한 명이였다. 리아드린은 켈타스의 행태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그녀는 샤프트라스에서 아달을 만나 켈타스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군단과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아달은 그녀를 받아들였고 켈타스와 맞서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구축했다. 그 단체는 <무너진 태양 공격대>라고 불렸으며 점술가 길드의 블러드 엘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무너진 태양 공격대는 태양샘으로 향해 군단의 병력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리아드린과 동맹들은 끊임없이 악마들에게 포위당하면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냈다. 켈타스는 주문에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았고 덕분에 더 많은 지원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이 태양샘에 모여들어 무너진 태양 공격대와 나란히 섰다. 리아드린은 호드의 용사들을 마법학자의 정원으로 이끌고서 켈타스를 뒤쫓았다. 켈타스는 폭풍우 요새에서 패배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해졌지만 그가 상대하는 영웅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호드는 켈타스를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러뜨렸다.

한편 얼라이언스는 태양샘이 위치한 태양샘 고원을 공격했다. 켈타스의 마법으로 샘 깊은 곳에 균열이 생겨나 있었다. 곧 그들의 눈앞에서 킬제덴이 차원문을 통해 아제로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029.png

마침내 강림한 킬제덴

얼라이언스 병사들은 킬제덴을 차원문 밖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상반신만 소환됐음에도 킬제덴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 전투의 흐름을 뒤집은 것은 안비나티그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비나는 칼렉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를 희생해 킬제덴의 소환을 멈추었다. 덕분에 얼라이언스는 간신히 악마 군주 킬제덴을 추방하고 아제로스로 통하는 균열을 봉합했다.

030.png

희생하는 소녀

아제로스는 다시 한 번 군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대가가 따랐다. 켈타스의 마법으로 태양샘이 오염되었다. 태양샘에서는 전처럼 타락한 에너지가 흘러나왔고 곧 쿠엘탈라스 곳곳으로 퍼져 블러드 엘프들을 집어삼켰다. 로르테마르 테론과 부하들은 다시 태양샘을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등장했다.

벨렌이 므우루를 찾아서 태양샘에 도착했다. 므우루는 육신이 거의 사라지고 심장만 남아 있었다. 벨렌은 므우루의 유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힘, 즉 희망을 느꼈다. 벨렌은 므우루의 심장으로 태양샘을 정화하고 신성한 빛과 비전 마법의 샘으로 변화시켰다. 모두의 눈앞에서 눈부신 에너지가 쿠엘탈라스의 온 땅과 하늘에 퍼져나갔다. 그 사건은 블러드 엘프, 특히 여군주 리아드린과 혈기사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신성한 빛을 강제로 휘두르기를 포기하고 옛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태양샘을 통해서 빛의 축복을 구하기로 했다.

태양샘은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블러드 엘프의 눈부신 미래를 알리는 신호였다. 마력을 끌어낼 태양샘이 있었기에 더는 마력을 갈구하며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 켈타스와 일리단은 쓰러졌고, 킬제덴은 뒤틀린 황천 너머로 추방되었다. 태양샘은 복원되고 블러드 엘프는 구원받았다. 로서의 후예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마침내 불타는 성전은 완전히 막을 내린다.

031.png

비로소 마력 중독을 해결한 블러드 엘프들

안퀴라즈 전투 이후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에는 오랫동안 긴장이 들끓었으나 아웃랜드 원정으로 그들은 또 한 번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지속적인 평화 협정에 대한 희망이었고, 제이나는 그 길의 개척자였다. 제이나는 아제로스를 향한 어떤 사악한 힘이든 앞으로 새로운 위협을 맞을 때를 위해 준비하고자 했다. 그녀는 테라모어를 중립 지대로 만들고 양 진영의 평화 회담을 추진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역사에 전례가 없던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회담장을 노리는 자가 있었다. 그 비밀스러운 암살자는 스톰윈드 국왕 바리안 린의 목숨을 노렸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그런 일을 성공한 적이 있었다. 스톰윈드의 전대 왕 레인 린을 암살했던 하프오크, 가로나였다. 그녀는 그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었다.

1 (로고쉬 편)

1년 전, 스톰윈드 왕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데스윈의 딸 오닉시아의 간계 때문이었다. 그녀는 카트라나 프레스톨이라는 이름의 귀족으로 위장하여 온갖 이간질을 벌이고 음모를 꾸몄다. 스톰윈드 귀족들에게 반대하는 인간의 반역단체 <데피아즈 결사단>도 그녀가 만든 위장 조직이었다. 급기야 그녀는 바리안 린 국왕이 외교 임무를 위해 타고 향해 중이던 함선을 기습하여 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다. 데피아즈단은 외딴 섬으로 바리안을 데려갔다. 오닉시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900.png

스톰윈드의 국왕 바리안 린을 주인공으로 한 코믹스

오닉시아는 바리안의 영혼을 분리하는 사악한 의식을 수행했다. 그녀는 바리안의 의지와 결의, 힘과 위엄을 모두 벗겨내어 연약한 껍데기만을 남겼다. 그 초라한 바리안을 자신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벗겨낸 또 하나의 바리안, 즉 의지와 결의를 모두 가진 바리안의 한쪽을 오닉시아가 파괴하려던 찰나, 그 바리안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었다. 파도는 그를 통째로 집어삼켰고 어둠이 주위를 휘감았다. 오닉시아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오닉시아가 자신이 가진 꼭두각시 바리안을 자신의 완전한 종복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

이 필요했다. 들키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했다. 그동안 스톨윈드의 주민들은 실종된 왕의 안부를 걱정하며 나라가 다시 안정되기를 바랐다. 어쩔 수 없이 바리안의 어린 아들 안두인 린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충직한 성기사 볼바르 폴드라곤이 섭정을 맡았다. 이후 1년 동안 볼바르는 카트라나를 견제하며 정국을 수습하고 불타는 성전에도 참여하여 얼라이언스를 이끄는 한 축이 되었다. 볼바르도 안두인도 바리안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리안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034.png

왕의 빈 자리를 맡은 섭정 볼바르 폴드라곤

오닉시아의 흑마법으로 인격이 둘로 나뉜 바리안은 기억을 모두 잃었다. 오닉시아로부터 탈출한 강한 인격을 가진 바리안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듀로타 앞바다로 떠내려왔다. 정신을 차린 바리안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해안가에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짐승들과 싸워야 했다.

도중 바리안은 한 오크 무리에게 발견된다. 레가르 어스퓨리라는 이름의 오크 검투사 마스터였다. 드레노어에서 나고 자란 레가르는 1차, 2차 대전쟁을 겪고 오크수용소에 잡혔다가 이후 투기장을 전전해왔다. 그러다 쓰랄을 만나 주술을 배우고는 다시 투기장 판으로 돌아와 유망한 검투사들을 데려다 돈을 버는 일종의 노예상인이었다. 레가르는 바리안의 뛰어난 전투 실력을 보고 그를 데려가기로 한다.

레가르의 주술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바리안은 철창 안에서 자신처럼 검투사로 팔려가는 두 명의 인물을 더 만났다. 발리라 생귀나르라는 블러드 엘프와 브롤 베어맨틀이라는 나이트 엘프였다. 둘은 항상 티격태격하는 살벌한 사이였지만 바리안은 그들과 함께 검투사 훈련을 받으며 동료로써 가깝게 지냈다.

999.png

이대륙에서의 만남

얼마 후 마침내 강력한 검투사들이 모이는 혈투의 전장에 들어선 바리안은 신들린 듯한 전투 실력을 보이며 순식간에 투기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그는 끝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투기장은 온통 그의 별칭인 로고쉬(유령늑대)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레가르는 인기스타가 된 로고쉬와 그 못지않게 활약해주는 브롤, 발리라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발리라는 자신을 구매한 타우렌 여성에게서 독자적으로 탈출했다. 로고쉬와 브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레가르에 의해 타우렌들이 거주하는 썬더 블러프로 이동했고, 로고쉬는 그곳에 있는 영혼의 샘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 브롤과 함께 썬더 블러프를 탈출했다. 사실 레가르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로고쉬가 묶여있을 영혼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들의 탈출을 묵인했다.

그즈음 데피아즈단이 바리안이 살아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암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브롤은 로고쉬를 데리고 자신들 나이트 엘프의 본거지인 텔드랏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티란데는 로고쉬의 기억을 테라모어의 제이나가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해주었다. 로고쉬와 브롤은 즉시 테라모어로 향했다. 이때 데피아즈단의 암살자가 로고쉬에게 접근했으나 한 여성 덕분에 저지할 수 있었다. 먼저 탈출했던 동료 발리라였다. 이후 그녀도 일행에 합류했다.

며칠 후 로고쉬와 제이나가 만났다. 제이나는 로고쉬가 스톰윈드의 국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에이그윈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로고쉬의 기억을 되찾아주었다. 왕으로써의 신분을 자각한 로고쉬는 일행과 함께 다시 동부 대륙으로 향했다.

한편 그동안 오닉시아는 온화한 인격의 꺾데기 바리안을 스톰윈드 왕국에 복귀시켜 정신지배

를 통해 조종하고 있었다. 나라의 세금은 폭증하고 치안은 어지러웠으나 바리안은 국정에 손을 놓은 채 오닉시아의 말에만 따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고쉬 일행이 스톨윈드 왕성으로 복귀하여 카트라나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해버리자, 그녀는 검은용으로써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안두인 린을 납치하여 도망가버리고 만다.

040.png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오닉시아

온화한 인격의 바리안을 만난 로고쉬(강한 인격의 바리안)는 자신들 중 누가 죽든 아버지로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오닉시아의 동지로 향했다. 어느 바리안이든 아들 안두인을 향한 사랑은 같았다. 가는 길에 두 바리안은 제이나로부터 두 자루의 검을 전해 받았다.

얼마 후 오닉시아의 동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도중 바리안 린에 대한 오닉시아의 마법이 흐트러지자 바리안의 부서진 정수들이 합쳐졌다. 그리고 바리안은 다시 완전해졌다. 동시에 제이나로부터 받았던 두 검 역시 합쳐지면서 한 자루의 검으로 융합되었다. 검의 이름은 <살라메인>. 그 검을 든 스톨윈드의 진정한 한 명의 왕은 마침내 오닉시아를 제압하고 용의 목을 베어냈다. 그리고 아들 안두인 린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041.png

마침내 본래의 모습으로 각성한 바리안 린

바리안은 안두인을 데리고 스톰윈드의 왕좌로 돌아왔다. 스톰윈드 정문에는 오닉시아의 머리가 걸렸다. 왕국을 위협하는 자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다. 바리안 역시 예전과 달랐다. 갓은 고초를 겪은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강인해져 있었다. 이후 바리안 린은 국왕으로 복귀하여 혼란에 빠졌던 왕국을 다시 수습해나갔다.

그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 준 제이나의 도움도 컸다. 몇 주 후 제이나로부터 평화 회담에 대한 참석 요청이 왔을 때 바리안은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또 다른 암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암살자는 단순히 왕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암살자 가로나의 배후에 있는 자 초갈은 평화 회담을 오히려 분쟁의 발화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바리안과 쓰랄의 목숨은 그 제물로 적절한 타깃이었다.

2 (메단 편)

아제로스와 아웃랜드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초갈은 계속해서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 세력을 넓혀갔다. 1~3차 대전쟁을 겪은 아제로스인들에게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은 제법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성스러운 빛의 교단의 지도자, 대주교 베네딕투스마저 그들의 사이비 교리에 빠져들었다. 그가 공허를 섬기게 된 것은 이교도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초갈은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크툰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다. 초갈은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방법을 궁리했다. 곧 완벽한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테라모어에서 열리는 평화 회담이었다.

제이나와 에이그윈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회담은 얼라이언스 대표와 호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제로스에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 토의할 예정이었다. 아직 아제로스에 남아 있는 스

컬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각 진영 간의 무역과 자원 문제까지 폭넓게 협상 소재로 올라올
매우 민감한 자리였다.

042.png

호드, 얼라 주요 인사들이 모인 테라모어 회담장

곧 예정대로 회담이 열렸다. 쓰랄과 함께 온 두 명의 조언가는 입장이 매우 극단적이었다. 가
로쉬는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인간들을 적대하는 강경파였고, 반대로 레가르는 평화를 찬성하
는 온건파였다. 가로쉬는 회담장을 계속해서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때 가
로쉬마저 입을 다물게 한 아이가 있었다. 스톨윈드의 어린 왕자 안두인 린이었다.

안두인 린은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오닉시아의 음모에 의해 아버지마저 행방불명되어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섭정 볼바르 폴드라곤의 도움을 받으며 나라를 현명하게 통치해
왔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아이는 오닉시아의 동지에서 혼자 탈출을 감행하는 용기와 결
단력, 균형 있는 외교적 안목 등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호드라면 이를 가는
아버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비록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전사가 되기에는 체력은 부족했
지만 대신 성스러운 빛에 대한 친화력으로 뛰어난 사제의 재능을 나타내기도 했다.

회담장에서도 안두인은 뛰어난 외교적 수완가의 자질을 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아직 꽃내
나는 소년이었지만 만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신중하고 진실된 모습에 회담장에 있는 호드의 일
원들까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아이는 유화적이고 차분한 성격으로 제이나, 쓰랄과 매우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였다.

043.png

떡잎부터 성군이 될 자질을 보이는 안두인 린

그러나 그런 안두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곧 예정된 사단이 벌어졌다. 가로나가 나타나 바리안의 암살을 먼저 시도한 것이다. 회담장에 따라왔던 블러드 엘프 발리라의 도움으로 다행히 암살 시도는 차단했지만 그 행위 자체는 곧 바리안의 격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바리안은 아버지 레인 린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그는 가로나가 호드의 암살자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랬듯, 테라모어에서의 이 공격 역시 그때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시도라고 그는 판단했다. 바리안은 쓰랄과 호드의 배신을 비난하며 평화 협정에서 철수했다.

불잡힌 가로나는 제이나와 에이그윈에 의해 다시 제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를 조종한 초갈은 바리안을 죽이지 못했지만 호드와 얼라이언스 간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데 성공했다. 또다시 과오를 되풀이한 가로나는 초갈에 대한 복수를 다시 한 번 목표했고, 동시에 이교도의 음모 역시 완전히 파헤치고자 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었다. 이번엔 제이나와 에이그윈이 그녀를 돕기로 했다.

044.png

기구한 운명을 반복하는 가로나

※ 본래 <로고쉬&메단> 코믹스의 메단 편은 이름 그대로 메단이 주인공인 스토리입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메단이 있고,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중심축이 되죠. 평화 회담장을 노리는 암살자 가로나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보고 그녀를 추적하다 고대신 크툰의 힘을 이어받은 초갈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메단은 할머니 에이그윈으로부터 최후의 수호자 자격도 물려받고 마법, 주술, 신성, 격투술 등 온갖 능력에 통달한 엄청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식 스토리의 기준이 된 연대기에서는 메단을 이야기에서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코믹스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건은 그대로 두고, 메단만 이야기에서 쏙 빼버린 거죠. 메단에게는 매우 잔혹한 처사(?)이지만 그렇다고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메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또 않습니다. 연대기에도 무슨 이스터 에그처럼 색인에 언급은 됩니다. 즉 가로나와 메디브의 아들이자 세 종족의 혼혈아, 역대 최강의 마법사인 최후의 수호자의 유일한 혈육, 위크래프트 사상 최대의 먼치킨 메단은 분명히 존재하나, 공식 역사에 그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설정을 다운 그레이드해서 언젠가 활용할 생각인 건지 어쩐 건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일단 스토리 디렉터 제임스 워는 "메단은 살아있고, 지금 당장 곁에 없을 뿐 아주 중요한 과업을 위해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고 언급해두었습니다.

901.png

언젠가 본 게임에 등장할 지도 모르는 메단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초갈은 다음으로 노스렌드를 찾았다. 고대신 요그사론의 속박을 풀기 위해서였다. 요그사론은 고대 유적 <울두아르>에 봉인되어 있었다. 초갈은 성채의 지하로 내려가 요그사론을 옥죄는 마력의 속박을 조금씩 벗겨냈다. 비록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지만 사슬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그 행위는 요그사론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기에 충분했다. 요그사론은 위대한 수호자 로켄의 의식을 지배하여 의지의 용광로를 통해 군대를 조직하게 했다. 본래 고귀한 생명체를 만들어냈어야 할 그 기계 장치는 로켄의 손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을 추구하는 강철 피부의 드워프와 브리쿨 군단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한때 안비나, 칼렉과 여정을 함께 했던 푸른용 타이리고사는 <황천의 용>이라 알려진 용족을 조사하고 있었다. 황천의 용은 데스윙이 드레노어에 가져다 놓았던 알들이 기원이 된 용족이었다. 드레노어가 폭발했을 때 주입된 에너지는 부화되지 않은 용들을 뒤틀어 부분적으로 형태가 없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타이리와 그녀의 곁에 찰싹 붙은 성기사 조라드 메이스는 어둠의 문을 통해 아웃랜드로 넘어와 황천의 용들을 만났고, 곧 그들과 친분을 쌓았다.

046.png

3부작 만화로 기획되었으나 출판사가 도중 파산...

황천의 용들은 강력했지만 천진난만했다.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으며 제멋대로였다. 또한 그로 인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변절한 죽음의 기사 라그노크 블러드리버였다. 라그노크는 황천의 용들에게서 큰 잠재력을 보았다. 그는 아웃랜드를 정복하기 위해 조직한 자신의 군대에 황천의 용들을 포섭하려 했다. 그러나 출판사가 파산해서 타이리와 조라드의 활약으로 그 야심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되었다.

047.png

자본주의에 무너진 라그노크의 야심

타이리는 부상을 당한 황천의 용들이 죽을까 봐 염려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다수의 황천의

용을 푸른용군단의 동지인 마력의 탑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에너지가 부상당한 황천의 용들에게 활력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이리는 새로운 손님들에게서 푸른용들이 안전할 것인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황천의 용들은 마력의 탑에서 비전 에너지에 젖어 들었다. 그들이 겪었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마력이었다. 황천의 용들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그 마력의 전부를 원했다. 라그노크와 같은 자에게 다시 지배당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 그들은 마력의 탑을 직접 차지하기 위해 푸른용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전투가 펼쳐졌고 그것은 말리고스의 주의를 끌었다. 수천 년 전, 고대의 전쟁에서 데스윙이 다른 용군단들을 지배했을 때 말리고스는 세상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 마력의 탑에 은둔했다. 바깥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동지에서 발생한 공격마저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말리고스는 황천의 용들을 몰아세우며 거의 대부분을 자신에게로 흡수해버렸다. 그 형체가 없는 생명체들의 에너지는 뜻밖에도 말리고스의 정신을 어지럽혔던 고통과 후회의 안개를 걷어냈다. 황천의 용들의 공격 덕분에 말리고스는 아제로스의 비전 마법을 수호하는 자신의 신성한 의무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048.png

황천 쥬스 먹고 우울증을 극복한 말리고스

말리고스는 아제로스에서 마법과 관련된 사건의 상태를 점검했으나 결과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말리고스의 눈에는 필멸자 마법사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마법이 전쟁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었다. 말리고스는 마법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다. 그는 아제로스에 흐르는 잠재적인 비전 에너지와 필멸자들 간의 연결을 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한편 말리고스의 분노에서 살아남은 일부 황천의 용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 역시 평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검은용 시네스트라라는 또 다른 포획자와 마주했다. 그녀는 데스윙의 아내였다.

4 (소설 : 용의 밤)

과거 데스윙이 고대신에 의해 타락한 직후 상처를 입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을 때, 데스윙은 자신의 배우자들과 무차별적인 짝짓기를 시도했었다. (...)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내가 있었다. 신타리아라는 이름의 검은용이었다.

이후 신타리아는 이름을 시네스트라로 바꾼 뒤 데스윙의 자식으로 아들 네파리안과 딸 오닉시아를 낳았다. 하지만 네파리안과 오닉시아 모두 아제로스의 모험가들에게 죽어나가자 그녀는 검은용들에게선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용군단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049.png

온 가족이 출연하는 데스윙 패밀리

시네스트라는 아웃랜드에 남아 있던 변종 검은용인 황천의 용들이 마력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

진 것에 주목했다. 그녀는 말리고스에게서 살아남은 황천의 용들을 사로잡은 뒤 고대 유물의 힘을 이용해 용의 위상의 힘에 맞먹는 황혼의 용 다르고낙스와 <황혼의 용군단>이라는 새로운 종을 제작해냈다.

050.png

직접 낚는 건 이제 지쳤어!

푸른용의 위상 말리고스와 붉은용 크라서는 시네스트라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칼렉고스, 로닌, 베리사, 그리고 드레나이 사제 아이리디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들의 활약으로 황혼의 용을 만들어냈던 고대 유물들은 파괴되었다. 직후 제어가 풀린 다르고낙스는 폭주 상태가 되어 자신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시네스트라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둘은 그림바툼의 깊은 틈새 아래로 함께 추락해버린다.

그러나 황혼의 용은 모두 죽지 않았다. 데스윙은 그 신타리아의 혈족을 찾아냈다. 그는 황혼의 용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했다. 수개월 동안 그는 죽은 배우자의 과업을 이어 수행했다.

27년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노스렌드 대륙에서 잠들어 있던 리치왕 아서스가 마침내 눈을 뜬다.

052.png

깨어나는 아서스

아서스는 한동안 자신의 정신에 남았던 넬줄의 영혼과 싸워왔다.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의 싸움에서 이겨 리치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주군이 눈을 뜨자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주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스컬지 대군은 그제서야 폭주하기 시작했고, 한때 증오를 품은 채 노스렌드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푸른용 신드라고사도 아서스에 의해 서리고룡으로 다시 깨어났다.

053.png

포효하는 스컬지

아서스는 마지막 인간성을 지닌 자신의 심장을 뽑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내려다보았다.

준비는 충분했다.

와우 스토리 9부 : 리치왕의 분노

27년

아제로스의 누구도 아직 스컬지의 위협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리치왕의 죽음의 요새가 칼림도어와 동부 왕국의 지역을 습격하여 공포와 불사의 씨앗을 뿌린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다. 리치왕 아서스는 아제로스에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야 했다. 언데드가 지배하는 세계는 부당함도, 전쟁도, 필멸자의 약점도 없었다. 그러한 뒤틀린 욕망은 자신만의 정의로 단단하게 굳었다.

001_2.png

2대 리치왕 아서스

리치왕은 노스렌드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언데드는 리치왕의 명령에 따라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영역에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수많은 도시와 마을의 식량 보급로에 언데드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스컬지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아제로스 두 진영의 영웅들은 역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시민들을 쓰러뜨려야 했다. 얼라이언스에게 그것은 로데론의 몰락의 오랜 상처가 되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호드에게는 새롭고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위협은 하나씩 차례로 오지 않았다. 리치왕과는 별개로 아제로스에 전혀 새로운 위협이 동시에 떠올랐다. 푸른용의 위상, 마법의 지배자 말리고스였다.

002.png

마법의 위상 말리고스

황천의 용 덕분에 긴 침묵에서 깨어난 말리고스는 자신의 동지로 푸른용군단을 불러들였다. 말리고스는 필멸자 마법사들이 아제로스를 망치고 있으며 그들의 만행을 막을 방법은 그들에게서 마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말리고스는 푸른용들에게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의 지맥을 찾아서 그 에너지를 자신의 동지인 <마력의 탑>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푸른용들이 명령을 따르는 동안 말리고스는 그렇게 수집하여 모은 마력의 흐름을 뒤틀린 황천으로 전달했다. 즉, 말리고스는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 지맥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 어떤 마법사도 갈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아제로스에서 비전 마법을 없애려는 생각이었다.

003_2.png

비전 마력을 아제로스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말리고스

아제로스의 마법사들은 곧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비전 마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그 마력이 노스렌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키린 토의 몇몇 강력한 마법사들이 조사에 나섰다. 그들은 마력의 탑에 이르렀고 말리고스를 직접 만났다. 푸른용의 위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말리고스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중이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비전 마법의 사용은 아제로스에, 그것도 여러 차례 불타는 군단을 끌어들였고 이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군대는 진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에너지를 남용하고 있었다.

말리고스는 이미 그 피해가 아제로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마법사들에게 보여주면서 대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놀랍게도 몇몇 고위 마법사들이 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푸른용군단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몇몇은 요구를 거부했으나 그들은 살아돌아가지 못했다. 말리고스의 편에 선 마법사들은 곧 '마법사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푸른용군단의 새로운 대의에 반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말리고스의 생각은 마법사 사냥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의롭지 않았다. 티탄들은 용의 위상에게 막대한 힘과 지식을 부여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아제로스는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언젠가 깨어나면 가장 강력한 티탄이 될 수 있는 세계 영혼을 품고 있었다.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 지맥을 뒤틀어 제거하려는 말리고스의 계획은 아제로스의 균형을 들쑥서 놓는 행위였다. 그것은 노스렌드에서부터 칼림도어와 동부 대륙의 남쪽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를 일으켰다. 무언가 손을 쓰지 않으면 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아제로스의 세계 영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

004.png

아제로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마력의 재앙

대마법사 로닌과 키린 토의 고위 마법사들은 키린 토의 일부 마법사들이 푸른용군단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와 푸른용들은 아제로스의 비전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감히 그에 맞서는 마법사들을 모두 처치하고 있었다. 말리고스가 드리운 위험은 너무도 컸기에 달라란의 마법사들은 전례 없는 일을 계획했다. 그들은 마력을 집중하여 도시 전체를 노스렌드의 하늘로 순간이동시켰다. 새롭게 유리한 위치를 점한 키린 토는 말리고스의 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른바 <마력 전쟁>의 시작이었다.

005.png

아제로스를 지키기 위한 마법사들의 사투 <마력 전쟁>

소득은 별로 없었다. 푸른용의 위상과 그의 부하들은 달라란의 마법사들이 상대하기에 너무 강력했다. 결국 키린 토는 얼라이언스와 호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리치왕과의 전쟁을 위한 병력을 나누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지만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은 마력의 탑 주변에서 푸른용군단의 방어 상황을 조사했다. 말리고스에 대해 우려가 깊었던 다른 용군단들의 대리인들도 그들과 함께했다. 필멸자와 용의 군대는 마법의 위상을 만나 파괴적인 전쟁을 중단하도록 그를 설득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것은 노골적인 적대뿐이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붉은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와 다른 용군단의 대사들이 만나 말리고스의 운명을 논의했다. 마법의 위상에 반대하는 일부 푸른용들까지 회합에 참여했다. 말리고스는 이미 너무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고 아제로스의 지맥을 흡수하여 세계의 균형을 망가뜨렸다. 죽음과 파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다. 용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들은 고룡십터 용군단을 결성해 필멸자의 편에 서서 말리고스와 맞서기로 결정했다.

006.png

아 또 내가 나서야겠느냐...

모두에게, 특히 알렉스트라자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알렉스트라자는 말리고스와 남매와도 같은 관계였다. 그리고 생명의 수호자로서 다가올 유혈 사태를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희생될 생명의 수는 상상할 수 없었다.

고룡섬터 용군단의 연합군이 마력의 탑 내부 말리고스의 요새를 공격했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이 마법의 위상을 상대하고 있을 때 알렉스트라자가 나섰다. 그녀는 직접 말리고스를 쓰러뜨렸다.

007.png

마력의 탑에서 일어난 비극

알렉스트라자는 고대로부터 친구였던 말리고스의 삶을 끝낸 것을 안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만을 느꼈다. 말리고스가 죽고 푸른용군단의 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마법의 위상 자리는 푸른용 칼렉고스가 이어받았다. 키린 토의 구성원들은 그 후 수년 동안 아제로스의 지맥에 가해진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

2

한편 스컬지의 공격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두 진영은 군대를 조직하여

노스렌드로 공격을 감행했다. 얼라이언스의 바리안 린 국왕은 성기사 볼바르 폴드라곤에게 스컬지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가 지휘하는 군대는 <용맹의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원정대는 노스렌드에 도착한 후 <울부짖는 협만>에 거점을 건설했다. 그 어둡고 악몽 같은 해안에는 호전적인 브리쿨과 위험한 영혼이 가득했다. 곧 리치왕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많은 브리쿨이 얼어붙은 왕좌에 지배당한 채 얼라이언스 수비대에 몸을 던지며 소모전을 벌였다. 얼라이언스는 폭풍우 봉우리에서 서릿결 드워프라는 조력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리치왕에게 맞섰다.

008.png

얼라이언스 선봉대를 이끄는 성기사 '볼바르 폴드라곤'

대족장 쓰랄은 가로쉬 헬스크림에게 호드 군대의 지휘를 맡겼다. 가로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했고 이미 전투에서 강렬한 지도력을 보이며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전쟁노래 공격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치며 많은 존경받은 전사들을 배출했던 전쟁노래 부족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노련한 전사 바로크 사울팽과 그의 아들, 드라노쉬 사울팽이었다. 드라노쉬는 큰 자부심을 느끼며 호드의 선봉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

호드는 <북풍의 땅>에 상륙했고 즉각 저항에 직면했다. 가로쉬 헬스크림은 호드의 내륙 진출에 핵심적인 발판이 될 대규모 전초기지의 건설을 감독하면서 스컬지 군대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 또한 가로쉬의 군대는 타우렌의 먼 조상이자 인근에 거주하던 고귀한 종족인 타운카와 함께 스컬지를 물리쳤다.

009.png

호드의 선봉을 맡은 '드라노쉬 사울팽'

그러나 칼림도어와 동부 왕국에 대한 스컬지의 공격은 사실 노스렌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다. 물론 그중에 그들이 진짜 노리는 목표도 있었다. 언데드는 동부 역병지대 경계의 <신 아발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간 마을에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그곳에 영웅들의 사체가 잠들어 있는 <희망의 빛 예배당>이 있었다.

몇 년 전 이미 켈투자드는 예배당을 한 번 노린 적이 있었다. 그곳의 영웅들을 스컬지로 깨운다면 큰 전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은빛 여명회의 활약과 다리온 모그레인의 희생으로 그 음모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리온도, 파멸의 인도자도 스컬지의 손에 있었다. 심지어 이번 스컬지의 예배당 공격을 이끄는 자는 다리온 본인이었다.

010.png

죽음의 기사가 되어 돌아온 다리온

타락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두르는 죽음의 기사 다리온은 붉은 십자군과 신 아발론의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임무를 이끌었다. 쓰러진 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은 죽음의 기사로 되살아났고 즉시 생존한 형제들을 쓰러뜨리러 나섰다.

불길과 재가 마을을 뒤덮는 가운데 다리온은 그 지역에 마지막 남은 요새인 희망의 빛 예배당으로 새로운 죽음의 기사들을 이끌었다. 그곳은 수개월 전 다리온이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고

통반는 영혼을 구원한 신성한 장소였다. 다리온을 예배당으로 다시 보낸 잔혹한 결정은 리치왕의 전략이었다. 사실 리치왕은 단 한 명의 인간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죽음의 기사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티리온 폴드링이었다.

은둔한 티리온은 노련한 성기사이자 타고난 지도자였다. 리치왕은 스컬지의 새로운 전쟁에서 티리온이 아제로스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처치하기를 바랐다. 리치왕의 예상대로 티리온은 희망이 빛 예배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티리온은 은빛 성기사단과 은빛 여명회와 함께 침략해 오는 언데드 군대에 맞서 신성한 분노를 터트렸다. 예상대로 그의 빛은 스컬지의 군대를 압도했다.

이때 리치왕이 나타나 예배당 공격은 티리온을 쓰러뜨리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자기가 먹잇감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고서 격노한 채, 주인에게 분노의 칼날을 겨누었다. 그러나 리치왕은 간단히 다리온을 물리쳤다. 리치왕은 다리온과 죽음의 기사들을 무력화시킨 다음 서리한으로 티리온 폴드링의 영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리치왕의 지배에 저항하며 어렵사리 티리온에게 타락한 파멸의 인도자를 건네주었다. 티리온 폴드링은 빛의 힘을 끌어내어 신성한 에너지로 검을 정화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둘러 예배당의 신성한 땅에서 리치왕을 간신히 몰아냈다.

011.png

은거를 끝내고 돌아온 빛의 영웅 티리온

은빛 여명회와 은빛 성기사단의 성기사들은 뒤를 따를 새로운 용사를 얻었다. 티리온은 두 단체를 통합하여 <은빛 십자군>을 만들고 리치왕을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했다. 또한 그날 전장에 쓰러진 죽음의 기사가 대부분 리치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자유 의지를 되찾은 죽음의 기사들을 규합하여 <칠흑의 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 호드와 얼라이언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진영과 함께 리치왕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죽음의 기사들과 서약을 맺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에서 그들이 귀중한 전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합은 결국 죽음의 기사들을 군대에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때 리치왕의 부하였던 그들은 곧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012.png

아군으로 편입된 다리온의 죽기 부대 <칠흑의 기사단>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각자 공격을 이끌며 점차 노스렌드의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용의 안식처의 얼어붙은 골짜기에 이르러 조악한 전초기지를 구축했을 때 스컬지가 첫 번째 대규모 반격을 감행했다. 곧 죽음의 요새 <낙스라마스>가 호드와 얼라이언스 군대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몇 번이나 쓰러뜨렸던 켈투자드가 이번에도 그 요새를 지휘하고 있었다.

켈투자드는 리치왕의 마력으로 되살아나 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었다. 켈투자드는 매우 정교하게 언데드 군대를 이끌며 호드와 얼라이언스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첩자를 이용하여 두 진영 내에서 혼돈을 유발하고 지도자들에게서 오는 중요한 정보를 차단했다. 볼바르 폴드라곤과 드라노쉬 사울팽이 이끄는 얼라이언스와 호드 선봉대가 얼음왕관 성채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지만 켈투자드의 전략으로 병력이 갈라지고 약화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켈투자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낙스라마스를 전선에 너무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과감하게 요새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말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이 낙스라마스를 덮쳤다. 그들은 요새의 내부를 파괴하고 요새의 전당에서 악을 정화했다. 일부 영웅들은 이미 한 차례 낙스라마스를 공격했던 전력이 있었으며 기꺼이 켈투자드를 다시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013.png

낙스라마스에서의 전투

결국 켈투자드는 이번에도 패했다. 켈투자드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역인 어둠땅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얼음왕관 성채에 다시 관심을 집중했다. 볼바르 폴드라곤과 드라노쉬 사울팽은 각자 스컬지와 맞서 싸우면서 언데드 군대를 더욱 안쪽으로, <용의 안식처>까지 밀어냈다. 두 지휘관은 리치왕을 상대하면서 한쪽 진영의 승리는 곧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다. 한쪽 진영에서 언데드를 공격하면 다른 진영은 또 다른 전선에서 우연히 지시를 내려 스컬지의 주의를 돌리곤 했다. 두 지휘관 사이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호 존중감이 형성되었고 미묘하게 조율된 그들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한 작전을 벌이며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얼음왕관의 남쪽 입구인 <분노의 관문>에서 만나게 되었다.

013_2.png

하나로 모인 두 진영의 진격로

분노의 관문을 확보한다면 두 진영은 원하는 때에 얼음왕관 성채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리치왕의 방어는 견고했고 그 방벽을 뚫기 위해서는 잔혹하고 큰 피해가 따르는 전투를 치러야 했다. 볼바르도 드라노쉬도 상대 진영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드디어 분노의 관문을 공격하는 날 두 진영은 전장에 모여들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 앞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스컬지 군대가 서 있었다. 잔혹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014.png

두 진영이 모두 모인 분노의 관문 전투

아제로스 연합의 강력한 단결된 힘 앞에 스컬지의 전선이 흔들렸다. 서서히 불바르와 드라노쉬는 적들을 쓰러뜨리며 분노의 관문 앞으로 길을 냈다. 승리는 달을 듯이 가까웠다. 그러나 리치왕은 적들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리치왕은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려면 두 진영이 전쟁에 지치고 찌든 상태가 되어 얼어붙은 왕좌에 도착해야 했다. 리치왕은 분노의 관문에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전투에 뛰어들었다. 리치왕의 존재만으로도 전투의 흐름이 스컬지 쪽으로 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물러서지 않고 결연히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때, 분노의 관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역병을 가득 채운 통이 모든 전사들에게 빗발치며 쏟아졌다. 전투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다. 살아 있는 자와 언데드 모두에게 치명적인 녹색 안개가 전장을 뒤덮었다. 전장에 있었던 모두가 쓰러졌다. 불바르를 포함한 약 오천 명의 얼라이언스 군대, 드라노쉬와 사천 명 이상의 호드 병력이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리치왕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리치왕은 망설임 없이 후퇴했다.

015.png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정체불명의 녹색 안개

그나마 붉은용군단이 아니었다면 역병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을 수도 있었다. 알렉스트라자와 붉은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력 깃든 불길로 그 땅을 정화했다. 쓰러진 자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으나 역병은 종식시켰다. 연기가 걷힌 후, 드라노쉬와 불바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실종은 또 다른 날을 위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분노의 관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격노했다. 모두가 그 역병의 출처

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포세이큰뿐이었다.

016.png

의심받는 포세이큰

분노의 관문에서 재앙이 발생한 후 대족장 쓰랄은 실바나스 윈드러너 여왕을 불렀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이미 쓰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중이었다. 실바나스는 언데드 반역자와 악마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켜 언더시티에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해왔다고 쓰랄에게 전했다.

사실 불타는 군단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여겨졌던 공포의 군주 바리마트라스가 그동안 실바나스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리마트라스는 군단이 뱀시 여왕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다며 뛰어난 재능을 지닌 대연금술사 퓨트리스를 설득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언데드 역병을 만들었다. 그 역병은 살아 있는 생명은 물론 스컬지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017.png

악마의 설득으로 극독을 만들어낸 연금술사 퓨트리스

쓰랄과 실바나스가 함께 반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 제이나 프라우드무어가 그들을 찾아왔다. 바리안 린 국왕이 분노의 관문 사건의 모든 책임을 호드에게 돌리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제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바리안을 설득해야 했다. 실바나스는 자신이 아는 사실

을 제이나에게 설명하고 양 진영에서 엄청난 사망자를 낸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나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바리안은 실바나스의 해명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뱀시 여왕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바리안은 기회를 발견했다. 당장 언더시티는 호드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 어쩌면 얼라이언스가 옛 로데론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었다.

018.png

항상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바쁜 제이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언더시티에 각자 공격을 개시했다. 실바나스와 쓰랄이 이끄는 호드는 반역의 배후이자 조종자인 바리마트라스를 노렸다. 바리안이 이끄는 얼라이언스 부대는 퓨트리스를 찾아 언더시티의 하수도를 습격했다.

두 임무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바리마트라스와 퓨트리스는 배신의 대가를 치렀고 패배했다. 그러나 바리안은 그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바리안은 검을 뽑아 들고서 언더시티의 왕좌로 진격해 쓰랄과 맞섰다.

018_2.png

어긋나기 시작한 두 지도자

분노의 관문 재앙의 책임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바리안은 호드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자들이었

다. 비록 리치왕의 위협이 현존해 있었지만 호드가 없다면 아제로스는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리안은 바로 그곳에서 즉시 쓰랄과 호드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019.png

호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바리안

파국의 전투가 펼쳐졌다. 그러나 제이나는 능숙하게 마법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멈춰 세운 다음 얼라이언스 군대를 언더시티 밖으로 순간이동시켰다. 덕분에 당장의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진영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아제로스를 노리는 적들은 언제나 그런 상황을 즐겼다. 예를 들면 노스렌드 유적 깊은 곳에서 막 깨어난 고대신 요그사론이 그랬다.

019_2.png

가능?

노스랜드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 고대신 요그사론은 <울두아르> 유적 지하에서 계속 힘을 모았다. 요그사론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혼돈을 보고서 크게 기뻐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리치왕과 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분노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요그사론은 두 진영이 숨겨진 스컬지의 전초기지를 뒤흔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울두아르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020.png

마침내 활동을 시작하는 요그사론

요그사론은 안퀴라즈에서 크툰이 패배했을 때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크툰과 같은 운명을 맞을 생각이 없었다. 요그사론은 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타락한 하인, 수호자 로켄이 마력 깃든 <의지의 용광로>를 재가동하여 무쇠 드워프와 브리쿨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있었다. 모두 요그사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러나 요그사론이 존재를 숨긴다고 해도 영원히 필멸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탐험가 연맹의 수장인 브란 브론즈비어드가 우연히 비밀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언포지 왕가의 셋째로, 둘째 형 무라딘 브론즈비어드와 마찬가지로 계승권을 포기하고 탐험에 인생을 건 자였다. 브란은 첫째 형 마그니처럼 대장장이 기술에 뛰어나다거나, 둘째 형 무라딘처럼 전사의 길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오로지 탐험 외길인 남자였다. (서리한 탐색 당시의 무라딘은 브란을 따라 탐험가 연맹 고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갈라졌던 것)

020_2.png

천생 탐험가 '브란'

브란은 드워프 종족의 고대 역사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서 울두아르에 이르렀고 예상보다 훨씬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브란은 간신히 목숨을 붙들고 울두아르를 탈출했다. 그리고 그 잊혀진 요새에서 살아 있는 악몽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키린 토의 로닌에게 곧장 알렸다.

로닌은 얼라이언스와 호드에게 소식을 전했다. 바리안 린, 대족장 쓰랄, 가로쉬 헬스크림이 달라란에 모여 울두아르의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협력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가로쉬와 바리안은 곧바로 대립했다. 만약 로닌이 중재하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이다.

021.png

틈만 나면 부딪히는 가로쉬와 바리안

비록 두 지휘관은 서로에게 단호했지만 많은 부하들은 울두아르의 어둠을 무시한다면 리치왕과의 전쟁도 파국을 맞으리라고 생각했다.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은 비밀을 더 밝히기 위해 브란과 함께 울두아르로 향했다. 그리고 돌의 전당이라고 알려진 부속 요새에 잠입했다. 바로 의지의 용광로가 있는 곳이었다. 수호자 로켄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인 무쇠구체자 쇼니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쇼니르는 의지의 용광로를 다루는 장인이자 요그사론 무쇠군대의 설계자였다. 얼라이언스 영웅들은 많은 위험을 극복하면서 쇼니르를 쓰러뜨렸고 요그사론의 병력 생산을 저지했다.

022.png

고대 유적 울두아르로 향한 호드와 얼라이언스

호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몇몇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울두아르의 또 다른 지구인 번개의 전당으로 향했다. 로켄은 울두아르의 그곳을 거처로 삼았고 가장 열정적인 부하들을 주위에 거느리고 있었다. 타락한 수호자 로켄과 대면한 호드의 용사들은 거의 쓰러질 뻔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며 그를 쓰러뜨렸다. 마지막 순간, 로켄은 '자신의 죽음은 아제로스의 최후를 알리는 전조'라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023.png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수호자 로켄

호드의 용사들은 수호자 로켄의 말이 매우 신경 쓰였다. 그들은 키린 토의 중재인을 통해서 의지의 용광로를 습격했던 얼라이언스 영웅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하고 로켄의 경고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즉시 경고를 전했다. 브란은 울두아르에 대해 발견한 지식을 토대로 로켄의 죽음이 아제로스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요그사론이 있는 울두아르의 심장부를 찾아야 했다.

탐험가 연맹과 키린 토는 함께 울두아르에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자고 호드와 얼라이언스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중립적인 단체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영웅들은 동의했다. 두 진영 간에는 격렬한 경쟁심이 피어올랐지만 울두아르에서 목격한 악이 건잡을 수 없이 퍼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다.

울두아르 습격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요새는 요그사론의 남은 무죄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요그사론의 영향력에 굴복한 강력한 수호자들이 그들과 함께 싸웠다. 울두아르 성채의 얼어붙은 외곽 성벽에서부터 어두운 지하의 전당까지, 요그사론의 군대를 상대로 잔혹한 전투가 펼쳐졌다.

024.png

가능!

침략자들은 마침내 고대신 요그사론의 감옥에 이르렀다. 요그사론은 광기에 찬 계시와 배신, 고통으로 그들의 정신을 난도질했다. 몇몇 영웅들은 광기에 빠져들었고 요그사론은 과거의 동료들끼리 칼을 겨누게 만들었다. 그러나 크툰을 상대했을 때 그랬듯이 아제로스의 필멸자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요그사론은 패배했고 울두아르에 대한 지배력도 사라졌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또다시 불가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울두아르 공격 동안 브란은 매우 곤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죽음이 세계의 최후를 의미한다는 수호자 로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티탄이 설계한 복구 계획의 첫 단계를 가동시켰다. 아제로스 정화 작업. 그것은 현존하는 아제로스 생명체들의 완전 말살을 뜻했다.

025.png

고대에 만들어진 행성 정화 시스템

오래전, 티탄은 수호자들에게 두 가지 마력의 장치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의지의 용광로와 시초의 용광로였다. 의지의 용광로는 울두아르에 보관되어 있었고 시초의 용광로는 울둠이라고

불리는 머나먼 남쪽 땅에 설치되어 있었다. 시초의 용광로는 북쪽에 있는 의지의 용광로와는 매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제로스가 타락에 굴복할 경우 그 장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세계의 동식물을 정화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만드는 절차를 가동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티탄들은 관찰자 알갈론이라는 이름의 별무리에게 그 과정의 감독을 맡겼다. 알갈론은 아제로스의 상태를 판단하여 세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했다.

026.png

와 동부 대륙이 저렇게 컸나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안전 확보 프로토콜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브란은 아제로스를 기다리는 운명을 막기 위해 요그사론을 처치한 용사들을 울두아르의 비밀 시설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로켄의 죽음으로 알갈론이 울두아르로 소환되었고 그는 분석 작업을 마쳤다. 고대신의 타락이 아제로스 곳곳에 퍼졌으며 심지어 울두아르와 같은 요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알갈론은 남은 방법은 아제로스에 시초의 용광로의 힘을 방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서 복구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알갈론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알갈론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의 행동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복구 계획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설령 자신을 쓰러뜨린다고 해도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필멸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위해서, 자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결국 알갈론을 항복시켰다.

알갈론은 그들의 결의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제로스는 알갈론이 정화한 첫 행성이 아니었다. 알갈론이 경험한 다른 세계의 어떤 생명체도 그 영웅들처럼 간절하게 생존을 염원하지 않았다. 알갈론은 그들이 아제로스의 타락에 직접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알갈론은 시초의 용광로가 돌아가기 전에 그 필멸자들이 복구 프로토콜을 되돌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

리고 알갈론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알갈론은 얼마간 멀리에서 아제로스를 지켜보았다.

027.png

계속 지켜볼꾸양

한편 요그사론의 정수에서 뿔어 나왔던 촉수는 사로나이트라고 불리는 기이한 광물의 형태로 아제로스의 지면에 스며들었다. 그 날카로운 물질은 노스렌드 곳곳에서 결정으로 피어났다. 리치왕은 사로나이트를 발견하고 자세히 연구했다. 그리고 사로나이트가 거의 파괴되지 않으며 여러 형태의 마법에 매우 강력한 저항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언데드 생명체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리치왕은 부하들에게 사로나이트를 사용하여 갑옷과 전쟁 기계를 만들고 노스렌드 곳곳에 성채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리치왕의 전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027_2.png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군대는 노스렌드 곳곳에서 수많은 스컬지 전초기지를 격파하면서 스컬지의 영토를 하나씩 빼앗았다. 남은 것은 얼음왕관 성채에 대한 최후의 공격뿐이었다. 리치왕은 대담하게 적들에게 얼어붙은 왕좌로 공격해 들어오라고 부추기듯이 군대의 대부분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028.png

마침내 얼음왕관 성채로 치닫는 아제로스 연합

가로쉬와 바리안이 망설임 없이 전면 공격을 하려던 찰나, 은빛십자군의 지도자 티리온 폴드링이 공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전면 공격은 리치왕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게 티리온의 의견이었다. 은빛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은 얼음왕관 성채 가까이에 소규모 거점을 마련하고서 몇 주 동안 신중하게 스컬지의 전략과 움직임을 관찰했다. 서로의 차이에도 성기사와 칠흑의 기사단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리치왕은 지상 공격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대 병사들은 전투에서 죽으면 다시 일어서서 리치왕의 하수인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티리온은 얼음왕관을 정복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소규모의 정예 돌격대가 얼음왕관 성채의 수비를 깨뜨리고 리치왕에게 나아가는 방법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티리온은 아제로스의 영웅들을 불러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실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렇게 은빛십자군 마상시합이 생겨났다.

029.png

잘도 껴맞춰...

대립하는 두 진영이었지만 모두 티리온 폴딩을 신뢰했다. 티리온은 희망의 빛 예배당을 수호하여 얼라이언스에게 모범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다. 호드는 오래전 오크 전사 아이트리그를 지켜준 그의 정의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진정성과 리치왕을 쓰러뜨리려는 순수한 열망을 의심하지 않았다. 진영을 막론하고 그의 곁에서 싸우고자 하는 영웅들은 넘쳐났다.

수많은 영웅들이 마상시합 시험에 참가했다. 곧 티리온은 그들 중에서 소수의 영웅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은빛 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의 최정예병을 모아 <젯빛 선고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리치왕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029_2.png

다 덤벼!

얼음왕관 성채를 향한 공격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비행포격선이 요새의 하늘을 가르고 나아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병력을 내려놓았다. 침입자들은 얼음왕관 성채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마침내 투영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성채의 지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 리치왕이 직접 나서자 필멸의 용사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029_3.png

등장만으로도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리치왕의 위용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다. 은빛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은 얼음왕관 성채의 주 입구에 집결지를 마련했고 아제로스의 용사들은 리치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여들었다. 얼음왕관 성채를 집어삼킨 전투는 티리온과 은빛십자군의 힘과 의지를 시험했다. 리치왕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부하들을 가까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의 영웅, 드라노쉬 사울팽을 부리고 있었다.

030.png

적으로 나타난 드라노쉬 사울팽

스컬지는 분노의 관문에서 쓰러진 자궁심 넘치는 오크 드라노쉬의 시체를 수습했다. 리치왕은 그를 죽음의 기사로 변화시켰다. 이제 드라노쉬는 과거의 동맹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고 과거의 동맹들은 그를 쓰러뜨려야 했다. 바로크 사울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서 비탄에 잠겼다. 얼라이언스의 인원들까지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해진 고통은 너무도 사악하고 잔혹했다.

555.png

어제의 동료, 가족과 싸워야 하는 고통

공격대는 수많은 얼음왕관 성채의 방어자들과 싸우며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스컬지의 군대를 베어 넘기면서 마침내 얼어붙은 왕좌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분노의 관문에서 사라진 또 다른 영웅을 만날 수 있었다. 볼바르 폴드라곤이었다. 볼바르는 붉은용군단의 마력 깃든 불꽃에 타 버린 몸으로, 얼어붙은 왕좌 위에서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드라노쉬와 마찬가지로 볼바르는 리치왕에 의해 되살려졌지만 드라노쉬처럼 쉽게 타락하지 않았다. 스컬지의 주인은 그를 어둠에 물들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고 볼바르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031.png

녹록지 않은 성기사 볼바르의 영혼

용사들은 볼바르를 풀어줄 수 없었다. 리치왕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몹시 분노했다. 리치왕이 계획한 대로였다. 그의 진정한 전리품, 아제로스의 가장 강력한 영웅들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들을 쓰러뜨리면, 다시 불사의 몸으로 일으켜 살아 있는 자들에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아제로스의 운명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리치왕은 완전한 분노를 드러냈다. 티리온과 그의 용사들은 용감하게 반격했다. 전투는 얼음왕관 성채를 바닥까지 뒤흔들었다. 리치왕은 서리한으로 몇몇 영웅의 영혼을 육체에서 벗겨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용사들은 저주받은 서리한에 갇혀서 계속 싸우면서 그 겹에 갇힌 다른 영혼들을 깨워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용사들은 승리하지 못했다. 리치왕의 힘은 그들을 압도했다. 티리온은 얼음덩어리에 갇혔고 그의 동료들은 학살당했다.

032.png

고대신을 물리친 영웅들도 어찌지 못한 리치왕의 압도적인 힘

리치왕은 승리했다. 그는 적들을 불사의 몸으로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제 스컬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리치왕은 이제 전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티리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인 의지로 얼음 감옥을 깨뜨리고 나왔다. 최후의 최후의 순간에도 그는 리치왕의 한 가지 포인트를 노리고 있었다. 리치왕의 불사의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생각이 있었다. 티리온은 방심하고 있는 리치왕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으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둘러 서리한을 파괴했다.

순간, 서리한에 갇혔던 영혼들이 풀려났다. 리치왕에게 희생된 영혼들은 잔혹한 고통을 주었던 그에게 물려들었고 정당한 복수를 이루었다. 아서스의 아버지, 테레나스 메네실 2세의 영혼이 쓰러진 용사들을 되살렸다. 그들은 새롭게 전투에 뛰어들었다. 이제 리치왕은 무력했으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아서스가 무릎을 꿇은 순간, 얼어붙은 왕좌의 타락이 스러지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리고 그는 죽음 속으로,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 내세로 빠져들었다.

034.png

응당한 업보를 받는 아서스

그러나 아직 남은 스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다. 테레나스의 영혼은 만약 강력한 의식이 언데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아제로스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티리온과 용사들에게 경고했다.

티리온은 동의했으나 누구에게도 부탁할 짐이 아니었다. 티리온은 스스로 리치왕의 투구를 집어 들고 저주받은 자들의 간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티리온이 저주받은 갑옷을 입고 운명을 봉인하기 전에 볼바르 폴드라곤이 끼어들었다.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볼바르가 티리온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섰다. 분노의 관문에서 얻은 상처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고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볼바르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전처럼 산 자들 사이에서 걸을 수 없었다. 볼바르는 아제로스를 위해서 리치왕의 투구를 쓰고 의지를 행사하여 스컬지를 통제하리라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스컬지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희망했다.

035.png

3대 리치왕이 된 볼바르 폴드라곤

몇 주 후 사람들은 스컬지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리치왕이 사라진 지금 더는 언데드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

볼바르 폴드라곤은 수많은 언데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리치왕은 그들을 살아 있는 자들의 전쟁으로 이끌었고 그 공격성은 진압하기가 어려웠다. 볼바르는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싸웠다. 볼바르는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강력한 성기사로 살았으나 리치왕의 투구를 착용한 순간 신성한 빛은 그를 버렸다. 새로운 강령술의 매력은 그의 정의감과 고결함에 대립했으며 볼바르는 언데드를 가두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스컬지 무리가 그의 지배를 벗어나기도 했다. 동부 왕국의 언데드 무리들은 감히 역병지대에 발을 들인 자들을 마구 공격했다. 그러나 스컬지에 대한 볼바르의 통제에 가장 곤혹스러운 영향을 준 것은 뜻밖의 사건, 바로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두 번째 죽음이었다.

036.png

아서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실바나스

수년 동안 실바나스는 자신의 몸에서 영혼을 거두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 노예의 신세로 변화시킨 장본인인 아서스 메네실을 쓰러뜨리겠다는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아서스는 죽었고 그녀는 그를 직접 처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고통받는 자신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실바나스는 얼음왕관 성채의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다. 실바나스는 추락 때문이 아니라 땅 속에 박혀 있었던 날카로운 사로나이트 광석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다. 리치왕과 마찬가지로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그 신비로운 광물을 발견하여 여러 가지를 실험했다. 사로나이트는 많은 흥미로운 성질이 있었다. 그중 한 가지가 언데드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이었다.

실바나스는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사후 세계에 던져졌다. 발키르라고 알려진 영혼의 존재가 그곳에서 실바나스의 영혼을 찾아 포세이큰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보호할 자가 사라진 포세이큰은 호드에게 이용당하고서 결국 멸망을 맞이했다. 발키르는 실바나스에게 제안했다. 포세이큰을 보호하기로 맹세한다면 실바나스의 영혼을 육체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대가로 발키르는 리치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꺼이 밴시 여왕을 섬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바나스는 동의했다. 그녀는 아제로스로 돌아와 포세이큰을 계속 이끌었다.

볼바르는 발키르와의 결속이 급작스럽게 끊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다시 발키르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으려 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주인을 섬기는 듯했다. 볼바르는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언데드가 살아 있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스컬지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037.png

누군가는 계속 짊어져야 할 숙업

노스랜드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군대는 승리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제로스가 지금껏 겪었던 가장 거대한 위협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그리마의 가로쉬 헬스크림은 형제들에게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와 환영을 받았다. 뛰어난 전투 사령관의 능력을 보인 가로쉬는 이제 헬스크림 혈통의 가치 있는 후손으로 여겨졌다.

038.png

오크들 사이에서 떠오른 신성, 가로쉬 헬스크림

호드의 다른 사령관인 바로크 사울팽은 노스랜드에 남아서 호드의 철수 과정을 감독했다. 드라노쉬 사울팽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바로크는 조용히 아들을 애도하고 싶었다. 다만 그의 부재는 호드에게 경험과 지도력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것은 후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777.png

27년

고대신들은 수천 년 동안, 에메랄드의 꿈을 타락에 물들이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그 에테리얼 영역에 영향력을 뻗었으며 그 결과 에메랄드 악몽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노스랜드에서 요그사론이 패배했지만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그사론의 부하들이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039.png

여전한 에메랄드 악몽의 위협

리치왕이 죽은 후 악몽은 외부 세계의 더욱 먼 곳까지 마수를 뻗었다. 아제로스의 주민들은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다. 티란데 위스퍼원드도 그러한 밤의 공포에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하나

였다. 티란데는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나이트 엘프가 숭배하는 여신인 엘룬의 계시를 목격했다. 계시 속에서, 티란데는 배우자인 말퓨리온 스톰레이지가 에메랄드의 꿈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040.png

소설 <스톰 레이저>

말퓨리온은 오랫동안 에메랄드의 꿈에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계할 만한 징후는 없었다. 많은 드루이드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영역을 탐구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을 깨웠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최근 에메랄드의 꿈에 들어간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심지어 꿈의 위상인 이세라마저 영원한 꿈에 갇혀 있었다.

041.png

녹색용의 이모 위상 '이세라'

말퓨리온이 자리를 비운 동안 세나리온 의회의 지도자를 맡았던 판드랄 스테그헬름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드랄은 세계수 텔드랏실에 스며든 타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서 세계수가 에메랄드 악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악몽은 이미 텔드랏실에 스며들었고 판드랄은 다른 나이트 엘프에게서 악몽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판드랄은 계락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가 텔드랏실을 보호하고 악몽의 손길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 틀림없이 말퓨리온을 구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에메랄드의 꿈에 들어가서 직접 말퓨리온을 찾아 나섰다. 얼마 후 티란데는 말퓨리온이 고대의 적, 악몽의 군주 자비우스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비우스는 고대신의 부름에 응했으나 자신의 하수인을 다수 거느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판드랄 스태그헬름이었다. 오래전, 자비우스는 판드랄의 죽은 아들, 발스탄 스태그헬름이 아직 살아있다고 설득하여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었다.

티란데는 최근 사건에서 판드랄의 행적을 접하고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깨달았다. 텔드랏실이 악몽의 의해 타락했으며 판드랄은 다른 나이트 엘프들에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티란데는 동료들과 함께 싸워 말퓨리온을 구했다. 말퓨리온이 꿈에서 깨어난 후 그들은 자비우스와 악몽을 상대로 공격에 나섰다.

042.png

본색을 드러낸 공허의 노예 자비우스

결국, 자비우스는 쓰러졌고 악몽은 에메랄드의 꿈에서 거의 정확되었다. 그러나 티란데도 말퓨리온도 악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알른의 균열'이라고 불리는 에메랄드의 꿈의 한구석에 자비우스의 영혼과 함께 그 타락을 봉인했다. 그들은 악몽이 그곳에 갇혀 있기를 바랐지만 언젠가는 빠져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043.png

눈앞의 불만 꺼둔 에메랄드 악몽의 위협

에메랄드의 꿈에서 승리를 거두자, 악몽 속에서 고통받던 많은 이들도 영원히 해방되었다. 이 세라도 영원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녀의 귀환을 기리는 '깨어난 여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대드루이드 판드랄에 대한 악몽의 지배력은 깨졌으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은 치유할 수 없었다. 판드랄은 광기에 빠져들었고 세나리온 의회의 드루이드들조차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마음대로 바깥을 떠돌도록 놓아둘 수 없었던 그들은 판드랄을 지하굴에 가두었다.

악몽이 패배한 후, 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와 이세라는 텔드랏실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텔드랏실이 악몽의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마법의 축복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텔드랏실이 어둠의 악몽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자의 손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와우 스토리 9부 : 리치왕의 분노

27년

아제로스의 누구도 아직 스컬지의 위협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리치왕의 죽음의 요새가 칼림도어와 동부 왕국의 지역을 습격하여 공포와 불사의 씨앗을 뿌린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다. 리치왕 아서스는 아제로스에 새로운 질서를 구현해야 했다. 언데드가 지배하는 세계는 부당함도, 전쟁도, 필멸자의 약점도 없었다. 그러한 뒤틀린 욕망은 자신만의 정의로 단단하게 굳었다.

001_2.png

2대 리치왕 아서스

리치왕은 노스랜드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언데드는 리치왕의 명령에 따라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영역에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수많은 도시와 마을의 식량 보급로에 언데드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스컬지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아제로스 두 진영의 영웅들은 역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시민들을 쓰러뜨려야 했다. 얼라이언스에게 그것은 로데론의 몰락의 오랜 상처가 되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호드에게는 새롭고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위협은 하나씩 차례로 오지 않았다. 리치왕과는 별개로 아제로스에 전혀 새로운 위협이 동시에 떠올랐다. 푸른용의 위상, 마법의 지배자 말리고스였다.

002.png

마법의 위상 말리고스

황천의 용 덕분에 긴 침묵에서 깨어난 말리고스는 자신의 동지로 푸른용군단을 불러들였다. 말리고스는 필멸자 마법사들이 아제로스를 망치고 있으며 그들의 만행을 막을 방법은 그들에게서 마법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말리고스는 푸른용들에게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의 지맥을 찾아서 그 에너지를 자신의 동지인 <마력의 탑>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푸른용들이 명령을 따르는 동안 말리고스는 그렇게 수집하여 모은 마력의 흐름을 뒤틀린 황천으로 전달했다. 즉, 말리고스는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 지맥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 어떤 마법사도 갈 수 없는 곳에서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아제로스에서 비전 마법을 없애려는 생각이 었다.

003_2.png

비전 마력을 아제로스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말리고스

아제로스의 마법사들은 곧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익숙하게 사용하던 비전 마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그 마력이 노스렌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麒麟 토의 몇몇 강력한 마법사들이 조사에 나섰다. 그들은 마력의 탑에 이르렀고 말리고스를 직접 만났다. 푸른용의 위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말리고스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중이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비전 마법의 사용은 아제로스에, 그것도 여러 차례 불타는 군단을 끌어들이고 이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군대는 진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에너지를 남용하고 있었다.

말리고스는 이미 그 피해가 아제로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마법사들에게 보여주면서 대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놀랍게도 몇몇 고위 마법사들이 그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푸른용군단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몇몇은 요구를 거부했으나 그들은 살아돌아가지 못했다. 말리고스의 편에 선 마법사들은 곧 '마법사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푸른용군단의 새로운 대의에 반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말리고스의 생각은 마법사 사냥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의롭지 않았다. 티탄들은 용의 위상에게 막대한 힘과 지식을 부여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 아제로스는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언젠가 깨어나면 가장 강력한 티탄이 될 수 있는 세계 영혼을 품고 있었다. 아제로스의 모든 마법 지맥을 뒤틀어 제거하려는 말리고스의 계획은 아제로스의 균형을 들쭉서 놓는 행위였다. 그것은 노스렌드에서부터 칼림도어와 동부 대륙의 남쪽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를 일으켰다. 무언가 손을 쓰지 않으면 재앙은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아제로스의 세계 영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

004.png

아제로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마력의 재앙

대마법사 로닌과 키린 토의 고위 마법사들은 키린 토의 일부 마법사들이 푸른용군단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그와 푸른용들은 아제로스의 비전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감히 그에 맞서는 마법사들을 모두 처치하고 있었다. 말리고스가 드리운 위험은 너무도 컸기에 달라란의 마법사들은 전례 없는 일을 계획했다. 그들은 마력을 집중하여 도시 전체를 노스렌드의 하늘로 순간이동시켰다. 새롭게 유리한 위치를 점한 키린 토는 말리고스의 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른바 <마력 전쟁>의 시작이었다.

005.png

아제로스를 지키기 위한 마법사들의 사투 <마력 전쟁>

소득은 별로 없었다. 푸른용의 위상과 그의 부하들은 달라란의 마법사들이 상대하기에 너무 강력했다. 결국 키린 토는 얼라이언스와 호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리치왕과의 전쟁을 위한 병력을 나누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지만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은 마력의 탑 주변에서 푸른용군단의 방어 상황을 조사했다. 말리고스에 대해 우려가 깊었던 다른 용군단들의 대리인들도 그들과 함께했다. 필멸자와 용의 군대는 마법의 위상을 만나 파괴적인 전쟁을 중단하도록 그를 설득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것은 노골적인 적대뿐이었다.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붉은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와 다른 용군단의 대사들이 만나 말리고스의 운명을 논의했다. 마법의 위상에 반대하는 일부 푸른용들까지 회합에 참여했다. 말리고스는 이미 너무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고 아제로스의 지맥을 흡수하여 세계의 균형을 망가

뜨렸다. 죽음과 파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지만 했다. 용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들은 고룡쉽터 용군단을 결성해 필멸자의 편에 서서 말리고스와 맞서기로 결정했다.

006.png

아 또 내가 나서야겠느냐...

모두에게, 특히 알렉스트라자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알렉스트라자는 말리고스와 남매와도 같은 관계였다. 그리고 생명의 수호자로서 다가올 유혈 사태를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희생될 생명의 수는 상상할 수 없었다.

고룡쉽터 용군단의 연합군이 마력의 탑 내부 말리고스의 요새를 공격했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이 마법의 위상을 상대하고 있을 때 알렉스트라자가 나섰다. 그녀는 직접 말리고스를 쓰러뜨렸다.

007.png

마력의 탑에서 일어난 비극

알렉스트라자는 고대로부터 친구였던 말리고스의 삶을 끝낸 것을 안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만을 느꼈다. 말리고스가 죽고 푸른용군단의 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마법의 위상 자리는 푸른용 칼렉고스가 이어받았다. 키린 토의 구성원들은 그 후 수년 동안 아제로스의 지맥에 가해진 피해를 복구해야 했다.

한편 스컬지의 공격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두 진영은 군대를 조직하여 노스렌드로 공격을 감행했다. 얼라이언스의 바리안 린 국왕은 성기사 볼바르 폴드라곤에게 스컬지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가 지휘하는 군대는 <용맹의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원정대는 노스렌드에 도착한 후 <울부짖는 협만>에 거점을 건설했다. 그 어둡고 악몽 같은 해안에는 호전적인 브리쿨과 위험한 영혼이 가득했다. 곧 리치왕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많은 브리쿨이 얼어붙은 왕좌에 지배당한 채 얼라이언스 수비대에 몸을 던지며 소모전을 벌였다. 얼라이언스는 폭풍우 봉우리에서 서릿결 드워프라는 조력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리치왕에게 맞섰다.

008.png

얼라이언스 선봉대를 이끄는 성기사 '볼바르 폴드라곤'

대족장 쓰랄은 가로쉬 헬스크림에게 호드 군대의 지휘를 맡겼다. 가로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했고 이미 전투에서 강렬한 지도력을 보이며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전쟁노래 공격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치며 많은 존경받은 전사들을 배출했던 전쟁노래 부족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노련한 전사 바로크 사울팽과 그의 아들, 드라노쉬 사울팽이었다. 드라노쉬는 큰 자부심을 느끼며 호드의 선봉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

호드는 <북풍의 땅>에 상륙했고 즉각 저항에 직면했다. 가로쉬 헬스크림은 호드의 내륙 진출에 핵심적인 발판이 될 대규모 전초기지의 건설을 감독하면서 스컬지 군대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 또한 가로쉬의 군대는 타우렌의 먼 조상이자 인근에 거주하던 고귀한 종족인 타운카와 함께 스컬지를 물리쳤다.

009.png

호드의 선봉을 맡은 '드라노쉬 사울팽'

그러나 칼림도어와 동부 왕국에 대한 스컬지의 공격은 사실 노스렌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다. 물론 그중에 그들이 진짜 노리는 목표도 있었다. 언데드는 동부 역병지대 경계의 <신 아발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간 마을에 전면 공격을 감행했다. 그곳에 영웅들의 사체가 잠들어 있는 <희망의 빛 예배당>이 있었다.

몇 년 전 이미 켈투자드는 예배당을 한 번 노린 적이 있었다. 그곳의 영웅들을 스컬지로 깨운다면 큰 전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은빛 여명회의 활약과 다리온 모그레인의 희생으로 그 음모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리온도, 파멸의 인도자도 스컬지의 손에 있었다. 심지어 이번 스컬지의 예배당 공격을 이끄는 자는 다리온 본인이었다.

010.png

죽음의 기사가 되어 돌아온 다리온

타락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두르는 죽음의 기사 다리온은 붉은 십자군과 신 아발론의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는 임무를 이끌었다. 쓰러진 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은 죽음의 기사로 되살아났고 즉시 생존한 형제들을 쓰러뜨리러 나섰다.

불길과 재가 마을을 뒤덮는 가운데 다리온은 그 지역에 마지막 남은 요새인 희망의 빛 예배당으로 새로운 죽음의 기사들을 이끌었다. 그곳은 수개월 전 다리온이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한 신성한 장소였다. 다리온을 예배당으로 다시 보낸 잔혹한 결정은 리치왕의 전략이었다. 사실 리치왕은 단 한 명의 인간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죽음의 기사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티리온 폴드링이었다.

은둔한 티리온은 노련한 성기사이자 타고난 지도자였다. 리치왕은 스컬지의 새로운 전쟁에서 티리온이 아제로스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처치하기를 바랐다. 리치왕의 예상대로 티리온은 희망의 빛 예배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티리온은 은빛 성기사단과 은빛 여명회와 함께 침략해 오는 언데드 군대에 맞서 신성한 분노를 터트렸다. 예상대로 그의 빛은 스컬지의 군대를 압도했다.

이때 리치왕이 나타나 예배당 공격은 티리온을 쓰러뜨리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자기가 먹잇감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고서 격노한 채, 주인에게 분노의 칼날을 겨누었다. 그러나 리치왕은 간단히 다리온을 물리쳤다. 리치왕은 다리온과 죽음의 기사들을 무력화시킨 다음 서리한으로 티리온 폴드링의 영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리치왕의 지배에 저항하며 어렵사리 티리온에게 타락한 파멸의 인도자를 건네주었다. 티리온 폴드링은 빛의 힘을 끌어내어 신성한 에너지로 검을 정화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둘러 예배당의 신성한 땅에서 리치왕을 간신히 몰아냈다.

011.png

은거를 끝내고 돌아온 빛의 영웅 티리온

은빛 여명회와 은빛 성기사단의 성기사들은 뒤를 따를 새로운 용사를 얻었다. 티리온은 두 단체를 통합하여 <은빛 십자군>을 만들고 리치왕을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했다. 또한 그날 전장에 쓰러진 죽음의 기사가 대부분 리치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다리온 모그레인은 자유 의지를 되찾은 죽음의 기사들을 규합하여 <칠흑의 기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 호드와 얼라이언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진영과 함께 리치왕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죽음의 기사들과 서약을 맺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에서 그들이 귀중한 전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합은 결국 죽음의 기사들을 군대에 받아들였다. 이로써 한때 리치왕의 부하였던 그들은 곧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012.png

아군으로 편입된 다리온의 죽기 부대 <칠흑의 기사단>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각자 공격을 이끌며 점차 노스렌드의 안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용의 안식처의 얼어붙은 골짜기에 이르러 조악한 전초기지를 구축했을 때 스컬지가 첫 번째 대규모 반격을 감행했다. 곧 죽음의 요새 <낙스라마스>가 호드와 얼라이언스 군대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몇 번이나 쓰러뜨렸던 켈투자드가 이번에도 그 요새를 지휘하고 있었다.

켈투자드는 리치왕의 마력으로 되살아나 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었다. 켈투자드는 매우 정교하게 언데드 군대를 이끌며 호드와 얼라이언스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첩자를 이용하여 두 진영 내에서 혼돈을 유발하고 지도자들에게서 오는 중요한 정보를 차단했다. 볼바르 폴드라곤과 드라노쉬 사울팽이 이끄는 얼라이언스와 호드 선봉대가 얼음왕관 성채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지만 켈투자드의 전략으로 병력이 갈라지고 약화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켈투자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낙스라마스를 전선에 너무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과감하게 요새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말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이 낙스라마스를 덮쳤다. 그들은 요새의 내부를 파괴하고 요새의 전당에서 악을 정화했다. 일부 영웅들은 이미 한 차례 낙스라마스를 공격했던 전력이 있었으며 기꺼이 켈투자드를 다시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013.png

낙스라마스에서의 전투

결국 켈투자드는 이번에도 패했다. 켈투자드의 영혼이 죽은 자의 영역인 어둠땅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얼음왕관 성채에 다시 관심을 집중했다. 볼바르 폴드라곤과 드라노쉬 사울팽은 각자 스컬지와 맞서 싸우면서 언데드 군대를 더욱 안쪽으로, <용의 안식처>까지 밀어냈다. 두 지휘관은 리치왕을 상대하면서 한쪽 진영의 승리는 곧 모두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다. 한쪽 진영에서 언데드를 공격하면 다른 진영은 또 다른 전선에서 우연히 지시를 내려 스컬지의 주의를 돌리곤 했다. 두 지휘관 사이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호 존중감이 형성되었고 미묘하게 조율된 그들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한 작전을 벌이며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얼음왕관의 남쪽 입구인 <분노의 관문>에서 만나게 되었다.

013_2.png

하나로 모인 두 진영의 진격로

분노의 관문을 확보한다면 두 진영은 원하는 때에 얼음왕관 성채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리치왕의 방어는 견고했고 그 방벽을 뚫기 위해서는 잔혹하고 큰 피해가 따르는 전투를 치러야 했다. 볼바르도 드라노쉬도 상대 진영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드디어 분노의 관문을 공격하는 날 두 진영은 전장에 모여들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 앞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스컬지 군대가 서 있었다. 잔혹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014.png

두 진영이 모두 모인 분노의 관문 전투

아제로스 연합의 강력한 단결된 힘 앞에 스컬지의 전선이 흔들렸다. 서서히 볼바르와 드라노쉬는 적들을 쓰러뜨리며 분노의 관문 앞으로 길을 냈다. 승리는 닿을 듯이 가까웠다. 그러나 리치왕은 적들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리치왕은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려면 두 진영이 전쟁에 지치고 찢든 상태가 되어 얼어붙은 왕좌에 도착해야 했다. 리치왕은 분노의 관문에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전투에 뛰어들었다. 리치왕의 존재만으로도 전투의 흐름이 스컬지 쪽으로 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물러서지 않고 결연히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때, 분노의 관문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역병을 가득 채운 통이 모든 전사들에게 빗발치며 쏟아졌다. 전투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다. 살아 있는 자와 언데드 모두에게 치명적인 녹색 안개가 전장을 뒤덮었다. 전장에 있었던 모두가 쓰러졌다. 볼바르를 포함한 약 오천 명의 얼라이언스 군대, 드라노쉬와 사천 명 이상의 호드 병력이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리치왕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리치왕은 망설임 없이 후퇴했다.

015.png

피아를 가리지 않는 정체불명의 녹색 안개

그나마 붉은용군단이 아니었다면 역병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을 수도 있었다. 알렉스트라자와 붉은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력 깃든 불길로 그 땅을 정화했다. 쓰러진 자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으나 역병은 종식시켰다. 연기가 걷힌 후, 드라노쉬와 볼바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실종은 또 다른 날을 위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분노의 관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격노했다. 모두가 그 역병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포세이큰뿐이었다.

016.png

의심받는 포세이큰

분노의 관문에서 재앙이 발생한 후 대족장 쓰랄은 실바나스 윈드러너 여왕을 불렀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이미 쓰랄을 만나기 위해 오는 중이었다. 실바나스는 언데드 반역자와 악마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켜 언더시티에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해왔다고 쓰랄에게 전했다.

사실 불타는 군단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여겨졌던 공포의 군주 바리마트라스가 그동안 실바나스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리마트라스는 군단이 밴시 여왕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다며 뛰어난 재능을 지닌 대연금술사 퓨트리스를 설득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언데드 역병을 만들었다. 그 역병은 살아 있는 생명은 물론 스컬지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017.png

악마의 설득으로 극독을 만들어낸 연금술사 퓨트리스

쓰랄과 실바나스가 함께 반격할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 제이나 프라우드무어가 그들을 찾아왔다. 바리안 린 국왕이 분노의 관문 사건의 모든 책임을 호드에게 돌리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제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바리안을 설득해야 했다. 실바나스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제이나에게 설명하고 양 진영에서 엄청난 사망자를 낸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나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바리안은 실바나스의 해명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뱀시 여왕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바리안은 기회를 발견했다. 당장 언더시티는 호드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 어쩌면 얼라이언스가 옛 로데론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었다.

018.png

항상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바쁜 제이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언더시티에 각자 공격을 개시했다. 실바나스와 쓰랄이 이끄는 호드는 반역의 배후이자 조종자인 바리마트라스를 노렸다. 바리안이 이끄는 얼라이언스 부대는 퓨트리스를 찾아 언더시티의 하수도를 습격했다.

두 임무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바리마트라스와 퓨트리스는 배신의 대가를 치렀고 패배했다. 그러나 바리안은 그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바리안은 검을 뽑아 들고서 언더시티의 왕좌로 진격해 쓰랄과 맞섰다.

018_2.png

어긋나기 시작한 두 지도자

분노의 관문 재앙의 책임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바리안은 호드를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비록 리치왕의 위협이 현존해 있었지만 호드가 없다면 아제로스는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리안은 바로 그곳에서 즉시 쓰랄과 호드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019.png

호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바리안

파국의 전투가 펼쳐졌다. 그러나 제이나는 능숙하게 마법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멈춰 세운 다음 얼라이언스 군대를 언더시티 밖으로 순간이동시켰다. 덕분에 당장의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진영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아제로스를 노리는 적들은 언제나 그런 상황을 즐겼다. 예를 들면 노스랜드 유적 깊은 곳에서 막 깨어난 고대신 요그사론이 그랬다.

019_2.png

가능?

3

노스랜드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 고대신 요그사론은 <울두아르> 유적 지하에서 계속 힘을 모았다. 요그사론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혼돈을 보고서 크게 기뻐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리치왕과 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분노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요그사론은 두 진영이 숨겨진 스컬지의 전초기지를 뒤흔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울두아르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020.png

마침내 활동을 시작하는 요그사론

요그사론은 안퀴라즈에서 크툰이 패배했을 때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크툰과

같은 운명을 맞을 생각이 없었다. 요그사론은 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타락한 하인, 수호자 로켄이 마력 깃든 <의지의 용광로>를 재가동하여 무쇠 드워프와 브리쿨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있었다. 모두 요그사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러나 요그사론이 존재를 숨긴다고 해도 영원히 필멸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탐험가 연맹의 수장인 브란 브론즈비어드가 우연히 비밀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언포지 왕가의 셋째로, 둘째 형 무라딘 브론즈비어드와 마찬가지로 계승권을 포기하고 탐험에 인생을 건 자였다. 브란은 첫째 형 마그니처럼 대장장이 기술에 뛰어나다거나, 둘째 형 무라딘처럼 전사의 길에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오로지 탐험 외길인 남자였다. (서리한 탐색 당시의 무라딘은 브란을 따라 탐험가 연맹 고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갈라졌던 것)

020_2.png

천생 탐험가 '브란'

브란은 드워프 종족의 고대 역사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면서 울두아르에 이르렀고 예상보다 훨씬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브란은 간신히 목숨을 붙들고 울두아르를 탈출했다. 그리고 그 잊혀진 요새에서 살아 있는 악몽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키린 토의 로닌에게 곧장 알렸다.

로닌은 얼라이언스와 호드에게 소식을 전했다. 바리안 린, 대족장 쓰랄, 가로쉬 헬스크림이 달라란에 모여 울두아르의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협력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가로쉬와 바리안은 곧바로 대립했다. 만약 로닌이 중재하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이다.

021.png

틈만 나면 부딪히는 가로쉬와 바리안

비록 두 지휘관은 서로에게 단호했지만 많은 부하들은 울두아르의 어둠을 무시한다면 리치왕과의 전쟁도 파국을 맞으리라고 생각했다.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은 비밀을 더 밝히기 위해 브란과 함께 울두아르로 향했다. 그리고 돌의 전당이라고 알려진 부속 요새에 잠입했다. 바로 의지의 용광로가 있는 곳이었다. 수호자 로켄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하나인 무쇠구체자 쇼니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쇼니르는 의지의 용광로를 다루는 장인이자 요그사론 무쇠군대의 설계자였다. 얼라이언스 영웅들은 많은 위험을 극복하면서 쇼니르를 쓰러뜨렸고 요그사론의 병력 생산을 저지했다.

022.png

고대 유적 울두아르로 향한 호드와 얼라이언스

호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몇몇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울두아르의 또 다른 지구인 번개의 전당으로 향했다. 로켄은 울두아르의 그곳을 거처로 삼았고 가장 열정적인 부하들을 주위에 거느리고 있었다. 타락한 수호자 로켄과 대면한 호드의 용사들은 거의 쓰러질 뻔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며 그를 쓰러뜨렸다. 마지막 순간, 로켄은 '자신의 죽음은 아제로스의 최후를 알리는 전조'라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023.png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수호자 로켄

호드의 용사들은 수호자 로켄의 말이 매우 신경 쓰였다. 그들은 키린 토의 중재인을 통해서 의지의 용광로를 습격했던 얼라이언스 영웅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하고 로켄의 경고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즉시 경고를 전했다. 브란은 울두아르에 대해 발견한 지식을 토대로 로켄의 죽음이 아제로스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요그사론이 있는 울두아르의 심장부를 찾아야 했다.

탐험가 연맹과 키린 토는 함께 울두아르에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자고 호드와 얼라이언스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중립적인 단체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영웅들은 동의했다. 두 진영 간에는 격렬한 경쟁심이 피어올랐지만 울두아르에서 목격한 악이 견잡을 수 없이 퍼지도록 방지할 수는 없었다.

울두아르 습격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요새는 요그사론의 남은 무죄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요그사론의 영향력에 굴복한 강력한 수호자들이 그들과 함께 싸웠다. 울두아르 성채의 얼어붙은 외곽 성벽에서부터 어두운 지하의 전당까지, 요그사론의 군대를 상대로 잔혹한 전투가 펼쳐졌다.

024.png

가능!

침략자들은 마침내 고대신 요그사론의 감옥에 이르렀다. 요그사론은 광기에 찬 계시와 배신, 고통으로 그들의 정신을 난도질했다. 몇몇 영웅들은 광기에 빠져들었고 요그사론은 과거의 동료들끼리 칼을 겨누게 만들었다. 그러나 크툰을 상대했을 때 그랬듯이 아제로스의 필멸자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요그사론은 패배했고 울두아르에 대한 지배력도 사라졌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또다시 불가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울두아르 공격 동안 브란은

매우 곤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죽음이 세계의 최후를 의미한다는 수호자 로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티탄이 설계한 복구 계획의 첫 단계를 가동시켰다. 아제로스 정화 작업. 그것은 현존하는 아제로스 생명체들의 완전 말살을 뜻했다.

025.png

고대에 만들어진 행성 정화 시스템

오래전, 티탄은 수호자들에게 두 가지 마력의 장치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의지의 용광로와 시초의 용광로였다. 의지의 용광로는 울두아르에 보관되어 있었고 시초의 용광로는 울둠이라고 불리는 머나먼 남쪽 땅에 설치되어 있었다. 시초의 용광로는 북쪽에 있는 의지의 용광로와는 매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제로스가 타락에 굴복할 경우 그 장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세계의 동식물을 정화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만드는 절차를 가동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티탄들은 관찰자 알갈론이라는 이름의 별 무리에게 그 과정의 감독을 맡겼다. 알갈론은 아제로스의 상태를 판단하여 세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했다.

026.png

와 동부 대륙이 저렇게 컸나

브란 브론즈비어드는 안전 확보 프로토콜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브란은 아제로스를 기다리는 운명을 막기 위해 요그사론을 처치한 용사들을 울두아르의 비밀 시설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로켄의 죽음으로 알갈론이 울두아르로 소환되었고 그는 분석 작업을 마쳤다. 고

대신의 타락이 아제로스 곳곳에 퍼졌으며 심지어 올두아르와 같은 요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알갈론은 남은 방법은 아제로스에 시초의 용광로의 힘을 방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서 복구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알갈론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알갈론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의 행동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복구 계획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설령 자신을 쓰러뜨린다고 해도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필멸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을 위해서, 자신들의 친구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결국 알갈론을 항복시켰다.

알갈론은 그들의 결의에 마음이 움직였다. 아제로스는 알갈론이 정화한 첫 행성이 아니었다. 알갈론이 경험한 다른 세계의 어떤 생명체도 그 영웅들처럼 간절하게 생존을 염원하지 않았다. 알갈론은 그들이 아제로스의 타락에 직접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알갈론은 시초의 용광로가 돌아가기 전에 그 필멸자들이 복구 프로토콜을 되돌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알갈론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알갈론은 얼마간 멀리에서 아제로스를 지켜보았다.

027.png

계속 지켜볼꾸양

한편 요그사론의 정수에서 뿔어 나왔던 촉수는 사로나이트라고 불리는 기이한 광물의 형태로 아제로스의 지면에 스며들었다. 그 날카로운 물질은 노스렌드 곳곳에서 결정으로 피어났다. 리치왕은 사로나이트를 발견하고 자세히 연구했다. 그리고 사로나이트가 거의 파괴되지 않으며 여러 형태의 마법에 매우 강력한 저항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언데드 생명체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리치왕은 부하들에게 사로나이트를 사용하여 갑옷과 전쟁 기계를 만들고 노스렌드 곳곳에 성채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리치왕의 전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027_2.png

4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군대는 노스랜드 곳곳에서 수많은 스컬지 전초기지를 격파하면서 스컬지의 영토를 하나씩 빼앗았다. 남은 것은 얼음왕관 성채에 대한 최후의 공격뿐이었다. 리치왕은 대담하게 적들에게 얼어붙은 왕좌로 공격해 들어오라고 부추기듯이 군대의 대부분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028.png

마침내 얼음왕관 성채로 치닫는 아제로스 연합

가로쉬와 바리안이 망설임 없이 전면 공격을 하려던 찰나, 은빛십자군의 지도자 티리온 폴드링이 공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전면 공격은 리치왕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게 티리온의 의견이었다. 은빛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은 얼음왕관 성채 가까이에 소규모 거점을 마련하고서 몇 주 동안 신중하게 스컬지의 전략과 움직임을 관찰했다. 서로의 차이에도 성기사와 칠흑의 기사단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리치왕은 지상 공격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대 병사들은 전투에서 죽으면 다시 일어서서 리치왕의 하수인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티리온은 얼음왕관을 정복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소규모의 정예 돌격대가 얼음왕관 성채의 수비를 꿰뚫고 리치왕에게 나아가는 방법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티리온은 아제로스의 영웅들을 불러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실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렇게 은빛십자군 마상시합이 생겨났다.

029.png

잘도 꺾맞춰...

대립하는 두 진영이었지만 모두 티리온 폴드링을 신뢰했다. 티리온은 희망의 빛 예배당을 수호하여 얼라이언스에게 모범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다. 호드는 오래전 오크 전사 아이트리그를 지켜준 그의 정의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의 진정성과 리치왕을 쓰러뜨리려는 순수한 열망을 의심하지 않았다. 진영을 막론하고 그의 곁에서 싸우고자 하는 영웅들은 넘쳐났다.

수많은 영웅들이 마상시합 시험에 참가했다. 곧 티리온은 그들 중에서 소수의 영웅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은빛 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의 최정예병을 모아 <젯빛 선고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리치왕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029_2.png

다 덤벼!

얼음왕관 성채를 향한 공격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비행포격선이 요새의 하늘을 가르고 나아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병력을 내려놓았다. 침입자들은 얼음왕관 성채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마침내 투영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성채의 지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 리치왕이 직접 나서자 필멸의 용사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029_3.png

등장만으로도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리치왕의 위용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다. 은빛십자군과 칠흑의 기사단은 얼음왕관 성채의 주 입구에 집결지를 마련했고 아제로스의 용사들은 리치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여들었다. 얼음왕관 성채를 집어삼킨 전투는 티리온과 은빛십자군의 힘과 의지를 시험했다. 리치왕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부하들을 가까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의 영웅, 드라노쉬 사울팽을 부리고 있었다.

030.png

적으로 나타난 드라노쉬 사울팽

스컬지는 분노의 관문에서 쓰러진 자궁심 넘치는 오크 드라노쉬의 시체를 수습했다. 리치왕은 그를 죽음의 기사로 변화시켰다. 이제 드라노쉬는 과거의 동맹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고 과거의 동맹들은 그를 쓰러뜨려야 했다. 바로크 사울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서 비탄에 잠겼다. 얼라이언스의 인원들까지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해진 고통은 너무도 사악하고 잔혹했다.

555.png

어제의 동료, 가족과 싸워야 하는 고통

공격대는 수많은 얼음왕관 성채의 방어자들과 싸우며 계속 나아갔다. 그들은 스컬지의 군대를 베어 넘기면서 마침내 얼어붙은 왕좌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분노의 관문에서 사라진 또 다른 영웅을 만날 수 있었다. 볼바르 폴드라곤이었다. 볼바르는 붉은용군단의 마력 깃든 불꽃에 타버린 몸으로, 얼어붙은 왕좌 위에서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드라노쉬와 마찬가지로 볼바르는 리치왕에 의해 되살려졌지만 드라노쉬처럼 쉽게 타락하지 않았다. 스컬지의 주인은 그를 어둠에 물들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고 볼바르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031.png

녹록지 않은 성기사 볼바르의 영혼

용사들은 불바르를 풀어줄 수 없었다. 리치왕을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다.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몹시 분노했다. 리치왕이 계획한 대로였다. 그의 진정한 전리품, 아제로스의 가장 강력한 영웅들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들을 쓰러뜨리면, 다시 불사의 몸으로 일으켜 살아 있는 자들에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아제로스의 운명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리치왕은 완전한 분노를 드러냈다. 티리온과 그의 용사들은 용감하게 반격했다. 전투는 얼음 왕관 성채를 바닥까지 뒤흔들었다. 리치왕은 서리한으로 몇몇 영웅의 영혼을 육체에서 벗겨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용사들은 저주받은 서리한에 갇혀서 계속 싸우면서 그 겹에 갇힌 다른 영혼들을 깨워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용사들은 승리하지 못했다. 리치왕의 힘은 그들을 압도했다. 티리온은 얼음덩어리에 갇혔고 그의 동료들은 학살당했다.

032.png

고대신을 물리친 영웅들도 어찌지 못한 리치왕의 압도적인 힘

리치왕은 승리했다. 그는 적들을 불사의 몸으로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제 스컬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리치왕은 이제 전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티리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인 의지로 얼음 감옥을 깨뜨리고 나왔다. 최후의 최후의 순간에도 그는 리치왕의 한 가지 포인트를 노리고 있었다. 리치왕의 불사의 육체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생각이 있었다. 티리온은 방심하고 있는 리치왕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으로 파멸의 인도자를 휘둘러 서리한을 파괴했다.

순간, 서리한에 갇혔던 영혼들이 풀려났다. 리치왕에게 희생된 영혼들은 잔혹한 고통을 주었던 그에게 물려들었고 정당한 복수를 이루었다. 아서스의 아버지, 테레나스 메네실 2세의 영혼이 쓰러진 용사들을 되살렸다. 그들은 새롭게 전투에 뛰어들었다. 이제 리치왕은 무력했으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아서스가 무릎을 꿇은 순간, 얼어붙은 왕좌의 타락이 스러지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최악의 무계에 짓눌렸다. 그리고 그는 죽음 속으로, 용사가 허락되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 내세로 빠져들었다.

034.png

응당한 업보를 받는 아서스

그러나 아직 남은 스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었다. 테레나스의 영혼은 만약 강력한 의식이 언데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아제로스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티리온과 용사들에게 경고했다.

티리온은 동의했으나 누구에게도 부탁할 짐이 아니었다. 티리온은 스스로 리치왕의 투구를 집어 들고 저주받은 자들의 간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티리온이 저주받은 갑옷을 입고 운명을 봉인하기 전에 볼바르 폴드라곤이 끼어들었다.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볼바르가 티리온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섰다. 분노의 관문에서 얻은 상처는 그의 몸을 망가뜨렸고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볼바르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전처럼 산 자들 사이에서 걸을 수 없었다. 볼바르는 아제로스를 위해서 리치왕의 투구를 쓰고 의지를 행사하여 스컬지를 통제하리라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스컬지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희망했다.

035.png

3대 리치왕이 된 볼바르 폴드라곤

몇 주 후 사람들은 스컬지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리치왕이 사라진 지금 더는 언데드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

볼바르 폴드라곤은 수많은 언데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리치왕은 그들을 살아 있는 자들의 전쟁으로 이끌었고 그 공격성은 진압하기가 어려웠다. 볼바르는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싸웠다. 볼바르는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강력한 성기사로 살았으나 리치왕의 투구를 착용한 순간 신성한 빛은 그를 버렸다. 새로운 강령술의 매력은 그의 정의감과 고결함에 대립했으며 볼바르는 언데드를 가두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일부 스컬지 무리가 그의 지배를 벗어나기도 했다. 동부 왕국의 언데드 무리들은 감히 역병지대에 발을 들인 자들을 마구 공격했다. 그러나 스컬지에 대한 볼바르의 통제에 가장 곤혹스러운 영향을 준 것은 뜻밖의 사건, 바로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두 번째 죽음이었다.

036.png

아서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실바나스

수년 동안 실바나스는 자신의 몸에서 영혼을 거두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 노예의 신체로 변화시킨 장본인인 아서스 메네실을 쓰러뜨리겠다는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아서스는 죽었고 그녀는 그를 직접 처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고통받는 자신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실바나스는 얼음왕관 성채의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다. 실바나스는 추락 때문이 아니라 땅속에 박혀 있었던 날카로운 사로나이트 광석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다. 리치왕과 마찬가지로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그 신비로운 광물을 발견하여 여러 가지를 실험했다. 사로나이트는 많은 흥미로운 성질이 있었다. 그중 한 가지가 언데드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이었다.

실바나스는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사후 세계에 던져졌다. 발키르라고 알려진 영혼의 존재가 그곳에서 실바나스의 영혼을 찾아 포세이큰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보호할 자가 사라진 포세이큰

은 호드에게 이용당하고서 결국 멸망을 맞이했다. 발키르는 실바나스에게 제안했다. 포세이큰을 보호하기로 맹세한다면 실바나스의 영혼을 육체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대가로 발키르는 리치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꺼이 뱀시 여왕을 섬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바나스는 동의했다. 그녀는 아제로스로 돌아와 포세이큰을 계속 이끌었다.

볼바르는 발키르와의 결속이 급작스럽게 끊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다시 발키르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으려 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주인을 섬기는 듯했다. 볼바르는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언데드가 살아 있는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스컬지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037.png

누군가는 계속 짊어져야 할 숙업

노스랜드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군대는 승리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아제로스가 지금껏 겪었던 가장 거대한 위협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그리마의 가로쉬 헬스크림은 형제들에게 천둥과 같은 박수갈채와 환영을 받았다. 뛰어난 전투 사령관의 능력을 보인 가로쉬는 이제 헬스크림 혈통의 가치 있는 후손으로 여겨졌다.

038.png

오크들 사이에서 떠오른 신성, 가로쉬 헬스크림

호드의 다른 사령관인 바로크 사울팽은 노스랜드에 남아서 호드의 철수 과정을 감독했다. 드라노쉬 사울팽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바로크는 조용히 아들을 애도하고 싶었다. 다만 그의 부재는 호드에게 경험과 지도력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것은 후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777.png

27년

고대신들은 수천 년 동안, 에메랄드의 꿈을 타락에 물들이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그 에테리

얼 영역에 영향력을 뺏겼으며 그 결과 에메랄드 악몽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노스렌드에서 요그사론이 패배했지만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그사론의 부하들이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039.png

여전한 에메랄드 악몽의 위협

리치왕이 죽은 후 악몽은 외부 세계의 더욱 먼 곳까지 마수를 뻗었다. 아제로스의 주민들은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다. 티란데 위스퍼윈드도 그러한 밤의 공포에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하나였다. 티란데는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나이트 엘프가 숭배하는 여신인 엘룬의 계시를 목격했다. 계시 속에서, 티란데는 배우자인 말퓨리온 스톰레이지가 에메랄드의 꿈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040.png

소설 <스톰 레이지>

말퓨리온은 오랫동안 에메랄드의 꿈에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계할 만한 징후는 없었다. 많은 드루이드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영역을 탐구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을 깨웠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최근 에메랄드의 꿈에 들어간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심지어 꿈의 위상인 이세라마저 영원한 꿈에 갇혀 있었다.

041.png

녹색용의 이모 위상 '이세라'

말퓨리온이 자리를 비운 동안 세나리온 의회의 지도자를 맡았던 판드랄 스태그헬름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드랄은 세계수 텔드랏실에 스며든 타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서 세계수가 에메랄드 악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악몽은 이미 텔드랏실에 스며들었고 판드랄은 다른 나이트 엘프에게서 악몽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다. 판드랄은 계락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가 텔드랏실을 보호하고 악몽의 손길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 틀림없이 말퓨리온을 구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에메랄드의 꿈에 들어가서 직접 말퓨리온을 찾아 나섰다. 얼마 후 티란데는 말퓨리온이 고대의 적, 악몽의 군주 자비우스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비우스는 고대신의 부름에 응했으나 자신의 하수인을 다수 거느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판드랄 스태그헬름이었다. 오래전, 자비우스는 판드랄의 죽은 아들, 발스탄 스태그헬름이 아직 살아있다고 설득하여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었다.

티란데는 최근 사건에서 판드랄의 행적을 접하고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깨달았다. 텔드랏실이 악몽의 의해 타락했으며 판드랄은 다른 나이트 엘프들에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티란데는 동료들과 함께 싸워 말퓨리온을 구했다. 말퓨리온이 꿈에서 깨어난 후 그들은 자비우스와 악몽을 상대로 공격에 나섰다.

042.png

본색을 드러낸 공허의 노예 자비우스

결국, 자비우스는 쓰러졌고 악몽은 에메랄드의 꿈에서 거의 정확되었다. 그러나 티란데도 말 퓨리온도 악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알른의 균열'이라고 불리는 에메랄드의 꿈의 한구석에 자비우스의 영혼과 함께 그 타락을 봉인했다. 그들은 악몽이 그곳에 갇혀 있기를 바랐지만 언젠가는 빠져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043.png

눈앞의 불만 꺼둔 에메랄드 악몽의 위협

에메랄드의 꿈에서 승리를 거두자, 악몽 속에서 고통받던 많은 이들도 영원히 해방되었다. 이 세라도 영원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그녀의 귀환을 기리는 '깨어난 여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대드루이드 판드랄에 대한 악몽의 지배력은 깨졌으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은 치유할 수 없었다. 판드랄은 광기에 빠져들었고 세나리온 의회의 드루이드들조차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마음대로 바깥을 떠돌도록 놓아둘 수 없었던 그들은 판드랄을 지하굴에 가두었다.

악몽이 패배한 후, 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와 이세라는 텔드랏실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텔드랏실이 악몽의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마법의 축복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텔드랏실이 어둠의 악몽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자의 손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열기에 찬 유해의 바다 사이에서, 고대신 느조스는 종말의 전조를 포착했다. 아제로스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크툰과 요그사론, 리치왕마저 쓰러졌지만 그 과정에서 아제로스는 더욱 망가져 있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물론 용의 위상들도 내부의 갈등으로 함몰됐다. 말리고스는 죽었고 노즈도르무는 시간의 길 속으로 사라졌다. 이세라는 에메랄드 꿈의 심연에서 최근에야 돌아왔지만 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예언의 계시가 끝없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웠다. 알렉스트라자만이 아제로스를 수호하고 있었으나 노스랜드에서의 전투 후 휴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황혼의 시간을 인도할 때가 되었다.

002.png

야욕을 드러내는 세 번째 고대신 느조스

황혼의 첫 번째 인도자는 초갈이나 이교도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데스윙의 것이었다. 데스윙은 그림 바돌 전투 이후 한동안 아제로스 정령계에서 대지의 영역인 심원의 영지에 피신해 있었다. 오래전, 수호자들은 정령계를 빗어 아제로스의 난폭한 정령들을 가두었다. 데스윙에게 심원의 영지는 또 다른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한때 '대지의 수호자 넬타리온'이라 불렸던 데스윙은 대지의 원소와 선천적인 유대감을 느꼈고 그 영역에 잠재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003.png

땅의 정령계 '심원의 영지'

느조스는 검은용의 위상 데스윙의 심장에 자신의 사악한 에너지를 전했다. 데스윙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주입되는 것을 느꼈다. 데스윙의 육체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핏줄을 타고 흐르는 용암은 터질 듯이 강력한 힘으로 데스윙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004.png

공허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데스윙

느조스의 명령에 따라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들은 데스윙을 돕기 위해 심원의 영지로 향했다. 그들은 데스윙의 몸이 찢기지 않도록 상처 부위에 엘레멘티움(Elementium) 갑옷을 박아 넣었다. 정령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금속 엘레멘티움은 오래전 고블린이 만들었던 아다만티움(Adamantium) 갑옷과 달리 어떠한 마법도 통하지 않는 레어 메탈이었다. 드레노어에서 카드가가 했던 것처럼 변이 마법으로 금속을 뒤트는 공격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았다.

005.png

이제 예전의 흑우가 아니라구!

이교도들이 데스윙을 돌보는 동안 느조스는 정령계에서 다른 고대의 동맹에게 손을 뻗었다. 아제로스가 어렸을 때 고대신들은 아제로스의 원소계를 지배하는 네 명의 정령 군주들을 사로잡아 무기로 사용했다. 느조스는 그들에게 다시 전쟁 준비를 명령했다.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 와 바람의 군주 알아키르는 즉각 화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정령 지배자는 고대신의 명령을 거부했다. 파도사냥꾼 넵튠론과 바위 어머니 테라제인이었다. 넵튠론과 테라제인은 시간이 흐르며 고대신에게 이어진 족쇄를 끊었다. 두 정령은 이제 느조스를 따를 생각이 없었다.

느조스는 우선 자신을 따르기로 한 라그나로스와 알아키르에게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제로스를 자유로이 확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을 풀어줄 열쇠는 데스윙이었다. 그는 느조스의 의지를 대신하여 황혼의 망치단과 정령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느조스는 데스윙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제로스에서 다른 용들을 제거하고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물론 느조스에게 있어 그들은 그저 과거 검은 제국의 영광을 되돌리고 세계를 어둠으로 뒤덮을 도구에 불과했다.

006.png

정령계로 추방당했던 아제로스의 네 정령 군주

정령계가 불안정해지자 정령들도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고통과 혼란은 심원의 영지에만 제한되지 않고 아제로스의 표면까지 퍼져나가 대지를 들끓게 만들었다. 심상찮은 재앙의 조짐에 쓰랄과 다른 주술사들은 정령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쓰랄은 정령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답을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정령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때 쓰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제로스의 정령과 대화가 어렵다면 아웃랜드의 정령에게서 조언을 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다.

쓰랄은 아웃랜드로 떠나기 전에 가로쉬 헬스크림을 호드의 대족장 대행으로 임명했다. 가로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지만 리치왕과의 전쟁에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했다. 가로쉬는 용맹과 드높은 자긍심으로 특히 오크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상태였다.

007.png

참고로 쓰랄은 아직 20대 후반, 가로쉬는 30대 후반. 쓰랄이 훨씬 더 어리다(...)

다만 쓰랄의 조언가 모두가 대족장 대행에 관한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가로쉬를 무모한 전쟁광이라고 여겼던 호드 대부족장 케른 블러드후프는 그에게 호드의 지배권을 넘긴다는 계획에 반대했다. 쓰랄은 케른을 존중했지만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쓰랄은 가로쉬도 새로운 책무를 맡으면 공격적인 성품이 누그러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후 가로쉬의 호전적인 태도는 더욱 심해지지만 했다. 가로쉬는 호드가 너무 유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가진 자원은 부족했고, 노스랜드에서 전쟁을 치른 지금은 더욱 그랬다. 정령의 혼란은 세계를 집어삼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쓰랄이 떠난 후 가로쉬는 오그리마의 북서부, 잿빛 골짜기의 우거진 숲으로 시선을 돌렸다. 호드는 그 풍요로운 땅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은 나이트 엘프의 영토였지만 가로쉬는 잿빛 골짜기의 숲에 군대를 보냈다. 가로쉬는 얼라이언스에게 자원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잿빛 골짜기에서 호드의 갑작스러운 활동은 당연히 얼라이언스의 분노를 불렀다. 두 진영 간 갈등이 격해졌고 언제든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다.

호드의 일부 구성원들은 그 과감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반겼지만 케른 블러드후프는 그렇지 않았다. 타우렌의 장로이자, 호드의 대부족장인 그는 대행 대족장을 설득하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케른의 눈에 가로쉬는 호드를 위협한 길, 파멸을 향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가로쉬는 케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케른은 가로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는 가로쉬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호드의 전통적인 전투, 막고라를 신청했다.

모여든 군중 앞에서 타우렌과 오크는 호드의 미래를 위해 싸웠다. 한쪽에서는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다른 쪽에서는 피와 정복을 약속했다. 그날, 피와 정복이 승리를 거두었다.

008.png

타우렌의 지도자 케른의 죽음

그러나 사실 케른의 죽음은 타우렌 진영 내의 배신의 결과이기도 했다. 케른을 평소 눈엣가시로 생각했던 늙은 타우렌 여성 주술사 마가타 그림토텀이 몰래 가로쉬의 도끼 '피의 울음소리'에 독을 발라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후, 마가타는 썬더 블러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시를 장악했다. 그러나 승리는 짧았다. 케른의 아들 바인 블러드후프가 즉각 반격하여 마가타를 물리쳤다.

바인은 반역자를 처형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손을 거두었다. 바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인도를 찾았고 명예와 연민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표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바인은 마가타를 썬더 블러프에서 멀리 추방했다.

009.png

배신자를 추방하고 타우렌의 새 족장이 된 '바인 블러드후프'

그 사건 동안 마가타는 가로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가로쉬는 마가타가 자신의 무기에 독을 발랐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이제 호드의 대

죽장은 그였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케른의 죽음 이후, 누구도 가로쉬 헬스크림의 지배에 맞서지 않았다.

010.png

2

호드와 마찬가지로 얼라이언스 역시 내부의 동요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령의 혼란과 변화는 특히 아이언포지의 드워프에게 큰 시련을 주었다. 산발적인 지진이 요새 바깥의 눈 덮인 언덕을 뒤흔들며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고 동식물들을 쓰러뜨렸다.

아이언포지의 국왕 마그니 브론즈비어드는 대지와 대화할 수 있는 고대 의식에 대해 알아냈다. 바위 피부를 가진 드워프의 조상 '토석인'에게서 유래한 의식이었다. 마그니는 아제로스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 자원하여 그 의식을 치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의식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그니는 대지와 연결되지 못했다. 대신 대지와 하나가 되었다. 마그니는 생명을 잃은 듯한 다이아몬드 조각상으로 변했다. 대부분은 마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아이언포지는 국왕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011.png

지도자들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비극

마그니의 운명에 관한 소식은 관계가 소원해진 딸, 모이라 타우릿산에게도 전해졌다. 최근 모이라는 검은무쇠 드워프 부족을 라그나로스에게서 해방시키고 검은용군단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가 모이라는 결실을 위협하고 있었다. 정령들이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면서 일부 검은무쇠 드워프들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라그나로스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모이라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모이라는 아이언포지의 왕좌가 공석이 된 상황이 아직 남은 검은무쇠 드워프들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아이언포지의 드워프들이 그들을 환영할 리 없었다. 브론즈비어드와 검은무쇠는 서로를 적대시했다. 그러나 모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위 계승의 규칙에 따라 왕권은 자신에게 있었다. 모이라는 말은 법이었다. 모이라는 검은무쇠 드워프와 함께 아이언포지를 찾아가 자신을 카즈 모단의 여왕으로 선언했다.

012.png

아이언포지로 돌아온 모이라

일부 드워프들은 모이라는 귀환에 분개했고, 다른 이들은 모이라는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아이언포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내전의 조짐까지 일었다. 모이라는 폭력 사태의 발발을 막기 위해 철권을 휘둘렀다. 모이라는 자신의 왕권 계승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언포지에서 모든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마침 아이언포지에는 스톰윈드의 왕자 안두인 린이 와 있었다.

안두인이 인질이 된 것은 바리안 국왕의 눈에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안두인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곧 바리안 린은 암살자로 돌격대를 구성하여 아이언포지를 망설임 없이 공격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이언포지를 해집고 마침내 모이라를 붙잡았다.

013.png

아들 바보 바리안을 자극해버린 모이라

아마도, 안두인이 아니었다면 모이라는 그때 목이 떨어졌을 것이다. 안두인 왕자는 아버지에게 자비를 청했다. 스스로를 억제하고 평화의 길을 택하는 것은 바리안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바리안은 안두인의 말에서 지혜를 보았다. 바리안은 모이라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아이언포지를 그녀에게만 맡길 수는 없었다. 바리안은 유서 깊은 그들의 도시를 통치할 새로운 조직을 꾸리기를 요청했다. 드워프들은 그에 응하여 각 경쟁 부족의 대표자를 한 명씩 포함하는 통치 기구인 <세 망치단 의회>를 결성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세 망치단 의회는 자리를 잡아갔다. 모이라 타우릿산, 폴스타트 와일드해머, 무라딘 브론즈비어드, 세 명의 유망한 드워프가 세 망치단 의회에서 활동했다. 세 부족은 수백 년 동안 함께 어울려 살지 않았다.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매일의 고난이었다. 부족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잦아들지 않았고 간헐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014.png

새로이 창설된 세 망치단 의회

쓰랄은 아제로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웃랜드에서 대모 게야를 만나 아제로스 정령들의 불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지혜로운 오크 게야는 쓰랄에게 가혹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쓰랄은 뛰어난 주술사였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았다. 아제로스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정령과의 결속을 연마할 필요가 있었다.

아웃랜드의 마그하르 오크 중에도 뛰어난 주술사들이 있었다. 게야는 가장 뛰어난 제자를 불러 쓰랄을 가르치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그라. 온후한 성격의 쓰랄과 달리 그녀는 매우 드세면서도 이지적인 성격을 가진 촌데레 주술사였다.

015.png

나한테 욕 한 번 먹어볼래?

아그라는 쓰랄을 엄격하게 가르쳤다. 쓰랄이 호드를 이끌었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쓰랄이 주술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그라는 쓰랄이 대족장과 주술사의 의무 사이에서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쓰랄은 호드를 포기하기를 거부했지만 아그라의 가르침에 헌신적으로 응했다. 쓰랄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또, 익혔다. 하루가 지날수록 정령과의 결속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쓰랄과 아그라는 가까워졌다.

016.png

마조 기질이 다분한 쓰랄...

쓰랄은 새로운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서 <정령의 옥좌>를 방문했다. 그 신성한 장소는 아웃랜드 정령들의 고향이자 주술사의 숭배지였다. 그곳에는 자연의 격노라고 불리는 네 명의 위대한 존재가 살았다. 대지의 격노 고르다우그, 불의 격노 인시네라투스, 바람의 격노 칼란드리오스, 물의 격노 아보리우스가 그들이었다.

격노의 존재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옛 호드가 처음 부상했을 때 지옥 마법의 사용으로 정령의 힘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후엔 드레노어가 붕괴했고 정령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 격노의 존재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과정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에 성공했다.

017.png

정령의 옥좌로 찾아간 쓰랄

쓰랄은 아제로스의 정령을 달랠 방법을 찾기 위해 격노의 존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뽀족한 답은 듣지 못했다. 쓰랄은 대신에 경고를 들을 수 있었다. 아제로스 정령의 불안은 드레노어가 무너지기 직전 상태와 몹시도 닮았다는 말이었다.

쓰랄은 다시 아제로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그라도 쓰랄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나그란드의 고향을 등지는 것은 어려웠지만 아제로스의 정령을 돕는 것이 주술사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쓰랄이 앞으로의 시련을 홀로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그라는 쓰랄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018.png

드레노어의 대정령들을 만나고 아제로스로 돌아온 쓰랄

쓰랄이 떠난 후 아제로스는 달라져 있었다. 쓰랄은 새롭게 펼쳐진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분쟁에 몹시 놀랐다. 그리고 케른 블러드후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를 죽인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쓰랄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도록 위임한 바로 그 오크였다. 가로쉬 헬스크림을 믿은 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018_2.png

자신의 판단 미스로 일어난 비극에 충격을 받은 쓰랄

쓰랄은 그간의 모든 사태에 대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할 기회는 없었다. 어느 순간, 쓰랄의 눈앞에서 세계가 찌그러졌다. 발아래에서 대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대양이 분노로 들끓었다. 많은 상선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사나운 폭풍이 울부짖으며 산을 타고 내려와 일대를 얼음으로 뒤덮었다. 대지는 들썩이고 뺨겨졌으며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

대격변이 시작되었다.

전쟁 준비를 마친 데스윙은 정령계와 아제로스의 대지 사이에 균열을 내고 심원의 영지에서 솟아올랐다. 정령계와 물리 세계의 경계가 부서지면서 아제로스 곳곳에서 연쇄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산맥이 무너져 가루가 되었다. 대지가 갈라진 틈에서는 불꽃이 터져 나왔다. 솟구치는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여 해안 마을을 파괴하고 넓은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다가올 죽음은 더 많았다. 사람들은 이 재앙을 <대격변>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했다.

019.png

격변하는 아제로스

데스윙은 곧장 스톰윈드로 향하여 도시의 일부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다. 병사들이 모여서 데스윙과 싸웠지만 그의 피를 보지는 못했다. 데스윙은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스톰윈드에서 사라졌다. 사실 데스윙은 스톰윈드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다. 도시의 시민들은 살아 있는 편이 더 가치 있었다. 데스윙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하수인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 많은 스톰윈드 시민들은 실제로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지도자가 황혼의 망치단의 비밀스러운 일원이라는 사실

을 모른 채, 대주교 베네딕투스의 조언을 구했다. 베네딕투스는 그 절박한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교묘하게 이교도의 품으로 인도했다.

020.png

스툼윈드부터 습격한 데스윙

데스윙은 아제로스를 파괴하면서 초갈과 황혼의 망치단에게 어둠 속에서 나올 것을 명령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수년 동안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쉬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규모는 증가했고 성스러운 빛의 교단의 지도자인 대주교 베네딕투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교단에 합류했다.

초갈은 많은 이교도들을 아이언포지 북쪽의 목가적인 지역으로 이끌었다. 다수의 와일드해머 드워프가 그곳의 고원과 산맥에 거주하고 있었다. 용아귀 오크 부족의 잔여 세력 역시 그 지역으로 피신하여 해안가에 조악한 요새를 건설해 살아가고 있었다. 드워프도, 용아귀 오크도 황혼의 망치단을 상대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이교도의 공격은 갑작스럽고 잔혹했다. 이교도들은 고원의 거주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지역의 중심부를 깎아 요새를 건설했다. 초갈은 그 기지를 '황혼의 요새'라고 명명하고 이교도들의 작전 기지이자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한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 침략에서 서서히 공허의 에너지가 흘러나와 주변의 땅에 스며들어 그 어둠을 지나는 모든 생명체를 돌연변이로 만들었다. 땅이 뒤틀렸고 어둠에 휩싸였다. 그 지역은 <황혼의 고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멀리 남쪽에서는 다른 이교도들이 검은바위 산에 거점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네파리안과 신타리아의 조각난 시신을 복구하여 공허의 마법으로 되살렸다. 두 용은 과거 인격의 편린을 지닌 채 황혼의 망치단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으로 거듭났다. 이교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지식이었다. 신타리아는 황혼의 용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군단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갔고 네파리안은 자신의 실험을 재개하여 새로운 세대의 오색용을 빚어냈다.

021.png

세력을 확장해가는 황혼의 망치단

사방에서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적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세계가 부서지는 동안에도, 아제로스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장하거나 서로를 쓰러뜨릴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예를 들면 잔달라 트롤이나 케잔 섬의 고블린, 길니아스의 늑대인간, 그리고 그들을 포섭하려는 호드와 얼라이언스 양측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

대격변의 격동하는 지진과 해일은 잔달라 트롤들의 섬 역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잔달라 트롤 부족은 한때 아제로스의 머나먼 구석까지 세력을 떨치며 제국을 건설했으나 그 영광스러운 날은 너무도 오래전의 일이었다. 수천 년 동안 트롤은 전쟁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자연재해까지 벌어지자 줄이라고 알려진 신비한 예언자가 트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줄은 자신의 고향 섬이 파도 속으로 가라앉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며 트롤들에게 잔달라를 버리고 새로운 운명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아제로스 곳곳에서는 대격변으로 인해 정치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고 줄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만약 잔달라 트롤이 이 혼란을 역으로 이용하여 분열된 트롤 부족들을 통합하고 거대 제국을 건설한다면,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아제로스의 우월한 세력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022.png

잔달라의 봉기를 주도한 예언자 '줄'

잔달라의 지도자 라스타칸 왕은 고향을 떠나라는 줄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부

죽의 함대를 이끌고 나가 자신에게 합류하기를 원하는 자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아제로스 곳곳의 다른 트롤 부족들이 줄의 부름에 응했다. 가장 강력한 부족들은 구루바시와 아마니 트롤이었다. 잔달라의 인도와 함께 그들은 망가진 국가를 재건하고 전쟁에 대비했다.

줄은 검은창 부족과 그들의 지도자 볼진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볼진은 그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잔달라 트롤의 전쟁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볼진은 대족장 가로쉬 헬스크림만큼 얼라이언스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볼진은 협력에서 지혜를 찾았고 떠오르는 호전적인 트롤 제국을 제압할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영웅들을 모집했다. 영웅들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줄을 막지는 못했다. 줄은 아제로스에서 트롤의 패권을 다질 방법을 계속 찾아다녔다.

023.png

잔달라의 제안을 거부한 지혜로운 볼진

한편 대격변은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기지 넘치는 고블린들 역시 멸망의 문턱까지 내몰았다. 오랫동안 고블린들은 방대한 상업 제국의 중심지인 <케잔 섬>에서 삶을 영위했다. 고블린은 뛰어난 기술자이자 숙련된 뱃사람이었으나 다른 무엇보다도 뻔뻔스러운 탐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전쟁에서 어느 쪽으로도 잘 기울지 않았다. 고블린은 중립을 지키면서 두 진영과 교역을 진행했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중립적인 위치 때문에 고블린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할 동료가 없었다.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케잔의 거대 화산인 카자로 산이 분출했다. 불타는 돌덩이가 케잔 섬에 빗발치며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공장과 창고, 배를 산산이 조각냈다. 그리고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려와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고블린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고향은 끝이었다.

025.png

난장판이 된 고블린의 도시 케잔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허영심 많은 무역왕 재스터 갬리웍스는 고블린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했다. 케잔에 남은 배라고는 그의 천박한 유람 요트가 유일했다. 갬리웍스는 자신의 노예가 되는 조건으로 고블린들을 배에 안전하게 태워주었다.

고블린들은 위험이 사라졌기를 바랐지만 헛된 기대였다. 그들은 물살에 이끌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분쟁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갔다. 해전이 벌어지는 도중 얼라이언스 함선이 고블린의 배를 침몰시켰다. 덕분에 고블린은 일방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호드의 품에 들어갔다. 갬리웍스는 빌지워터 무역회사의 소중한 중립성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대에 순응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이익을 생각했다.

026.png

요즘 갬리웍스를 호드 대족장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들려오기도(...)

고블린은 공식적으로 호드에 합류하고 아즈샤라 지역에 정착했다. 갬리웍스는 마지못해 고블린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으나 무역회사의 지배권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만한 거래처와 지도력을 가진 이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갬리웍스는 곧 자신이 고블린을 이끌 책임자임을 증명했다. 그의 감독 아래에서 무역회사는 아즈샤라를 개척하여 새로운 해안 도시를 세웠다.

발지워터 항만은 호드의 전략 거점이자 비행의 소굴이었다. 도박장과 유흥 시설, 기타 사치스러운 시설이 도시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가로쉬 헬스크림은 고블린의 타고난 탐욕과 방종을 혐오했지만 그들의 전쟁 기계와 기술적으로 발전된 무기에서 큰 잠재력을 보았다. 이로써 호드는 여섯 종족으로 확장되었다.

028.png

점차 늘어가는 호드 세력

가로쉬의 명령에 따라 고블린들은 잿빛 골짜기에 강철 피부의 별목기를 배치했다. 그들은 막대한 면적의 숲을 베어 넘겼다. 숲 지대의 별목으로 호드는 목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었다. 가로쉬는 더욱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동부 왕국에서도 호드의 존재감을 강화하기를 원했다. 대격변은 완벽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 항구의 도시 국가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길니아스>였다.

길니아스는 국경의 거대한 그레이메인 성벽 덕분에 한동안 외부 세력의 침입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격변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다. 지진 때문에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길니아스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가로쉬는 길니아스에 주목했다. 그곳을 차지한다면 대단한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다만 길니아스에 눈독을 들인 자들은 가로쉬만이 아니었다. 실바나스 역시 길니아스를 자신의 영토로 차지하기를 갈망했고, 호드에게 영역을 침범당한 나이트 엘프 역시 그들을 우군으로 합류시켜 전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029.png

대격변으로 방벽이 뚫린 길니아스

실바나스는 침략군의 지휘를 맡겨달라고 가로쉬를 설득하여 광란에 찬 호드의 군대를 고립된 왕국 길니아스로 이끌었다. 사실 길니아스로서는 최악의 시기에 호드의 침공을 당한 셈이었다. 길니아스는 북문 반란이라는 내전의 여파로 약해져 있었다. 또한 훨씬 더 어두운 내부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년 동안 늑대인간의 저주는 왕국을 황폐화했고 많은 시민들을 늑대 야수로 변화시켰다. 그 생명체들은 자신의 분노에 이끌리는 노예가 되어 동료와 적조차 구분하지 못했다. 길니아스의 지도자 겐 그레이메인 왕도 저주의 희생자가 되었다.

030.png

늑대인간의 저주와 싸우다 결국 본인도 저주에 걸려버린 국왕 겐

본래 늑대인간의 저주를 처음 경험한 이들은 나이트 엘프들이었다. 그들은 에메랄드의 꿈에서 늑대 야수를 불러낸 대마법사 아루갈의 마법을 감지했다. 자세한 조사를 위해 그들은 길니아스로 길을 나섰다. 나이트 엘프는 인간 왕국 길니아스가 저주에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호드의 침략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균형의 의식>이란 것을 가르쳐 많은 늑대인간들을 조화로 이끌었다. 그 의식으로 비록 핏속의 저주는 정화되지 않았지만 늑대인간들의 마음속 분노와 피의 욕망은 가라앉게 만들 수 있었다.

균형의 의식의 성공은 또한 길니아스의 분열된 시민들에게 화합을 가져다주었다. 겐 그레이메인은 늑대인간과 인간을 모두 모으고 그들 모두가 길니아스인이라고 다시 선언했다. 그들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다. 길니아스의 군대는 칼날과 발톱으로 자신들을 노리고 들어온 호드와 용감히 맞서 싸웠다.

양편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 특히 길니아스 왕의 피해가 컸다. 독을 바른 실바나스의 화살이 겐 그레이메인에게 정통으로 날아왔다. 그러나 겐의 유일한 아들인 리암 그레이메인이 몸을 던져 아버지를 지켰다. 화살은 왕 대신 왕자의 목숨을 거두었다.

031.png

실바나스의 독화살에 아들을 잃은 겐

길니아스의 거친 반격에 실바나스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실바나스는 길니아스에 역병을 풀어 겐과 길니아스인들을 내몰았다. 그들은 반격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을 보았고 자신의 왕국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길니아스로서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이었다. 그때 바다에서 나이트 엘프의 함대가 나타났다. 대양을 건너온 그 이방인들은 겐 그레이메인과 길니아스인들을 도우러 나섰다.

조상의 땅을 버리는 결정은 겐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다. 길니아스에 남는 것은 자신은 물론 남은 가족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겐은 길니아스인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명령하고 머나먼 나이트 엘프의 수도, 다르나서스를 향해 항해에 나섰다. 그러나 겐 그레이메인은 몇 년이 걸리고 설령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길니아스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겠노라고 맹세했다.

032.png

복수를 다짐하는 길니아스 국왕

그동안 칼림도어에서는 가로쉬가 나이트 엘프의 땅에서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그는 호드의 붉은색 깃발이 그 숲 지대의 전역에 내걸릴 때까지 작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다. 이러한 호드의 침략은 나이트 엘프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겼다. 3차 대전쟁이 끝나고 나이트 엘프는 세계수 놀드랏실과 자신들을 연결해준 마력을 잃었다. 그들은 불멸의 삶을 잃었고 질병과 노화에도 취약해졌다. 이제 피할 수 없는 필멸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홀로 호드의 침략에 대응할 수 없었다.

나이트 엘프 문화와 전통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다. 혈투의 전장에서 온 명가 센드랄라 마술사와 길니아스인들이 다르나서스에 정착했다. 많은 나이트 엘프가 새로운 손님들을 경계했다.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각인시켜 주었다. 특히 명가에게는 의심의 눈초리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뒤따랐다. 고대의 전쟁에서 비전 마법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군단을 아제로스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만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죄악은 쉽사리 잊히거나 용서를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

티란데는 최선을 다해 동족의 두려움을 달랬다. 그리고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했다. 나이트 엘프는 약해졌고 호드는 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동료를 만들고 얼라이언스에 헌신할 때였다. 티란데는 늑대인간이 합류하여 얼라이언스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티란데는 늑대인간을 아군으로 들이기 위해 다르나서스에서 얼라이언스 국가들의 회담을 요청했다.

033.png

얼라이언스 정상 회담 (마그니는 돌덩이 상태)

곧 회담이 열렸고 안건은 거의 무산되는 듯이 보였다. 겐 그레이메인 국왕에게 반감이 있었던 바리안 린 국왕은 늑대인간과의 동맹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바리안은 얼라이언스를 등지고 외부 세계에서 왕국을 고립시킨 결정을 내린 길니아스의 지도자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바리안의 분노는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바리안은 오닉시아의 마법을 풀고 완전해진 후 조절할 수 없는 분노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친구와 아들인 안두인까지 밀어냈다. 그의 상처는 얼라이언스마저 위협하며 분열을 유발하고 있었다.

대드루이드 말퓨리온이 인간 왕들 사이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말퓨리온은 그들에게 사냥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두 국왕은 사냥 도중 불가피하게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그것은 효과가 컸다. 바리안은 겐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가 명예롭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길니아스의 국왕 겐에게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다. 겐은 자신과 늑대인간들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치렀던 균형의 의식으로 바리안을 인도했다. 의식은 효과가 있었다. 바리안 린은 그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034.png

겐의 도움으로 분노를 가라앉힌 바리안

얼마 후 잿빛 골짜기에 가로쉬의 부대가 다시 침범해오자 바리안과 겐, 늑대인간들은 나이트 엘프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섰다. 늑대인간은 전투에서 무시무시한 전사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원시의 분노를 이용해 호드의 병사를 찢어발겼다. 겁에 질린 적들은 도망쳤다. 다만 가로쉬는 영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이후 잿빛 골짜기 숲은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땅으로 남았다.

젯빛 골짜기 전투 이후 얼라이언스는 길니아스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표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바리안이 길니아스 왕국의 지지자로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지도자들은 겐 그레이메인과 늑대인간의 얼라이언스 합류를 환영해 주었다. 길니아스인들은 얼라이언스 진영을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035.png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한편 대격변이 펼쳐지는 동안 쓰랄은 갈림길에 섰다. 호드는 대족장 쓰랄의 인도를 필요로 했고 아제로스 또한 주술사 쓰랄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아그라의 말이 옳았다. 쓰랄은 두 책임을 고르게 다할 수 없었다. 선택을 내려야 했다. 쓰랄은 마음속으로 아제로스를 치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아제로스가 드레노어처럼 파괴된다면 호드는 존재할 수도 없었다.

쓰랄과 아그라는 원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중립적인 주술사 단체 <대지 고리회>와 함께 모였다. 아제로스를 위해 오랜 적대감을 내려놓은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주술사들이 모두 대지 고리회에 속해 있었다.

036.png

리분의 은빛 성기사단 기막을 이어받은 범 주술사 단체 <대지 고리회>

쓰랄과 아그라는 많은 대지 고리회 주술사들과 함께 데스윙이 아제로스로 솟아오른 장소를 찾았다. 고대 영원의 샘이 폭발했던 아제로스의 중심부, 대해에서 거칠게 휘몰아치는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036_2.png

아제로스를 치유하기 위해 나선 쓰랄과 주술사들

데스윙이 뚫고 나온 아제로스의 표면과 정령계 사이엔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다.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발생한 그 불안정성은 아제로스 세계로 넘쳐흘러 정령들을 자극하여 더욱 큰 광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만약 대지 고리회가 데스윙이 만든 균열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 파괴적인 힘은 계속 이어져 아제로스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037.png

젯빛 골짜기의 전투에 뒤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산발적인 전투가 발생했다. 데스윙은 두 진영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고대신의 하수인들을 아제로스에 풀어놓았다. 칼림도어 남쪽 끝에선 알아키르와 그의 정령들이 바람 정령계의 영지인 하늘담으로부터 고대 <울둠>의 땅에 균열을 내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천 년 전 티탄의 하수인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울둠을 시야에서 감추었으나 정령의 불안으로 마법의 장벽이 부서지고 말았다. 울둠은 이제 그곳의 치명적인 비밀과 함께 아제로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037_2.png

대격변 후 아제로스 주요 분쟁 지역

울둠 깊은 곳에는 시초의 용광로가 놓여 있었다. 고대에 수호자들은 그 장치를 이용하여 아제로스를 강화하고 타락으로부터 보호했다. 시초의 용광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내어 아제로스의 동식물을 정화하고 생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능이 있었다. 알아키르는 바로 그것, 아제로스에서 모든 생명체를 정화할 수 있는 그 힘을 노렸다.

038.png

수만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울둠>

파도 아래에서는 느조스의 또 다른 하수인이 움직이고 있었다. 고대신의 의지에 타락하기 전까지 고대 나이트 엘프의 왕국을 지배했던 아즈샤라 여왕이었다. 그녀는 <바쉬르>라는 이름으

로 알려진 수중 지역에 충성스러운 나가들을 보냈다. 그곳에는 파도사냥꾼 넵튠론의 정령계 심연의 구렁으로 통하는 균열이 있었다. 물의 정령들은 느조스의 명령을 거부했기에 응당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아즈샤라와 나가의 목적은 넵튠론을 처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정령 군주 넵튠론은 아제로스의 바다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고 느조스는 바로 그것을 요구했다. 그 능력을 손에 넣는다면 대륙 사이의 모든 항로를 끊고 세계의 국가들을 고립된 세력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느조스는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자신의 부하들을 일부 저지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전쟁 중 하나라도 성공을 거둔다면 황혼의 시간을 인도할 수 있었다.

039.png

바닷속 나가의 영토 <바쉬르>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서로와의 분쟁에 휘말린 채 새로운 적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행히도 아제로스를 지키는 것은 두 진영만이 아니었다. 중립적인 진영이 결집하여 데스윙과 부하들에게 맞섰다. 첫 번째 세력이 대지 고리회 주술사들이었다. 그들은 아제로스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정령의 불안을 유발하는 지역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호드와 얼라이언스에게, 전쟁을 접어두고 무너지는 아제로스를 구하는 데 집중할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노스랜드에서, 아웃랜드에서, 안퀴라즈에서 싸웠던 영웅들이 대지 고리회의 부름에 응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땅에서 왔다. 그들은 각자 다른 믿음을 지녔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 아제로스를 지키겠다는 공통된 바람은 모두가 같았다. 영웅들은 아제로스 곳곳에서 임무의 선봉에 섰다. 심원의 영지에서는 황혼의 망치단 세력을 무너뜨렸고 덕분에 대지 고리회의 주술사들은 데스윙이 아제로스로 솟아오르며 세계에 만들어낸 피해를 수습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바쉬르와 울둠의 작전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돌격대는 파도 밑으로 뛰어들어 나가와 동맹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울둠에서는 황혼의 망치단이 사용하기 전에 고대 시초의 용광로를 확보했다. 그곳에서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은 느조스의 정령 하수인들에게 치

명타를 가했다. 그들은 울둠의 통로를 지나 바람 정령계 하늘담의 영지까지 침입하여 바람의 군주 알아키르를 쓰러뜨렸다.

040.png

색다른 분위기를 가진 바람 정령계 <하늘담>

바쉬르와 울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하이잘 산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다. 대격변이 발생한 직후 데스윙과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의 군대가 하이잘 정상 부근에 모여들었다. 데스윙은 대규모 의식을 수행하여 라그나로스의 영지, 불의 땅에서 이어지는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에서 수천 마리에 달하는 화염의 하수인들이 나타났다.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가 직접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정령들은 마음껏 자유를 즐겼다. 숲을 불태우는 것도 즐거웠지만 라그나로스는 그들에게 또 다른 목적을 주었다. 라그나로스는 하수인들을 채찍질하여 광기로 몰아넣고 하이잘 산의 꼭대기로, 세계수 놀드랏실을 향해 내보냈다.

놀드랏실은 3차 대전쟁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막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제로스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은 채 대지에 양분을 공급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놀드랏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잘 산의 많은 지역에서 초목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느조스는 세계수를 불태운다면 아제로스가 복구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041.png

화염 정령계 <불의 땅>에서 다시 기어 나온 라그라노스

자연의 수호를 맹세한 세나리온 의회의 드루이드와 고대의 친구 녹색용들이 정령에 맞서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했다. 곧 나이트 엘프 군대와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이 합류했다. 연합군은 하이잘 산 곳곳에서 방어 전선을 구축했으나 연기와 잿불의 폭풍을 저지하기에는 벅찼다. 하이잘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자연의 가장 용맹스러운 수호자, 야생신이었다.

그 거대한 야수 대부분은 고대의 전쟁에서 죽었거나 그 전쟁 이후 자취를 감췄다.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숲을 지킨 이는 세나리우스뿐이었다. 그 세나리우스도 3차 대전에서 그롬마쉬 헬스크림의 도끼에 쓰러졌고 그의 영혼은 에메랄드의 꿈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3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드루이드들은 에메랄드의 꿈에서 다른 야생신들을 깨우고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세나리우스의 죽음으로 야생신들은 혼란에 빠져 들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야생신들은 내면의 안정을 찾았다.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드루이드와 동료들은 그 거대한 생명체들을 하이잘로 불러냈다. 그들은 에메랄드의 꿈에서 세나리우스의 영혼까지 찾아서 물리 세계로 그를 불러냈다. 곧 위대한 늑대 골드린, 지혜로운 불굴의 거북 토르톨라 등 전설적인 생명체들이 하이잘의 숲을 뒤흔들며 나타났다.

042.png

아제로스에 다시 나타난 야생신들

야생신의 귀환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고대의 전쟁 이후 야생신은 그렇게 많은 다른 종족들과 함께 아제로스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었다. 하나의 목적으로 뭉친 하이잘의 수호자

들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검과 마법으로, 발톱과 송곳니로, 그들은 하이잘의 황혼의 망치단 세력을 무너뜨리고 불의 정령들을 돌려보냈다. 라그나로스조차 야생신과 필멸자 동맹의 분노 앞에 도망치고 말았다. 라그나로스는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아제로스와 불의 땅 사이의 균열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043.png

또 도망간 라그나로스 패거리

정령과 나가의 공격이 실패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 싸움에 매달려 있었지만 최근의 사태는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무시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비록 대격변과 정령의 침공에 관련된 진정한 내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격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데스윙이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를 이용해서 아제로스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한때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황혼의 망치단을 그저 느슨하게 조직된 광신도 집단이자 시끄러운 폭도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황혼의 망치단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극히 위험한 상대였다. 이교도들은 전 세계에 마치 쥐 떼처럼 퍼져 있었다. 그냥 두었다가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황혼의 망치단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그 공격은 <황혼의 고원> 습격으로도 이어졌다. 전쟁 기계와 병사를 실은 비행선들이 태양을 가렸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연합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목표를 두고서 싸웠다. 그들은 이교도를 무릎 꿇린 다음 그 고원을 안전하게 차지하기를 바랐다.

044.png

이교도의 본거지 <황혼의 고원>에 모인 호드와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는 그 지역의 와일드해머 드워프 중에서 새로운 친구를 발견했다. 그들은 사납고도 독립적인 특성이 있었고, 드워프 사회에서 떨어져서 생활한 탓에 외부인과의 협력이 익숙하지 않았다.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전투에 매우 유용한 도움을 주었다. 붉은 용군단도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날아왔다. 그들은 군대에 합류하여 합동 공격을 펼치면서 황혼의 망치단의 손아귀에서 그림 바틀을 해방시켰다.

호드의 오크는 용아귀 부족과의 오랜 유대를 되살렸다. 2차 대전쟁이 끝난 후 용아귀 부족은 홀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다. 대족장 가로쉬 헬스크림은 피와 영광을 약속하면서 호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용아귀 오크를 설득했다. 가로쉬의 지휘하에서, 그들은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었다.

황혼의 고원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로나도 나타나 이교도들을 처치했다. 가로나는 초갈의 무리를 쓰러뜨리겠다는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가로나는 새로운 호드에 충성을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편에서 싸웠다. 가로나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황혼의 망치단 인장을 가진 이의 피로 단검을 적셨다.

045.png

잊을만하면 나오는 가로나

호드는 마침내 이교도의 본산인 황혼의 요새를 공격했다. 학살이 벌어졌고 요새의 방어가 무

너졌다. 호드의 용사들은 적들을 베어 넘기며 성채로 진입했다. 초갈의 검은 심장을 꿰뚫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 초갈은 적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초갈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황혼의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046.png

사이비 종교에 미친 광신도의 최후

초갈과 황혼의 요새의 몰락은 이교도의 세력을 무너뜨렸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많은 이교도 구성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초갈이 죽은 후 대주교 베네딕투스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 베네딕투스는 옛 신분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황혼의 아버지라는 진정한 이름을 얻었다.

047.png

장글장글한 광신도들

황혼의 고원 격전지에는 두 용의 위상도 모습을 드러냈다. 데스윙과 알렉스트라자였다. 생명의 어머니 알렉스트라자는 대격변으로 발생한 순수하고도 파괴적인 힘과 그것이 불러온 수많은 죽음에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원인이 데스윙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알렉스트라자는 타락한 용의 위상 데스윙을 저지하고 아제로스의 고통을 중단시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마리 용은 곧 황혼의 고원이 내려다보이는 하늘에서 불길과 비늘의 폭풍을 일으키며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049.png

데스윙과 알렉스트라자의 대결

한편 아제로스의 한쪽에선 데스윙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 오래전, 데스윙의 타락은 검은용군단의 거의 모든 용들에게 퍼졌다. 그들은 데스윙의 적의와 파괴에 대한 갈망을 상징했다. 그러나 일부 예외도 있었다. 대격변 이후 '레아스트라자'라는 이름의 붉은용이 검은용의 알을 훔치고 데스윙의 영향력을 정화하려는 위험한 임무에 나섰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알에서 부화한 생명체는 검은 왕자, 래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래시온은 새끼용이었을 때부터 또래보다 지혜롭고 강력했다. 데스윙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그는 독립적인 시선으로 검은용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아제로스에 어떤 위협을 끼치는지 깨달았다. 래시온은 검은용군단을 정화할 방법은 단 하나, 즉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다. 래시온은 아제로스의 남은 검은용들을 처치하기 위한 잔혹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래시온은 검은용군단의 최후의 생존자 중 하나가 되었다.

048.png

검은용 슬레이어가 된 검은용 왕자 '래시온'

그동안 데스윙은 알렉스트라자를 쓰러뜨리고 더욱 강력한 황혼의 용군단을 새로 꾸렸다. 그리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나머지 용의 위상들까지 노리기 시작했다. 용의 위상들 사이에는 이미 데스윙이 심어놓은 첩자도 있었다.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덫이었다.

5 (소설 : 위상들의 황혼)

데스윙은 알렉스트라자와의 대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결국 승리했다. 알렉스트라자는 데스윙의 분노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데스윙은 승리했음에도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간신히 알렉스트라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 만약 이세라와 노즈도르무가 함께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알렉스트라자와 달리 다른 용의 위상은 무해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지만 데스윙은 그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예전의 힘과 영광을 되찾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데스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용의 위상들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황혼의 용을 주축으로 군대를 다시 꾸렸다. 그리고 초갈과 나머지 이교도들을 운명에 내맡긴 채 황혼의 고원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생사는 데스윙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050.png

검은용과 황천의 마력이 결합된 황혼의 용군단.

알렉스트라자는 노즈도르무와 이세라에게 <고룡십터 사원>에서 회합을 요청했다. 알렉스트라자는 분열된 용군단을 한데 규합하여 단결된 힘으로 데스윙에 맞서고자 했다. 그러나 회합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노즈도르무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세라는 알렉스트라자의 부름에 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이한 미래의 계시에 가려져 어지러웠다. 이세라는 예감과 현실조차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050_2.png

노스렌드의 <고룡침터 사원>에 모인 용의 위상들

푸른용 칼렉고스와 아리고스도 고룡침터 사원에서 용군단의 미래를 논의했다. 그들은 죽은 말리고스를 계승할 가장 유망한 후보자였다. 그러나 두 용의 성격은 전혀 달랐다. 칼렉고스는 지혜롭고 침착했다. 말리고스의 아들인 아리고스는 건방지고 교만했다. 아리고스는 지금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렉스트라자의 탓으로 돌렸고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리고스와 용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순간, 데스윙의 군대가 들이닥쳤다.

황혼의 용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고룡침터 사원과 그곳의 수호자들을 공격했다. 알렉스트라자와 동료들은 몰랐지만 그 공격은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함이었다. 황혼의 망치단 이교도들이 고룡침터 사원 아래에 있는 일련의 마력의 성소를 공격했다. 그곳에는 용군단의 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교도들은 공허의 에너지로 알들을 뒤덮고서 부화하지 않은 생명체들을 서서히 황혼의 용으로 변화시켰다.

알렉스트라자의 배우자, 크라서스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의식은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붉은용 크라서스는 성소에서 새어 나오는 타락을 감지했다. 이미 시간이 지나 알들에게서 이교도의 마법을 정화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크라서스는 그 생명체들이 황혼의 용으로 부화하기 전에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크라서스는 자신의 생명의 정수를 끌어내어 성소에서 마법의 불길로 폭발을 일으켰다. 모든 알과 이교도가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크라서스도 사라졌다.

051.png

자신을 희생해 타락한 알들을 정화한 크라서스

그 충격으로 고룡십터 사원이 바닥까지 흔들렸다. 얼마 후, 황혼의 용들은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알렉스트라자와 용들은 성소를 조사하여 알들을 파괴한 것이 크라서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쩌서 알들을 깨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크라서스가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데스윙의 영향으로 타락했을 것이라고만 여겼다.

너무도 명백한 배신과 너무도 많은 새 생명의 손실에 알렉스트라자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노스렌드에서 사라졌다. 고룡십터 사원에 모인 다른 용들도 하나 둘씩 사원을 떠났다. 용들이 흩어지면서 용군단의 결합에 대한 남은 희망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알들을 타락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데스윙은 사건의 전개를 흡족하게 여겼다. 용군단의 단결은 깨졌다. 고룡십터 사원은 데스윙의 군대가 장악했다. 데스윙은 황혼의 용과 이교도의 군대를 데리고 그 신성한 사원을 점령하라고 황혼의 아버지에게 명령했다. 용의 위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052.png

한때 화목했던 다섯 위상들...

노스렌드의 남쪽에서 쓰랄과 대지 고리회는 원소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밤낮으로 의식을 수행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대지 고리회의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정령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쓰랄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쓰랄은 케른 블러드후프의 죽음과 호드의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내면의 동요가 대지 고리회의 의식을 방해하고 있었다. 쓰랄은 자신을 잃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의 낭떠러지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세계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때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나타난 수수께끼의 방문객이 그 답을 전했다. 꿈의 위상 이세라는 황혼의 시간을 예견했다. 생명이 모두 사라지고 회색빛이 된 세계의 계시였다. 그 끔찍한 미래에서는 데스윙조차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다. 이세라는 꿈에서 쓰랄이 앞으로 다가올 날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쓰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것을 알아낼 생각이었다.

053.png

미래를 본 이세라의 계시

쓰랄의 능력을 활용할 방법을 몰랐던 이세라는 우선 페랄라스의 먼 구석의 정령을 달래라는 간단한 임무를 맡겼다. 쓰랄은 그 제안에 머뭇거렸지만 아그라가 응하라고 설득했다. 인정하기는 힘들었지만 쓰랄은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치고 있었다. 쓰랄은 자신의 불확실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페랄라스에서 시작된 쓰랄의 임무는 훨씬 멀리까지 이어졌다. 쓰랄은 아제로스의 머나먼 지역을 여행하면서 용의 위상을 돕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면서 필멸자로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쓰랄은 그 여행의 끝에서 시간의 길로 뛰어들어가 노즈도르무를 찾았다. 시간의 위상 노즈도르무는 자신의 영지에서 길을 잃은 채 시간의 모든 순간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고대 신들이 데스윙의 타락과 에메랄드 악몽, 그리고 역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악한 사건들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천 년 동안 그 사악한 존재들은 용의 위상들의 힘과 단결을 쪼먹고 있었다.

또한 노즈도르무는 <무한의 용군단>이라는 세력을 조종한 자들도 고대신이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무한의 용군단은 오랫동안 시간의 이상 현상을 일으키며 노즈도르무의 주의를 빼앗은 사악한 세력이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무한의 용군단을 이끄는 우두머리의 모습이 불안감을 더했다. 그 우두머리는 바로 노즈도르무 자신이었다. 어느 먼 미래에 노즈도르무는 타락에 떨어졌고 '무르도즈노'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노즈도르무의 그림자는 무한의 용군단을 만들어내어 시간의 성소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일단 쓰랄은 노즈도르무를 도와 시간의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노즈도르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불안감을 뒤로 하고 우선 현재로 돌아왔다.

054.png

미래에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본 노즈도르무

시간의 위상과의 만남 뒤 쓰랄은 마력의 탑으로도 여행을 떠났다. 그는 푸른용군단이 새로운 용의 위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 푸른용들은 칼렉고스를 지지하는 파와 아리고스를 지지하는 파로 깊이 갈라져 있었다. 대부분의 푸른용들은 이성과 차가운 논리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쓰랄은 마음을 신뢰하라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푸른용들은 칼렉고스를 선택했다. 그러자, 아리고스가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동족을 공격했다.

다른 푸른용들은 알지 못했으나, 사실 데스윙은 아리고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분노에 휩쓸린 아리고스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아리고스는 말리고스를 쓰러뜨린 알렉스트라자와 필멸자들에게 쓰라린 증오를 품었다. 그들의 행동은 배신이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날만을 꿈꾸었다. 그리고 데스윙과 황혼의 망치단에게 충성하면서 자신과 아버지를 농락한 자들에게 대적할 만한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아리고스는 데스윙과의 동맹 관계를 밝히며 황혼의 용 군대와 함께 마력의 탑을 공격했다. 물론 공격은 실패했고 아리고스는 쓰러졌다. 그는 푸른용군단의 배신자로 삶을 마감했다. 쓰랄의 활약으로 데스윙의 첩자는 제거되었다.

055.png

새롭게 마법의 위상이 된 푸른용 칼렉고스

쓰랄은 다음으로 알렉스트라자를 만났다. 붉은용의 위상 알렉스트라자는 잊혀진 땅에 은둔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홀로 살아갔다. 쓰랄은 과거의 계시로 알렉스트라자를 절망의 손아귀에서 꺼내주었다. 그는 정령을 통해서 크라서스가 자신을 희생하여 붉은용군단의 알을 타락에서 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쓰랄은 그 계시를 알렉스트라자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알렉스트라자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였다. 크라서스의 고귀한 희생에 감명을 받은 그녀는 싸울 의지를 되찾았다.

쓰랄과 함께, 알렉스트라자는 용들을 모아 고룡쉼터 사원으로 나섰다. 만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고귀한 용군단이 대의를 위해 단결했다. 데스윙의 군대에게서 고룡쉼터 사

원을 되찾기 위한 전투는 길고도 잔혹했지만 단결한 용군단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그들은 고통십터 사원을 어렵지 않게 되찾았다.

056.png

만 년 만에 다시 모인 다섯 용군단

용의 위상들은 데스윙과 황혼의 망치단의 잔당을 쫓아 싸우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먼저 부서진 세계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하이잘 정상에 모여서 세계수 놀드랏실에 의식을 수행했다. 놀드랏실은 회복 중이었으나 회복세가 빠르지 않았다. 용의 위상들은 자신들의 힘을 주입하여 놀드랏실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주고자 했다. 놀드랏실의 뿌리가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면 아제로스도 힘을 얻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데스윙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서 라그나로스의 정령들을 다시 하이잘 산에 내보냈다. 불의 땅에서 다시 균열이 생겨났고 잿불과 연기의 군대가 숲에 쏟아져 들어왔다.

아제로스의 영웅들이 휘몰아치는 불길을 저지하는 동안 데스윙은 쓰랄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는 단 한 명의 오크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자는 달랐다. 쓰랄의 수완으로 고귀한 용의 위상들이 단결했고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오크는 정령과의 결속을 통해서 대지, 즉 데스윙 자신의 영지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데스윙은 쓰랄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꺼냈다. 바로 화염의 드루이드였다. 세나리온 의회의 불명예스러운 옛 지도자 판드랄 스태그헬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수개월 전 판드랄은 에메랄드 악몽과 거래한 대가로 지하굴에 갇혔다. 그러나 대격변이 벌어졌을 때 황혼의 망치단 대리인들이 그를 도와 탈출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데스윙에게 충성하면 아들 발스탄 스태그헬름의 죽음에 대해 세상에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판드랄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판드랄은 동의했다. 그러자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가 직접 판드랄을 불길 속에서 다시 만들어냈다. 판드랄은 모습이 바뀌었고 불의 정령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는 라그나로스의 심복이자 첫 번째 화염의 드루이드가 되었다.

057.png

재활용(?) 당하는 판드랄

판드랄은 다른 이들, 주로 세나리온 의회에 환멸을 느낀 드루이드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었다. 새로운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그 드루이드들은 불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판드랄과 그의 드루이드들은 하이잘 정상 인근에서 쓰랄을 습격했다. 그리고 쓰랄의 주술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의 영혼을 조각낸 다음 정령계로 던져버렸다. 분리된 각각의 정수는 의심, 욕망, 인내, 분노 등 쓰랄의 원초적인 감정을 체화한 것이었다.

많은 동료들은 쓰랄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그라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쓰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그라는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에게 쓰랄의 분리된 영혼을 찾아달라고 설득했다. 그녀의 부탁대로 두 진영의 영웅들은 쓰랄의 분리된 4개의 영혼을 각각의 정령계 차원인 하늘담, 심원의 영지, 불의 땅, 심연의 구렁에서 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쓰랄은 정령과의 친화력이 강화되어 주술사로서의 능력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058.png

업그레이드 쓰랄! 그리고 그 힘으로 아그라에게 청혼...

한편 말퓨리온은 하이잘의 수호자들을 규합하여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에게 대규모 반격을 시행했다. 그들은 불의 땅으로 라그나로스의 군대를 돌려보냈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말퓨리온은 라그나로스가 살아 있는 한 언젠가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이잘을 그의 불길에서 보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세나리온 의회는 불의 땅을 공격하여 녹아내린 전초지라고 알려진 요새를 구축했다. 하이잘의 수호자들은 불의 정령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버텼다. 곧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지원군이 세나리온 의회를 찾았다. 서서히, 그들은 불의 땅 깊은 곳까지 나아갔고 마침내 라그나로스의 이글거리는 성채, 설퍼론 요새에 도착했다.

스스로 필멸의 존재들이 미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던 라그나로스는 자신의 영지에서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바람의 군주 알아키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알아키르와 마찬가지로, 라그나로스는 아제로스 영웅들의 맹공에 쓰러지고 말았다. 판드랄과 화염의 드루이드 거의 대부분을 포함한 그의 강력한 부하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불의 군주가 쓰러지면서 하이잘은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에서 벗어났다.

059.png

바람 잘 날 없는 하이잘

하이잘에 다시 평화가 돌아온 후, 용의 위상들은 마침내 원래의 임무로 돌아갔다. 그들은 놀드랏실 아래에 모여 세계수에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즉시 효과가 나타났다. 놀드랏실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가지마다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 푸릇푸릇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뿌리는 세계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놀드랏실의 생명 에너지가 주위 숲에 흘러내렸다. 산 여기저기에 불타버린 나무들 사이로 어린 나무들이 잣더미를 뚫고 솟아나 새잎을 피워냈다.

용의 위상들은 그 결과에 만족했으나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들은 놀드랏실에 남아서 어떻게 데스윙을 쓰러뜨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의논했다. 데스윙은 오래전 그림 바톨에서 싸웠던 그 존재가 아니었다. 지금 그의 피에는 공허 마력이 흘렀으며 거의 무적이라 할 만큼 강력했다. 용의 위상들은 그를 무찌르기 위해 데스윙을 돌려놓아야 했다. 그의 정수를 하나하나 파괴해야 했다.

칼렉고스가 방법을 고안했다. 용의 위상들이 마력을 합치고 모종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증폭시킨다면 가능했다. 칼렉고스는 그 목적에 적합한 유물을 알고 있었다. 위상의 에너지를 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유물, <드래곤 소울>이었다. 오래전, 그들은 드래곤 소울에 마력을 주입했다. 어떤 용이든지 그것을 만지면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용들은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그러나 칼렉고스는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쓰랄이었다. 쓰랄은 용이 아니었기에 유물의 마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쓰랄은 그 유물에 대지의 정수를 주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데스윙은 유물의 마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드래곤 소울은 파괴되어 이제 없었지만 칼렉고스는 시간의 위상 노즈도르무의 힘으로 과거에서 그것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060.png

역시 게임은 템빨이지

다른 위상들은 그 의견을 경계했다. 드래곤 소울은 위험한 물건이었다. 게다가 노즈도르무에게 있어 '시간에 개입하여 드래곤 소울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스르는 행동이었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해도, 그의 임무는 성스러운 시간의 길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즈도르무는 깊은 고심 끝에 과거로 떠나는 것만이 황혼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아제로스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노즈도르무는 시간의 길에서 무한의 용군단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유물을 찾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무르도즈노와 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노즈도르무는 강력했지만 자기 자신의 뒤뜰린 미래의 모습에 맞설 수 있을지 두려움을 느꼈다. 노즈도르무는 호드의 용사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그들도 드래곤 소울이 데스윙을 처치할 수 있는 답이라고 믿었다. 용사들은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노즈도르무와 함께 시간의 길에 나섰다.

그들은 시간의 길 속 어느 황량한 자락에 뛰어들었다. 무르도즈노와 무한의 용군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을 뒤틀어버린 미래였다. 노즈도르무는 필멸자 동료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용기에 기운을 얻고서 호드의 용사들과 함께 자신의 사악한 그림자, 무르도즈노를 쓰러뜨렸다.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노즈도르무는 자신이 언젠가 타락하여 무르도즈노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노즈도르무는 그 끔찍한 운명이 실현되면 영웅들이 나서서 자신을 쓰러뜨리고 시간의 길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였다.

061.png

언젠가 맞이할 자신의 미래

시간이 길에서 무한의 용군단의 영향을 제거한 다음 노즈도르무는 불타는 군단이 아제로스를 처음 침공했던 시기, 즉 고대의 전쟁으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그 시간으로 여행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필수적인 일이었다. 용의 위상들에게 필요한 드래곤 소울은 데스윙의 손에서 만들어 지고, 그에게 설득된 옛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주입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것이어야 했다.

이번에는 얼라이언스의 영웅들이 도전에 응하고 나섰다. 그들은 노즈도르무와 함께 과거의 부서진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지옥 불길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곳곳에 시체가 나뒹구는 전장에 악마들이 바글거렸다. 얼라이언스의 영웅들은 전쟁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노즈도르무를 도와 드래곤 소울을 구한 다음 현재로 돌아왔다.

용의 위상들은 우선 그들의 결합된 마력과 쓰랄의 주술 마력을 드래곤 소울에 주입하기 위해 고룡쉽터 사원으로 향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은 적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제로스 곳곳에서 활동하던 데스윙의 부하들은 그들이 과거에서 드래곤 소울을 가져왔다는 사실과 그 유물에 마력을 주입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아냈다.

적들의 성공은 데스윙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했다. 데스윙은 고룡쉽터 사원에 자신의 남은 모든 전력을 끌어모았다. 지금껏 거느렸던 어떤 병력보다도 거대한 황혼의 용과 이교도의 군대가 고룡쉽터 사원에 결집했다.

062.png

저것들이 또 치사하게 핵 쏘려고...!

데스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하수인들은 땅과 하늘에서 고룡쉽터 사원을 에워쌌다. 고대 신 느조스도 전투를 거들 부하들을 보냈다. 느조스의 명령에 따라 느라키, 즉 '얼굴 없는 자'

라고 불리는 악몽 같은 생명체들이 때를 맞추어 고룡십터 사원에 도착했다.

그 적들과 싸운 것은 고귀한 용의 위상,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용사들만이 아니었다. 붉은용군단, 푸른용군단, 녹색용군단, 청동용군단의 용들이 고룡십터 사원에 모여 그곳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용들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펼쳐지자 날개 달린 거대한 형체들이 태양을 가렸다. 그들이 싸움은 어느 전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관을 연출했다.

063.png

고룡십터 사원에서 펼쳐진 총력전

양쪽에서 끔찍한 피해가 났다. 황혼의 아버지 등 수백에 달하는 이교도와 황혼의 용들이 생명을 잃었다. 사원의 수호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수가 쓰러졌다. 그러나 붉은용과 푸른용, 청동용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용의 위상과 동료들은 데스윙에게 분노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막대한 힘을 가진 데스윙도 단결한 적을 꺾을 수 없었고 그들이 용의 영혼을 강화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쓰랄과 용의 위상들은 데스윙에게 드래곤 소울을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고룡십터 사원에서 몰아냈다.

064.png

데스윙에게 치명타를 가한 쓰랄

데스윙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분노에 휩싸인 채 혼돈의 소용돌이로 날아갔다. 휘몰아치는

바다의 심연을 지나 자신의 등지인 심원의 영지로 내려갈 생각이었다. 용의 위상들을 피해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령계에 몸을 숨기는 것뿐이었다.

고룡십터의 수호자들은 데스윙을 뒤쫓으며 하늘에서 서서히 그의 힘을 뺏다. 고대신 느조스는 자신의 하수인이 패배의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전세를 뒤집을 최후의 절박한 시도를 감행했다. 느조스는 데스윙에게 자신의 마력을 추가로 주입했다. 그전까지 주었던 것보다도 훨씬 큰 힘이었다. 너무도 강력한 에너지의 유입에 데스윙의 불안정한 육체는 뒤틀리기 시작했고 찢긴 가죽 사이에서는 용암의 촉수가 자라났다.

쓰랄은 흥측하게 변한 그 괴수에게 한 번 더 드래곤 소울을 사용했다. 용의 위상들은 데스윙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여 남은 모든 힘을 드래곤 소울에 불어넣었다. 위상의 정수에 쓰랄이 엮어 넣은 대지의 정수가 결합된 무기가 데스윙의 몸을 불살랐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데스윙의 육신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황혼의 시간을 인도하려던 느조스의 전쟁도 막을 내렸다.

065.png

마무리를 가하는 쓰랄

아제로스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영원히 모습이 바뀌었다. 대격변은 세계를 바꾸어 놓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아제로스의 국가들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

용의 위상들은 드래곤 소울을 다시 과거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앞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여하겠지만 이번 일로 마력을 잃은 상황에서 더는 아제로스의 수호자로 활약할 수 없

었다. 용의 위상들은 그 신성한 의무를 새로운 수호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의무는 필멸자들에게 돌아갔다.

용의 위상과 티리스팔 수호자의 시대가 저물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자신들이 아제로스를 위협하는 어떤 힘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세계를 수호하는 일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를 집어삼킨 증오의 순환은 아직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데스윙을 무찌른 사건은 두 진영이 자신들의 전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없었다.

대격변 이후 재건되는 스톨윈드의 건물들

한편 대격변으로 아제로스의 세계는 생각지 못한 큰 변화를 한 가지 더 맞이한다. 1만 년 전, 세계의 분리 당시 하나였던 땅에서 떨어져 나온 4개의 대륙 중 하나, 남쪽의 <판다리아> 대륙이 안개를 걷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랜 시간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곳은 나머지 세 대륙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와우 스토리 11부 : 판다리아의 안개

29년 (소설 : 전쟁의 물결)

데스윙의 위협이 끝난 후 푸른용들은 아티팩트 <집중의 눈동자>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집중의 눈동자는 푸른용군단이 오랜 시간 간직해온 강력한 마법 유물이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비전 마력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비전 명령을 큰 수준으로 증폭하고 손쉽게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물건이었다.

말리고스는 아제로스의 마력의 흐름을 뒤트는데 이 아티팩트를 이용했다. 말리고스가 죽은 후

로는 황혼의 망치단의 손에 들어가 그들에게 악용되었다. 다행히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유물을 되찾아 데스윙과의 싸움에 이 유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지만 언제든 다시 악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이었다.

논의 끝에 푸른용들은 노스랜드 서쪽 끝의 북풍의 땅에 집종의 눈동자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호드 대족장 가로쉬 헬스크림은 아티팩트를 호위하던 다섯 명의 푸른용들을 죽이고 유물을 훔쳐냈다. 그 행위는 은밀히 진행되었기에 누구도 가로쉬가 그것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칼렉고스는 즉시 집종의 눈동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002.png

사라진 유물 <집종의 눈동자>

얼마 후 호드가 칼림도어에 위치한 얼라이언스 전략 거점인 <북부 감시 요새>를 점령했다. 얼라이언스와의 전면전을 우려한 볼진, 바인은 반대했으나 가로쉬는 막무가내로 징집령을 내렸다. 그는 주술사들로 용암거인을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소환하여 얼라이언스군을 쓸어버렸다. 이러한 무리한 방식은 날뛰는 불의 정령을 제압해야 했던 호드에게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처럼 계속되는 가로쉬의 거친 방식에 분통을 터뜨리던 타우렌 족장 바인 블러드후프는 제이나에게 곧 테라모어에도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제이나는 즉시 바리안 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바리안은 얼라이언스의 최정예인 7군단을 테라모어에 파견했다.

왜인지 그동안 가로쉬의 호드 군대는 테라모어를 즉시 공격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다. 그 사이 테라모어에는 스톰윈드와 나이트 엘프, 그리고 킬린 토의 지원군까지 도착했다. 스톰윈드 수비대장 마커스 조나단을 위시한 최고의 지휘관들 또한 테라모어에 모였다. 이렇게 얼라이언스의 전력이 대거 모이자, 그때서야 가로쉬는 공격을 시작했다.

002_2.png

테라모어 공격을 이끄는 가로쉬 헬스크림

이때 키린 토 소속의 블러드엘프 마법사 '탈렌 송위버'가 테라모어에 설치된 마법방어진을 허술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실 가로쉬의 개인 첩자였다. 이 때문에 테라모어는 함락 직전까지 몰렸으나 왜인지 호드군은 어느 순간부터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호드는 인질로 잡혀있던 송위버를 구출함과 동시에 테라모어의 그리핀 조련사들과 그리핀을 전멸시켰다. 얼라이언스는 호드가 송위버 구출을 목적으로 둔 것이라 생각하고 베리사(윈드러너 자매 막내)를 통해 그를 뒤쫓았다. 얼라이언스는 내뺄는 호드군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얼라이언스의 착각이었다.

곧 테라모어에 하나의 빛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테라모어에 모인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그것은 얼라이언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이었다.

003.png

※ 과장된 이미지입니다(...)

테라모어를 초토화시킨 것은 가로쉬가 집중의 눈동자를 이용해 만든 일종의 비전 마력 폭탄이었다. 가로쉬는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얼라이언스 전력이 모이도록 시간을 끌고 그리핀과 같은 비행 전력을 선택적으로 제거했다.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났다. 그의 폭탄은 하

나의 도시 국가를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일거에 몰살했다. 이 사건으로 달라란의 수장 로닌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얼라이언스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다.

제이나는 광기에 사로잡혔다. 금발로 빛나던 그녀의 머릿결은 새하얗게 변했다. 눈빛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의 제자들은 모두 죽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성을 잃은 제이나는 테라모어에 남은 호드 병사들을 즉시 살해하고 남겨진 집중의 눈동자를 회수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다. 똑같은 복수. 그녀는 더 이상 평화의 인도자가 아니었다.

004.png

이성을 잃은 제이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바리안은 즉시 얼라이언스 대표를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잠시 피해를 정비한 뒤 전략을 다시 짜서 호드를 상대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으나 제이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당장 쳐들어가 적들을 죽여야 했다. 그녀는 바리안에게 겁쟁이라 쏘아붙인 뒤 회담장을 빠져나왔다. 안두인은 이와중에도 '호드 중에도 이번 공격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온건론을 펼쳤지만 제이나는 그를 도리어 안쓰럽게 여겼다. 필시 어린 안두인이 저렇게 된 것은 평소 멍청하게 평화만 강조하던 자신의 영향 때문이리라.

제이나는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먼저 톱니항 아래의 해적섬을 점령하여 해적들을 몰살했다. 그리고 그곳의 대량의 물정령을 이용해 오그리마를 해일로 쓸어버리려 들었다. 그러나 쓰랄과 칼렉고스에 의해 저지당했다. 제이나는 쓰랄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테라모어의 일은 손놓고 있었으면서 오그리마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드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쓰랄을 죽이려 들었고, 이 일로 쓰랄과의 사이도 크게 틀어지고 만다.

그동안 바리안이 지휘하는 얼라이언스 군대는 가로쉬가 소환한 크라켄 때문에 몰살 직전까지

가게 된다. 이때 바리안은 죽을 뻔했지만 칼렉고스를 데리고 온 제이나가 마법으로 크라켄을 죽이면서 다행히 살아남았다. 이후 바리안과 잔여 얼라이언스 군은 칼렉고스의 도움을 받아 북부 감시 요새를 재탈환했다. 바리안은 자신을 도와준 칼렉고스와 제이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그 사이 마음을 좀 진정시킨 제이나도 바리안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그리마에 하려고 했던 일이 그곳으로 향하던 얼라이언스 군대까지 몰살시킬 뻔했음을 깨닫고 냉정을 되찾았다.

005.png

되돌릴 수 없는 지난 날의 자신. 누구를 탓하랴.

이후 제이나는 로난의 유언에 따라 그의 뒤를 이어 키린 토의 수장이 되었다. 그녀는 이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호드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동안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각각 다시 올 전쟁에 대비했다. 그리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아버지의 함선이 침몰했던 지역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했다. 제이나는 고향 쿨 티라스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부르는 민요를 알고 있었다. 그 노래는 이제 제이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노랫가사를 가슴 깊이, 아주 깊이 새겼다.

조심하오, 바다의 딸을.

마지막 그 외침.

이 한마디 바람에 싯고

아비는 물속으로.

칼림도어 테라모어 해안, 뱃사람의 무덤.

제독마저 쓰러졌다네. 딸아이 떠난 탓에.

어이하여, 바다의 딸이여.

어이 잊었나, 고향의 바다.

항상 우리나라의 자랑

어이 변하였나.

바다 건너 도망친 딸을 제독 뒤따랐네.

달 올리고 기도했다네. 딸아이, 무사하길.

먼 바닷 끝, 그를 맞은 건 야만의 파도.

온 몸으로 맞섰지만, 그 딸 외면했네.

혈육의 배신 속에 가라앉으며

백성에게 목 놓아 외쳤네.

조심하오, 바다의 딸.

바다 건너 예전 그 목소리 내게 경고하네.

조심하오, 바다의 딸을.

조심하오.

나를...

006.png

30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였던 아제로스 대륙 남쪽에 모구와 판다렌을 비롯한 많은 종족들이 살았다. 당시 티탄이 창조한 수호자들은 아만툼이 아제로스의 표면에서 뜯어내어 조각낸 고대신 이샤라즈의 심장을 남쪽 깊은 곳에 <이샤라즈의 금고>를 만들어 가둔 다음 모구들에

게 감시하게 했다.

007.png

아제로스 행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바로 그놈

이후 모구 종족을 통합하고 일대를 지배한 천둥왕은 타 종족을 억압하며 폭정을 펼쳤다. 참다 못한 판다렌들은 혁명을 일으켜 천둥왕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판다리아 제국>을 건설했다. 한 동안 판다렌들은 위대한 판다렌 강의 가르침대로 평화롭게 타 종족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번성했다.

그리고 한참 후 고대 전쟁에 의해 <세계의 분리>가 일어나기 직전, 파국을 예견한 판다리아 제국의 황제 샤오하오는 판다리아를 구제할 작업에 미리 착수했다. 그는 샤라고 알려진 이사 라즈의 부정한 일곱 영을 가두고 그것을 지킬 정예 조직 <음영파>를 창설했다. 그리고 위대한 야생신 옥룡 위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영혼을 체화하여 판다리아를 안개로 뒤덮었다.

008.png

많은 역사를 가진 대륙 판다리아

그렇게 수천 년 간 판다리아는 다른 대륙의 눈으로부터 감춰진 채 단절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판다렌들은 결국 자신들 대륙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모험을 열망했고, 그 열망이 모인 곳이 거대 거북 쉰 수의 등에 만들어진 움직이는 섬 <유랑도>였다.

009.png

움직이는 거북이 섬 <유랑도>

긴 시간이 흐른 후, 대격변이 일어났다. 만 년 간 판다리아를 둘러쥔 안개는 그 여파로 사라졌다. 그 순간에도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여전히 격렬하게 싸웠다. 그 와중에 스톨윈드의 왕자 안두인과 테일러 제독이 타고 있던 왕실 사절단 함대가 남쪽 바다에서 호드 함대에 의해 궤멸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섬으로 흘러들어갔다. 그곳이 바로 판다리아 대륙이었다. 바리안은 아들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그 미지의 섬으로 병력을 파견했다. 가로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호드 장군 나즈그림을 판다리아로 보냈다. 가로쉬는 그 미지의 대륙을 차지하기를 바랐다.

010.png

011.png

해상전 도중 판다리아로 흘러들어간 호드와 얼라이언스

그 시각, 유랑도는 점차 혼돈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싸움으로 추락한 비행선이 유랑도를 떠받치는 거대 거북 센진 수의 몸에 박혀 고통으로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유랑도에는 <후오진>과 <투슈이> 두 문파로 나뉜 판다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후오진 문파의 수장 지 파이어포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랑도를 찾아온 호드와 함께 비행선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투슈이 문파의 수장 아이사 클라우드싱어는 그 행위로 센진 수가 더 크게 상처 입고 고통받을까 걱정하며 반대했다. 지 파이어포우는 끝내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비행선은 제거되었고, 센진 수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이후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도움으로 판다렌들은 센진 수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성공한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유랑도의 판다렌들은 자신들의 본래 기질대로,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각 얼라이언스와 호드에 가입했다. 지의 <후오진 판다렌>은 호드로, 아이사의 <투슈이 판다렌>은 얼라이언스로. 이로써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자신의 동맹 종족을 하나씩 늘렸다. 그들은 대부분 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맨몸 전투에 특화된 수도사들이었다.

012.png

호드와 얼라이언스에 각각 합류한 판다렌 문파들

그즈음 판다리아 대륙에 들어온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격해지면서 봉인되었던 '샤'가 다시 힘을 얻게 된다. 봉인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음영파의 수장 타란 주는 호드와 얼라이언스를 경계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샤를 물리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본거지인 수도원이 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일부 모험가들의 도움을 얻고는 이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랑도 출신으로 아제로스를 여행해왔던 방랑자 첸 스톰스타우트 역시 판다리아 대륙으로 돌아와 모험가들과 함께 음영파를 도왔다. 또한 검은 왕자 래시온도 전력을 보탬다. 이후 모험가들은 판다렌의 역사가인 전승지기 초와 함께 모구산 금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사마귀족을 상대하며 샤의 부정한 영들을 해치웠다.

013.png

미지의 대륙에서 만난 세 명의 판다렌 영웅들

모험가들은 가로쉬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트롤 족장 불진을 암살하려 하자 그의 시도를 차단하고 불진을 구해내기도 했다. 불진은 음영파 수도원에서 한동안 첸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가로쉬를 따르지 않기로 하고 자신을 죽은 걸로 위장했다. 그는 무언가 뜻을 품고 있었다.

사실 호드에서 가로쉬에게 불만을 가진 것은 불진 뿐만이 아니었다. 블러드 엘프의 수장 로르테마르 테론 역시 가로쉬의 폭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은밀히 바리안과 협상하여 얼라이언스로 전향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뜻밖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테라모어의 몰락 당시 블러드 엘프 '탈렌 송위버'는 가로쉬의 개인 첩자로 활동하여 동족을 배신했다. 송위버는 달라란 내부의 블러드 엘프 세력인 <선리버>의 일원이었다. 선리버의 수장 에이타스는 이것이 송위버 개인의 배신이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키린 토의 수장이 된 제이나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달라란에서 아예 블러드 엘프 세력을 모조리 숙청해버렸다. 남은 선리버의 블러드 엘프들은 탈출해 호드로 도망쳤고, 이후 달라란은 중립에서 벗어나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테론은 제이나에게 분개했다.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려 했건만, 그녀가 블러드 엘프들을 마구 죽이는 바람에 테론은 자신의 계획을 접었다. 얼라이언스 역시 가로쉬가 안두인에게 죽을지도 모를 정도의 큰 부상을 입히자 더욱 분노하며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지웠다.

014.png

캘타스의 죽음 이후 블러드 엘프를 이끄는 테론

이렇게 호드와 얼라이언스가 더욱 격화되어 싸우고 있을 때, 과거 모구와 동맹을 맺었던 잔달라 트롤 부족은 레이 선의 유물과 시체를 찾아내 그를 부활시켰다. 다시 깨어난 천둥왕은 모구와 잔달라 트롤을 지휘하여 다시 판다리아를, 나아가 아제로스를 지배할 생각을 품었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여전히 서로 전쟁만 벌이고 있었다. 이때 그동안 전장 일선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테론이 직접 선리버와 자신의 블러드 엘프 군대를 이끌고 판다리아에 도착했다. 이들은 음영파와 함께 천둥왕에게 맞섰고, 뒤이어 얼라이언스도 막 합류한 제이나의 킬린 토 돌격대를 위시하여 음영파와 함께 싸웠다. 그 와중에도 양측은 당장이라도 서로 싸울 기세였다. 음영파의 수장 타란 주가 가까스로 말리는데 성공했지만 제이나는 가로쉬만큼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고 일갈했고, 뜻밖에 테론이 여기에 동의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은 일단 다시 진전된다.

이러한 난관을 거쳐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공격대는 마침내 천둥의 왕좌를 공격하여 잔달라와 모구를 모두 해치우고 천둥왕까지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래시온은 천둥왕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가 오래전 훔쳤던 티탄 수호자 '라덴의 심장'을 추출했다. 이제 천둥왕은 다시는 부활할 수 없었다.

015.png

아제로스를 너무 만만히 봤던 레이 선

그동안 상처를 회복한 불진은 메아리 섬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바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가로쉬가 지배하는 호드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 불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불진 충성주의자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불진님이 살아계신다! 전 대족장이었던 쓰랄과 첸 스톰스타우트도 합류했다. 이들은 듀로타에 오그리마를 건설했던 개국공신들이었다. 곧 바인 블러드후프와 실바나스, 그리고 로르테마르 테론까지 동참하면서 가로쉬는 위기에 몰린다. 그들은 가로쉬의 병참기지를 공격하여 오그리마 근처의 세력권을 장악했다. 이는 가로쉬에게 엄청난 타격이었

다.

016.png

가로쉬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난 불진

그러나 가로쉬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고블린들을 이용해 판다리아 대륙 가장 깊은 곳에 감춰졌던 고대의 힘을 꺼냈다. 그것은 고대신 <이샤라즈의 심장>이었다.

017.png

영원꽃 골짜기 지하에 봉인되었던 이샤라즈의 심장

해방된 이샤라즈 심장의 끔찍한 힘은 영원꽃 골짜기 일대를 순식간에 황폐화시켰다. 가로쉬는 심장을 회수하여 오그리마 지하 내부 성소에 안치했다. 이 과정에서 가로쉬 측은 고블린들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들마저 적으로 돌린다. 가로쉬는 어느새 호드와 얼라이언스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가로쉬는 교만했다. 그는 호드만이 아제로스의 패권을 거머쥔 존재이며, 그 중심엔 오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그러한 교만함은 판다리아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7번째 영, '교만의 샤'가 깃들기에 더없이 좋은 대상이었다. 수천 년 전 판다리아의 부정한 영들을 굴복시킨 샤오하오 황제도 교만의 샤 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다. 최근 아제로스의 모험가들이 상대했던 샤도 기존의 6개의 영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판다리아의 안개에서 가리키는 '안개' 역시 교

만의 샤를 뜻했다. 모험가들은 이제부터 그 마지막 영의 상징이 된 가로쉬를 상대해야 했다. 곧, 오그리마에서 폭군 가로쉬의 포악한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성전이 전면적으로 벌어졌다.

018.png

최후의 오그리마 공성전

가로쉬는 급기야 이샤라즈의 심장을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쓰랄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가로쉬는 미리 근처의 정령들을 봉인시켜 쓰랄의 힘을 차단했다. 놀랍게도 가로쉬는 고대신의 힘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샤의 힘을 통제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말코록을 비롯한 휘하 부하들에게도 이샤라즈의 힘을 부여하여 강화시키고 분별없이 힘을 다루는 등 경악할 만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아제로스에서 그 어떤 필멸자보다도 강했다.

019.png

고대신의 힘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가로쉬

그러나 완전체가 아닌 고대신 심장의 힘은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샤라즈의 심장은 가로쉬가 너무 힘을 짜낸 끝에 말라비틀어졌고, 덕분에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가로쉬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불진은 호드가 다시 지혜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며 쓰랄에게 대족장의 자리로 돌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쓰랄은 거절했다. 그는 안목이 너무나 부족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지도자를 추대했다. 그것은 바로 불진이었다. 호드의 개국공신 중 하나인 불진은 이번 사태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여 가로쉬에게 맞서고 호드를 다시 하나로 이끌었다. 덕분에 호드는 명예를 다시 지켜낼 수 있었다. 바인과 테론, 실바나스, 갠리웍스도 동의했다. 그는 자격이 충분했다.

020.png

6대 호드 대족장, 불진

쓰랄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로쉬를 처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바리안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제로스 모두의 공적이 된 가로쉬를 처단할 권리는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 곧 가로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021.png

022.png

31년

기실, 이 상황까지 온 것은 가로쉬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한때 가로쉬는 쓰랄의 아래에서 내면의 지해를 다져갔다. 본래 가로쉬의 성질을 억누르고 그의 장점을 살리려던 것이 쓰랄이 지향했던 바였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었다.

023.png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나 무릇 지도자란 주변의 십상시를 쳐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했다. 설령 그런 자가 주변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독심을 가졌어야 했다. 가로쉬는 아직 그런 지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의 곁에는 치명적인 사기를 품은 간신배가 있었다. 전직 기무사 비밀경찰 말코록이었다.

본래 렌드 블랙핸드 휘하의 비밀경찰 수장이었던 말코록은 렌드 블랙핸드 사후 검은바위 부족의 대표를 맡아왔다. 그의 성향은 한마디로 '정치군인'이었다. 온갖 야청과 모함, 음모, 이간질

에 통달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온 말코룩은 가로쉬가 호드 대족장 대리를 맡은 후 그의 조언가로 활동하며 가로쉬의 폭력적인 본성을 부추겼다. 집중의 눈동자를 이용해 테라모어를 소멸시킬 계획을 짰 것도 말코룩이었고, 불진과 바인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가로쉬에게 바람을 넣어 그들을 죽일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말코룩이었다. 그는 가로쉬와 함께 이 사태를 만든 최대의 주범 중 한 명이 분명했다. 다만 가로쉬에 대한 충심만큼은 진심이어서, 그는 오그리마 지하 요새에서 주군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다 최후를 맞이했다.

024.png

가로쉬의 최측근이었던 말코룩

물론 가로쉬가 온전히 말코룩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이 나타난 것일 뿐, 최대의 책임은 여전히 가로쉬에게 있었다. 가로쉬에게 남편 로난을 잃은 베리사는 재판이고 뭐고 분노에 차 그의 독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안두인의 저지로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안두인은 대화를 통해 가로쉬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창살 사이로 수많은 문답이 오가며 두 남자는 서로의 신념을 교환했다. 백성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아서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호드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했던 가로쉬에 대한 성찰도 있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최후 변론장에서 가로쉬는 안두인 덕택에 다리의 사슬을 풀고 전사답게 서있을 수 있었다며 모두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진심을 말하겠다고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진술은 안두인을 완전히 좌절시켰다. 그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 맞아! 나는 얼라이언스의 무릎을 꿇릴 수만 있다면 테라모어 같은 도시를 수 천 개라도 파괴했을 거다! 재잘재잘 지껄이는 나이트 엘프 새끼들을 전부 사냥해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들리지 않게 만들었겠지! 능력만 된다면 모든 트롤들과 모든 타우렌들,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 모든 블러드 엘프들과 탐욕스러운 고블린들과 비틀비틀 걷는 시체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을 거다. 그리고 거의 그럴 뻔했지! 내가 저지른 포악무도한 짓들을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더 저지르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나를 괴롭히는 유일한 사실은 참된 호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기 전에 저지를 당했다는 거다!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것

도 나를 막을 수 없다!"

025.png

전혀 변하지 않은 가로쉬

가로쉬는 자신의 무죄나 감형을 바라지 않았다. 죄책감 또한 전혀 느끼지 않았다. 바인은 아버지를 죽인 가로쉬에 대한 미움을 억누르고 그의 변호를 억지로 맡고 있었으나 그 모든 노력은 헛짓이었다. 재판장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곳에 참석한 또 한 명의 남자로 인해 재판은 완전히 파토가 났다. 호드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청동용 카이로즈라는 남자 때문이었다. 그는 가로쉬를 탈출시켰다.

카이로즈는 시간의 길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필멸자 단체인 <시간여행단> 소속이었다. 그들은 무한의 용군단에 의해 틀어진 시간대를 고치는 일을 맡고 있는 만큼, 시간에 관련된 능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카이로즈는 아무도 맡으려 들지 않았던 가로쉬 측의 변호인을 자청하여 바인의 보조를 맡았다. 그리고 '시간의 환영'이라는 기술로 재판장에 모인 이들에게 과거의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CCTV 서틀 그러나 카이로즈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사실 무한의 용군단 소속이었다. 그는 가로쉬를 따르는 켈라의 용아귀 부족을 이용해 재판장을 습격하게 만든 다음, 그 틈에 시간에 균열을 내어 그곳으로 가로쉬를 빼돌렸다. 가로쉬와 카이로즈가 넘어간 곳은 약 35년 전의 평행세계, 드레노어였다.

027.png

오크가 타락하기 전의 드레노어 세계

카이로즈의 목적은 원대했다. 처음은 아제로스지만, 이후 다른 세계까지 정복하겠다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다. 그는 시간을 넘나드는 무한의 용군단답게 그 모든 가능성을 무한하게 바라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야망을 실현할 만큼 영리하진 못했다. 자신의 계획을 가로쉬에게 쉽게 드러낸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가로쉬는 오래전 굴단에게 조종당했던 아버지 처럼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없었다. 가로쉬는 자신의 계획을 웅앵웅앵 떠드는 카이로즈의 등 뒤에 주저 없이 시간의 환영의 파편을 찢러 넣어 그를 살해했다.

028.png

도구로 이용당하길 거부한 가로쉬

가로쉬가 발을 디딘 드레노어는 과거의 시간대긴 하지만 그가 본래 있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평행세계였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본래 세계의 미래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때문에 이 드레노어는 가로쉬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가로쉬의 어머니 골카가 아들을 낳기 전에 사망했다던가 하는 점이였다. 즉, 그 세계의 그롬마쉬 헬스크림에겐 아들이 없었다. 가로쉬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세계였다.

029.png

오우거와의 전쟁에서 일찍이 사망한 그롬의 아내 골카

가로쉬는 카이로즈를 찢러 죽인 시간의 환영 파편 조각을 품에 넣고 그롬마쉬를 찾아갔다. 아들 행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낯선 이방인이였다. 따라서 한 부족의 장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가로쉬는 '막로간'이라는 의식을 통해 자격을 증명했다. 막로간은 막고라와 달리 싸울 힘이 더 없을 때까지만 싸우는 결투였다. 손을 수갑에 묶은 채 4:1의 상황에서도 막로간

에서 승리한 가로쉬는 곧 젊은 그롬마쉬를 알현했다.

030.png

전성기 그롬을 만난 가로쉬

가로쉬는 시간의 환영 파편을 통해 그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다. 다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편집한 미래였다. 그 환영에서 그롬은 악마의 피를 마시고 군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크의 미래를 보았다. 그롬은 응당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얼마 후 타락한 굴단이 나타나 그롬을 필두로 한 호드를 모아놓고 만노로스의 피를 마실 것을 종용했다. 그롬은 거절했다. 그러자 만노로스가 친히 나타나 굴단의 말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곧 미리 매복해있던 가로쉬와 오크들이 나타나 공세를 펼쳤고, 그 사이 그롬마쉬는 만노로스의 머리에 도끼를 박아 넣었다.

031.png

만노로스의 조기 퇴장과 함께 바뀌는 역사

이로써 평행세계의 순수 호드 부족은 군단의 개로 전략할 운명을 벗어났다. 그들은 가로쉬가 가져온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전쟁 병기를 새롭게 개발하여 강력한 군대를 재편했다. 그들에게 '예언자'라 불리게 된 가로쉬는 이들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폐위한 아제로스에 복수를 원했다. 이른바 <강철 호드>의 탄생이었다.

와우 스토리 12부 : 드군, 군단, 격전의 아제로스 도입부

31년

강철 호드는 블랙핸드가 아닌 그롬마쉬 헬스크림이 초대 대족장이었다. 그의 전쟁노래 부족과 검은바위 부족, 어둠달 부족, 으스러진 손 부족, 피눈물 부족이 모두 강철 호드에 속했다. 그들은 굴단, 초갈, 테론고르 따위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어둠의 문을 열고 타 차원의 아제로스 <저주받은 땅>으로 진격했다.

034.png

평행세계의 아제로스로 넘어오는 갈색 피부의 오크들

아제로스인들은 즉각 반응했다. 얼라이언스 대표로 드레나이의 장군 마라아드, 호드 대표로는 대지의 위상이 된 쓰랄, 그리고 2차 대전쟁의 영웅이었던 대마법사 카드가가 강철 호드에 맞서는 선봉에 섰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강철 호드의 침략을 손쉽게 막고 어둠의 문으로 들어가 가로쉬를 쫓았다.

그 이세계에도 협력자가 있었다. 드레노어에서 태어나 나고 자란 젊은 여성 드레노어 이렐은 강철 호드에게 납치됐다가 얼라이언스 일행에게 우연히 구조된 후 그들을 도왔다. 강철 호드를 유일하게 적대하는 평행 세계의 오크 부족인 서리늑대 부족도 함께였다. 그 이세계의 듀로탄은 타 차원의 미래의 아들 쓰랄과 함께 강철 호드에 맞섰다.

035.png

다시 결성된 드레노어 원정대

그동안 아직 드레노어에 남아있던 강철 호드들은 우선 드레노어부터 평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강철 호드는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못했다. 어둠달 부족의 넬줄은 원래 이겼어야 할 카라보르 사원(검은 사원) 전투에서 드레나이들에게 패배했다. 평행 세계의 벨렌이 자신을 희생하여 사원 위에 떠있던 오염된 나루를 정화한 덕분이었다. 샤프트라스에선 마라아드가 자신을 희생하여 블랙핸드를 패배시켰다. 오그림은 그 블랙핸드에게 갑자기 항명하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카르가스와 초갈도 모험가들에게 연이어 털렸다. 그들은 타 차원의 아제로스를 넘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세계에서조차 승리 한 번 제대로 거머쥐지 못했다.

036.png

이러려고 멋지게 등장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흑수 형은 나가 있어...)

쓰랄은 나그란드에서 가로쉬를 찾아 막고라를 신청했다. 쓰랄과 가로쉬는 서로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가라다르 언덕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쳤다. 곧 가로쉬의 무기 피의 울음소리와 쓰랄의 뒤흔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격투는 가로쉬가 쓰랄을 압도했다. 가로쉬는 자신을 멋대로 대족장 자리에 앉혀놓고 떠나버렸다고 쓰랄에게 울분을 표출했다. 품만 잔뜩 잡았지 가로쉬는 사실 내심 잘못 꼬여버린 자신의 운명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좀 전까지 존나 멋진 악역이었는데 갑자기 참 찌질하게도 애처럼 징징대며 모든 것을 쓰랄 탓을 해댔다. 고집 부리다 아빠 만나더니 울음 터뜨리는 애가 된 꼴이었다.

037.png

아빠 어디 갔다 이제 와?! 다 아빠 때문이야!! 몰라몰라! ㅠㅠ

그러나 아빠(?)는 엄격했다. 아빠는 끝내 꺼내지 않으려 했던 주술 회초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천둥벼락으로 때쓰는 아들을 걷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냈다. 먹음직스러운 결말이었다.

038.png

필살! 겐! 바! 속! 촉!

처참히 패배한 강철 호드 앞에 굴단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보기 좋게 패배한 그롬마쉬를 조롱했다. 그롬은 내 병사들은 명예롭게 죽었다며 정신승리를 시전했지만 굴단은 피의 울음소리를 그의 발치에 던지며 "네 아들도 명예롭게 죽었느냐"고 조소했다. 차원을 넘나드는 상황이었기에 그롬은 가로쉬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굴단은 다시 만노로스의 피를 내밀며 악마의 힘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그롬은 끝까지 거절했지만 굴단의 지옥마법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그리고 대신 킬로그 데드아이 가 그 피를 마셨다. 킬로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자였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039.png

악마의 피를 들고 다시 나타난 굴단

이후 굴단의 배후에서 낮익은 강력한 대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뒤틀린 황천에서 다시 돌아온 아키몬드였다. 뒤틀린 황천의 악마들은 차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었기에 다시 생환한 것엔 무리가 없었다. 다만 왜인지 이번 아키몬드는 존나 허약했다. 아제로스에서 건너온 필멸자들은 킬로그와 고어핀드, 그리고 아키몬드까지 연이어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한때 아제로스인들은 만 년 간 힘을 축적한 놀드랏실을 폭발시켜 아키몬드를 간신히 추방하는데 성공했던 과거가 있었다. 상반신만 소환된 킬제덴조차 용군단과 모든 군대의 힘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강림한 아키몬드는 필멸자들이 그냥 때려잡았다. 램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보다.

039_2.png

하이잘 산에서 위습한테 쳐발린 거라는 게 사실이었구만...

이때 스러져가던 아키몬드는 마지막 발악으로 굴단을 강제로 차원문 너머 아제로스로 보냈다. 굴단과 악마들 사이의 맹약은 아직 유효했다. 카드가는 끝나지 않는 군단의 위협을 직감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동지들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그롬마쉬는 마냥 좋아하며 드레노어의 자유를 연호했다.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자들 앞에서 도대체가 한 일이 뭔가 싶을 정도로 배알 없는 행동이었다.

040.png

굴단 하나 복직시키고 용두사미로 끝난 드군 스토리

굴단이 차원문 너머로 도착한 곳은 드레노어 원정대가 본래 존재했던 세계의 아제로스였다. 굴단은 그 세계의 <부서진 섬> 해변에 떨어졌다. 그의 눈앞에, 그가 처음 보는 건축물이 보였다. <살게라스의 무덤>이었다. 굴단은 다른 굴단과 마찬가지로 그 무덤 안에 있는 힘에 매혹되었다. 성가신 맹약으로 다시 자신을 조종하려 드는 킬제덴의 속삭임도 듣기 싫었다.

그러나 굴단은 드레노어에서 겪었던 지난 일을 떠올렸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세계에서 넘어온 아제로스인들은 강철 호드 뿐만 아니라 그 강대한 아키몬드조차 쓰러뜨렸다. 아무리 강한 힘을 얻은들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의 목적은 이제 단순한 힘의 취득일 수 없었다. 고대 전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규모 군단의 침공이 필요했다.

041.png

드군은 군단 오프닝이었던가...

그리고 이제는 살게라스가 직접 나설 때였다. 살게라스의 부활은 응당한 제물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일리단의 육신으로써. 굴단은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

041_2.png

042.png

32년

굴단은 킬제덴의 명령에 따라 살게라스의 무덤에 남은 힘으로 군단이 넘어올 수 있는 차원문을 열었다.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이렇게... 곧 대규모의 악마 군단이 아제로스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군단의 새로운 지휘관 중 하나가 된 굴단은 그들 일부와 함께 곧장 부서진 섬 남쪽 끝에 있는 <감시관의 금고>를 습격했다. 그곳엔 일리단이 봉인되어 있었다. 굴단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사라졌다. 굴단은 일리단의 육신으로 살게라스의 부활을 꾀하고자 했다.

043.png

예토전생하는 일리단

감시관을 금고를 지키고 있던 마이에브 새도송은 자신의 병력만으로 군단의 대대적인 침공을 막기엔 역부족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 년 전 마이에브는 일리단과 그의 악마사냥꾼들을 함께 봉인해두었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악마를 상대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전문화된 자들이었다. 마이에브는 악마사냥꾼들의 봉인을 깨뜨렸다. 아제로스를 구하기 위해 서라면 어쩔 수 없었다.

044.png

이제 함께 악마와 맞서 싸우게 된 악마사냥꾼들

평행세계에서부터 굴단을 뒤쫓던 카드가는 그가 군단을 불러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호드와 얼라이언스에 알렸다. 카드가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옛날처럼 모두가 단결해야 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던 얼라이언스와 호드는 불타는 군단의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잠시 갈등을 접어두고 연합하여 곧바로 차원문이 열린 부서진 해변으로 진격했다.

045.png

굳단과의 격전지로 향하는 아제로스 연합

은빛 성기사단장 티리온 폴드링은 전선의 선봉에 서서 맹렬히 싸웠다. 그러나 굳단의 간악한 함정에 빠져 부상을 입은 채 지옥마력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모험가(성기사 플레이어)는 티리온을 구출하고 파멸의 인도자를 회수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파멸의 인도자를 쓰기에 알맞은 성기사의 육체를 노린 악마 발나자르에게 제압당하여 정신지배에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순간, 티리온이 굳은 의지로 정신지배를 깨뜨리고 발나자르를 격퇴했다. 그리고 플레이어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고는 파멸의 인도자를 건네준 뒤 눈을 감았다. 이로써 리치왕을 쓰러뜨렸던 위대한 영웅 티리온은 마지막까지 어둠과 싸우다 영예로운 삶을 마감했다.

046.png

한 시대를 풍미한 노장의 죽음

영웅의 안타까운 죽음은 티리온 뿐만이 아니었다. 호드의 수장 볼진 역시 전투 도중에 악마의 창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쓰랄과 바인 역시 부상 상태였다. 전세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볼진은 실바나스에게 "오늘 호드가 궤멸되어선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실바나스는 뿔피리를 불어 과감하게 퇴각 명령을 내렸다. 얼라이언스를 남겨놓고 먼저 내빼는 꼴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실바나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을 본 볼진은 실바나스가 호드를 위해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라 판단했는지 그녀에게 호드 대족장의 자리를 물려준 후 눈을 감았다.

키보드 너머의 호드 전사들은 분개했다. 자신들의 대족장을 지나가는 컷씬으로 잡몹 한 마리에 찢려 죽게 했다는 점. 트롤 부족 후계자는 제대로 지칭하지도 않은 채 뜬금포 인물을 호드 수장으로 만들었다는 점. 재생력 짱짱인 트롤답지 않은 매우 개연성 없는 죽음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라이언스가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나 이용되어 호드에 대한 몰

입은 완전히 깨지게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이제 호드 대족장은 포세이큰의 지도자 실바나스였다. 앞으로는 그녀 하기 나름이었다.

047.png

불진님.. 살아계시다.. 불진님... 살아계시다.....ㅠㅠ

남겨진 얼라이언스는 당연히 위기에 처했다. 호드가 싸우던 언덕 위의 상황을 알지 못했던 얼라이언스는 호드가 고의적으로 배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전부터 실바나스에게 아들을 잃어 원한이 깊었던 겐 그레이메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호드 놈들을 믿는 게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라이언스는 퇴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뒤늦게나마 어떻게든 비행포격선에 탑승하려 했으나 굴단은 직접 거대 악마를 소환하여 비행선을 붙잡았다. 굴단은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바리안은 비행선의 출사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먼저 탑승했던 겐이 바리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바리안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는 다 죽을 수도 있었다. 왕은 왕다워야 했다. 바리안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겐에게 대신 품에서 꺼낸 편지 한장을 쥐여주었다. 부서진 섬으로 오는 비행선 안에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아들에게 미리 써둔 편지였다. 그리고 바리안은 출사다리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얼라이언스의 퇴각을 방해하는 거대 악마의 머리에 자신의 검 살라메인을 박아 넣었다. 곧 그 거대 악마가 쓰러졌고, 덕분에 얼라이언스는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리안은 섬에 홀로 남겨졌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마들의 물결 뿐이었다.

048.png

사지에 홀로 남겨진 바리안

바리안은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의 살라메인은 다시 두 개로 갈라져 악마들의 피를 사정없이 흘뿌렸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그는 등 뒤의 창에 꿰뚫리고 무릎이 꿇린 채 굴단과 마주했다. 바리안은 마지막까지 늑대의 눈빛을 잃지 않았다. 굴단은 바리안을 지옥 마력으로 완전히 폭사시켰다.

049.png

역사에서 퇴장하는 바리안

한때 끔찍한 일을 벌였던 가로쉬도 죽었건만, 그 상처가 여물기도 전에 얼라이언스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호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대전쟁 시기부터 테라모어 사태까지 얼라이언스는 끝없는 관용을 보여왔다. 대족장이 바뀐 이후에도 호드는 길 니아스를 돌려주지 않았다. 사실 포세이큰이라고 이름만 바꾼 채 로데론을 장악한 언데드의 존재도 동부 왕국의 시민들에겐 여전히 트라우마였으며 호드에게 그 유서 깊은 지역을 내준 것도 그들 입장에서 대단한 관용이자 불안 요소였다. 게다가 부서진 해변에서의 일은 그 불신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바리안의 살라메인은 부서진 해변에 그대로 버려졌다. 한참 후 안두인은 다시 그 해변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어보았던 안두인은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은 아버지의 달리 너무도 유약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자신이 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안두인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해변에서 만난 아버지의 영혼은 그에게 답을 주었다. 왕이 해야만 하는 일. 그것만 생각하면 되었다. 생전에 바리안은 평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아들에게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그러나 안두인 역시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 평화를 지키려면, 목숨을 던져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안두인의 나이도 이제 17세였다.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아직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왕이 되어야 했다. 안두인은 아버지의 검을 집어 들었다. 유약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사자의 형상을 한 투구도 눌러썼다. 살라메인이

빛을 발했다. 이제 그가 얼라이언스의 새로운 맹주였다.

049_2.png

아버지의 검과 의지를 이어받은 안두인

부서진 해변에서의 사건으로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일시적 동맹조차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두 진영 간의 오해를 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용맹의 전당으로 향했다. 그곳에 발키르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언데드 포세이큰으로 만들고자 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포세이큰은 점점 세력이 줄어들고 있었기에 필요한 결정이었다. 얼라이언스 따위와 손잡지 않고도 전력을 늘릴 수 있으리라.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겐의 방해로 그녀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겐은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빼앗은 대가로 실바나스의 종족의 미래를 빼앗은 것에 만족해했다.

050.png

나름의 복수를 행한 겐 그레이메인

이러한 격앙된 갈등은 달라란으로도 이어졌다. 제이나가 키린 토의 수장이 된 후, 달라란은 중립성을 버리고 호드를 배척해왔다. 그러나 카드는 군단에 맞서기 위해 호드가 다시 달라란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립은 곧 의회의 투표로 이어졌다. 본래 달라란은 중대한 결정을 항상 6인의 의회의 다수결로 결정하곤 했다. 이번 안건은 카드가 승리였다. 반대표는 제이나와 또 다른 강경파 둘만이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과에 실망한 제이나는 즉시 달라란을 떠났다. 공석이 된 키린 토의 지도자 자리는 카드가 맡았다.

050_2.png

키린 토의 새 수장 카드가. 애도 꽤 늙었네...

이후 카드가는 살게라스의 무덤 내부에 있는 주 차원문을 봉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 실마리는 4년 만에 다이아몬드 상태에서 느닷없이 깨어난 전 아이언포지 국왕 마그니 브론즈 비어드가 전해주었다. 그는 아제로스 티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군단을 저지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는 다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왕좌에는 전혀 미련이 없었으며 뭔가 다른 할 일이 있는 듯했다.

050_3.png

뭔가 초월적인 느낌을 뿜는 마그니

카드가가 얻은 실마리는 한 권의 책에 있었다. 과거 그가 메디브의 제자로서 카라잔에서 지냈을 때, 도서관에서 최초의 수호자인 알로디가 저술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거기서 알로디가 악마 봉인에 일가견이 있다는 걸 떠올린 카드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알로디의 영혼을 불러내 만족할 만한 답을 들었다. 그것은 <창조의 근원>이었다. 창조주 티탄이 아제로스를 재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 유물들은 차원문을 닫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미 오래전 나이트 엘프 명가의 한 분파인 나이트본이 세계의 분리 당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었다. 이를 알아낸 카드가와 모험가들은 즉시 부서진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창조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051.png

특이하게도 창조의 근원 중에 '엘룬'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 와중에 카드가는 군단에 맞설 뜻밖의 계시를 받는다. 그 전언은 우주 너머 빛의 군대를 이끄는 최초의 나루, 제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동안 제라는 투랄리온, 알레리아 등과 함께 온갖 별에서 군단의 악마들과 싸워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한계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군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계시를 간절히 전했다. 그것은 바로 일리단이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일리단만이 군단에 맞서 이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의 용사(!)라 했다. 이제부터 아제로스인들은 그들이 때려잡았던 일리단을 다시 되살려야 했다.

052.png

일리단 짱!! 일리단이 짱이라고!! 까악 리단 옹빠!!!

카드가와 모험가들은 리단 빠순이의 말에 따라 우선 구류된 일리단의 영혼을 되찾았다. 그리고 일리단의 육신을 훔쳐 간 굴단이 있는 부서진 섬의 <밤의 요새>로 향했다. 굴단은 그동안 일리단의 육신을 이용해 살게라스를 강림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드가를 위시한 모험가들의 활약으로 결국 그 의식은 실패했고, 일리단은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 마침내 온전히 부활하게 된다. 깨어난 일리단은 즉시 굴단의 머리를 붙잡아 그를 산산조각 냈다.

053.png

살아단님이 일리나셨다!!

일리단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일행과 함께 살게라스의 무덤으로 향했다. 곧 킬제덴의 대규모 병력이 아제로스로 쳐들어 왔다. 그들은 킬제덴의 기함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 이때 공교롭게도 한 편에 서서 싸우게 된 일리단과 마이에브는 매우 오묘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055.png

점점 더 몰려드는 군단의 악마들

056.png

너네... 그런 거 좋아하니...?

아제로스의 영웅들은 무덤 안에서 오래전 티리스팔의 수호자 에이그윈이 싸웠던 '살게라스의 화신'의 몰락한 잔재를 쓰러뜨린 후, 창조의 근원을 통해 차원문들을 닫았다. 그리고 도망치는 킬제덴의 기함을 끝까지 쫓아가 기어코 그마저 패배시켰다. 킬제덴은 죽어가며 벨렌에게 자신의 마지막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는 벨렌의 신념과 해안을 부러워했었다. 그리고 살게라스를 너무도 두려워 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부질 없어진 그는 벨렌이 자신과 다른 결말을 맺길 기대하며 완전히 소멸했다. 자신의 영역에서 맞이한 죽음이라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었다. 벨렌은 직접 킬제덴의 눈을 감겨주었다.

057.png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세 남자 킬제덴, 벨렌, 아키몬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카드가는 모두와 함께 아제로스로 귀환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일리단은 오래전에 구해놓았던 살게라이트 썬기돌로 아르거스 행성을 통째로 아제로스 앞으로 끌고 들어왔다. 아제로스 상공에 아르거스로 가는 거대한 차원문이 열린 것이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일리단은 미소 지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단의 침공은 언제든 반복된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058.png

너흰 이제 준비가 됐다.

일리단과 벨렌을 위시한 영웅들은 곧 드레나이 함선 <구원호>를 타고 아르거스로 진격을 시작했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벨렌으로써는 수만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059.png

군단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아르거스 행성

벨렌의 기대와 달리, 빛의 군대의 상황은 상당히 처참했다. 그들의 전함 제네다르(Xenedar)는 산산이 부서져 아르거스 한구석에 처박혔고 그들의 주 전력인 빛벼림 드레나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제라 역시 격추된 제네다르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아제로스 일행은 먼저 투랄리온과 알레리아를 만났다.

059_2.png

오랜만에 등장한 알레리아와 투랄리온

빛의 군대의 대총독이 된 투랄리온은 천 년 동안 악마들과 싸워왔다고 했다. 뒤틀린 황천은 아제로스보다 시간이 몇십 배 빨리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투랄리온은 제라에게 축복받아 빛벼림으로 다시 태어났고 알레리아는 원래 태양샘의 축복을 받은 엘프였기에 그 오랜 세월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전력을 재정비한 후 제네다르부터 수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라를 구해냈다. 그리하여 일리단은 자신의 열렬한 빠순이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060.png

옴빠... 왔어?

제라는 마침내 만나게 된 일리단을 보고 만족스러워 하며 그에게 일찍이 계시했던 빛의 용사로서의 운명을 부과하려 했다. 일리단을 타락시켰던 지옥의 힘을 버리고 이제 빛의 힘을 받아들일 때였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일리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에 그를 타락

하게 만들었다는 지옥의 힘은 누군가가 억지로 들이민 게 아니라 일리단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였다. 그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라는 일리단을 구속하고 강제로 빛의 힘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일리단은 끝까지 거부했고, 급기야 그 반향은 제라를 폭발시켰다. 최초의 나루 제라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했다.

061.png

하여튼 꼭 팬심 운운하며 연예인들 인생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려는 애들이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투랄리온은 분노하여 일리단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반면 알레리아는 제라의 죽음보다는 일리단에 힘에 주목했다. 그녀는 실용주의자였다. 때문에 공허의 힘을 연구한 것이 제라에게 밉보여 감금형에 처해지기도 했었다. 사실 제라는 빛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위압적인 성향을 줄곧 보여왔다. 빛, 또는 선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억압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악이 될 수 있음을 제라는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

이후 알레리아는 공허의 힘에 물든 나루 르우라의 힘을 흡수하여 결국 공허의 힘을 갖게 된다. 보통의 필멸자들은 이성을 잃고 미쳐버릴 상황이었지만 알레리아는 수수께끼의 에테리얼 공간 방랑자의 조언으로 이를 이겨내고 역으로 공허의 힘을 통제할 수 있었다. 공간 방랑자는 알레리아에게 공허의 힘을 무기로 삼게 된 것을 축하하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존재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 공허의 존재면서 어떻게 공허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왜 공허의 존재들과 대립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공허의 힘을 다루는 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든 행동의 이유를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알려준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공간 방랑자(Locus-Walker)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는 것. 만약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그 즉시 수천 개의 공허의 차원문이 열려 현실을 찢어발길 것이며 그 이름을 들은 자는 미쳐버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힘이 담긴 고대의 단어', 그것이 유일한 힌트였다.

062.png

아르거스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에테리얼, 공간 방랑자

이후 아제로스 연합과 빛의 군대는 군단의 근거지인 <안토러스 - 불타는 왕좌>로 진격하여 결전을 벌였다. 그곳에서 일행은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다. 어딘가로 훌쩍 여행을 떠났던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였다. 그는 안토러스에 있는 티탄들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며 왕좌 최심부로 일행을 인도했다. 그곳에 판테온의 티탄들이 있었다.

063.png

뜻하지 않게 창조주들을 만나게 된 아제로스인들

오래전 살게라스는 판테온의 티탄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정수와 영혼을 사로잡아 고문하고 뒤틀어 타락시키려 해왔다. 티탄 아그라마르는 이미 살게라스의 수하가 되었고, 이오나는 도망쳤다. 모험가들은 아그라마르를 쓰러뜨리고 이오나와 협력해가며 불타는 왕좌 깊은 곳으로 치달았다.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르거스의 세계혼에서 태어난 뒤틀린 티탄, 사멸자 아르거스였다.

064.png

살게라스의 고문으로 뒤틀린 아르거스의 세계혼

일행은 최선을 다해 아르거스와 싸웠다. 절대적 권능을 가진 티탄이었지만, 아르거스는 수천 년 간의 착취로 아주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일전에 상대한 아그라마르 역시 살게라스가 타락시켜 부활한 영혼이었기에 필멸자들이 상대할 수 있었다. 마침내 아르거스가 쓰러지자 구속되었던 판테온 티탄들의 정수가 풀려났다. 그들은 판테온의 왕좌로 이동해 힘을 모았다. 살게라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살게라스는 아제로스의 세계혼에 달라붙어 타락을 속삭이고 있었다.

065.png

저 거대한 구름이 살게라스다.

아만툴, 이오나, 골가네스, 아그라마르, 카즈고로스 5인의 판테온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두 사용해 살게라스를 판테온의 권좌에 영원히 봉인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이 살게라스를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잠시 후 판테온들이 모든 힘을 모아 살게라스에게 보내자, 아제로스에 철썩 붙어있던 살게라스가 괴성을 지르며 뜯겨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살게라스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검 <고리발>을 아제로스의 실리더스 지역에 꽂아 넣었다. 그 여파로 아제로스는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

067.png

068.png

069.png

071.png

살게라스가 남긴 최후의 흔적

이로써 만 년 간 이어져 온 군단과의 성전은 영원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벨렌과 영웅들은 아제로스로 돌아갔다. 그러나 일리단은 판테온의 권좌에 남았다. 그는 살게라스의 봉인을 지키는 간수역을 스스로 자청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운명의 종착이었다. 끝없이 고독한 삶이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다. 일리단은 마지막으로 티란데와 말퓨리온에게 작별의 전언을 보냈다. 마이에브는...? 그의 진심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전해질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었다. 일리단은 그렇게 영원히 아제로스와 작별했다.

072.png

073.png

33년

아제로스는 군단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참혹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그 상처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얼마 전부터 아제로스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광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광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동맹 세력도 늘렸다. 투랄리온이 이끄는 빛벼림 드레나이, 알레리아가 이끄는 공허 엘프, 아버지와의 화해한 모이라가 이끄는 검은무쇠 드워프, 그리고 해상국가 쿨 티라스는 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 본래 나이트 엘프 명가의 한 분파였으나 자신들을 경멸하는 티란데에게 모욕을 받고 블러드 엘프에게 호드 가입 권유를 받은 나이트본, 바인에게 제의를 받은 높은산 타우렌, 아이트리그의 권유를 받은 평행 세계의 마그하르 오크, 쿨 티라스 못지않은 해군력을 가진 잔달라 트롤은 호드에 가입했다. 다가올 진영 간 전쟁에 대비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살게라스가 꽃아 넣은 검은색으로 인해 상처받은 대지에서 아제로스의 생혈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제로스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캐내던 광물이 바로 그 아제로스의 피, 아제라이트였다.

074.png

아제로스의 생혈을 파내왔던 호드와 얼라이언스

이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제로스의 세계혼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였다. 진영을 떠나 아제로스의 대변자가 된 마그니는 얼라이언스와 호드 모두에게 아제라이트 채취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실바나스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족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제라이트를 이용한 각종 전쟁 병기 개발을 강행했다. 안두인도 아제라이트 채취를 함께 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했다.

실바나스는 얼마 전 안두인을 믿고 포세이큰과 그들의 생전의 가족들과의 상봉 이벤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중에 안두인이 그 만남에 관한 규칙을 어기고 그와 동시에 일부 포세이큰들이 변절을 시도하자 실바나스는 그것이 포세이큰의 내부 동요를 일으키려는 얼라이언스의 간계임을 의심했다. 물론 그것은 오해였지만 안두인 역시 실바나스가 자신의 백성(변절자)들을 주저 없이 죽이는 것을 보고 그녀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처럼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호드의 새 대족장이 된 실바나스는 그 갈등을 극복할 생각이 애초에 전혀 없었다. 그녀는 사실 가로쉬의 확장 전쟁에도 그리 반대하는 자가 아니었다. 다만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그녀 역시 어찌 보면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같은 자였다. 그동안 호드와 얼라이언스 사이에 쌓인 감정은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진영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종족 간의 다양한 원한은 더욱 그랬다. 최근 나타난 광물 아제라이트 또한 미래의 갈등이었다. 따라서 어차피 언젠가는 벌어질 전쟁이라면, 냇 놓고 후세대에게 미룰 게 아니라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것이 호드의 미래를 위한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6년 전 그녀는 길니아스 침략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지역을 호드의 손아귀로 가져왔다. 그리고 대격변과 군단의 침공이 끝난 지금, 비로소 그녀가 생각한 때가 되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스톰윈드 침공, 나아가 얼라이언스의 완전한 멸망이었다.

075.png

너희는 결국 모두 죽어서 날 섬길 것이다...

다만 실바나스는 가로쉬를 경멸했었다. 그는 무모하고 저돌적이었다. 그녀는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필요한 때에 신속한 행동력을 보이는 것을 선호했다. 실바나스는 자신의 은인인 쓰랄을 존중했지만 교만한 가로쉬와는 항상 부딪혀왔다. 이제 자신의 방식을 보여줄 때였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나이트 엘프의 도시, <다르나서스>였다.

백전 노장의 호드 대군주 바르크 사울팽은 의문을 표했다. 사울팽은 전쟁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당장의 평화보다 '미래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쟁'을 도모하자는 실바나스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다르나서스를 첫 격전지로 삼은 것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라고 보기에 어려웠다. 물론 다르나서스는 호드에게 유리한 지역인 칼림도어 대륙에 있었기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반대로 언더 시티나 실버문이 동부 왕국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선불리 힘의 균형을 건드린다면 얼라이언스가 동부 왕국에서 연합하여 호드를 칠 것이고 동부 대륙의 호드 전력은 그것을 막기 어려울 게 분명했다. 그러나 실바나스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반문했다.

"그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실바나스는 얼라이언스의 분열을 노렸다. 호드가 나이트 엘프의 본거지를 기습하여 점령한다면 얼라이언스는 처음엔 당장 뭉쳐서 언더 시티나 실버문에 복수를 꾀할 것이다. 칼림도어로 넘어올 함대 전력은 부족하기에 그들은 그것을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곧 절대 좁힐 수 있는 이견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하나는 나이트 엘프가 그 '복수'에 반대하는 것. 그들은 다르나서스가 호드에게 인질로 잡혀있

는 상황에서 얼라이언스가 선불리 행동하면 다르나서스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이트 엘프들은 선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둘째는 나이트 엘프가 무리해서라도 다르나서스 수복에 총공세를 가하자고 주장하는 것. 설령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6년 간이나 설욕을 참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살아온 길니아스가 있었다. 나라를 잃고 울분을 참으며 그토록 기다리던 자들이 있는데 나이트 엘프들을 먼저 돕겠다? 그것 역시 쉽게 풀릴 갈등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길니아스 수복을 먼저 하자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르나서스가 위험할 수 있기에 나이트 엘프들은 반대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각자 다른 대응을 얼라이언스의 맹주에게 요구한다면, 스톰윈드의 애송이 왕은 정치적 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바나스의 판단이었다. 안두인은 똑똑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다. 그렇게 얼라이언스가 단합하지 못하면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로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본거지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스톰윈드를 칠 기회였다. 수많은 전쟁과 희생 없이도 호드는 승리할 수 있었다. 사울팽은 동의했다.

076.png

실바나스의 전략에 동의한 바로크 사울팽

다만 문제는 다르나서스에 있을 말퓨리온과 티란데였다. 그들은 만 년을 살아온 영웅들답게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얼라이언스에게 희망이 되는 자들이었다. 실바나스는 그 희망을 꺾고 싶었다. 그녀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웠다. 현재 오그리마에 넘치는 얼라이언스의 첩자들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얼마 후 얼라이언스 첩자들은 자신들이 알아낸 정보를 그들의 지도자에게 서둘러 전했다. 호

드가 칼림도어 남쪽, 살게라스의 검이 꽃힌 사막 실리더스로 향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곳은 아제라이트가 가득한 지역이었다. 당연히 얼라이언스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곧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티란데가 스톰윈드로 향했다. 안두인, 티란데, 겐 그레이메인, 겔빈, 벨렌 등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은 논의 끝에 실리더스에서 가장 가까운 나이트 엘프의 함대를 실리더스에 보내 호드가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기로 했다.

안두인은 실바나스가 교활한 자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명예를 아는 바르크 사울팽과 같은 자도 있었기에 조금 더 믿어보고 싶었다. 필요하다면 싸우는 것도 불사할 생각은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다. 안두인은 수십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었다. 좀 더 신중하고 싶었다.

077.png

아직 망설임을 버리지 못한 안두인

그렇게 티란데와 많은 병력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있을 때, 사단이 벌어졌다. 호드의 대규모 병력이 잣빛 골짜기를 침범했다. 사실 실리더스는 미끼였고 그들이 노린 것은 다르나서스였다. 충격에 빠진 티란데는 말을 잊지 못했다. 지금 나이트 엘프 병력이 되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을 뒤집기엔 늦은 시기였다. 무엇보다 다르나서스엔 그녀의 사랑하는 연인 말퓨리온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겐은 길길이 날뛰며 언더시티에 복수를 외쳤다. 그러나 안두인은 초조한 얼굴로 겐을 말렸다. 안두인이 판단하기에,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르나서스 정복이 아니었다. 실바나스가 고작 도시 하나 정복하자고 갑자기 힘의 균형을 깨서 자신의 도시에 재앙을 초래할 리 없었다. 상황상 나이트 엘프와 길니아스 간의 입장 차이를 노린 간계가 분명했다. 그들은 필시 얼라이언스의 분열을 노리고 있었다.

안두인의 설명을 들은 겐은 놀라워했다.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벌써 전략에 이 정도로 능통해졌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겐이 보기에, 아직 안두인은 경험이 부족한 헛똑똑이였다. 겐은 안두인에게 바보같은 소리 말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길니아스는 나이트 엘프에 대한 은혜를 기억했다. 나이트 엘프는 대격변 당시 위기에 처했던 길니아스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늑대인간의 저주에서도 구원해 주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그들의 도시에서 자신들을 보살폈다. 길니아스인들이 그걸 당장에 잊고 자신만 생각할 거라니, 실바나스의 간계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됐다. 겐은 자신의 입장을 접을 줄 아는 자였다.

078.png

항상 안두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는 겐

그 시각, 사울팽은 말퓨리온을 상대하고 있었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는 정말로 강했다. 늑은 전사 바로크는 만 년의 경험을 가진 대드루이드를 홀로 상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울팽은 영겁결에 실바나스와 싸우고 있는 말퓨리온을 뒤에서 기습하여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실바나스는 만족스러워 하며 사울팽에게 마지막 일격을 맡기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것은 막고라가 아니라 전쟁이었기에 기습이든 뭐든 무리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울팽은 자신이 무심결에 저지른 짓에 충격을 받고 말퓨리온을 죽이는 것을 망설였다. 한때 아제로스를 위해 함께 싸웠던 만 년의 영웅을 이렇게 비겁하게 죽여도 되는 것인가. 그가 그렇게 한참을 주저하고 있을 때, 티란데가 작은 포탈을 열고 나타나 말퓨리온을 구출해갔다. 그녀는 안두인이 전해준 귀환석을 가지고 있었다. 사울팽은 그렇게 다잡은 말퓨리온을 놓치고 말았다.

079.png

만 년을 함께 해온 연인을 포기할 수 없었던 티란데

실바나스는 분개했다. 명예 타령하는 늙은 오크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다. 말퓨리온을 놓친 건 중대한 실수였다. 수라장에서 살아돌아온 그 위대한 영웅은 적들에게 대단한 희망이 될 게 분명했다. 실바나스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미 이긴 전투였지만 계획에 커다란 수정이 필요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상관없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말퓨리온의 죽음을 대신할, 아주 치명적인...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실바나스는 끝내 최후의 지시를 내렸다.

"불을 놓아라."

불을 놓으라니... 어디에? 당황한 부하들에게 실바나스는 흔들림 없이 목표를 다시 짚어주었다. 그녀의 지시에 충격을 받은 부하들은 매우 망설이면서 명령을 이행했다. 그들은 곧 세계 수 텔드랏실에 불을 놓기 시작했다.

밤하늘에서 거대한 신목이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다. 나이트 엘프의 도시 다르나서스는 세계수 위에 지어진 터전이었다. 즉 텔드랏실 방화는 다르나서스의 민간인들을 몰살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곳엔 나이트 엘프 뿐만 아니라 길니아스의 인간들도 살고 있었다. 주변에 쓰러져 있던 나이트 엘프 전사들이 울부짖었다. 제발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이미 이긴 전투이지 않냐고. 모조리 죽일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나 실바나스는 명령을 거두지 않았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사울팽이 비명을 지르며 중지를 외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한 번 놓인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 불에는 지켜야 할 명예도,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태우려는 강렬한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다르나서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산 채로 불타올랐다. 하나의 종족이 거의 절멸할 정도로. 그것은 테라모어의 재앙보다 더한 끔찍한 대학살이었다.

안두인은 충격으로 몸이 차게 굳었다. 세계수가, 텔드랏실이, 마을이, 골짜기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다니. 세계수는 단순한 도시 이상이였다. 세계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나이트 엘프의 집이자 영토였다. 다르나서스 이외의 지역에 나이트 엘프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 적었다. 이제 그들이 남아 있는 나이트 엘프의 전부였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종족을 학살했다. 안두인도 실바나스가 이기적이고 교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잔혹할 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수를 파괴할 이유도 전략적인 당위성도 없었다. 얼라이언스는 오히려 더욱 단단히 뭉칠 것이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안두인은 실바나스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기회가 있었다. 안두인의 망설임은 그 기회를 거부했다. 안두인은 소매로 젖은 눈을 훔쳤다. 자신이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일로 심장이 갈가리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안두인은 의지를 다졌다. 이제 다른 길은 없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의심도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전쟁이다.